

발간등록번호

71-3830000-100017-14

박달동

박달동은 수리산·서독산을 배경으로 주거지·임야와 군용지·공업지역이 공존하며 안양 서부권의 경제·교통 중심지로 기능해왔다. 상업과 주거가 혼재하고 노후 건축물이 많지만, 광명역 접근성과 재개발 추진으로 주거지 정비와 도시환경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제12권
박달동



심판커

강남아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연세

국지과 의원

제일

남대문안경

안경

2021년

기획 방향과 구성

○ 안양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01	지리와 환경	06	산업구조와 산업생태계	11	안양동	16	호계동
02	역사와 지역사회	07	시장과 지역상권	12	박달동	17	평촌동 & 평촌신도시
03	지방자치	08	교육과 문화	13	석수동	18	안양역 & 안양1번가
04	도시의 형성과 성장	09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14	비산동	19	안양유원지 & 안양예술공원
05	건축과 주거의 변화	10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15	관양동	20	금천지

- 제01~10권은 안양시의 지리, 역사, 지방자치, 산업, 상권, 교육과 문화, 노동, 시민사회 등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 제11-19권은 안양시의 공간을 단일한 생활 공간과 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권을 구성하였다. 단일한 생활 공간은 법정동을 단위로 하였고, 다양한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자연 및 인문환경, 지역의 변화, 주민들의 생활 모습 등을 서술하였다. 상징적 공간은 안양의 전통적 도심이었던 안양역과 안양1번가, 국민관광지로 이름을 날린 안양유원지와 이후의 안양예술공원,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대상으로 하여 각 공간의 역사 및 경관 변화와 사람들의 이야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제20권은 1950년, 시흥군에서 발간된 『금천지(衿川誌)』를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금천지』는 당시 중심 지역인 안양읍을 포함한 시흥군의 사회·교육·행정·문화 등을 소개한 군지(郡誌)이다.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안양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간 비교나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 주제와 특성에 맞게 서술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각 권의 기획 취지와 해당 주제에 맞게 목차와 항목을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의 충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윤문과 첨삭을 하였다.

저작권과 출처

- 이 책의 저작권은 안양시에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한 도표와 사진 등에는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기하였다. 출처와 저작권자 표기가 없는 경우는 안양시 제작·소장 또는 집필자 제공 자료임을 밝혀둔다.
-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서 사용한 지도와 항공촬영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구글 지도·네이버 지도·카카오맵을 사용하였다.
- 이 책에 수록한 내용과 도표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별도의 저작권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contents

1 박달동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변천 / 006

제1장 박달동의 지리와 생활터전 / 008

제2장 박달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 046

2 함께 만드는 박달동 공동체 / 082

제1장 박달생활권의 중심, 안양박달종합시장 / 084

제2장 박달동 아파트에서 살기 / 106

제3장 박달우성어울림공동체의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 128

제4장 박달교회가 만든 지역공동체 / 150

제5장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지킴이 활동 / 176

3 지역개발에 대한 박달동의 기대와 한계 / 196

제1장 박달동 군용지의 조성 and 운영 / 198

제2장 박달동 군용지 이주민이 만든 삼봉마을 / 218

제3장 안양천과 박달로를 따라 형성된 박달동의 공업지역 / 240

제4장 필수산업이 된 박달동의 도축장 협신식품 / 268

4 호현마을을 기록하다 / 286

제1장 호현마을의 삶과 공간 / 288

제2장 지도와 항공사진으로 보는 호현마을의 변화 / 320

제3장 호현마을의 의례 생활 / 342

제4장 호현마을 사람들 / 368

01

박달동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변천

제1장 박달동의 지리와 생활터전

제2장 박달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제1장

박달동의 지리와 생활터전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1. 넓은 산지와 좁은 시가지의 박달동

1) 안양시의 서쪽 끝에 위치한 시가지

박달동은 안양시의 서쪽 끝에 자리하고 있는 법정동의 명칭이며, 행정동으로는 박달동과 호현동이 설치되어 있다¹. 박달동의 동쪽으로는 안양동이 마주하고, 서쪽으로는 광명시와 시흥시, 남쪽으로는 안산시, 북쪽으로는 석수동과 광명시가 각각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북쪽의 석수동과는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다. 박달동의 서쪽 끝 지점은 광명시와 경계를 이루는 서독산까지 돌출해 있다.

안양을 대표하는 수리산과 광명시에 있는 서독산 사이의 안부(鞍部)는 해발고도가 낮아 일찍부터 교통로가 발달하였으며, 현재는 고속철도(KTX)와 서해안고속도로, 그리고 안양역에서 박달동을 지나 시흥시로 이어지는 자동차도로인 박달로가 통과하는 구간이다. 이 가운데 경부고속철도는 박달동의 지하 구간을 지난다.

박달동은 수리산에서 뻗어 나온 산줄기가 남쪽에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이 주로 생활하는 시가지는 산의 북사면에서 안양천에 이르는 구간에 형성되어 있다. 북쪽의 하천과 남쪽의 산지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박달동의 시가지는 안양천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발달하였으며, 동쪽의 안양동과는 밀집주택가 사이를 통과하는 소로(小路)에 의해 경계가 구분된다. 안양동과 박달동의 경계는 수리산 자락에서 수암봉 북쪽으로 뻗은 산줄기의 능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박달동의 시가지는 안양천을 가로지르는 충훈2교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서 차이를 보인다. 충훈2교 동쪽은 대체로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인 반면, 서쪽은 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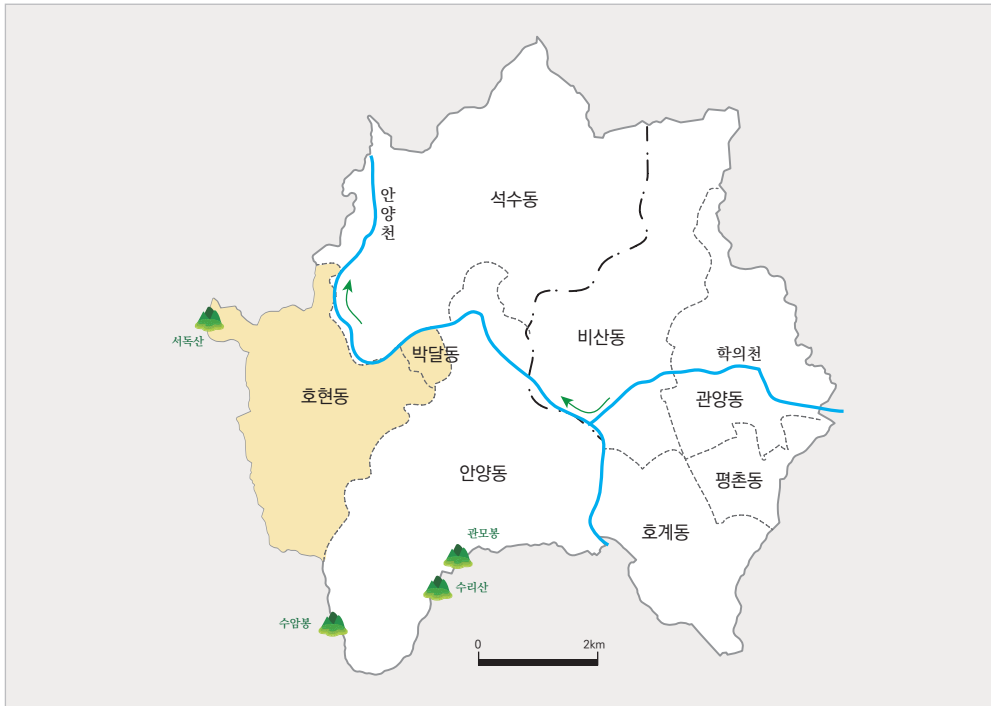
박달동



호현동



호현동



안양시의 서쪽 끝에 자리한 박달동

산 자락의 대림한숲타운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물류센터·유통단지·공장 등이 지배적이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서쪽으로는 3층 내외의 빌라로 구성된 주택단지인 친목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친목마을의 서쪽은 광명시에 접하며, 고속철도 광명역이 인접해 있다.

광명역을 중심으로 상업시설과 대단위 주거시설 등이 입지함에 따라, 광명역 근처의 시가지는 외연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 있으며, 광명역 동남쪽에 접한 박달동은 광명시와 안양시의 도시화가 진전되는 최전선에 자리한 형국이다. 특히 박달동에서 광명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인 오리로가 왕복 6~8차선 도로로 개설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양시는 물론 광명시의 시가지가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두 도시의 시가지가 이어지는 ‘연담(蓮潭)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 수리산 수암봉 사면에 발달한 시가지

수리산과 안양천 사이에 자리한 박달동은 일찍부터 수리산 북사면의 골짜기 사이에

형성된 마을에서 정착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삼봉천이 흘러내리는 골짜기에서 안양천과 합류하는 지점까지의 농경지, 안양천 남쪽으로 좁고 길게 이어진 농경지, 그리고 수리산과 서독산 사이의 안부(鞍部)에 조성된 농경지를 기반으로 여러 자연마을이 형성되었다. ‘박달리(博達里)’라는 이름은 이들 자연마을을 아우르는 총칭으로 사용되었다.

박달동에 시가지가 들어서기 전에 존재했던 자연마을은 모두 12개에 이른다고 한다. 주요 마을로는 삼봉천의 물줄기를 따라 자리한 박달리, 셋터말(新基村, 신기촌), 동수암(東秀庵), 미정리(米井里), 홧골(炬洞, 거동), 선녀골(仙女谷, 선녀곡), 웃박달리(上博達里, 상박달리)를 비롯하여, 수리산과 서독산의 사이에 위치한 범고개(虎峴洞, 호현동), 붓골(筆洞, 필동) 등이 있었다. 이들 자연마을 중 삼봉천 주변에 있던 마을들은 일제강점기에 군용지로 징발되면서 폐동되었고, 주민들은 이주하였다.

수리산은 해발고도가 높지 않지만, 흑운모호상편마암과 백운모편마암으로 구성된 비교적 단단한 암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곳곳에 규장암이 관입되어 있다. 오랜 기간의 침식·풍화작용을 거치며 대체로 토산의 형태를 띠게 되었고, 다양한 식생으로 덮여 있다. 산줄기 사이의 골짜기는 농경 활동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다.

‘견불산’으로도 불리는 수리산은 박달동과 시흥시·안산시의 경계를 이루며, 최고봉인 태을봉(489.2m)은 안양동과 군포시의 경계에 위치한다. 박달동에 걸친 산줄기는 수리산 정상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수암봉의 북쪽에 자리하므로, 이 지역의 해발고도는 정상 부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겪으면서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수평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71년부터 도시 외곽의 녹지 공간을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Green Belt)’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서울 대도시권에 속한 안양시 역시 그린벨트가 설정되었으며, 박달동에서는 해발고도 100m 이상의 수리산이 대상지로 포함되었다. 특히 박달동 수리산에는 군부대가 일찍부터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군사 시설을 제외한 산지 지역은 인간의 간섭이나 훼손이 비교적 적어 자연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수리산은 최고봉인 태을봉이 해발고도 469.3m로 주변에 비해 높지만, 정상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고도는 점차 낮아진다. 수암봉은 397.9m에 달하며, 수암봉보다 북쪽에 위치한 박달동 지역의 산지는 대부분 300m 이하이다. 수암봉에서 뻗은 산줄기는 박달동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동북쪽은 박달동과 안양동의 경계를, 서쪽은 박달동과 시흥시의 경계를 형성한다. 과거 박달동 지역의 자연마을 사이를 오가거나 박달동에서 안산·시흥 방



수리산 북사면에 형성된 박달동(1957년) 햇골·범고개·붓골 등 박달동의 옛 자연마을이 표기되어 있으며, 농경지·하천·임야·도로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면으로 이동할 때에는, 이러한 산줄기를 넘어가는 고갯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산줄기에는 호현마을과 붓골을 연결하는 박달고개, 햇골고개², 곤두레미고개³, 막은고개, 범고개, 절골고개, 정문(旌門)고개, 달래고개 등 다수의 고갯길이 있었다.

산줄기 사이의 골짜기를 흐르는 하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삼봉천이다. 이외에도 박달동을 흐르는 소하천으로는 호현천(호현동), 박달천(호현동), 양단천(박달동), 동샘천(호현동) 등이 있다. 총 길이 2.61km인 삼봉천은 박달동에서 발원하여 안양천과 합류하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한 삼봉천(2020년, 안양시청 제공)

는 하천으로, 박달우회로 박달1교 부근이 합류 지점이다. 삼봉천은 2017년 하천 정비 및 생태계 복원 공사를 통해 자연 하천으로 복원되었고, 다양한 수생식물의 서식처로 탈바꿈하였다. 그 결과 회귀성 어종인 은어가 사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과거 삼봉천과 안양천이 합류하는 지점은 폭이 좁고 퇴적물이 쌓여 하천 오염과 수해 위험이 높았으며,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안양시는 수로 확장 및 퇴적물 제거 등 하천 개수 작업을 실시하여, 장마철 범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수리산 골짜기 안쪽을 흐르는 삼봉천 주변은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평양육군병기창 예하부대인 안양분창이 들어서면서 군부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은 ‘박달군용지’ 또는 ‘군용지’로 불리게 되었다. 삼봉천 하류의 박달로 변에는 박정희 정권 당시 군용지에서 농사짓고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켜 삼봉마을을 조성하였다.

안양시의 행정경계선을 보면 박달동 서쪽에 광명시와 맞닿은 돌출부가 확인되는데, 이곳이 바로 서독산이 위치한 지역이다. 서독산은 박달동과 광명시 가학동의 경계에 자리한 구릉성 산지로, 높지는 않으나 사람의 간섭이 적어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다. 박달동에 속한 서독산의 동사면은 경사가 완만하고, 산록에는 농경지가 조성되어 과거 호현마을

주민들의 농경 활동지로 활용되었다. 서독산의 명칭은 선비들이 이 산에서 과거시험을 준비하며 글을 읽었다는 데에서 유래하였으며, ‘서덕산’ 또는 ‘청덕산’으로도 불린다.

수리산 줄기와 서독산 사이의 골짜기를 흐르는 하천은 호현천이다. 호현천은 호현마을에서 발원하여 호현삼거리 북쪽을 지나 안양천과 합류하는 소하천으로, 한때는 관리미비로 잡초와 퇴적물이 쌓여 보존 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다. 그러나 안양시에서 안양천과 합류하는 소하천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호현천은 준설을 통해 쾌적한 하천 환경으로 재조성되었다. 오늘날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천 정원으로 개선되었으며, 물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수해 위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하천 주변에는 다수의 제조업체가 입지하고 있어, 공장 폐수 유입 등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3) 안양천을 마주보는 시가지

박달동과 석수동의 경계 역할을 하는 안양천은 의왕시 왕곡동의 지지대고개 북사면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하천이다. 안양천의 상류에 해당하는 의왕시와 군포시 구간에서는 안양천이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지만, 안양동 안양교 부근부터는 국가하천으로 격상된다. 따라서 박달동을 통과하는 구간의 안양천은 국가하천에 해당한다. 안양천은 안양시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요 하천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하천이라는 의미에서 ‘안양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본래 안양천은 안양시 동북부 삼성산에서 발원하는 삼성천을 지칭하던 명칭이었으나, 일제강점기 동안 명칭 변경 과정을 거치며 지금의 안양천으로 불리게 되었다. 과거 문헌에서는 안양천을 대부분 ‘군포천’으로 표기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의왕시와 수원시의 경계에서는 ‘사근천(사그내)’이라 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대에서는 ‘대천’, 영등포구와 양천구 일대에서는 ‘오목내’, 안양 지역에서는 ‘호계(범계)’라 불렸다.⁴

안양천 변에는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오래전부터 농경지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서쪽으로 흐르던 하천이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며 곡류하는 박달동 구간은 하천의 공격면에 해당하므로, 안양동이나 석수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충적지가 발달하지 못하였다. 박달동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안양천 변 개활지보다 하천 범람의 위험이 적고 겨울철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골짜기 지역에 정착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박달동과 석수동의 경계가 되는 안양천은 충훈2교 부근에서 물길의 북쪽으로 향한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하천 변보다 골짜기 지역을 선호한 계거(溪居) 형태를 보인 것이다. 더불어 안양천은 유량 변동이 심하고 지하 수위가 낮아 음료수 확보가 어려웠으며, 집중호우 시 수해 위험이 크다는 점도 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⁵

박달동 구간의 안양천은 원래 곡류가 심한 자연 하천이었으나, 196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도시화 과정에서 하천 유로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안양역에서 안산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하천을 따라 개설되었고, 이 구간을 따라 제조업체와 주택이 서서히 자리잡았다. 안양시는 1978년 「안양천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을 정비하였으며, 이로써 안양천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안양천 유역은 안양 시민의 주요 생활 터전이며, 하천수는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하천 둔치를 활용하여 산책로·운동 공간·수변공원 등이 조성되었으며, 도심 속 생태·휴식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박달동은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석수동과 마주하며, 박석교·충훈1교·충훈2교·충훈대교 등이 안양천을 가로질러 두 지역을 연결하고 있다.



삼봉천과 안양천 합류 지점에 조성한 유채꽃밭(2016년, 호현동행정복지센터 제공)

박달동 구간을 흐르는 안양천은 유로가 완만히 굽이치는 곡류천의 형태를 보인다. 안양천이 삼봉천과 합류하는 지점에는 초등학교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이 일대에는 공동주택단지가 안양천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호현천이 안양천과 합류하는 지점은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여 넓은 평지가 발달하였다. 이 평지에는 제조업체와 물류센터 등이 다수 입지하고 있다.

2. 박달동의 행정구역 변천과 지명 유래

1) 행정구역의 변천과 행정동 구성

박달동은 조선시대 금천현 현내면에 속하였으며, 1795년 만안교 가설 이후 시흥현 현내면으로 편제되었다. 1895년에는 시흥현이 시흥군으로 변경되고, 현내면이 군내면으로 개편됨에 따라 시흥군 군내면 박달리로 편제되었다. 박달리는 1914년 3월 1일,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필동·호현·삼봉을 합쳐 시흥군 서면 박달리가 되었다.⁶ 1914년 신설된 시흥군 서면은 기존 시흥군 서면과 군내면을 통합한 것으로, 당시 서면에는 8개의 리가 편제되어 있었다. 박달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리는, 현재의 광명시에 해당하는 일직리·소하리·철산리·하안리·광명리·노온사리·가학리이다.

1963년 1월 1일에 박달리는 안양읍으로 편입되어 시흥군 안양읍 박달리가 되었다. 이어 1973년 7월 1일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하면서 박달동으로 명명되었다. 시 승격 당시 박달동의 자연마을은 규모가 작고 그 수 또한 많지 않았다. 당시에는 안양천 변으로 안양동과 인접한 필동, 서독산 동사면 고갯마루에 자리한 호현 정도만 존재하였다. 1992년 10월 1일에는 안양시가 구제를 시행하면서 박달동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으로 편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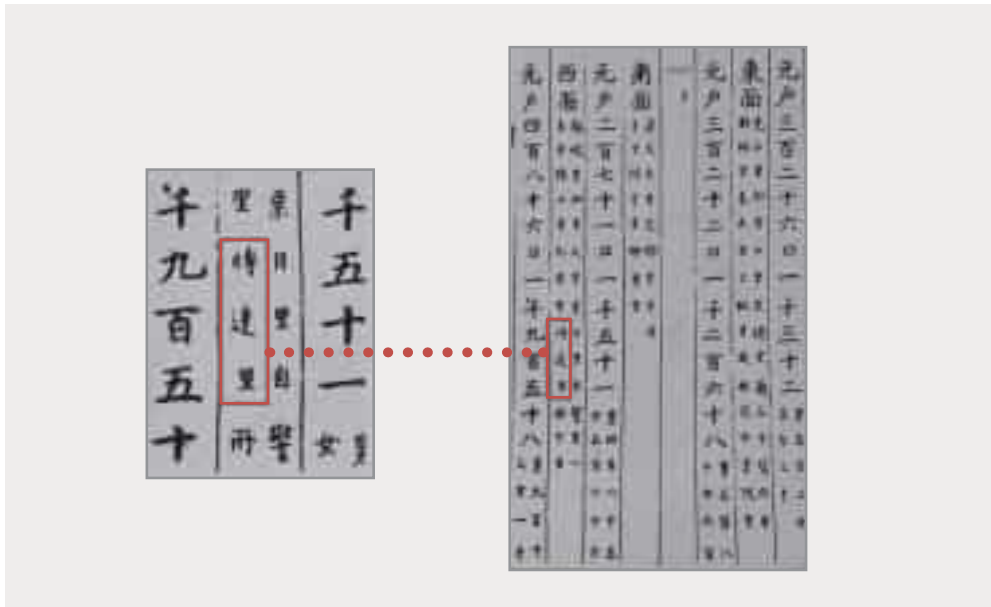
1994년 7월 1일에는 안양시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박달동은 박달1동과 박달2동으로 분동되었다. 그러나 박달동 전체 인구는 행정동 분동 직전인 1993년에 3만 8,165명이었고, 분동 이후인 1994년에는 3만 7,120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후 2025년 7월 1일 법정동 박달동의 박달1동은 박달동으로, 박달2동은 호현동으로 행정명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지명 유래

‘박달’이라는 지명의 유래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한다. 첫째, ‘밝은 산’ 또는 ‘밝은 땅’에서 유래했다는 설, 둘째는 ‘머리산(頭山)’, 즉 높은 산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므로 순우리말로 ‘박달’이라 불렀다는 설이 있다.⁷ 박달은 옛말로 ‘붉달’로 표기되었으며, 이는 성스러운 산과 들판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우리 선조들은 국토를 ‘배달(倍達)’이라 불렀고, 민족을 ‘배달겨레’ 또는 ‘배달민족(倍達民族)’이라 했는데, 이 ‘배달’은 본래 ‘붉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⁸

또 다른 견해로는, 수리산에서 뻗은 산줄기에 의해 형성된 삼봉천 주변 계곡이 길고 넓어 사방으로 막힘없이 통하므로 ‘박달’이라 불렀다는 설도 있다. 이외에도 달풀이 자라는 곳의 바깥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는 설, 과거 이 지역이 안양의 중심지에서 떨어진 ‘달동네’라 하여 ‘밖 달동네’에서 ‘박달동’으로 변형되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⁹

과거 박달리 골짜기에는 12개의 자연마을이 있었으며, 이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을 ‘웃박달리’라 불렀다. 박달이라는 지명은 오래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1789년『호구총수(戶口總數)』에 표기된 금천현 서면 단달리(博達里)에 대한 내용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만,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수록된 금천현 서면에 속한 리로서 명칭은 ‘박달(博達)’이 아니라 ‘단달(博達)’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박(博)’자와 ‘단(博)’자가 유사한 형태를 지녀, 혼용되었을 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1895년 이후의 문헌에서는 모두 ‘박달(博達)’로 표기되어 있다. 앞서 서술한 행정구역 변천과 연결하면, 박달리는 1789년 금천현 서면 단달리였다가, 이후 시흥현 서면 단달리로 편제되었으며, 1895년부터 시흥군 군내면 박달리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필동’은 예로부터 물이 풍부하고 토양이 비옥하여 매년 풍년이 들던 마을이었다. 이 때문에 ‘부자가 많이 사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부골(富谷)’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다만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부골’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붓골(筆谷)’로 변형되었다는 견해가 있다.¹⁰ 그러나 1880년대 일본이 작성한 『구한말지형도』에 이미 ‘필동’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일제강점기에 변형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호현’, 즉 범고개는 현재의 박달동과 시흥시 목감동 사이의 고개이다. 과거에는 ‘도독늪고개’로도 불렸는데, 고개가 험하고 으스스해서 강도와 도둑이 자주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래 ‘범고개’는 고개의 명칭이었고, 인근 마을은 ‘범고개 마을’이라 불렸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마을 이름을 단순히 ‘범고개’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마을 이름으로 불리



1973년 박달동 호현마을 일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마을 오른쪽으로 공장이 들어섰다.

던 ‘범고개’는 현재 ‘호현마을’로 불린다.

범고개라는 지명에는 여러 설이 있다. 호랑이가 종을 물고 이 고개를 넘었다는 설, 고개에 호랑이가 다리를 오므리고 앉은 모양의 바위가 있었다는 설, 고갯길이 험하고 수풀이 울창하여 호랑이 출몰이 잦았고, 고개를 넘기 위해 장정 다섯 명 이상이 함께 가야 했다는 이야기 등이 전해진다.

범고개의 서남쪽에는 ‘능골’이라 불린 작은 마을이 있었다. 마을 남쪽의 논 가운데 섬처럼 솟은 무덤이 ‘애기능’이라 불렸고, 이 능 때문에 마을 이름도 능골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혹은 애기능보다 낮은 산줄기에 자리한 마을이라 능골이라 했다는 설도 전해진다.

‘삼봉’은 호현동을 흐르는 소하천의 이름이자 마을의 이름이기도 하다. 수암봉에서 뿔어 내린 산줄기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산줄기에 연속된 세 봉우리를 뜻한다. 이로부터 삼봉산이라는 이름이 생겨났고, 산 아래의 마을은 삼봉마을, 골짜기를 흐르는 하천은 삼봉천이라 불리게 되었다.

삼봉천 상류에는 ‘새터말’이 있었다. 이 마을은 조선 중기에 영월 엄씨가 새로 터를 잡은 데서 유래했다는 설과 기존의 마을 사이에 생긴 새로운 마을이라 하여 ‘사이’의 준

말인 ‘새’를 사용해 새터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새터말 남쪽에는 ‘미름물’이라는 마을도 있었다.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우물을 ‘미름물’이라 불렀던 데서 지명이 유래하였지만, 정확한 어원은 알려지지 않았다.¹¹ 1880년대에 일본이 작성한 『구한말지형도』에는 ‘미정리(米井里)’라는 한자 표기와 함께 일본어로 ‘미물(ミール)’이 병기되어 있는데, 이는 ‘미름물’을 일본식으로 전사하고 번역한 결과로 보인다.

‘곤두레미고개’는 안양에서 안산으로 이어지는 주요 통로였다. 신작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양 지역을 잇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험준한 산악지형과 울창한 숲으로 인해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이 때문에 산적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통과해야 했고, 고개를 ‘곤두박질하듯’ 지나야 했다는 데서 ‘곤두박이고개’라 불리게 되었다. 이후 구전 과정에서 ‘곤두레미고개’ 또는 ‘곤두레미고개’로 변형되었다.

3.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변화

1) 일제강점기 군용지로 편입된 삼봉골

삼봉천을 따라 형성된 골짜기는 해발고도가 100m 이내로 낮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도 완만하여, 골짜기에는 농경지가 발달해 있었다. 이들 농경지는 골짜기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부양력도 강했다. 삼봉천이 흐르는 골짜기는 사람들의 주요 이동 통로로 활용되어 안양과 안산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이 골짜기의 고갯길을 자주 이용하였다. 삼봉천 골짜기에서 안산과 마주하던 곤두레미고개는 안양에서 안산 방향으로 향하던 가장 가까운 구간이었으나, 1941년 일본이 이곳을 군용지로 수용하면서 길이 폐쇄되었다.

삼봉골은 뒷자리로도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는 조선 태종의 아들인 후령군(厚寧君) 이간(李杆)의 묘, 조선시대 문관으로 임진왜란 때 왜적과 전투를 벌이다 사망한 구면(具冕)¹²의 묘가 있었다. 또한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전라도 수군절도사·동지중추부사·부총관을 역임한 엄황(嚴愷)의 묘도 있었다.¹³ 그러나 일제강점기 삼봉골이 군용지로 지정되면서 모든 묘를 이장하였다.

이렇게 보면 삼봉골은 살아있는 사람은 물론, 죽은 사람을 위한 장소로도 매우 좋은

곳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박달동은 수리산을 등지고 안양천을 맞이하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주거 마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박달동에 일찍부터 자리했던 마을이나 주택은 하천을 바라볼 수 있는 북쪽을 향한 경우가 많았다.¹⁴

삼봉골은 1941년에 일본이 이곳에 육군조병창의 탄약고를 설치하기 위해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뒤, 군부대 주둔지로 전환되었다. 조병창은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에서 직접 운영했던 무기 공장으로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박달동에 탄약고 설비를 갖추기도 하였다.¹⁵ 이것이 안양 군용지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은 주로 지금의 박달동(박달1동) 주민센터 근처에 정착하였다. 이후 지금의 박달동에 주민이 본격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¹⁶ 탄약고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곤두레미고개를 넘어 안산으로 가던 길이 폐쇄되었고, 안양역에서 안양천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범고개를 넘어 안산으로 향하는 우회도로가 새롭게 개통되었다. 이 도로는 본래 일반지방도 제397호선으로 지정되었으나, 1996년 11월에 지방도가 폐지되고 일반 도로로 전환되었다.



망해암에서 바라본 박달동 전경(1969년, 국가기록원 제공) 전봇대 꼭대기 부분이 박달동행정복지센터 일대이고, 산쪽으로 난 길이 박달삼거리에서 군용지로 올라가는 길이다.

광복 이후 박달동의 군용지는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군의 병기대대가 주둔하며 관리하다가, 미군 부대 철수 이후 국군의 주둔지로 바뀌었다. 현재 박달동 군용지에는 박달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유격훈련장 등을 비롯하여 여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삼봉천 주변에는 2009년까지 농경지가 남아 있어 주민들이 농경 활동을 해왔다. 골짜기에 군부대가 주둔했음에도 남아 있던 농경지는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었지만, 국군정보사령부 이전 계획의 실행과 더불어 2009년 이후 대부분 사라졌다.

국군정보사령부를 박달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2000년대 초반에 수립되었다. 2009년부터 본격적인 건설 공사가 시작되어 2013년 박달동으로 이전해 옴에 따라, 박달동 군용지의 군사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었다. 군용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안양시에서는 도시 전체 면적의 14.6%에 달하는 8.55km²가 군용지에 속한다.

군용지 초입 우측에 자리한 박달중학교는 국군정보사령부 이전 부지 일부에 건립된 학교로, 박달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과거 박달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하여야 했다. 국군정보사령부가 주둔하면서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주민들의 아쉬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방부가 군용지 일부를 학교 부지로 제공하였다. 양측의 논의를 거쳐 1만 3,617m²가 학교 부지로 결정되었고, 2017년 3월에 24학급 규모의 박달중학교가 개교하였다.





안양에서 곤두레미고개를 넘어 안산·시흥 방면으로 가던 옛길에 설치된 삼봉천 박달교, 다리 건설 시기는 음각 부분이 흐려져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930년으로 추정된다.

2) 197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도시화

박달동은 균용지를 제외한 안양천 주변, 안양천과 삼봉천 합류 지점, 그리고 호현천 주변 등지가 농경지로 활용되었다. 1960년대 들어 안양동을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가지는 안양동의 서쪽에 자리한 박달동 쪽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안양동과 접한 박달동(박달1동)은 필동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발달하였을 뿐, 삼봉천 일대와 호현동 대부분 지역은 여전히 농경지로 남아 있었다. 안양천에 접한 지역은 제방이 축조되기 이전에는 집중호우 때 잦은 수해를 입었으며, 하천 주변의 경작지는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 1960년대까지도 박달동은 주택보다 농경지가 더 많은 지역이었다.

박달동의 본격적인 도시화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호현동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당시 안양 지역은 농경지가 많아서 용도 변경을 통한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었으며,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울 근교의 제조업 이전지로 주목받게 되었다. 서울에 집중된 공장을 외곽으로 분산하고, 서울 내 제조업 입지를 억제하던 시기에 미개발지가 많았던 안양 지역은 제조업 입지에 적합한 장소로 인식되었다. 1970년대 초에는 주로 화학 관련 업종이 들어왔고, 이후 기계·금속·섬유·전기·전자 등으로 업종이 다양화되었다.¹⁷

1960~1970년대에 박달동에 설립된 주요 업체로는, 1962년 설립된 현대양행 안양 공장을 비롯해 동아물산·삼아알미늄·대성초자·연합유리·삼애기업 등이 있다. 1970년대 초반에는 크고 작은 공장 90여 개가 박달동에서 운영되었다. 이들 공장은 주로 충훈1교 근처, 호현천과 안양천 합류 지점에 자리 잡았다. 현재 충훈1교 부근의 공장들은 대부분 이전하였으나, 호현천과 안양천 사이 지역은 여전히 공장 또는 물류창고 부지로 활용되고 있다.

공장이 빠져나간 자리는 대부분 공동주택이 건설되면서 주거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식기류 수출전문업체로 시작한 현대양행은 안양천 충훈1교 부근에 안양공장을 설립하였다. 이 공장은 1970년대에는 각종 건설기계와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였고, 사명을 만도기계로 변경하였다. 만도기계 안양공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발전하였지만, 공장 부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증설과 용수 공급에 제약이 생겼고, 결국 1996년에 공장 이전이 추진되었다. 1만 8,000평이 넘는 부지에는 1,385세대 규모의 한라비발디아파트가 건설되어 2000년에 입주하였다. 이외에도



1970년대 박달로 주변 건물 신축(1978년, 안양시청 제공)



현재 충훈1교 근처에 있던 삼진팔푸와 삼아알미늄(1970년대, 이정범 제공) 삼진팔푸 자리에는 신한아파트가, 삼아알미늄 자리에는 한양수자인에듀파크아파트가 건설되었다.

2015년 평택으로 이전한 삼아알미늄 자리에는 한양수자인에듀파크아파트가 2017년 말 준공되었다.

박달동(법정동)은 안양동과 접경하는 박달동(박달1동)이 안양동 도시화의 영향으로 먼저 주거지로서 개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고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며 호현동이 주거지로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우성아파트, 극동아파트, 신안아파트 등이 1990년대 초반 입주한 아파트이다.

1995년 말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현 광명역)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고, 고속철도와는 별도로 서울과 광명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건설 계획까지 거론되면서, 박달동 일대에는 주거지 개발 열기가 일기 시작하였다. 박달동의 주거지로서 입지가 강화된 데에는 고속철도 광명역 건설도 영향을 미쳤다. 광명시와 접경한 호현동은 광명역까지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저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 현재 박달동에서 진행되고 있다.

3) 산지를 중심으로 대지와 농경지가 공존하는 토지 이용

2020년 기준 박달동(법정동)의 면적은 7.86km²로, 안양시 전체 면적(58.47km²)의 약 13.4%에 해당한다. 두 개의 행정동은 면적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박달동(박달1동)은 전역이 밀집 시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어 면적이 0.93km²에 불과하다. 반면, 호현동은 면적이 6.91km²인데,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산지와 군용지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만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다.



1973년 안양시로 승격할 당시 박달동의 면적은 8.40㎢로, 당시 안양시 전체 면적(58.16㎢)의 약 14.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도시의 발달과 함께 진행된 행정경계 조정으로 현재 면적은 당시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박달동은 1994년 12월, 일부 구역을 안양동과 상호 교환하였고, 2000년과 2013년에 일부 구역이 석수동에 편입되었다.

박달동의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1997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해당 기간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 지목은 임야이다. 2020년 기준 임야는 전체 면적의 약 5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수리산과 서독산 일대가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비교적 보전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이다. 임야의 경우, 1997년 470만여㎡에서 2020년 455만여㎡로 소폭 감소하였을 뿐, 비교적 안정적인 면적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농경활동이 이루어졌던 전·답은 수리산 삼봉천 주변과 범고개 일대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2010년 이후 군사보호구역 일대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2010~2015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전은 1997년 약 65만㎡에서 2020년 약 12만㎡로 줄었고, 답도 같은 기간 비슷한 감소세를 보였다.

〈표 1〉 박달동의 지목 구성 변화

(단위 : ㎡)

연도	계	전	답	임야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1997년	7,836,595	650,373	716,642	4,705,878	644,341	248,266	12,226	279,718
2000년	7,839,093	593,225	705,139	4,690,930	666,737	210,892	12,258	295,539
2005년	7,832,103	519,024	661,537	4,600,391	707,890	204,192	43,579	421,463
2010년	7,833,284	504,361	652,200	4,594,617	698,251	223,941	73,163	424,213
2015년	7,828,543	144,788	131,887	4,547,001	704,806	214,224	73,163	457,402
2020년	7,859,520	126,592	122,710	4,548,163	716,871	204,735	88,681	458,506

자료 : 안양시, 『안양통계연보』, 각 해당 연도(국가통계포털 제공).

대지의 면적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학교용지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공장용지는 다소 줄어 들었다. 공장용지는 주로 호현동에 분포하며, 특히 범고개 일대에서 호현천과 안양천이 합류하는 지점까지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과거 농경지였으나, 도시화·공업화를 거치며 공장지대로 전환된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후 일부 구역은 공동주택 단지로 재개발되기도 하였다.

4) 지역개발을 위한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달동은 2000년대 이후 건설된 신규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안양의 도시 형성 초기부터 시가지 구역으로 성장한 노후 시가지도 함께 존재한다. 또한 박달동 서쪽의 호현마을 일대는 도시적 색채보다는 농촌적 색채가 훨씬 강한 전원 지역의 성격을 띤다.

안양동에 접한 박달동(박달1동)은 안양 서부권역에서 경제·교통의 중심지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가지의 노후도가 높고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한 데다가, 빈집과 유휴지가 많아서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점포 수가 140여 개에 달하는 박달시장을 중심으로 주택과 상업시설이 혼재된 구조를 보인다. 박달동(박달1동)은 교통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다수의 교육기관이 분포하며, 지역 내 사회단체를 기반으로 주민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건축물의 상당수가 건립된 지 30년 이상이고 폐가도 산재한다.¹⁸

박달동(박달1동) 중앙부를 동서 방향으로 관통하는 박달로와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영화로를 제외한 도로는 폭이 좁아 자동차와 보행자가 혼용하는 보차혼용도로의 성격을 지닌다. 이와 같은 지역성은 주거환경을 포함한 도시환경의 질을 점차 악화시키며,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달스마트벨리 사업 대상지(안양시청 제공)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도시공간의 환경을 개선하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박달동(박달1동)은 인접한 안양동·석수동 일부 구역과 함께 2008년에 '만안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실질적인 시행에 이르지 못하였고, 박달동(박달1동)은 2011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되었다.

호현동은 안양 남서부에서 안양시로 진입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이른 시기부터 근교농업이 발달하였다. 안양시 중심부에 인접하여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수리산을 끼고 있어 지역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박달동(박달1동) 접경과 안양천 변은 도시적 성격이 강하지만, 광명시와 경계를 이루는 호현마을 주변은 아직 미개발지가 많이 남아 있다.

호현동은 고속철도 광명역과 가까우며,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 나들목이 설치되어 있어 다른 지역과 연결되는 교통 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그러므로 호현동은 안양시 도시 공간의 외연적 확장을 위한 전면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안양의 도시화가 더욱 진행됨에 따라 점차 도시적 성격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박달동은 주거·상업·공업 기능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의 존재로 인해 안양시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안양시 경계부에는 도시적 성격이 미약한 비도시 지역도 존재하여 지역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양시에서는 2017년부터 박달동 군부대 탄약고의 지하화를 통해 국유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민간 사유지를 더하여 총 328만㎡의 부지에 친환경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박달스마트밸리’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중이다. 이 사업은 박달동에 주둔하고 있는 대규모 군사시설이 지역발전의 장애가 된다는 인식 아래, 박달동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동안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체된 만안구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다.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안양시의 도시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는 의미에서 ‘STAR City(Smart Technology Anyang Renaissance City)’로도 명명된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박달동이 중심이 되는 서안양권을 스마트시티, 친환경 생태도시, 한류 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정주 여건의 개선은 물론,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안양권의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안양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주요 목표이다.¹⁹

4. 박달동의 사람과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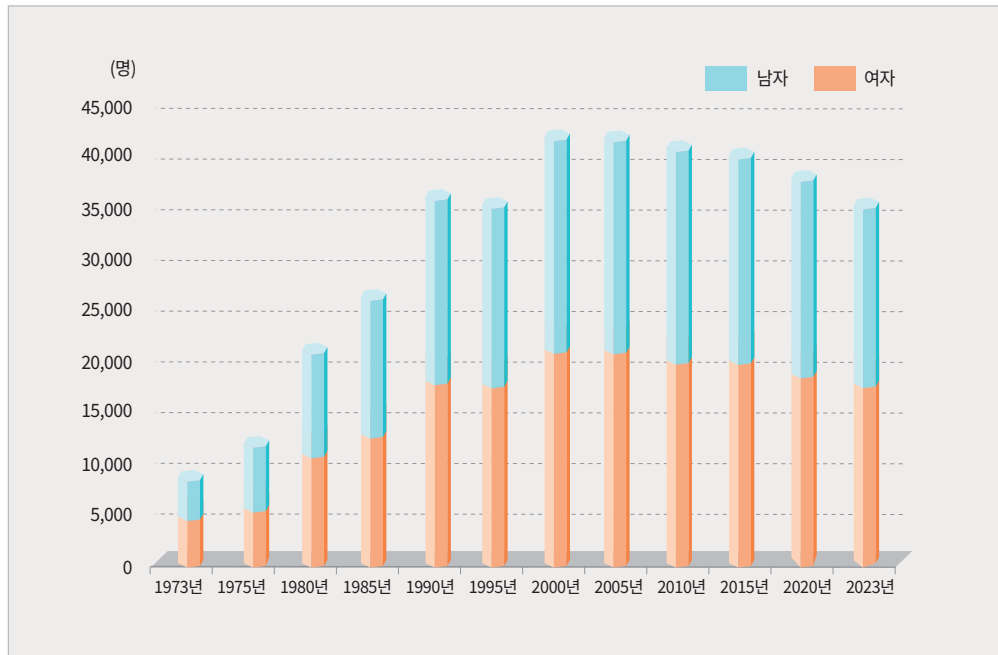
1) 감소추세로 전환된 인구 규모

박달동의 인구는 안양시가 시로 승격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다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1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으로 돌아섰다. 이와 같은 인구 규모의 증감 반복은 1992년부터 본격화한

평촌신도시의 개발과 1990년대 후반 박달동 내에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의 인구 감소는 출산율 하락과 전출 인구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1973년 시 승격 당시 박달동의 인구는 9,812명(남자 4,917명, 여자 4,895명)이었으며, 1980년에는 2만 1,546명, 1990년에는 3만 6,996명으로 증가하였다. 박달동의 인구는 1992년에 3만 9,08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1995년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박달동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01년으로, 당시 인구는 4만 5,409명(남자 2만 2,830명, 여자 2만 2,579명)이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2년에는 4만 3,251명으로 감소하였다.

1990년대 초반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도 박달동은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초과하여 인구의 사회적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나, 출생과 사망의 차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이를 상쇄하면서 전체 인구는 증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사회적 감소가 자연 증가를 상회하게 되면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다.



2000년대 들어 감소하기 시작한 박달동의 인구 규모

박달동의 인구가 안양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3년 8.8%였으나, 2020년에는 5.4%로 감소하였고,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는 5.0%에 불과하다. 이는 박달동의 면적에 비해 시가지 구역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개발 자체가 제한된 지역이 다른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2023년 6월 말 기준 박달동의 행정동별 인구는 박달동(박달1동)이 1만 4,305명, 호현동이 2만 1,973명이다. 노후 주택이 많은 박달동(박달1동)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호현동은 인구 규모에 큰 변화가 없다. 2000년 기준 박달동(박달1동)의 인구는 2만 688명, 호현동은 2만 1,991명이었다.

1992년 이후 박달동의 인구 감소 원인으로, 노후 주택 문제 외에도 평촌과 산본 지역에 조성된 신도시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수도권외의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개발된 이들 신도시는 1992년부터 주민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안양 시가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이주하였고, 그 결과 박달동 인구의 사회적 감소가 가속화되었다.

박달동(박달1동)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공동주택이 건설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인구 증가를 유도할 만한 동력을 갖추지 못해 인구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호현동은 일부 노후 시가지가 존재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공동주택 단지의 영향으로 인구 유입이 지속되며 인구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

박달동의 인구 변화는 전입인구 감소와 전출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으나, 동시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연 감소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출산율 감소는 세대 인구수의 변화로 확인할 수 있다. 박달동의 세대 인구는 1973년 4.78명에서 1980년 4.50명, 1985년에는 3.90명으로 감소하였고, 2005년에는 2.92명으로 3.0명 선이 붕괴되었다. 2023년 기준 세대 인구는 2.42명으로, 안양시 평균인 2.40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2〉 박달동의 행정동별 인구(2023년 6월 말 기준)

(단위 : 세대, 명)

구분	세대	인구			세대당 인구	
		계	남자	여자		
행정동	박달동	6,927	14,305	7,188	7,117	2.07
	호현동	8,050	21,973	10,985	10,988	2.73
박달동(계)		14,977	36,278	18,173	18,105	2.42

자료 :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행정동별 세대 인구를 살펴보면, 박달동(박달1동)은 2.07명, 호현동은 2.73명으로 두 지역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법정동 기준으로 보면, 박달동의 세대 평균 인구는 석수동과 유사한 수준이며, 기성 시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안양동(2.18명)보다는 높으나, 신도시가 형성된 평촌동(2.96명)이나 호계동(2.63명)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 젊은 연령층의 감소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

1973년 박달동의 남녀 인구는 비슷한 규모였다. 남자 4,917명, 여자 4,895명으로,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나타내는 성비는 100.4이었다. 1980년에는 성비가 일시적으로 96.1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회복되어 2023년에는 100.4(남자 1만 8,173명, 여자 1만 8,105명)를 기록하여 대체로 100을 약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 박달동의 연령층별 인구 구성 변화

(단위: 명, %)

연령층	성별	1973년		2000년		2022년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유소년 (0~14세)	남자	2,009	20.5	5,096	11.9	1,989	5.4
	여자	1,806	18.4	4,615	10.8	1,898	5.2
	계	3,815	38.9	9,711	22.7	3,887	10.6
청장년 (15~64세)	남자	2,813	28.6	15,677	36.7	13,488	37.0
	여자	2,944	30.0	15,330	35.9	12,996	35.6
	계	5,757	58.6	31,007	72.7	26,484	72.6
노년 (65세 이상)	남자	95	1.0	698	1.6	2,769	7.6
	여자	154	1.5	1,263	3.0	3,348	9.2
	계	249	2.5	1,961	4.6	6,117	16.8
전체	남자	4,917	50.1	21,471	50.3	18,246	50.0
	여자	4,904	49.9	21,208	49.7	18,242	50.0
	계	9,821	100.0	42,679	100.0	36,488	100.0

자료: 안양시, 『안양통계연보』, 각 해당 연도(국가통계포털 제공).

비고: 비율은 각 년도 별 총 인구에 대한 내용이다.

박달동 전체 인구의 성비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연령별로 세분하면 일정한 특징이 관찰된다. 1973년에는 14세 이하 연령층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으나, 15~29세의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뚜렷하게 많았다. 반면, 30~49세 연령층에서는 남자 인구가 더 많았다. 특히 1973년 15~19세 연령층의 경우, 여자가 613명이었



박달동의 성별·연령별 인구 구성 변화

던데 비해 남자는 485명에 불과하였고, 20~24세에서도 여자 465명, 남자 309명으로 여초 현상이 뚜렷하였다. 이러한 연령대별 성비의 불균형은 1970년대 당시 박달동의 특정 연령층에서 여성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연령층별로 남녀 간 인구 구성이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1970년대 젊은 연령층에서 여성이 많은 현상은, 인접 지역인 안양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는 당시 안양동 일대에 다수의 경공업체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해당 업체에 종사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주거지로 박달동(박달1동)을 선택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1973년 안양동의 15~29세 연령층 인구를 살펴보면, 남자 8,482명, 여자 1만 2,873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

성별 인구 구성은 남녀 간에 균형 상태를 맞춰가고 있지만, 연령별 인구 구성에서는 우리나라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고령화 현상이 박달동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14세 이하 유소년층의 감소와 50세 이상 장년층과 노년층의 증가는 두드러진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1973년 38.9%에 달하였으나, 2000년에는 22.7%로 감소하였고, 2022년에는 10.6%로 축소되었다. 반면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비율은 1973년 2.5%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에는 16.8%로 상승하였다.

유소년 인구의 비중이 줄어든 만큼 노년 인구의 비중이 그대로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박달동 경로잔치(2015년, 박달동행정복지센터 제공)

이는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15~64세 연령층의 인구 비중이 함께 상승하였음을 보여 준다.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1973년 58.6%였으나, 2022년에는 72.6%로 증가하였다.

1973년에는 10대 미만(26.7%)과 10대(23.3%) 인구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지만, 2000년에는 30대(20.1%)와 20대(17.1%)가 주된 연령층을 이루었다. 2022년에는 50대(17.8%)와 60대(15.8%)의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된 인구 집단의 연령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70~1980년대에는 연령대별 인구 구성에서 뚜렷한 중심 연령층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연령대별 인구 비중의 편차가 감소한 가운데 유소년 인구에 비해 노년 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2022년 기준으로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박달동(박달1동)에서 6.9%에 불과하였지만, 호현동에서는 13.1%에 달하였다. 반면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박달동(박달1동)이 21.7%인데 비해, 호현동은 13.5%에 그쳤다. 박달동을 행정동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박달동(박달1동)에서는 고령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호현동은 아직 젊은 연령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나타난다.

시 승격 당시인 1973년 박달동의 인구 구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대를 전후한 연령층에서 여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공업 지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는 박달동의 공업화와도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인접한 안양동의 공업 발달과도 연관



구연동화를 듣는 서조어린이집 아이들(2015년, 호현동행정복지센터 제공)

된 요소이다. 20~30대 젊은 연령층의 규모가 큰 지역은 노동력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를 경험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다. 1970년대 초반 박달동에서는 젊은 남성에 비해 젊은 여성이 과도하게 많은 기형적인 인구 피라미드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인접한 안양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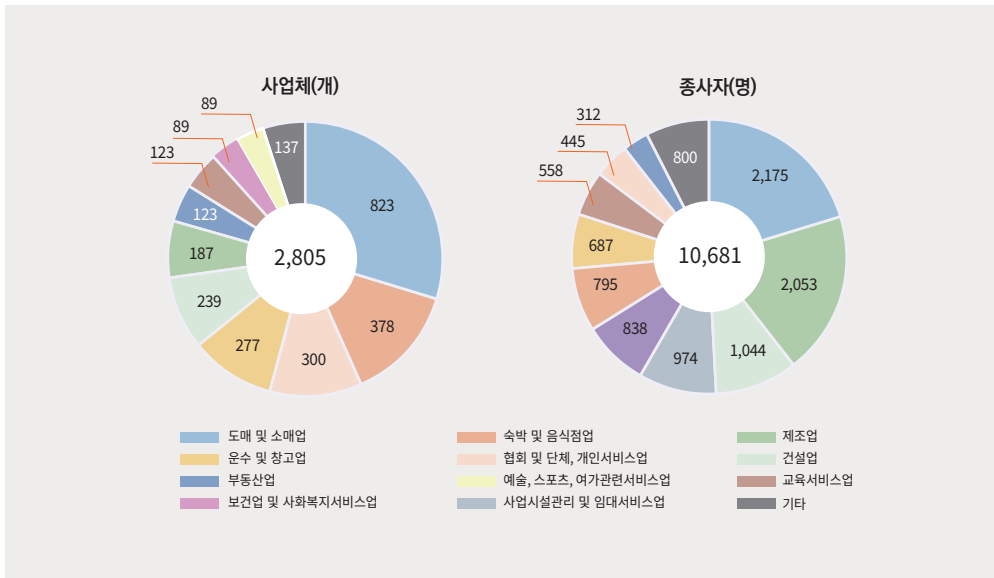
이후 도시 경제의 기반이 공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면서, 2000년에는 유소년 인구의 비중이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장년층 인구의 증가는 뚜렷해지면서 선진국형 인구 구조를 보이게 되었다. 2022년에는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인구 규모가 작아지는 모양으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60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역삼각형 형태의 인구 구조가 나타났다. 2000년과 2022년의 인구 피라미드를 비교하면, 주요 인구 집단의 연령층이 상승하였고, 65세 이상 노년층의 증대가 뚜렷해졌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박달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평균 연령은 행정동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박달동(박달1동)의 평균 연령은 46.3세로, 안양시 전체 31개 행정동 중 안양4동과 안양5동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호현동의 평균 연령은 40.4세로, 전체에서 일곱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안양시 전체의 평균 연령은 42.3세였다. 안양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평균 연령이 높은 지역은 안양동·석수동·비산동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평촌동으로 나타났다.

3) 경제활동의 규모가 작은 시가지

박달동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2021년 기준, 안양시에 는 모두 6만 3,452개의 사업체에 27만 2,06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박달동에 입지한 사업체는 도시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2,805개였고, 종사자 수는 전체의 3.9%에 해당하는 1만 681명이었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3.8명으로, 안양시 전체의 평균인 4.3명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2000년 기준 박달동에는 1,792개의 사업체에 7,89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당시 안양시에서 차지한 비중은 사업체 수 기준 5.4%, 종사자 수 기준 5.0%에 달하였다. 2021년 들어 안양시 전체에서 박달동의 경제활동 규모가 감소한 것은, 박달동의 경제활동 입지가 도시 전체에 비해 활발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021년 박달동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상위 10개 업종)

산업대분류 방식에 의한 산업구성으로 볼 때, 박달동에서 높은 집중도나 입지계수를 보여 특화된 업종이라 할 만한 산업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안양시 전체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6.5%)과 ‘건설업’(6.0%)이고,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사업시설관리, 사업지

원 및 임대 서비스업'(5.9%), '운수 및 창고업'(5.9%), '제조업'(5.8%) 등이 있으나, 이들 역시 박달동에서 특화 업종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비중을 보이지는 않는다.

2021년 기준 박달동에서 가장 많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이고, 그 뒤를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이 차지한다. 종사자 수에서도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가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제조업체 수는 많지 않으나, 종사자 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특히 호현동에 입지한 제조업체의 종사자 수는 박달동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86.1%에 달한다. 호현동의 제조업체들은 주로 호현천과 안양천의 합류부를 따라 입지하고 있다.

5.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전원마을

박달동은 안양시의 도시화 과정에서 중심부인 안양동과 인접한 지역부터 시가지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점차 시가지의 외연적 확장을 경험하면서 현재의 도시공간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박달동에 속하는 수리산은 경기도립공원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오랜 기간 군용지로 이용되며 민간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개발 유보지역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안양의 도심에 접한 박달동(박달1동)은 안양시의 역사와 궤를 같이할 정도로 도시화의 시기가 빠르지만, 도심부에서 이격된 호현동은 도시화의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지역에 해당한다.

군사보호구역과 자연환경 보전구역 등이 호현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에, 박달동은 동쪽과 북쪽에 주택·상업시설·제조업체·유통단지 등이 입지함으로써 전형적인 도시지역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지만, 남쪽과 서쪽은 안양시와 인접 도시의 경계부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개발이 상대적으로 더





호현동 친목마을

던 농촌적 특성을 강하게 보유하고 있다. 즉, 박달동은 도시적 공간과 비도시적 공간이 명확히 분리된 지역이며, 비도시적 성격을 가지는 지역은 현재의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큰 곳이다.

안양동에 접한 기성 시가지는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역이므로, 기존 도시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공간 재편이 필요한 지역이다. 호현동이 도시화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하여, 노후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호현동에 위치한 신한아파트가 있다. 이 아파트는 1986년에 건축되어 건축 연한이 오래되었으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 사업과 단독주택 중심의 노후 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주택재개발 또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병행함으로써, 박달동의 도시공간을 현대적 감각에 부합하도록 개조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될 경우, 박달동은 안양천과 수리산이라는 자연자원과 녹지를 기반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도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도시적 공간과 농촌적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형 주거지로서 성격도 함께 지니게 될 것이다.

- 1 2025년 7월 1일부터 박달1동은 박달동으로, 박달2동은 호현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2 시흥시 조남동에 속하며, 시흥시에서는 '장군재'로 불린다.
- 3 지금의 박달로 개통 전에 안양과 안산을 연결하던 고갯길이다.
- 4 국토해양부, 『한국하천지명사전』, 푸른길, 2011, 62~64쪽.
- 5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제1권 역사와 전통의 안양』, 우진비엔피(주), 2008, 104쪽.
- 6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푸른길, 2008, 239쪽. 이때의 상봉은 현재 호현동의 상봉마을과 다른 지명이다.
- 7 위의 책, 239쪽; 배우리, 『우리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2』, 토담, 1992, 74~75쪽.
- 8 남영우·최재현·손승호, 『한국의 도시와 국토』, 법문사, 2021, 228쪽.
- 9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제1권 역사와 전통의 안양』, 우진비엔피(주), 2008, 328쪽.
- 10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2012, 175쪽;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제2권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우진비엔피(주), 2008, 361쪽.
- 11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제2권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우진비엔피(주), 2008, 356쪽.
- 12 『안양시사』를 비롯한 여러 글에서는 묘의 주인을 구만이라고 기록해 놓았으나,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권8에 따르면, 구만(具寔)은 1583년 명나라 황태자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실시된 별시(別試)에서 문과 병과(丙科)에 급제했으며, 한림(翰林)과 이조좌랑(吏曹佐郎)을 역임한 뒤 임진왜란 당시 3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어, 묘의 주인은 구만이 아닌 구면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 13 이간의 묘는 1941년 2월 수원시 이목동으로 이장했고, 구만의 묘 역시 다른 곳으로 이장했지만, 엄황의 묘는 확장되었다.
- 14 이진영, 『풍수지리적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경기도 안양시 지역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82쪽.
- 15 1930년 축조한 안양 박달교와 곤두레미 고개(<https://ngoanyang.or.kr/>).
- 16 박달동(박달1동) 행정복지센터(<https://www.anyang.go.kr/>).
- 17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제1권 역사와 전통의 안양』, 우진비엔피(주), 2008, 299~300쪽.
- 18 모건환, 『도시 쇠퇴 지역의 환경재생 전략설계 연구-경기도 안양시 박달마을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72쪽.
- 19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박달스마트밸리』, 2020.

제2장

박달동의 도시공간과 도시개발

고제경 수원도시재단 차장



1. 박달동의 인구 및 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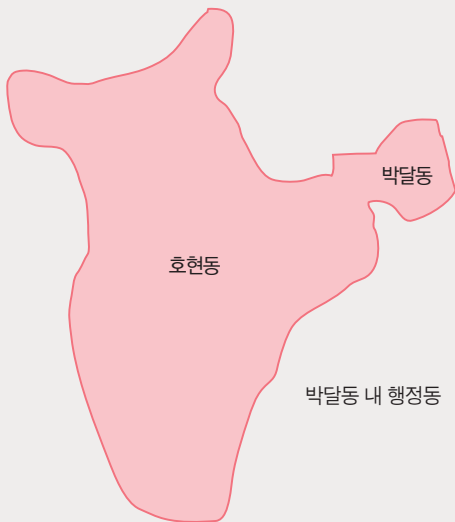
박달동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서쪽에 위치한 법정동으로, 행정구역상 안양시의 서단을 구성한다. 서쪽으로는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광명시 일직동, 동쪽으로는 안양시 석수동, 남쪽으로는 수리산 능선과 맞닿아 있다. 특히 박달동은 안양시 경계 중에서도 가장 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자연지리적 특성과 행정구역상 위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 및 독립성이 함께 나타나는 지역이다.

교통 측면에서는 남쪽을 관통하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내외곽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서측에는 서해안고속도로와 가까워 서해안 지역으로의 광역 이동이 용이하다. 이러한 교통 조건은 박달동이 수도권 서남부의 주요 교통 결절점 중 하나로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북방에는 광명역(KTX 및 수도권 전철)과 광명종합터미널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또한 확보하고 있다.

박달동은 과거 삼봉천과 호현천 등 하천을 따라 형성된 농촌 지역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주거지역으로 전환되며 오늘날의 도시적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박달동은 안양시의 지리적 외연을 구성하는 동시에, 자연과 도시, 교통과 정주 기능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박달동(법정동)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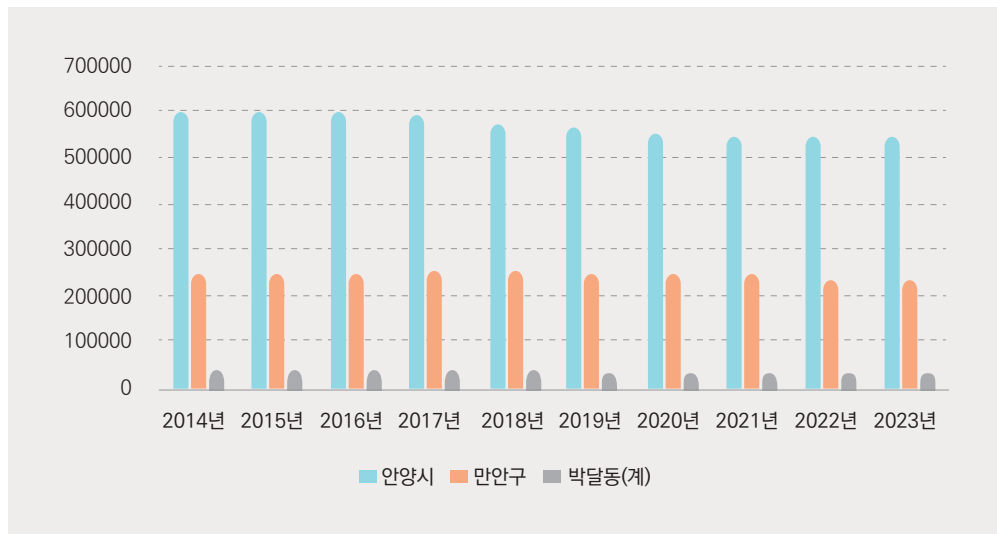


〈표 1〉 2014~2023년 안양시·만안구·박달동의 인구

(단위 : 명)

구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법정동)		
			박달동	호현동	합계
2014	600,809	247,315	17,145	22,705	39,850
2015	597,789	247,270	17,166	23,021	40,187
2016	597,414	252,353	16,892	23,319	40,211
2017	587,764	254,977	16,625	23,787	40,412
2018	576,831	251,512	16,154	23,803	39,957
2019	567,044	244,235	15,664	23,392	39,056
2020	550,027	239,413	15,375	22,826	38,201
2021	547,178	238,311	14,903	22,236	37,139
2022	548,228	234,394	14,512	21,976	36,488
2023	544,660	230,664	14,180	21,259	35,439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 통계」(<https://jumin.mois.go.kr/>).



2014~2023년 안양시·만안구·박달동의 인구 변동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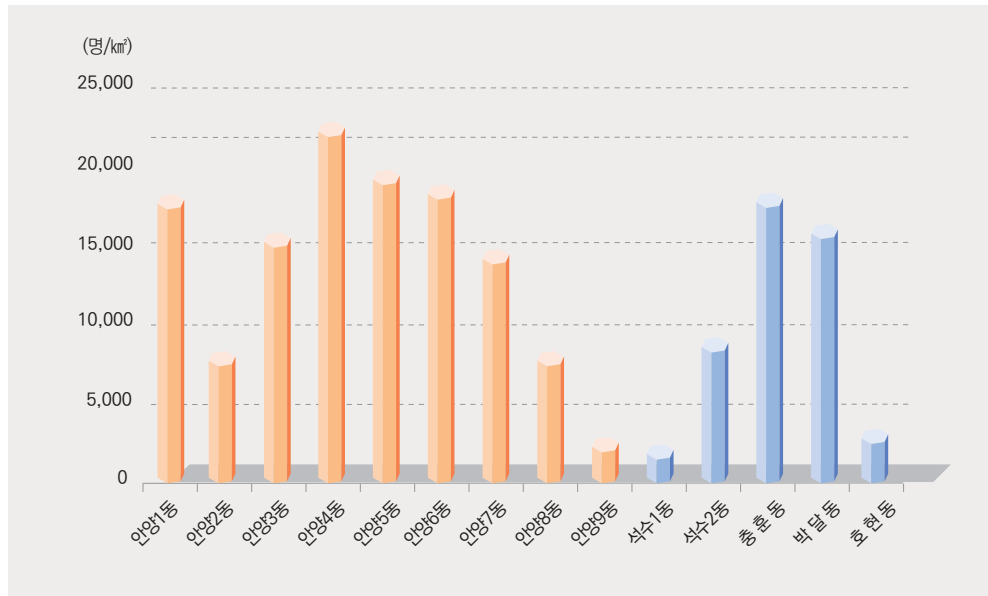
박달동은 2023년 기준 35,439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안양시 전체 인구의 약 6.5%, 만안구의 약 15.4%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2017년 40,412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표 2〉 2022년 안양시·만안구·박달동의 인구밀도

(단위 : 명/㎢)

구분	인구밀도	구분	인구밀도
안양시	9,476	안양8동	8,308
만안구	6,535	안양9동	2,636
안양1동	18,210	석수1동	2,061
안양2동	8,412	석수2동	9,097
안양3동	16,271	충훈동	18,320
안양4동	22,645	박달동	16,242
안양5동	21,026	호현동	3,181
안양6동	18,654	합계	4,722
안양7동	14,705		

자료 : 안양시, 『안양시 통계연보』, 2023.



2022년 만안구의 동별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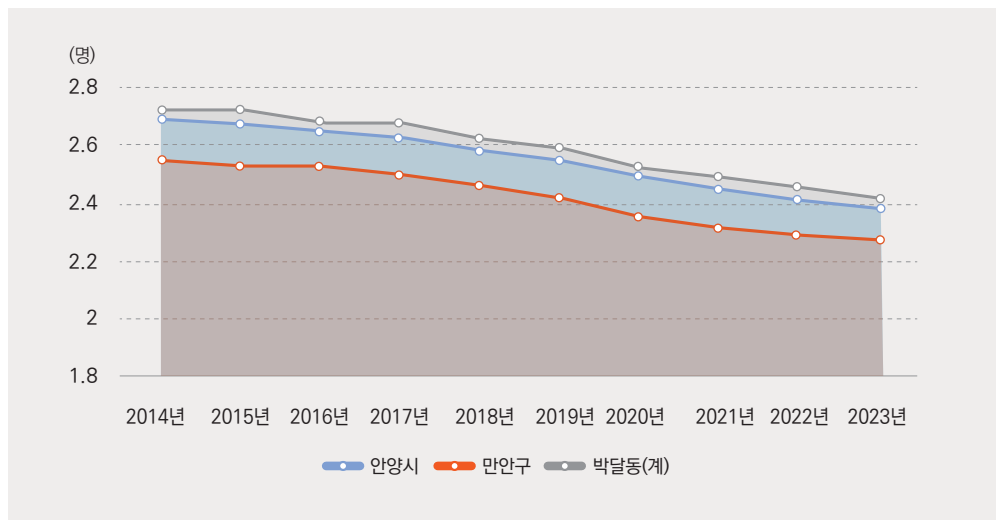
2022년 기준 박달동의 인구밀도는 4,722명/㎢이나, 행정동 박달동(박달1동)의 인구밀도는 16,242명/㎢로 만안구에서 6번째이며, 호현동은 3,181명/㎢로 만안구에서 3번째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박달동의 인구밀도는 안양시 전체 인구밀도 대비 49.8%, 만안구 72.3%로 전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표 3〉 2014~2023년 안양시·만안구·박달동의 세대당 인구수

(단위 : 명)

구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법정동)		
			박달동	호현동	합계
2014	2.69	2.54	2.32	3.11	2.71
2015	2.67	2.53	2.31	3.09	2.70
2016	2.65	2.52	2.30	3.03	2.67
2017	2.63	2.50	2.29	2.99	2.66
2018	2.59	2.46	2.25	2.93	2.61
2019	2.55	2.42	2.23	2.89	2.58
2020	2.49	2.36	2.17	2.83	2.52
2021	2.44	2.31	2.13	2.78	2.48
2022	2.41	2.29	2.09	2.74	2.44
2023	2.39	2.27	2.06	2.73	2.41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통계」(<https://jumin.mois.go.kr/>).



2014~2023년 안양시·만안구·박달동의 세대당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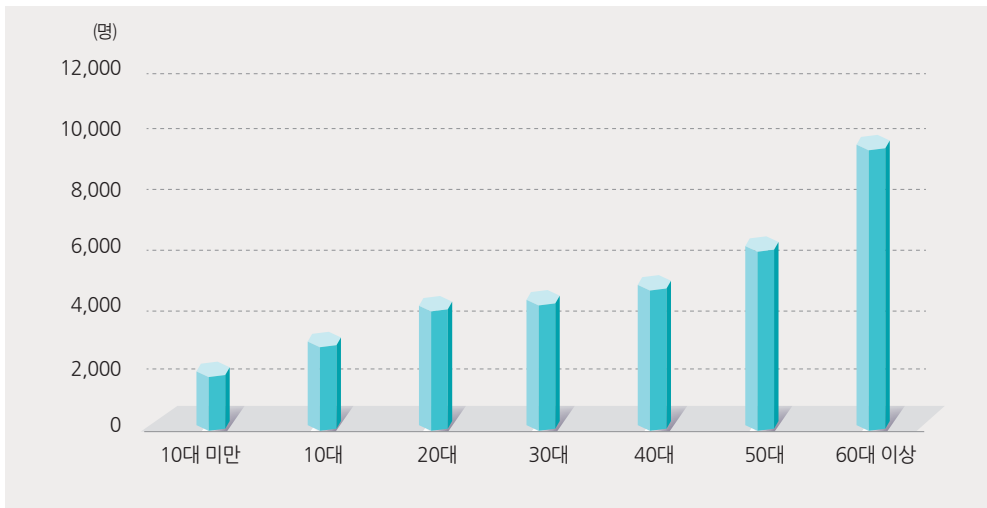
2023년 박달동의 세대당 인구수 현황을 살펴보면, 안양시는 2.39명, 만안구는 2.27명, 박달동은 2.41명이다.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안양시는 전체적으로 세대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박달동은 안양시와 만안구보다 그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4〉 박달동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단위 :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박달동	14,170	7,135	7,035	475	922	1,716	1,538	1,823	2,862	4,834
호현동	21,049	10,524	10,525	1,666	2,167	2,606	2,988	3,257	3,476	4,889
합계	35,219	17,659	17,560	2,141	3,089	4,322	4,526	5,080	6,338	9,723
비율	100.0	50.1	49.9	6.1	8.8	12.3	12.9	14.1	18.0	27.6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주거인구」(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및 주거인구(2024년 1월 기준)」를 활용한 추정치).



박달동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2024년 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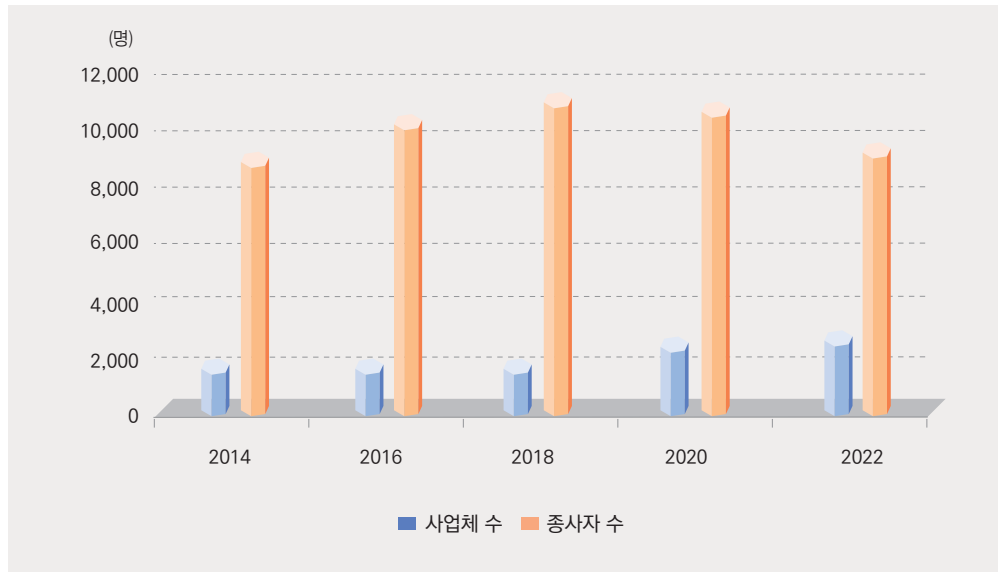
박달동 거주 인구는 총 3만 5,219명으로, 남성이 17,659명, 여성이 17,560명이다. 이를 통해 박달동은 남녀 성비가 비슷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 인구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령화가 진행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와 30대 인구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인구 비율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표 5〉 2014~2022년 안양시·만안구·박달동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안양시	44,505	235,143	44,767	246,711	44,824	255,402	63,348	267,279	65,722	276,105	
만안구	17,716	84,011	17,383	85,351	17,778	89,166	22,696	85,860	24,892	94,242	
박달동 (법정동)	박달동	1,173	3,236	1,150	3,478	1,178	3,873	1,428	3,666	1,555	3,272
	호현동	745	5,970	741	6,901	811	7,308	1,206	7,403	1,337	6,333
	합계	1,918	9,206	1,891	10,379	1,989	11,181	2,634	11,069	2,892	9,605

자료: 안양시, 『안양시 통계연보』, 각 해당 연도(국가통계포털 제공).



2014~2022년 박달동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박달동은 2022년 기준 안양시 전체 사업체의 약 4%인 2,892개소가 자리하고 있다. 박달동 사업체 종사자 수는 9,605명으로, 1개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약 3.3명으로 확인된다. 이는 안양시와 동안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사업체의 규모가 다른 지역이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체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박달동의 성별·연령별 직장인구 분포

(단위: 명)

구분	박달동	호현동	합계	비율(%)
전체	5,183	8,011	13,194	100.0
성별	남성	4,611	6,765	51.3
	여성	3,400	6,429	48.7
연령별	20대	267	691	7.3
	30대	549	1,441	15.1
	40대	852	1,863	20.6
	50대	1,385	1,778	24.0
	60대 이상	2,130	2,238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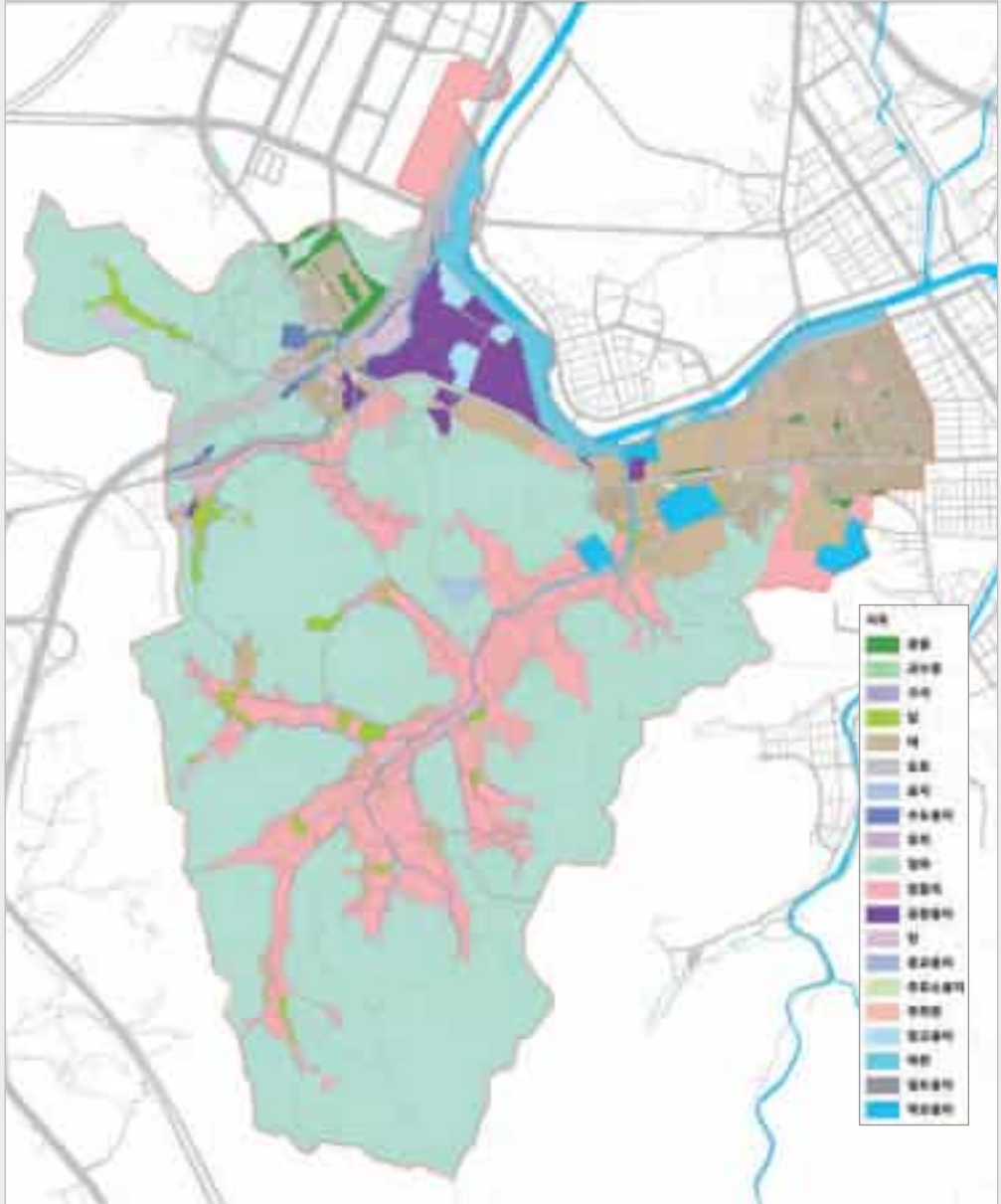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직장인구」(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및 주거인구(2024년 1월 기준)」를 활용한 추정치).



박달동의 연령별 직장인구 분포

박달동의 직장인구 총 1만 3,194명 중 남성 6,765명, 여성 6,429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3%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20%, 50대가 약 24%로, 40~50대 직장인이 전체 직장인구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직장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하고 있다.

2. 박달동의 토지이용



박달동 지목별 현황



공장용지(고려부품)



창고용지(수석)

〈표 7〉 박달동의 지목

구분	면적(ha)	비율(%)	구분	면적(ha)	비율(%)
잡종지	119.99	15.2	하천	22.64	2.9
전	12.58	1.6	주유소용지	0.70	0.1
대	72.71	9.2	구거	6.29	0.8
답	9.91	1.3	묘지	1.59	0.2
도로	45.69	5.8	주차장	0.37	0.0
임야	453.98	57.6	종교용지	0.11	0.0
학교용지	8.88	1.1	제방	0.01	0.0
공장용지	20.61	2.6	창고용지	3.99	0.5
수도용지	3.22	0.4	합계	788.088	100.0
공원	4.84	0.6			

자료 : 「연속지적도형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박달동의 지목별 현황은 총 788.088ha로, 임야가 453.98ha(5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서 잡종지119.99ha(15.2%)와 대72.71ha(9.2%), 도로45.69ha(5.8%)가 그 뒤를 잇는다. 그 외 하천과 공장용지가 각각 22.64ha(2.9%), 20.61ha(2.6%)를 차지한다. 곳곳에 학교용지가 있고 북쪽 지역에는 공장용지와 창고용지가 구성되어 있다.



학교용지(박달중학교)



하천(안양7둔치주차장)



박달동의 공간시설

박달동의 공간시설(광장, 공원녹지 등 시설)은 총 34.213ha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린공원이 19.642ha(5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박달동의 동쪽, 연성대학교 인근 지역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서쪽에는 광명역 나들목(IC) 주변으로 교통광장이 8.431ha(24.6%)로 형성되어 있다. 이



어린이공원(박달어린이공원)

로써 박달동은 교통의 요지로 기능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와 연결되어 박달동과 주변 지역 간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공원은 동남쪽 주거지역 인근에 배치되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표 8〉 박달동의 공간시설

구분	면적(ha)	비율(%)	구분	면적(ha)	비율(%)
합계	34.213	100.0	공공공지	0.181	0.5
공원	1.527	4.5	어린이공원	1.272	3.7
완충녹지	2.941	8.6	경관녹지	0.217	0.6
근린공원	19.642	57.4	교통광장	8.431	24.6

자료 : 「국토계획/공간시설」,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박달동의 개발제한구역

박달동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 외곽의 경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특히 군사 보호시설의 입지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은 박달동 전체 면적의 약 68.6%(472.96ha)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구역은 주로 광명역 나들목(IC)과 인접한 서쪽 일대에 위치하며, 박달산을 포함한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 외곽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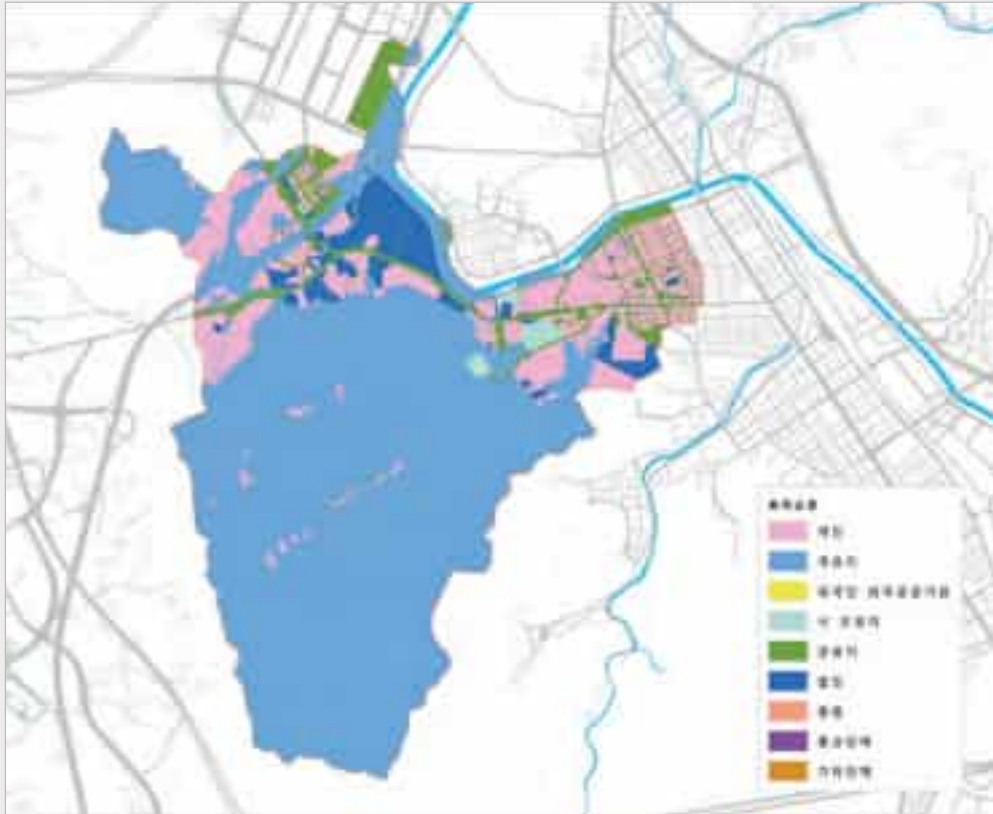


개발제한구역 주변(군사보호시설 등)

〈표 9〉 박달동의 개발제한구역

구분	면적(ha)	비고
개발제한구역	472.96	

자료 :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개발제한구역, 2024년 7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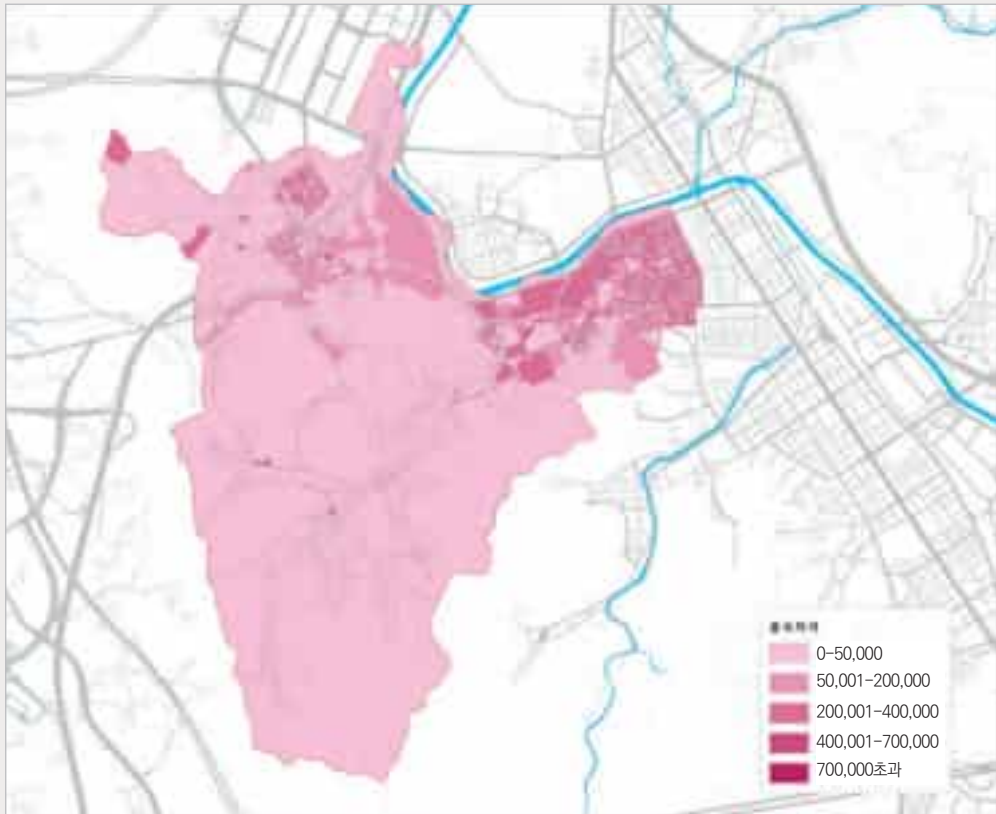
박달동의 토지소유

<표 10> 박달동의 토지소유

구분	면적(ha)	비율(%)	구분	면적(ha)	비율(%)
개인	119.90	15.2%	법인	42.22	5.4%
국유지	569.31	72.2%	종중	0.07	0.0%
외국인 외국공공기관	0.26	0.0%	종교단체	0.39	0.0%
시·도유지	6.40	0.8%	기타단체	0.06	0.0%
공유지	49.48	6.3%	합계	788.09	100%

자료 : 안양시청, 「토지 소유구분 자료」, 2024년 10월.

박달동의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국유지가 전체의 72.2%(569.31ha)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개인 소유지는 15.2%(119.90ha), 공유지는 6.3%(49.48ha), 법인은 5.4%(42.22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도유지는 0.8%(6.40ha)로 나타났다.



박달동의 공시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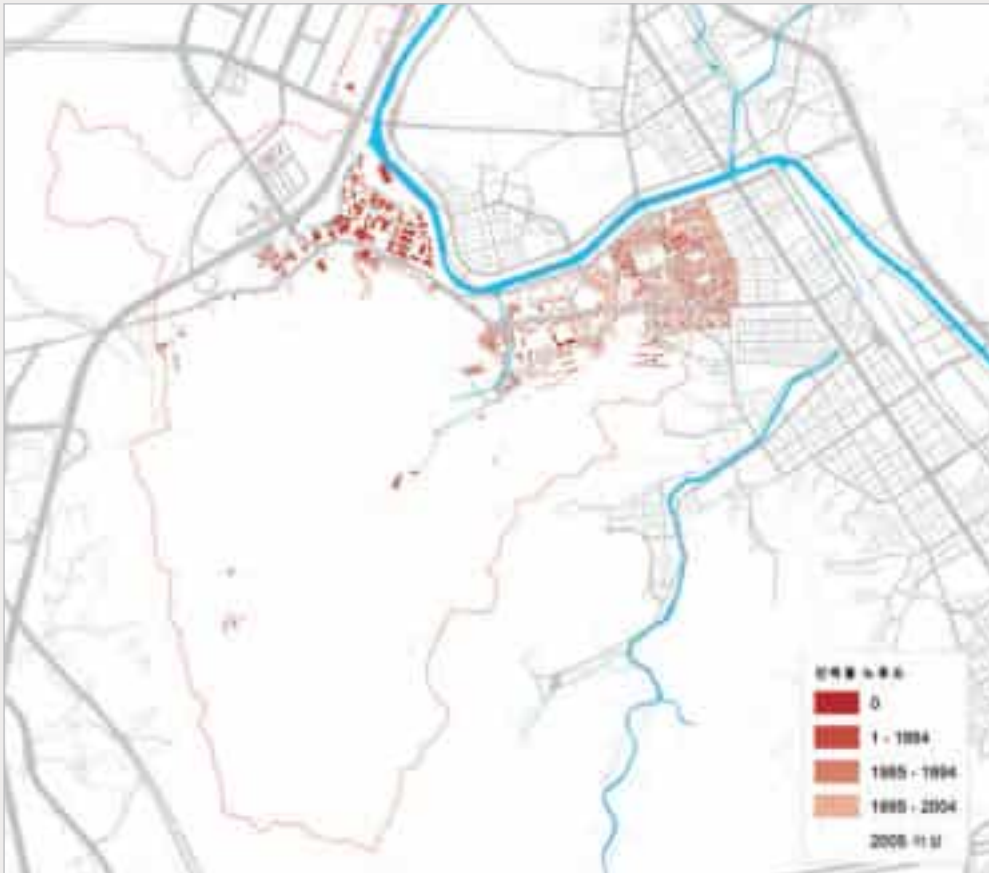
〈표 11〉 박달동의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원)	면적(ha)	비율(%)	개별공시지가(원)	면적(ha)	비율(%)
0~50,000	485.61	61.5	400,001~700,000	32.48	4.1
50,001~200,000	121.68	15.4	700,000 초과	91.11	11.5
200,001~400,000	58.43	7.4	합계	789.31	100.0

자료 : 「개별공시지가정보」, 2024년 7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박달동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동쪽의 주거 및 상업지역은 m^2 당 7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북쪽 준공업지역 주변지역은 m^2 당 20~40만원 사이로 나타났으며, 서쪽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대부분 m^2 당 5만원 이하로 형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공시지가를 보인다.

3. 박달동의 건축물



박달동의 건축물 노후도

박달동의 건축물 노후도 현황을 보면, 사용승인일 기준 30년 이상~40년 미만(1985~1994년) 건축물이 전체의 37.2%(869동)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0년 이상(1984년 이전) 경과한 건축물도 16.2%(377동)를 차지하여,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약 53.4%(1,246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사용승인일이 명시된 건축물에 한한 것이며, 사용승인일이 없는 건축물까지 포함할 경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약 74.6%에 달한다. 반면, 2005년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20년 미만의 건축물은 11.3%(263동)에 불과하여, 최근 건축된 건물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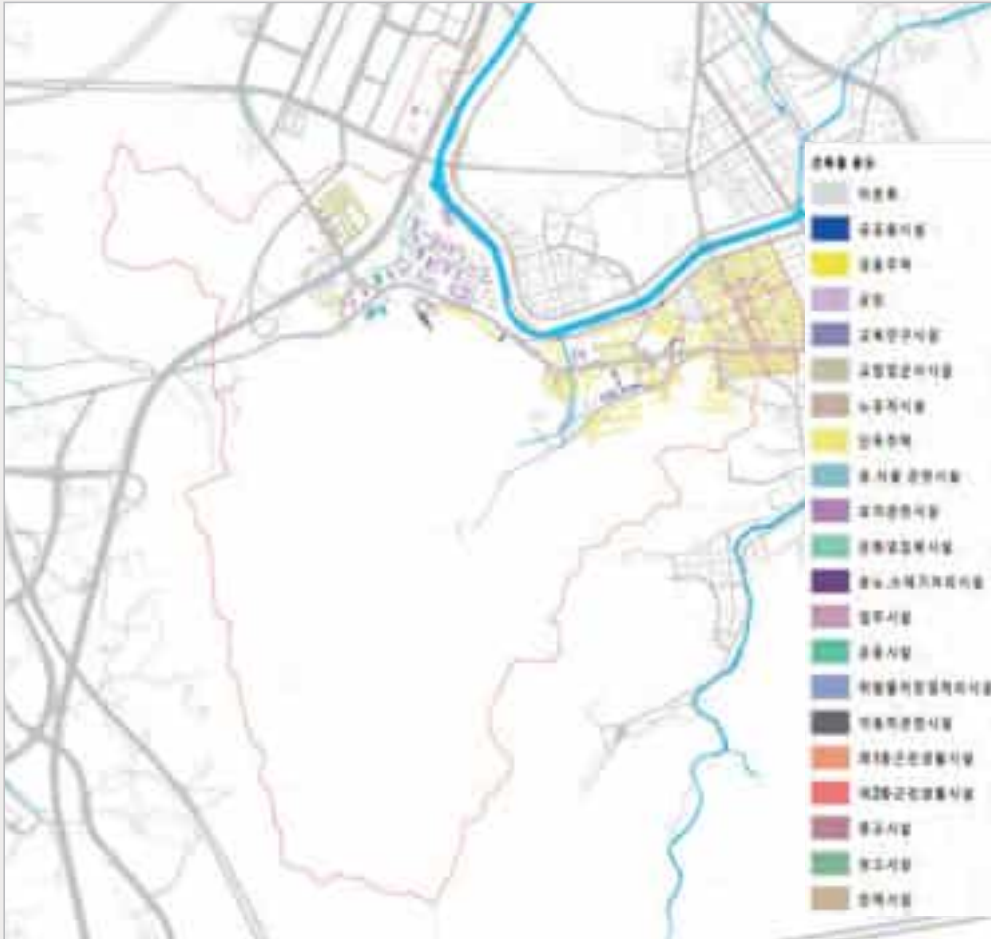
박달시장 주변(상)과 노루페인트 일대(하)의 건축물 노후도

〈표 12〉 박달동의 건축물 노후도

사용승인일	동수(동)	비율(%)	사용승인일	동수(동)	비율(%)
-	494	21.2	1995~2004년	331	14.2
1~1984년	377	16.2	2005년 이후	263	11.3
1985~1994년	869	37.2	합계	2,334	100.0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고 : 해당 건축물 현황은 부속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정보 없음)을 포함하여 검토한 자료임.



박달동의 건축물 용도별

박달동의 건축물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동쪽 지역에는 박달초등학교·삼봉초등학교·안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다수 밀집해 있어 지역 내 교육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다. 이와 함께 박달시장과 인근 상업시설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어, 이 지역은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광명역과 인접한 서쪽 지역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용도 배치가 주를 이루며, 저층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 중심 지역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박달시장 주변(상)과 노루페인트 일대(하)의 건축물 용도별



판매시설(안양박달시장)



공동주택(적성아파트)



단독주택(박달동 9-30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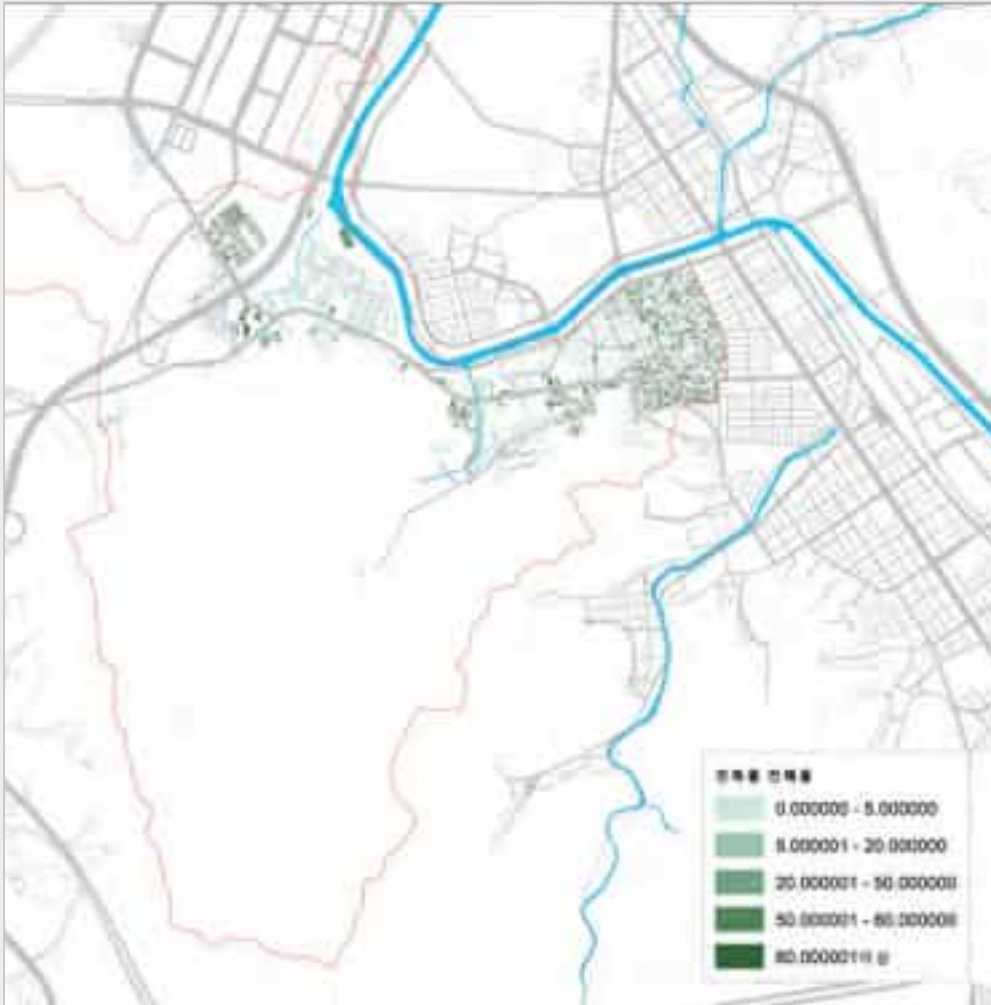
공장시설(노루페인트)



동·식물관련시설(협신식품)



교육연구시설(안양고등학교)



박달동의 건축물 건폐율

박달동의 건축물 건폐율 현황을 살펴보면, 건폐율 50~60%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557동(76.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박달시장 주변지역의 건폐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폐율 20~50%의 구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26동(17.3%)으로 중간 수준의 비율을 보이며, 건폐율 60% 이상에 해당하는 고밀도 건축물은 20동(2.7%)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포는 박달동 내 건축물이 대체로 중밀도에서 중고밀도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박달시장 주변(상)과 노루페인트 일대(하)의 건축물 건폐율

〈표 13〉 박달동의 건축물 건폐율

건폐율	동수(동)	비율(%)	건폐율	동수(동)	비율(%)
0~5%	6	0.8	50~60%	557	76.3
5~20%	21	2.9	60% 이상	20	2.7
20~50%	126	17.3	합 계	730	100.0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고 : 해당 건축물 현황은 부속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정보 없음)을 포함하여 검토한 자료임.



박달동의 건축물 용적률

박달동의 용적률 현황을 살펴보면, 100~200% 용적률을 가진 건축물이 412동 (56.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를 초과하는 고밀도 건축물은 148동(20.3%)에 달하며, 주로 상업지역과 일부 공동주택지에서 확인된다. 용적률 50~100%의 건축물은 116동(15.9%)으로 중간 밀도의 주거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용적률 0~50%의 건축물은 52동(7.1%)으로 저밀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용적률 300% 이상을 초과하는 고밀도 건축물은 거의 없어, 박달동은 상대적으로 저밀도로 개발된 지역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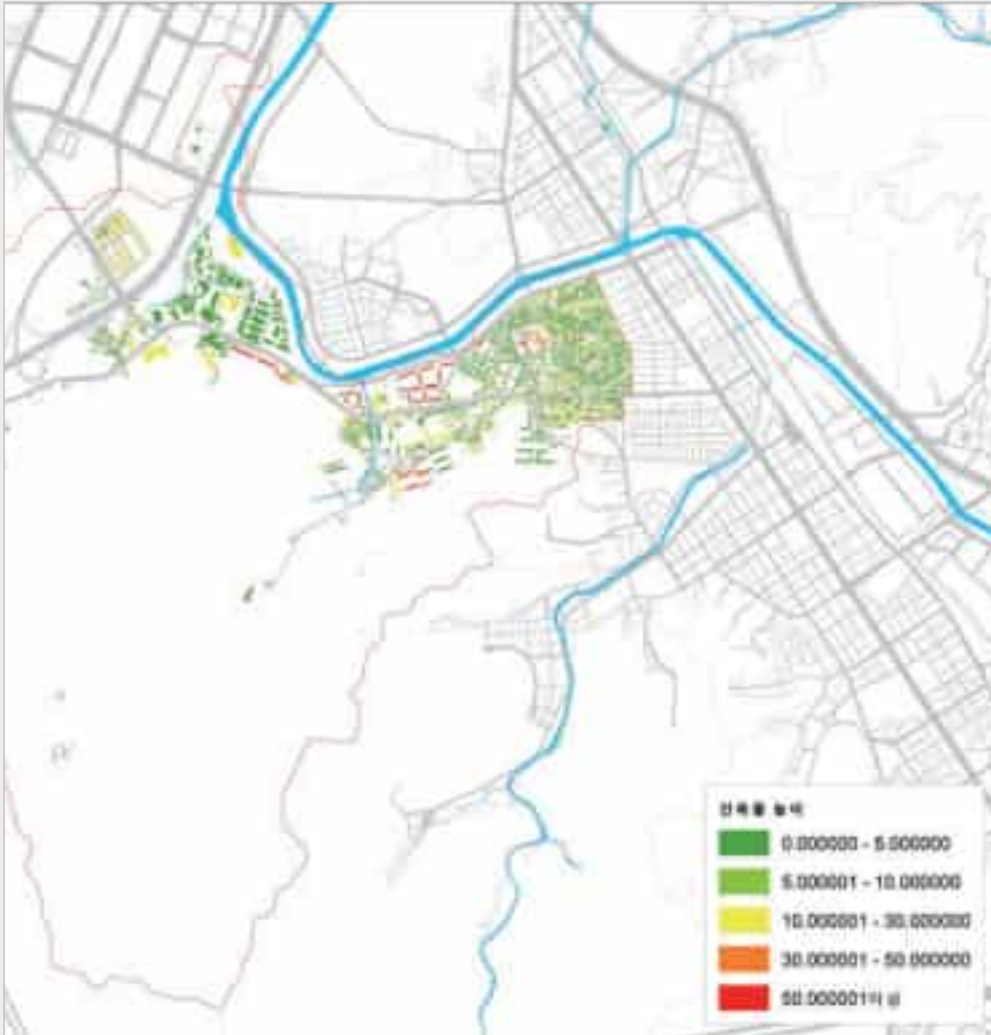


박달시장 주변(상)과 노루페인트 일대(하)의 건축물 용적률

〈표 14〉 박달동의 건축물 용적률

용적률	동수(동)	비율(%)	용적률	동수(동)	비율(%)
0~50%	52	7.1	200% 이상	148	20.3
50~100%	116	15.9	합계	728	100.0
100~200%	412	56.6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도(<https://www.vworld.kr/>).
 비교 : 해당 건축물 현황은 부속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정보 없음)을 포함하여 검토한 자료임.



박달동의 건축물 높이

박달동의 건축물 높이를 살펴보면, 10~30m 높이의 건축물이 460동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이러한 건축물은 주로 박달시장 인근에 밀집해 있으며, 중·저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용 건축물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반면, 50m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35동(4.3%)으로, 이들 대부분은 호현동 일대의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외에도 30~50m 사이의 중층 건축물이 일정 비율로 분포하고 있어, 박달동은 전반적으로 중·저층 위주의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며, 국지적으로는 고층 아파트단지가 혼재하는 특성을 보인다.



박달시장 주변(상)과 노루페인트 일대(하)의 건축물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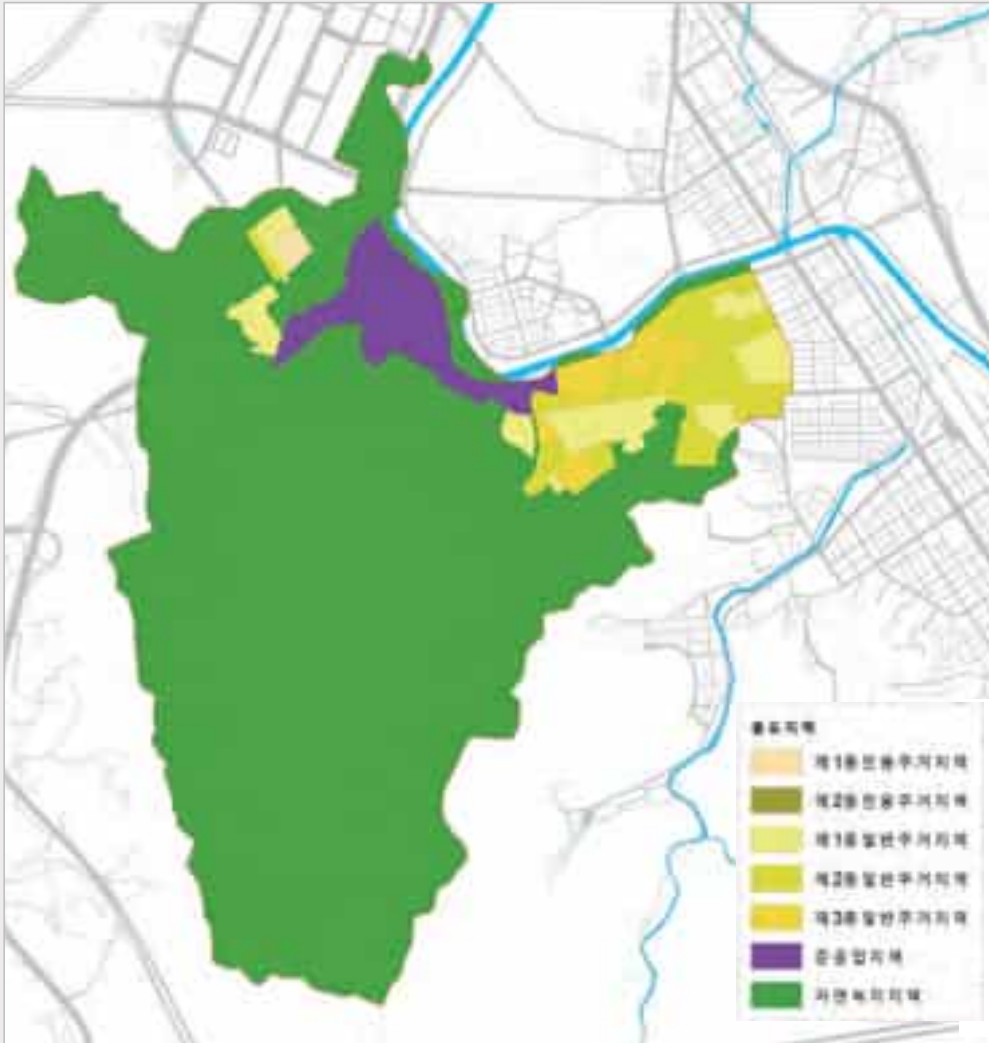
〈표 15〉 박달동 건축물 높이

높이	동수(동)	비율(%)	높이	동수(동)	비율(%)
0~5m	53	6.5	30~50m	7	0.9
5~10m	255	31.5	50m 이상	35	4.3
10~30m	460	56.8	합계	810	100.0

자료 : 「GIS건물통합정보」,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비고 : 해당 건축물 현황은 부속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사용승인일 정보 없음)을 포함하여 검토한 자료임.

4. 박달동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구상



박달동의 용도지역

박달동의 용도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총 789.4ha 가운데 자연녹지지역이 659.91ha (8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39.55ha(5.0%)로 박달동의 인구가 대부분 밀집해 있는 주거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루페인트, 코카콜라 물류센터 등이 위치한 준공업지역은 37.41ha(4.7%)로 구성되어 있다.

〈표 16〉 박달동 용도지역 현황

구분	면적(ha)	구성비(%)	비고
합 계	789.4	100.0	
제1종전용주거지역	2.34	0.3	
제2종전용주거지역	0.06	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3.17	4.2	
제2종일반주거지역	39.55	5.0	
제3종일반주거지역	16.96	2.1	
준공업지역	37.41	4.7	
자연녹지지역	659.91	83.6	

자료 : 「용도지역지구(국토계획/도시지역)」, 2024년 6월, v-world 디지털트윈국토(<https://www.vworld.kr/>).



제1종일반주거지역(호현동복지회관 주변)



제3종일반주거지역(한신희플러스아파트)



준공업지역(하이트진로안양직매장)



자연녹지지역(관조사)

박달동이 속한 석수·박달 생활권은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2017)에서 자연·산업·문화가 공존하는 복합축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수리산·서독산 등의 산림자원과 안양천·박달천·삼봉천 등의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녹지축 형성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 주요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다. 산업 측면에서는 박달동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형 첨단산업 유치와 환경기초시설 정비를 통해 산업기능을 고도화하고자 하며, 이는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19)에서 제시된 산업기반 유지지역, 성장관리형 정비구역 지정에 기반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박달동 주민센터 일원은 『안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2023)에 따라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주거지 정비, 생활 SOC 확충, 공동체 회복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주변 노후 주거지는 정비유예구역으로 관리되어 소규모 정비나 점진적 정비가 유도된다.

박달동은 환경보전, 산업고도화, 주거지 재생, 문화자원 활용을 아우르는 복합 전략을 통해 서남부권의 자족 거점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이 구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 방향은 장기적으로 광명시·군포시 등 인접 지역과의 연계 속에서 박달동이 서남부권 중심 생활거점으로 육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7〉 상위계획에서의 박달동 개발구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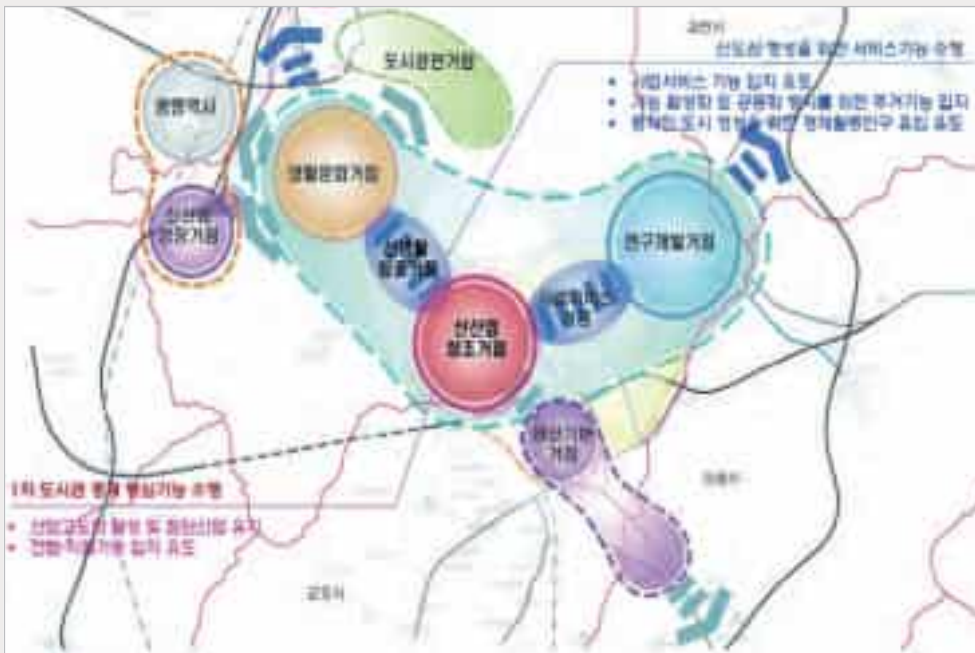
분류	현황
2030 안양도시 기본계획(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수·박달생활권 개발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부 관문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 시설 정비 및 가로경관 개선 - 광명, 시흥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체계 강화 - 군사시설 재배치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② 산업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달동 공업지역을 고부가가치 도시형 첨단산업특화단지로 조성 - 환경기초시설 일원 정비 및 공업기능 도입을 통한 지역활성화 유도 - 삼막마을, 예술공원 등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③ 휴식여가 기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과 공원녹지 연계를 통한 둘레길 조성 - 도시공원 조성을 통한 쾌적성 증진
202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중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기존시가지정비 및 개발 - 보전용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도시생태환경 보전
안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퇴분석 결과 : 박달동은 인구감소, 사업체 감소 및 노후건축물 다수의 쇠퇴지역 • 박달동 도시재생 : 청년행복주택과 지하주차장이 건립되고, 다목적회관(다목적실, 경로당 등)이 건설되는 등 박달동 주택가 일대가 편리한 생활과 안전한 지역으로 변화
안양시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안생활경관권역 : 중심지 경관 정비 및 특화요소 도입을 통한 기성시가지 활성화 유도 - 서부자연경관권역 : 수리산의 생태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산림 휴양 경관 창출 • 경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경관축: 관악산, 삼성산 산지 및 구릉지, 등의 자연성 보호 - 수변경관축: 하천변 경관위해요소 관리 및 수변경관 특성화 유도



광명역세권과 접해 있는 호현동 친목마을 전경



2030 안양 도시기본계획(2017)



202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19)

경관구역(4)

안양시 경관특성과 형성구분, 상위 및 관련계획 반영

- 북부자연경관구역 : 생태환경 보호 및 산림과 조화로운 녹색 시가지 경관 창출
- 서부자연경관구역 : 수리산의 생태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산림휴양 경관 창출
- मान생활경관구역 : 중심지 경관 정비 및 특화요소 도입
- 동안생활경관구역 : 쾌적성, 편리성, 여가문화 이미지 형성



경관축(10)

주요간선도로 및 녹지 수변축을 대상으로 설립

- 녹지경관축 : 주요산지의 산림, 녹지경관 보전
- 수변경관축 : 하천 경관 정비 및 특화요소 도입
- 도로경관축 : 경관 위해요소 관리, 녹지네트워크 구축
- 철도경관축 : 녹지대 경관형성 및 방음벽 등 시설물 경관 개선

경관거점(34)

침적된 경관요소를 형성하고 있거나 잠재성이 있는 지역

- 관문경관거점 : 자연적 요소를 활용한 인지성 강화
- 녹지경관거점 : 녹지거점 배후 자연경관 보전
- 예술여가경관거점 : 커뮤니티 시설 및 문화공간 조성
- 역사문화경관거점 : 상징성 및 인지성 강화

안양시 경관계획



제1장

박달생활권의 중심, 안양박달종합시장

백민정 전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학예연구사



1. 박달종합시장의 개장과 이동

안양시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계획적인 도시구조를 조성하였으며, 토지 소유 형태를 재정비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1지구~7지구까지 토지구획정리지구마다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장부지가 결정되었다. 박달동이 포함된 2차 토지구획정리지구에도 박달동과 석수동에 각각 시장부지가 결정되었다.

안양시에는 1961년에 개장한 안양중앙시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지만, 박달동에서 안양중앙시장을 이용하는 데는 교통 여건이 불편하였다. 당시 안양 생활권이었던 인근의 시흥군 수암면과 박달동, 그리고 박달동과 인접한 안양2동을 소비지역으로 하는 시장이 필요하였다. 1970년대 박달동과 안양2동은 인구 유입이 지속되어 거주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박달동에 상설시장이 개설된 것이다.

1978년 5월 30일부터 시장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안양박달시장(이하 박달시장)은 당초에 '안양종합시장'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고, 박달동 52-1번지에서 주차장 부지 120㎡와 오물처리장 198㎡, 기타 면적 1,113.15㎡를 포함하여 3,304㎡ 규모로 설립되었다.¹ 1978년 10월 30일에 준공 예정이었던 안양종합시장은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1979년 12월 30일에 완공되었고, 1980년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처음 시장이 개설된 위치는 현재 박달시장 자리가 아니다. 원래 시장은 지금 장소에서 조금 더 안쪽에 위치한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설립된 이 시장은 상설종합시장에 걸맞게 여러 생활용품과 식자재를 판매하였다. 박달시장이 처음 등장한 때부터 1990년



어서 오십시오
WELCOME

안양 박달시장
ANYANG DAEJEON MARKET



안양시

안양시

경안경
에노마

남대문이

정

이피
하인



대까지, 한 곳에서 식자재와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였다. 인근 시장으로 안양중앙시장이 있었지만, 박달동 일대 사람들이 도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은 박달시장이었다. 당시 시장의 주요 고객이었던 박달동 주민 김문영²의 제보에 따르면, 박달시장은 접근성도 좋고, 가격대도 안양중앙시장보다 저렴하였다고 한다.

1980년대의 시장은 여느 시장과 다를 바 없이 길이 고르지 않았고, 눈이나 비를 막아 줄 구조물도 없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눈과 비가 오는 날에는 가계마다 미리 준비한 비닐을 꺼내야 했고, 질퍽한 땅 때문에 장화를 신고 다니는 상인이 많았다. 일부 상인은 시장 내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 삽을 비롯한 장비를 동원하여 때마다 시장 내 길을 정비하기도 하였다.

이때의 시장 터는 현재의 박달시장과 다른 곳이다. 1980년대까지 운영되던 초기의 시장은 현재 박달시장 내 4번 출구 방향의 어느 골목길과 이어진다. 지금은 폐허처럼 남아 있지만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박달시장이 활발하게 운영되던 곳이다.

현재 박달시장 자리는 개장 초기만 해도 주택가였으며, 주택가 뒤편으로는 포도밭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시장이 활발하게 운영되자, 시장 주요 거리 옆의 주택들은 상가로 용도를 변경하기 시작하였다. 집주인은 주거용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상인들에게 점포를 전세로 내놓았다. 시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점포는 건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거래되었다. 시장 주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대부분 본인의 주거지를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큰 수익을 창출하였다.

자연스럽게 박달시장은 주택을 개조한 점포들이 즐비한 옆 거리까지 확대되었다. 이곳은 새로 개조한 점포들로, 보다 정리 정돈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주택가에 있어 도로 청소차도 지나다녔기 때문에 기존 박달시장 터와 비교했을 때 쾌적한 분위기였다. 이때 자본력 있는 상인들은 새로 갖춰진 점포로 이동하면서, 기존 박달시장 터는 점점 운영이 미미해졌고, 주택이 즐비하게 있던 장소는 시장 골목이 되었다.

신현진³ : 저 안에 지금은 뭐 폐건물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원래 박달시장이라고 해서 생겼어요. 생겼었는데 그(시장) 주위로 조금씩 조금씩 크다 보니까 바깥으로 커버린 거예요. 시장 통로가 이렇게 쪽 있으면, 요 밑에 내려가면 여기가 원 시장이라고요. 여기는(현재의 시장터를 가리킴.) 전부 단독주택이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시장이 오래 잘되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장사를 하는 거야.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 상가로. 다 1층짜리 상가로 바뀌었겠죠? 이렇게 해서 거기가 장사가 잘



현재 박달시장 입구 옆의
옛 박달시장 건물



옛 박달시장 구조물



옛 박달시장 점포



옛 박달시장 점포

되니까 이거(기존 시장터) 밖으로 시장이 형성이 돼서 여기(기존 시장터)가 이제 안 될 거 아니요. 그 러니까는 요 시장이 이제 죽어버린 거죠.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꾸 또 올라가는 거지. 여기 자꾸 올라가다가 저 끝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 주변이 굉장히 넓은 도로거든요. 지금은 시장이지만은 이제 기존에는 아침에 오면 쓰레기 청소차가 이리 막 땡기고 갈 때니까 깨끗했죠.

〈표 1〉 2024년 현재 안양박달시장 일반 현황

시장 구분	상설시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32-3(박달동)
대표자	신현건
관리자(상인회,조합)	안양박달시장상인회
시장 형성	1979년
등록(인정)일	2005년 10월 14일
점포 수	142개
전체 면적	8,387㎡
영업시간 및 휴무일	점포별 상이
주요 취급 품목	육류, 쌀, 채소, 과일, 건어물, 생활잡화 등
공영주차장 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33(안양동)
주차요금	전통시장 이용 시 공영주차장 주차권 제공(90분 무료)

기존 시장 장소에서 자리를 지키던 상인들도 시장 고객들의 동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현재의 시장 터로 점포 위치를 옮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현재 박달시장 1번 게이트 방면으로 계속해서 점포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의 시장 거리가 형성되었다.

2. 박달시장의 중심, 박달시장상인회

박달시장이 현재 위치에 자리를 잡고 난 후, 상인들은 체계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시장의 구심점 역할을 할 기구 또는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때는 대형마트가 국내에 활발하게 운영되기 시작한 시기로, 시장 운영의 전환점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였다. 상인회 결성의 필요성을 느낀 상인들은 2002년 8월 1일 상인회 표준정관을 제정하



박달시장 중심 통로

였다. 이후 2005년 10월 13일 박달시장이 안양시의 전통시장 인정을 받게 되면서 상인회 활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와 안양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아케이드를 설치하였고, 공용화장실·공용주차장·가로등·전광판 등을 설치하였다. 이후 소방시설이라든가 화재를 비롯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품들을 시장 곳곳에 배치하여, 더욱 정돈된 모습을 갖추었다.

신현진 : 인정시장이 2005년 10월 13일. 그전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고 그러다가, 상인회가 조직된 거야. 우리 힘으로는 안되니까는. 그런데 이제 지자체 지원을 받으려니까 또 인정시장이 돼야 되는 거야. 인정시장이 아니면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가지고 인정시장으로 허가 받고 나서 그다음 해에 아케이드 공사를 시작했어요.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사무실, 공용화장실, 시장주차장, 가로등, 전광판 이런 거를 전부 했었어요.

시장 통로의 아케이드 설치에 박달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고 난 후 처음으로 진행된 공사이자, 상인회가 설립되고 처음으로 추진한 업무로 더욱 의미 있는 사건이다. 제보자의 구술에 따르면, 당시 시장 통로에 아케이드가 설치된 곳은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비롯하여 다섯 곳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아케이드 공사는 상인회의 출범을 알리는 대표적인 사건이자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아케이드 설치 공사는 시작 전에 고사(告祀)를 지냈다.

아케이드 공사 후 가장 뚜렷한 변화는 시장이 눈과 비를 비롯한 날씨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 점은 상인들이 점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에 따라 시장 이용객에게도 편의를 가져다주었다. 시장 이용객이 아닌 사람들도 시장 통로로 이동하게 되면서, 아케이드 설치에 시장 매출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신현건 : 이것 봐. 다 파라솔이었어. 다 천막으로 있었지. 이런 상태로 장사를 하는데, 눈 오고 비 오고 덥고 춥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러가지고 우리 상인회 조직에서 정부지원금 받아서 아케이드를 설치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포항 죽도시장하고 대역섯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생겼었어요. 우리가 그거를 가서 연락을 해보고 문제점을 조사하고 와서, 시에다가 “우리도 해주라, 이런 게 좋고 하니깐.” 그랬더니 시에서 해준 거죠.

지금의 박달시장은 천장과 측면에 전등이 있어 밤낮으로 밝지만, 상인회가 조직된 2005년만 해도 시장의 밤이 어두웠다. 이러한 이유에서 줌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하였다. 상인회 회원들은 이를 방지하고자 2명씩 당번을 정해 매일 밤 시장을 순찰하였다. 이 시스템으로 줌도둑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마을 주민들에게는 박달시장 밤거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주었다. 이후 전등 설치를 확대하고, CCTV를 설치하면서 야간 순찰팀은 없어졌다. 박달시장 주변 주민들은 CCTV가 설치된 밝은 시장 거리를 안전한 곳으로 여기고, 오히려 밤에는 이 길을 더욱 선호하기도 하였다.

신현건 : 지금은 CCTV가 다 있는데 그 당시에는 도둑들이 밤에 많았어요. 조명도 없고, 밤에 캄캄하잖아요. 그러가지고 그때 상인들이 하루에 밤새도록 후레시를 들고 순찰 돌고 그렇게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이런 시설들이 안 났으니깐. 그 당시에는 저녁에 가게 문 닫고 가면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하루 두 시간씩 시간 되면 나와서 이렇게 순찰 돌고 그랬지요. 상인회원들 전체 번호가 쪽 있으



시장 통로 아케이드 설치 공사 전 고사(2005년, 박달시장상인회 제공) 통로에 파라솔이 보인다.



박달시장 통로 아케이드 설치 공사(2005년, 박달시장상인회 제공)

면, 몇부러 몇까지는. 예를 들어 일곱 명이 죽 있으면 1번·2번은 저녁 열 시부터 열두 시까지. 시간을 정해주고 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순찰을 계속 도니깐 그런 게(도둑) 없어졌죠.

박달시장 개설 관련 문서에는 처음 시장 명칭이 ‘안양종합시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시장 이용객과 상인들에겐 처음부터 이 시장은 박달시장이었다고 한다. 박달동에 있는 유일한 종합시장이었기 때문이다. 2005년에 상인회가 ‘안양박달시장’으로 안양시 전통시장 등록을 하면서, ‘안양박달시장’이 되었다.⁴

박달시장상인회 출범 후, 상인회 소속 상인들은 매달 1만 원씩 회비를 냈다. 이 회비는 시장 청소는 물론이고 시장 운영기금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경조사를 챙겨주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또한 상인회는 상인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단합회를 개최하기도 했고, 신입 상인을 환영해 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박달시장은 상인회 등장 이후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는 등 보다 체계화된 시장의 모습을 갖춰갔다. 전통시장에 변화를 요구하던 사회적 흐름에 상인회의 등장은 박달시장 운영의 전환점을 마련해 준 것이다. 현재도 박달시장은 상인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상인회에서 제정한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상인들은 이러한 운영에 소속감을 느끼며, 시장 활성화에 함께 노력하고 있다.



통로 아케이드 설치 후 밝아진 박달시장(2008년, 안양시청)

최신제⁵ : 상인회 생기고 나서 훨씬 낫죠. 그전에는 그냥 흩어져 있는 거였고, 이제는 단체로 딱 묶은 거죠. 마음가짐이 틀리지요. '우리도 어디에 소속이 되어있다.' 뭐 그런. 소속감이 굉장히 큰 거지요.

3. 박달시장에서 장 보기

1) 박달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

박달시장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식자재가 주요 거래 품목이다. 지금은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이 이뤄지면서 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2000년대 이전까지 이곳은 만물상을 방불케 하는 다양한 물품과 식자재를 갖추고 있어 이용객이 많았다.

1980년대에 박달동에서 가정주부로 생활했던 김문영은 식재료를 사러 박달시장에 자주 방문하였다. 가족 식사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녀들의 도시락 준비로 식재료 소비가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는 반찬 마련을 위해 대체로 조리·제조·가공 등 인위적인 과정이 가해지지 않은 원재료를 사거나, 밀가루와 쌀을 비롯한 1차 가공식품을 구매하였다.

현재는 급식문화 정착과 외식 및 배달 위주로 식사를 해결하게 되면서, 원재료와 1차 가공식품을 사러 오는 소비자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청과물·축산물·수산물을 비롯한 원재료는 시장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품목이다. 특히 원재료는 활용도가 높아 소비가 빠르고, 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면 신선도를 파악할 수 있어서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품목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박달시장 내에서 가장 많은 점포 수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청과물'이다. 이 외에도 축산물과 수산물 점포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외식을 즐기고, 배달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박달시장 내 가장 많은 점포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음식점이다. 국밥·국수·족발·초밥·만두·김밥·도넛·짬뽕 등의 먹을



박달시장상인회 사무실 입구

거리를 찾아볼 수 있다. 반찬가게도 여러 곳이 영업하고 있다. 최근에는 커피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저가의 카페도 두 곳 생겼다. 이곳은 시장을 찾는 고객은 물론이고 상인들도 편하게 이용한다.

〈표 1〉 박달시장의 주요 품목과 점포 현황

주요 품목 및 점포	점포 수(개)	주요 품목 및 점포	점포 수(개)
음식점 및 분식	39	수산물	7
청과물	26	반찬가게	7
축산물	14	건강식품	6
마트	10	건어물	4
두부·김	8	카페	3
방앗간 및 떡집	8	총 합계	132

비고 : 2024년 4월 현장 조사

중국을 비롯한 외국 식품을 판매하는 마트도 두 곳 생겼다. 이는 중국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안양시의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박달시장은 반경 1km 이내 거주하는 다문화 인구가 약 3,0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데,⁶ 이에 따라 시장 내에 이들 대상의 마트가 생겨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박달시장의 점포와 상품들은 생활권 시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현재 이곳에 인접하여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떡집과 두부 판매점도 여러 곳 확인할 수 있는데, 박달시장 주요 고객이 60대 이상의 노년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떡과 두부는 간식뿐만 아니라 식사 대용으로도 즐길 수 있어 이들이 선호하는 음식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과 전통 과자를 판매하는 곳도 볼 수 있다.

현재는 인근의 광명역세권에 대형 쇼핑몰이 여러 곳 들어서면서 젊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점포들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특히, 의생활과 주생활 관련 물품은 대형 쇼핑몰과 온라인에서 주로 소비하게 되면서, 시장은 식생활 관련 점포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구점, 철물점 등 식생활과 관련 없는 점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기타 점포로는 화장품점·피부관리점·약국·골동품점·가구점·세탁소·철물점·안경점·열쇠점·핸드폰 판매점·꽃집·미용실 등이 있다. 현재 점포의 개업과 폐업이 수시로 진행되며, 상인들끼리 점포를 나누거나 합치기도 하여 정확한 점포 수를 파악하는 것은



박달시장 수산물 점포(이정범 제공)



먹거리를 판매하는 박달시장 점포 (이정범 제공)

어렵다고 한다.

상품 거래는 점포와 좌판대에서 이루어진다. 좌판대는 공간이 협소하므로 좁은 공간에 진열할 수 있는 상품을 주로 판매한다. 채소와 과일을 비롯한 청과물이 대부분이다. 양말, 생선, 분식을 파는 좌판대도 있다. 일부 점포는 가게 앞 좌판대에 점포 상품을 넓게 진열하여, 가게를 넓게 쓰는 데 활용하기도 한다.

박달시장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다양한 상품과 점포로 북적였던 곳이다. 현재는 공실이 일부 존재하여 그때와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상품과 여러 점포가 이곳에 자리 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권 시장의 모습을 유지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따라 시장 상권이 변화하는 모습은 '생활권 시장'이라는 박달시장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준다.

2)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

시장은 소비자가 직접 현장에 와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근래에는 전통 시장의 유통과정이 현대화되면서 택배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온라인에서 장 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상품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방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1980년대 박달시장의 일부 점포는 고객이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손수레나 트럭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배달해 주기도 하였다.

특히 식당은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배달해 주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박달시장의 '선도상회'는 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있었던 곳으로, 청과물을 판매하는 점포이다. 청과물은 개인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수요가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도상회는 1980년대에 트럭을 구입하여 일부 식당에 청과물을 직접 배달해 주었다. 당시 시장에서 배달서비스를 시행하는 몇 안 되는 점포 중 하나로, 시장 배송 사업의 선두 주자였던 셈이다.

상인회 조직 이후 박달시장은 상인회 주도로 새로운 유통방식을 도입하였다. 상인회에서 공용 배송 차량을 운영하는데, 배송비는 해당 점포에서 지불하는 방식이다. 상인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신청하여 배송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달시장 고객은 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면, 시장 공용 배송 차량을 통해 무료로 배



박달시장의 배달 서비스 홍보물(2021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시장 공용 배송 차량을 이용한 배송서비스는 더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2024년 이후 중단되었다.

신형진 :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을 받아서 배송 사업도 했었어. 우리 시장 손님들 이 물건을 사면 그냥 조그마한 다마스 차로 배송을 다 해주는 거. 점포주들이 2,000원씩 이제 운송비를 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 월급도 주고, 기름도 넣고 그러거든요.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마케팅도 시도하였다.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여 장보기 시스템을 온라인에 도입한 것이다.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박달시장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 이 사이트는 현재도 운영 중이다.

박달시장상인회 사무실 한쪽에는 택배취급소가 있다. 2015년에 개설된 이 취급소에서 는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고객과 인근 주민들의 택배도 접수한다. 시장 상인들의 상품 배송서비스를 시작으로 한 상인회 사무실 내 작은 택배취급소가, 시장 고객과 주민들 모두가

사용하는 편의시설로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무실 한편에는 여러 개의 택배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유통방식이 거듭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고스란히 놓여있는 택배 상자를 통해 전통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정을 소소하게나마 느낄 수 있다.

4. 박달시장의 사람들

1) 시장을 찾는 고객들

1990년대 초반까지 박달시장 인근에는 만도기계(株)⁷라는 대기업 공장이 있었다. 이곳 직원들은 통근 거리를 감안하여 회사 근처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들이 박달시장의 주요 고객이었을 거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만도기계(株)는 1990년대 중반 무렵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그 자리에 1,400세대 가까운 규모의 고층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현재 박달시장 고객이 줄어든 것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시장 상인들은 만도기계(株)의 이전이 시장 고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현재 박달시장의 주요 고객은 1980년대부터 박달시장을 이용했던 동네 주민들이다. 지금은 60세가 넘는 노인들이지만, 40여 년 전에 이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고, 생활용품들을 샀던 사람들이거나 그 가족이다. 이들은 그때 다니던 시장이 익숙해서 지금도 이곳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김문영 : 시장까지 걸어서 30분 걸려. 운동도 할 겸 걸어오지. 여기 오면 앉아 있게도 해주고, 물이라도 한 잔 먹을 수 있지. 그리고 여기 동네가 익숙하고, 여기서 쪽 살았으니깐 시장 오는 게 익숙해. 또 옛날부터 정이 있어서 그래요. 마트 가면 딱딱하고,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런 시장이 좋다고.

1970년대부터 박달동에 거주했던 김문영은 45년째 박달시장 고객이다. 도보 30분 거리를 가깝다고 여기며 이곳을 방문한다. 박달시장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김문영은 시장에 오면 친분 있는 점포에 들러 물 한 잔으로 목을 축인 후, 시장을 둘러본다. 이러한 생활이 전통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정이라고 한다.

1980년대~1990년대의 시장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손님들로 북적였다. 주로 가족의 저녁 식사와 도시락 반찬용 재료를 구매하러 나오는 주부들이었다. 이때를 지나서 오

후 10시까지도 손님이 많았다고 하는데, 신선식품 상인들이 그날의 재고를 처리하는 시간대였기 때문이다. 오후 7시가 넘어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저렴해졌고, 이를 겨냥한 손님들이 늦은 시간에 시장을 방문하는 것이다.

지금도 시장이 손님들로 가장 붐빌 때는 평일 저녁 시간대이다. 저녁 식사 재료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달시장이 활기를 띠던 2000년대 이전과 비교하면, 저녁 시간대의 시장도 한산한 편이다. 급식·외식 문화의 정착으로 식자재 소비가 줄어들었으며, 소비 형태도 변화했기 때문이다. 주말은 평일보다 더 한산한 편이라고 한다. 노년층들은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중장년층과 청년층은 외지로 나가면서 이용객이 더 감소하는 추세이다.

박달시장이 위치한 곳은 빌라와 단독주택이 주요 주거 형태인 구도심 지역이다.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단지 내에 입점한 마트를 이용하고, 젊은 층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보기를 선호하는 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박달시장 인근에 빌라와 단독 주택이 많은 것은 시장 상인들에게 고마운 일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다.



박달시장에 장 보러 온 사람들(이정범 제공)



박달시장의 점포와 가판대

박달시장은 광명역이 가까워 광명역세권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차량 15분 거리에 이마트 안양점과 홈플러스 평촌점이 있고, 이보다 더 가까운 거리의 광명역세권에 코스트코·이케아·롯데몰·AK플라자 등의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이 있다.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젊은 고객은 광명역 인근 상권을 이용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박달시장은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공용화장실 등 시설의 현대화는 물론이고, 택배 서비스·홈페이지 운영·홍보물 발간 등 경영의 현대화를 시도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박달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시장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버스·택시·자가용 등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불편이 없는 곳이지만, 시장 주 이용객들은 도보로 오가는 사람들이다.

2) 시장을 지키는 상인들

꾸준하게 바뀌는 상인들 사이에서 40년 넘게 박달시장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시장에서 인생이 갔어요” 라고. 그 말은 인생에 대한 푸념이 아닌, 박달시장 생활이 자신들 삶의 전부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도상회는 1980년대부터 박달시장에 있었다. 선도상회 사장 이인숙⁸은 시장의 변화를 모두 지켜봤으며, 몸소 체험한 박달시장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는 1990년대 초반 선도상회와 주변 점포에 발생한 화재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는 화재보험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던 때라서 화재 이후의 피해는 상인이 고스란히 감당하여야 했다. 어쩔 수 없이 화재 후 몇 달간 점포 문을 닫았다고 한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가게 문을 오래 닫아본 적 없다는 선도상회 사장의 구술은, 자신의 인생이 시장에서 다 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새벽부터 서울 가락시장이나 안양 남부시장에서 청과물을 도매로 떼어다가 팔았고,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하루의 영업을 마감하였으며, 중요한 집안 행사가 아니면 쉬지 않았다고 한다. 40여 년 넘게 이러한 일과를 반복하며 살았던 박달시장 상인 이인숙은 시장에서 보내는 일과가 너무나 익숙하다.

인천건어물 사장 최신재도 이곳에 자리 잡은 지 올해로 37년째이다. 최신재는 1988년 현재 자리에서 인천건어물 점포를 개업하였다. 직장인이었던 남편이 가게 운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수시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건어물이 여자 혼자서 영업하기에는 적합한 품목이었다. 1980년대~1990년대와 지금을 비롯하면 시장의 분위기도 변했고, 고객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시장은 항상 “활력이 넘치고, 재미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최신재 : 여기 시장이 난 재미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주책맞아 보일 수 있겠지만, 뭐 그냥 나는 나 나름대로 여기서 재미있게 보내고 있어요. 여기서 내 젊은 시절 다 보냈는데 후회는 안 해요.

최신재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품물 동아리 ‘한두레’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박달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이 동아리는 평균 15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품물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상인이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지만, 현재 회원은 모두 시장 상인들이다.

한두레 회원들은 품물을 배울 뿐 아니라, 대중 공연을 하기도 한다. 특히 시장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자주 동원되는데,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길놀이로써 한두레의 품물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킨다. 안양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한두레 활동은 시장 상인들의 결속력을 강화하며, 시장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신재가 박달시장을 “활력이 넘치고 재미있는 곳”이라 생각하는 것은, 한두레 활동을 포함한 박달시장에서의 삶이 ‘시장에 대한 애정’과 직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달시장 상인 풍물 동아리 '한두레'의 정월 대보름 행사(최신재 제공)

박달시장 상인들의 시장에 대한 애정은 남다른데, 이들의 단체 활동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20년 이전까지 박달시장에서는 정월 대보름 행사를 열었다. 음력 1월 14일 저녁이면 시장 내 상인들이 모여 척사대회를 했는데, 행사에 참여한 상인들이 100여 명이 넘었다고 한다. 상인들은 시장 구역별로 A팀·B팀·C팀으로 나눠서 척사대회를 진행하였다. 한 해 동안의 시장 안녕을 기원하며 지신밟기도 하였다. 지신밟기는 한두레의 주도로, 풍악을 울리면서 시장 내 각 점포를 도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점포들은 대보름 음식을 비롯한 먹거리들을 내놓았다. 상인들은 시장 한쪽에 자리를 마련하여 음식을 나누고 대보름을 즐겼다. 척사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서 진행하였다. 이긴 팀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돌아갔는데, 상금은 상인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간식 값으로 쓰였다. 박달시장 정월 대보름 척사대회는 상인들의 세시풍속과도 같았다.

김명리⁹ : 우리 옛날에 저건 많았지. A블럭, B블럭, C블럭 해가지고 윗층이 많이 했어. 지금은 전혀 없지. 옛날에 정월 대보름까지 윗층이를 했거든요. 그거 안 한 지가 최소 8년은 된 것 같애. 그때가 즐거웠어.

2020년 코로나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정월에 하던 척사대회는 물론이고 풍물 동아리의 활동도 잠시 중단되었다. 이후 코로나가 일상에 태연하게 잔존하게 되면서, 박달시장상인회는 다시 친목 모임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봄가을에 버스를 빌려서 야유회를 진행하고, 풍물 동아리 한두레도 활동을 시작하여 상인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자체적으로 만든 상인회, 상인들 간의 세시풍속, 이들 간의 친목 모임 등 이 모든 것이 시장 상인들의 결속력을 보여준다. 이들의 결속력은 박달시장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시장을 이끌어간 주력이 결국 상인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하다. 현대화를 거듭하면서도 박달동 주민의 삶에 편안하게 자리 잡은, 박달시장의 현 모습은 이 시장에서 묵묵하게 삶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만들어 온 것이 아닐까.

註

1. 안양시, 「안양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시장부지 시설 결정신청」, 1978.
2. 1953년생, 여, 충청북도 충주 태생, 박달동 거주.
3. 1955년생, 남, 서울 태생, 박달시장상인회 회장.
4. 본문에서 시장 명칭은 행정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2005년 이전은 '안양종합시장', 2005년 이후는 '안양박달시장'으로 표기함. 이외 '박달시장'으로 통일하여 표기함.
5. 1952년생, 여, 충청북도 진천 태생, 박달시장 내 '인천건어울' 운영, 박달동 거주.
6. 안양박달시장상인회, 「2022년 경기도 전통시장 및 점포가 중장기 발전계획 컨설팅 보고서」, 2022.
7. 현대양행 안양공장은 1980년 2월 만도기계(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8. 1958년생, 여, 경기도 시흥 태생, 박달시장 내 '선도상회' 운영, 박달동 거주.
9. 1962년생, 남, 충청북도 괴산 태생, 박달동 거주.

제2장

박달동 아파트에서 살기

강신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수료



1. 박달동 아파트의 탄생

1) 박달동의 지리와 주변 환경의 특징

산과 하천, 저층주택과 아파트단지 그리고 공장이 어우러진 박달동의 모습은 불과 40여 년간의 변화가 빚어낸 풍경이다. 박달동은 안양시의 서쪽에 위치하며, 위쪽으로는 석수동, 아래쪽으로는 안양동과 인접하고 있다. 또한 광명시와 시흥시와도 인접해 있어 경기도 서부권 도시와의 교통이 연결되는 곳이기도 하다.

안양 도심을 통과하여 한강으로 흘러가는 안양천은 박달동과 충훈동의 경계를 흐르고 있으며, 삼봉산에서 시작하여 흐르는 삼봉천은 군용지를 지나 안양천에 합류한다. 농업용수 공급이 용이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박달동은 농사를 계속해 왔고, 포도밭을 비롯하여 과수원이 많았다. 목장도 있었으나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안양천 주변과 하천 변의 경작지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자주 침수되곤 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대대적인 개수공사가 이루어진 후부터는 장마철에 대비한 주거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¹

박달동 관내에는 다양한 공공 기반 시설이 존재하여 왔다. 호현마을 주변에는 도축장(1972년~), 쓰레기 적환장(1993년~), 하수처리시설(1992년~) 등이 조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시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민원이 지속되자, 도축장은 2018년에 폐기물 자원화 시설로의 전환 완료하였으며, 쓰레기 적환장은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² 하수처리시설은 공기 정화용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2019년에는 시설을 지하화한 뒤 그 상부에 안양새물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박달동의 교통은 이 지역의 중요한 지리적 특징 중 하나이다. 박달동은 서울·광명·안양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여 과천이나 시흥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목감IC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도 빠르게 이루어진다. 2004년 고속철도 광명역이 설치되면서, 박달동은 보다 광역적인 교통 생활권을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박달동의 주변 지리와 환경은 자연과 산업, 교통과 주거가 동시에 발전하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2) 공장이 아파트로 - 아파트 생활권의 형성

박달동에서 아파트 생활환경이 중심이 된 데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안양 지역은 해방 전부터 공장들이 세워지며 경지 면적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73년 시 승격 전후 급격히 증가한 인구 대부분이 2차 산업 종사자들이었다.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박달동에 있었던 공장은 제지·석면·알루미늄·섬유·기계·제과 등으로 다양했다. 경제활동을 위해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된 아파트의 출현은 생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주민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의식도 증가하였다.

이인숙³ : 처음 이사 와서 연립에 살았는데, 요 옆 벽산아파트 자리는 원래 허허벌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공터였어요. 신한아파트를 기점으로, 이제 장미연립, 국제연립이었던 데가 한신아파트가 들어서고 산업도로 쪽 한라비발디 자리에 만도기계가 있었고, 그 옆에는 삼아알미늄 공장이, 그건 없어진 지 얼마 안 돼요. 다리는, 석수동 충훈부로 넘어가는 다리가 좁았는데, 멋있게 넓어졌고. (중략) 그때는 개천이 무지 더럽고, 냄새 많이 나고. 개천가 뚝뚝 채소들도 심어 놓고, 허름한 판잣집들이 쪽 있었어요. 그때는 낙후된 동네라는 인식이 컸지.

1984년 적성아파트, 1986년 신한아파트를 시작으로, 우성아파트(1990년), 극동아파트(1991년), 신안아파트(1991년), 벽산아파트(1996년), 금호타운아파트(1996년)가 들어섰다. 2000년 9월에는 만도기계(주)가 떠난 자리에 한라비발디아파트가 준공되었다. 그 옆 삼아알미늄 공장 터는 2017년 한양수자인아파트로 변신해 입주를 시작하였다. 현재 박달로와 박달우회로가 만나는 충훈2교 앞의, 솜공장 자리에 들어섰다는 코리아골프장 바로 옆에는 대림한숲타운아파트(2001년)가 있다.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입주

한 한신희플러스아파트는 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재개발하여 지은 아파트이다. 삼봉천 하류의 삼신아파트는 한일유엔아이아파트(2005년)로 재건축되었으며, 공군아파트와 군인아파트는 브라운스톤하나마을아파트(2015년)로 재건축되었다. 주유소와 골프장이 있던 자리는 안양리버자이르네(2022년)로 바뀌었다. 공장은 아파트와 근린시설로, 기존 주택과 상업 시설은 새로운 아파트로 바뀌어 갔다. 현재 박달동에 남아 있는 대기업 공장은 노루페인트 안양공장 정도이다.

박달동에 있던 공장들이 점차 이전하면서 아파트로 바뀌는 가운데, 인근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현 기아 AutoLand 광명)의 직원들도 ‘직주근접’이라는 이점으로 박달동의 아파트 분양을 받고 정착하게 된 경우도 많았다. 이주자가 많아진 1980년대 말부터 이 지역의 교육열은 뜨거워졌고, 안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군 형성에도 한몫했다. 과거 이 지역 생계 활동의 무대 위에 탄생한 박달동 아파트는 산업화 이후 경제활동을 위해 이주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주거환경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아파트 생활이 시작된 이래 30년이 넘는 동안 이에 적응하고, 연합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1994년 박달동이 박달1동(박달동)과 박달2동(호현동)으로 분동된 후, 박달2동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로 변화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파트 생활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호현동 박달로 변의 아파트단지(이정범 제공)



2. 박달동 아파트 주민 생활과 문화

1) 박달동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 신한아파트

신한아파트는 1986년 5월, 5층짜리 10개 동 370세대로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하였고, 당시 박달동에서 큰 규모의 아파트단지로는 최초였다. 2024년 초 재건축을 위한 이주가 시작되기 전까지 40여 년의 오랜 역사 속, 신한아파트의 시작은 지금의 아파트와 달랐다.

이인숙 : 처음에 이사 왔을 땐 연탄보일러를 뒀었는데,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왔어요. 여기가 평지라서 그랬는지, 단지에 세대 수가 많고. 또 박달동에서는 신식 아파트였으니까.

이은주⁴ : 여기 앞에서 살고 있을 때 신한아파트를 봤을 때는 최고의 아파트였지. 그때는 엄마들 치맛바람 있다 하면 신한아파트였으니까. 그 정도로 유명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성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바뀌기 시작했지. 여하튼 그때 제 기억에는, 신한 하면 치맛바람이 무서웠다. 그리고 못이 안 들어갈 정도의 아주 튼튼한 아파트였다.

특히 1990년대까지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경조사를 챙기고, 어버이날에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이웃 간 교류가 활발하였다. 2000년대 이후 주민들이 평촌신도시나 다른 도시로 많이 이사 가면서 점차 이웃 간 교류는 사라지고, 부녀회 활동이 주춤해졌다.

이인숙 : 그때는, 누가 돌아가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부녀회에서, 큰 천막 빌려서 마당에다 다 쳐놓고. 바깥에 가스불 여러 개 놓고 손님 치르고 다 했어요. 아파트에서는 그게 다 기본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당시엔 파출부라고 불렀지. 도우미도 불러서 주방에서 막 음식하고 나르고. 손님들이 돛자리 떠 놓고 화투도 치고. 그때는 그게 문화였으니까. (중략) 봄가을 부녀회에서 차 대절해갖고 신청해서 주민들 소풍 가고. 버스 안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관광버스 유행했을 때니까. (중략) 애들 초등학교 때 바깥에서 다 뛰어놀았어요. 애들이 막 벽에 공을 치잖아. 쿵쿵 소리가 얼마나 커요.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 배드민턴 치고. 차도 많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여음이면 저쪽에, 이제 전부 다 돛자리들 하나씩 갖고 나가서 주차장 자리에다 다 깔고 앉아서. 집집마다 이제 뭐 하나씩 먹을 거, 커피. 이제 커피



1986년 분양 당시 형태 그대로 사용 중인 신한아파트 25평형 주방(2023년)



신한아파트 도시가스 메타함(2023년)



신한아파트 주차장에서 보이는 한양수자인에듀파크아파트(2023년).
두 아파트의 건축 시기는 약 30년 차이가 난다.



를 사발로 타 갖고, 옥수수 삶아가지고, 수박 잘라 가지고 나와서 먹고 그랬어요.

신한아파트는 단지 규모가 컸던 만큼 3대가 살았던 경우도 많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자녀들을 독립시킨 65세 이상 주민들이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박달동에 아파트가 여럿 생기면서 신한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가 되었지만, 대로 안쪽으로 위치한 덕분에 외부 소음이 없고 조용해서 살기 좋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2) 금호타운아파트와 박달동 학군의 형성

금호타운아파트는 10층에서 20층 높이의 6개 동 752세대로 구성된 고층아파트로, 1996년 10월에 입주하였다. 당시 입주 세대별로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⁵

금호타운아파트는 산 옆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절개지 옹벽에 가리거나 햇빛이 덜 드는 세대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으나, 공기가 좋다는 점은 이곳에 오래 살게 되는 이유로 꼽힌다. 이 산은 ‘금호 앞산’이라는 명칭이 생길 정도로 주민들의 아침 운동 코스이기도 하다. 또한 도시의 삭막함보다 시골 같은 정감 가는 분위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주민들은 등산과 김치 품앗이로 친목을 도모하기도 한다.

금호타운아파트 앞에는 박달초등학교와 안양고등학교가 있는데, 아파트 입주 초기에는 박달동 관내 교육기관으로는 이 두 학교가 전부였다. 당시 어린 자녀를 둔 부부가 많이 입주하여 박달동 아파트 입주와 더불어 학생 수가 증가하였다.⁶ 박달동 아파트 지역의 학생들은 박달초등학교로 배정되었으나, 한라비발디아파트 입주 이후 삼봉초등학교가 신설되면서부터는 삼봉초등학교로 배정되었다. 그러나 중학교에 진학하면 통학 거리와 교통 문제로 인해 박달동 아파트 지역 중학생은 통학에 불편을 겪기도 하였다. 안양중학교·안양서중학교·안양서여자중학교·안양여자중학교·신안중학교·근명중학교 등 만안구의 중학교는 모두 안양동에 있었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중학교에 배정받은 학생 가운데는 개인 부담으로 운영하던 통학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2017년에는 삼봉천 부근에 박달중학교가 신설되었다.



금호타운아파트 앞의 박달초등학교(2007년, 안양시청 제공)

1983년 개교하여 4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안양고등학교는, 안양 지역이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던 시절에는 성적 우수자들이 진학하는 지역 내 최상위권 학교였다. 대학입시 결과가 좋아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문 고등학교였으나 2002년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면서, 학교 근처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진학하게 되었다.

권미경⁷ : 서여중이나 신안중은 애들이 내려서 많이 걸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셔틀버스에 애들을 태웠어요. 한 달에 얼마씩 내는 식으로 해서. 아파트 앞에서 몇 분에 서고, 서고, 서고. 지금은 환승이 잘되고 버스도 많아져서 그냥 다니죠. (중략) 안양고가 바로 앞이라 저희 딸이 전화해서 “엄마, 필통을 안 가져왔어.” 하면 필통 갖다 주고.

조삼단⁸ : 우리 동네 자람이라 하면 안양고이기도 했어요. 전교 1등 하는 애들만 오는 덕분에 다른 학교로 진학한 애들도 열심히 했죠. 평준화하고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는 엄마들이 농담처럼 ‘박달고’라고 불러요.(웃음)



안양고등학교(200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3) 한라비발디아파트의 발전과 주민 교류

만도기계(株)가 있던 자리에 지어진 한라비발디아파트는 2000년 9월에 입주를 시작하였다. 본래 공장부지가 튼튼하였기에 땅을 메우지 않고 지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생기지 않고, 평지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만족하고 있다. 입주 초기에는 박달동에서 가장 다양한 평형과 2층의 높이의 고층으로 구성된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로 평가받았다. 2005년에는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을 시작으로 그린아파트 위촉, 탄소 절약 포인트 우수 등 안양시 최우수 단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아파트단지 내에 유치원·놀이터·테니스장 등이 있으며, 아파트단지 앞에는 상가동이 있고, 바로 옆에 삼봉초등학교가 있다.

한라비발디아파트에서는 주민 교류가 활발하다. 박달한라산악회와 한라축구회가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박달동에서 가장 운영이 잘 되는 곳 중 하나라고 한다. 2024년 현재 경로당 회원은 43명이며, 여성 회원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회원들은 일주일에 세 번 점심 식사로 모이고, 월례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 2회 열린



한라비발디아파트



한라비발디아파트 경로당 요가교실(2024년)



2019년 한라지킴이 시민경찰상 수상 사진(『아파트관리신문』, 2019년 6월 14일)

는 요가교실에는 회원의 절반 이상이 꾸준히 참석할 정도로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다. 박달한라산악회는 월 1회 정기 산행을 하며, 이웃 간의 단합을 이끄는 계기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한라축구회는 조기축구회로, 2004년부터 삼봉초등학교에서 축구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는 서조회관 체육시설 보조구장에서 일요일 오전마다 모이며, 비정기적으로 토요일에는 축구 강습도 진행하고 있다.

한라비발디아파트만의 특별한 모임으로, 아파트 입주 초창기부터 주민 자유헌 방법 활동으로 시작된 ‘한라지킴이’가 있다. 자생 단체인 한라지킴이는 안양시 자원봉사단체로도 등록되었고, 2019년에는 경기도경찰청 시민경찰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한광화⁹ : ‘한라지킴이’라고, 월·수·금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순수하게 우리 아파트를 지키고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순찰을 도는 거예요. 원하는 주민에게는 충훈부에서 넘어올 때 같이 건너는 안심 귀가 서비스도 해요. 2009년 7월부터 15년째 하고 있어요. 이 아파트가 초창기에는 큰 평수도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부자들 많이 산다고 했죠. 그래서 출근하면 빈집만 골라 터는 좀도둑들이 많았어요. 또 2000년도 그 당시엔 차가 별로 없어서 주차장 지하 3층은 거의 차가 없다 보니, 근방 학교 다니는 애들이나 사람들이 거기 와서 술 마시고, 아파트 옥상에서도 그랬는데, 지킴이 활동하면서 4~5년 지나니까 그런 건 없어졌어요.

2000년대 이후 한라비발디아파트의 발전에는 20년 넘게 꾸준히 이어지는 주민 자유헌 활동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파트 주민 활동은 단지 내부를 넘어 박달동 주민들과의 교류로도 확장되면서, 아파트 생활권이 지닌 새로운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4)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쇼핑의 선택지

박달동에서 가까운 전철역으로는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안양역·관악역이 있으며, 버스 노선도 안양시 전역을 연결할 수 있도록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 자가용을 이용하면 서울 접근성이 좋고, 등산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는 산행 편의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기도 한다.

쇼핑 환경 또한 좋은 편이다. 박달동은 안양 원도심의 재래시장, 대형마트, 안양역 일대의 상권 등을 이용하기 편리한 입지이다. 아파트단지를 순환하며 요일제로 운영되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상가



안양박달시장(2024년, 백민정 제공)

‘알뜰시장’은 박달동 관내 일부 아파트단지를 돌며 열린다. 가까운 전통시장인 박달시장은 신선한 농산물과 저렴한 가격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안양중앙시장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어서 높은 이용 빈도를 보인다. 간단한 장보기는 아파트 인근의 중소형 마트를 이용하는데, 배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아파트단지 내에서 열리는 야시장은 다양한 먹거리 판매와 이벤트를 병행하여 주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

박달동 외곽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광명역세권에 있는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와 가구매장 이케아도 접근 가능한 생활 상권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박달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 순환형 알뜰시장, 소규모 마트, 대형 쇼핑몰 등 다양한 형태의 쇼핑 선택지는 교통 편의성과 더불어 지역 생활의 만족도를 한층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 변화하는 생활환경과 주민 의식

1) 안양천의 회생과 여가 생활 증대

1970년대 이후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로 오염되었던 안양천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안양천 살리기 종합계획’이 시행되어 수질과 주변 환경 개선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2001 안양천 살리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안양천 하류부는 고수부지가 주차장으로 점유되어 있어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경관성이 저조하였고, 식생이 교란되어 있으며 어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박달동은 안양천 하류부에 해당한다.

‘시민이 가까이 즐겨 찾는 안양천’, ‘홍수·가뭄 걱정 없는 안전한 안양천’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기존의 운동시설을 살려 운동 및 휴양 기능으로 정비하도록 계획되었다. 이에 따라 충훈교와 노루페인트 구간의 주차장을 철거하고, 석수 및 박달 지역 주민을 위한 산책로 및 여가 공간이 조성되었다.¹⁰ 이후 안양천은 생태계 복원과 함께 친수 공간¹¹으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안양천과 삼봉천이 만나는 지점 일대를 친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이 시기부터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2017년 12월부터 3년간 삼봉천은 탐방로 조성 및 생태 체험이 가능한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었으며, 2020년에는 환경부가 주관하



안양천 박달동 구간의 수변공원(2024년, 이정범 제공)



삼봉천과 안양천 합류 지점에서 열린 삼봉시네마(2019년, 호현동행정복지센터 제공)

는 전국 생태하천 우수 사례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안양천과 주변 하천은 생태환경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안양천의 변화는 아파트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다. 걷기·달리기·자전거 타기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고, 영화 상영·공연 등 문화생활 공간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김숙자 : 안양천 개발을 잘 해냈어요. 자전거 도로 면을 잘 해놔서, 한강까지 자전거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를 '안양천 나일강'이라고 불러요. 곳곳에서 에어로빅도 하는데 박달동 다리 밑에서도 10월에 한 달 동안 하면 100명 넘게 나오고 그래요.

이은주 : 안양천이 바뀌고 나서 매일매일 나가서 걸어요. 그래서 살기 더 좋아졌어요.

한광화 : 안양천은 요즘에 영화 상영 같은 문화 활동, 그런 거 자주 개최해서 좋고. 개천 변에 꽃길도 꾸며놨어요. 또 애완견 심터라고, 잔디밭을 넓게 해 놔어요. 거기서 뛰어놀게도 하고. 그 옆에 그라운드 골프장도 해놨는데 게이트볼장 비슷하게 어르신들 이용하기 좋게. 그런 부분은 운동뿐 아니라 여가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2024년 제3회 삼봉문화제가 한일유엔아파트 옆 삼봉천 변에서 개최되었다. 영화 상영, 주민자치 공연, 옛 사진 전시 등으로 구성된 이 문화제는 안양천과 주변 하천의 변화가 박달동 주민의 여가와 문화생활을 새롭게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안양천의 변화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박달동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2) 호현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 참여 활동

호현동행정복지센터는 2021년 5월에 새롭게 개관하였다. 건물에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와 안양도시공사에서 운영되는 스포츠센터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스포츠센터에는 수영장·풋살장·다목적 체육관 등이 갖추어져 있다. 호현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행정복지센터 건물 외에도 인근의 서조회관 공간을 활용하여, 하모니카·드럼·한국무용·노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센터는 주변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2017년 박달2동(호현동) 사랑의 김장나눔(호현동행정복지센터 제공)



2015년 안양시 체육대회에 참가한 박달2동(호현동) 선수단 (호현동행정복지센터 제공)

편이며, 특히 실내 수영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면서,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아파트별로 부녀회나 반상회가 조직되어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아파트 동대표나 박달동 주민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달동 부녀회, 대한적십자사 부녀회, 새마을금고 부녀회 등의 주관 아래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즐겁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안양시 체육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호현동은 출전 선수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성적 또한 우수하여 ‘박달2동(호현동) 주민들은 운동을 잘한다’는 이야기가 안양시 관내에 알려지게 되었다. 같은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체육대회 등을 계기로 인근 주택 거주자와 다른 아파트 주민들과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옥순 : 군용지에서 배추 심어서 키워가지고, 뽑아 와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소금 넣고 절여가지고 우리가 직접 다 김치 만들었지. 지금이야 절임배추를 사서 쓰지만. 이제 동네 경로당도 드리고, 또 좀 어렵게 지내는 어르신들도 드리고. 동사무소든, 적십자든, 마을금고든 받는 집이 중복이 안 되게 한 번씩은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중략) 재미있었어요. 부녀회에서 또 했던 게 안양시 체육대회 할 때 있잖아요. 음식 손수 다 했어요. 거기 가서 선수들하고 박달동 주민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반찬 직접 만들고 부침개 같은 거 해가지고 가고. 박달2동(호현동)이 운동을 좀 잘했어요.”

한광화 : 체육대회에서 합동 줄넘기라고 있었는데, 박달그동(호현동)이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저희가 우승하니까 그 종목이 없어졌어요. 족구도 3위 안에 들어요. 최근 3년 동안 연속으로 종합 1등을 하기도 했어요.

3) 재활용품 수거 문화의 정착

안양천의 가시적인 변화를 계기로 박달동 주민들은 환경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더 인식하게 되었다. 박달동 폐기물 적환장에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하루 50톤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이에 따라 박달동과 석수동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모니터링을 하기도 했다.¹²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안양시에서는 2021년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자원 회수 기기인 ‘네프론(Nephron)’ 50대를 설치하였다. 이 기기는 캔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소재 병을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품목 1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2,000포인트 이상일 경우 환급받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³

현재 호현동행정복지센터 앞에는 이 재활용품 수거 기기 4대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원순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었으며, 재활용 참여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호현동행정복지센터 앞 재활용 수거 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

한광화 : 그게 생긴 후에 절실히 느꼈어요. 슈퍼 앞에 가면 인도에 막 이렇게 페트병이 막 항상 바람에 날리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 동네에 페트병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 드신 분이나 주민분들이 알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얀 페트병은 절대 안 버려요. 놔뒀다가 가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포인트 쌓는 게 있더라고요. 10원씩. 그래서 동네를 한번 다녀보면 플라스틱병이 하나도 없어요.

4. 박달동 아파트 주민 생활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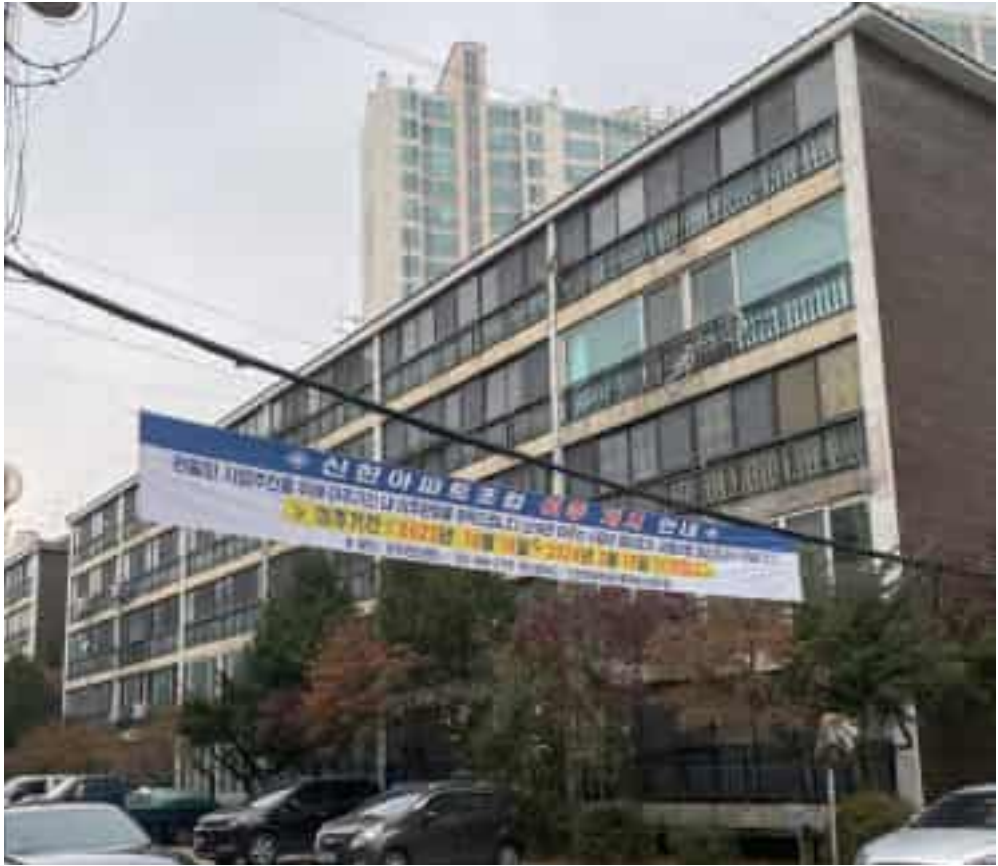
현재 박달동은 커다란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간 시기를 지나, 다시 주거와 산업, 행정을 중심으로 큰 화두가 떠오르고 있다. 이는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1980년대 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은,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질 때마다 기대하게 되는 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였다. 박달동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 하나인 신한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건축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녹물 문제, 누수 문제 등 여러 가지 불편이 심화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재건축 계획은 2010년에 수립되었으나, 2019년에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에도 이런저런 문제를 겪으면서 2024년 초까지 주민들은 모두 이주를 마쳤고, 2024년 6월 말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신한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7개 동 507세대, 최고 29층 규모의 아파트단지로 바뀔 예정이다. 인근 적성아파트도 현재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설립인가를 준비 중이다.

안양시 전체와 광역 수도권으로 확대해 보면, 박달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를 견인하고자 계획된 소위 ‘박달스마트밸리’(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박달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진행 중이다. 군용지 시설을 지하화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제조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로 특화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구로구에 인접하여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가 용이하고, 인근 도시 및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 등 교통 인프라 면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다고 분석되었다.¹⁴ 투자 사업 업체와의 계약, 주변 공장 및 공공시설과의 협의 등은 여전히 필요한 상태이며, 주민들도 이 사업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다. 2024년 6월 현재, 지식산업센터(박달동 617-12 외 4필지)는 건립 중이다.

박달2동은 2025년에 호현동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동의 명칭 변경은 주민 의견 수



재건축이 진행되는 신한아파트(2023년)

럼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새로운 명칭 후보로 ‘호현동’·‘선녀동’·‘삼봉동’ 등이 올라왔는데, ‘호현동’이 최종 후보가 되었다. 안양시는 2024년 8월 1일~10월 6일에 박달2동에 거주하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박달2동을 호현동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민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참여세대의 60% 이상이 찬성하여 박달2동은 호현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동 이름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다양하였다. ‘듣고 부르는 것이 정겨워서 좋다.’, ‘석수3동의 경우 예전부터 충훈부로 불렸기 때문에 충훈동으로 바꾼 것이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된 점에서 적절하였지만, 제시된 새로운 명칭에서는 박달2동이 주는 상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박달2동 명칭 유지의 입장이 있는가 하면, ‘박달이라는 명칭은 예전부터 안양시 내에서도 낙후되었다는 인식이 있어 좋지 않다.’, ‘현재 발전하고 변

화한 박달2동에게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 등의 변화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

2020년대 이후 박달동은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환경적 조건을 극복하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처음부터 다 갖춰지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갔기에 더 정이 든다.”고 말한 한 주민의 말처럼, 아파트 생활과 함께한 다양한 변화들이 지금의 박달동을 있게 하였다. 앞으로 박달동 아파트 주변이 어떠한 환경으로 채워지고 변화해 갈지, 또 주민들의 의식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로 선택될지, 그저 전망할 수 있을 뿐이다. 또 다른 도전과 안정이라는 균형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박달동 주민들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1. 박신자, 「도시 친수공간 활성화를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 안양천을 중심으로 -,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2권 6호, 2017.
2. 박창권, 「안양시 박달동 노후 공장부지의 효율적 개발 및 공공성 연구, 대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공공건설정책학과 석사학위연구보고서, 2024.
3. 이원철,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친수공간 정비전략 및 계획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4.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제4권, 2008.
5.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안양시 폐기물 관리와 자원순환 연구 보고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1.
6. 이진영, 「풍수지리적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안양시 지역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7. 안양시, 「2001 안양천살리기 종합계획, 2001.
8. 「금호건설아파트 실내를 입주자 선택으로 호응도 높아, 『중앙일보』, 1994년 3월 28일.
9. 「'중학교 없던 박달동' 내년에 교문 열린다, 『경인일보』, 2016년 1월 7일.
10. 「박달동 생활폐기물 적환장 환경정비의 날 운영, 『전국매일신문』, 2019년 3월 11일.
11. 「안양한라비발디 한라지킴이 '우리동네 시민경찰' 선정, 『아파트관리신문』, 2019년 6월 14일.
12. 「안양시, 삼봉천 생태하천 복원 환경부 장관상 수상, 『인천일보』, 2020년 11월 25일.
13. 「안양시, '1 자원회수기기'(네프론) 50대 설치. 캔-페트 자동 선별 기능, 『경기신문』, 2021년 11월 24일..
14. 부동산뱅크(<https://www.neonet.co.kr/>).

註

1. 이진영, 「풍수지리적 요인이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안양시 지역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91쪽.
2. 「박달동 생활폐기물 적환장 환경정비의 날 운영, 『전국매일신문』, 2019년 3월 11일.
3. 여, 신한아파트 거주.
4. 여, 신한아파트 거주.
5. 「금호건설아파트 실내를 입주자 선택으로 호응도 높아, 『중앙일보』, 1994년 3월 28일.
6. 분동 직전인 1994년 박달동 인구는 38,165명이었고, 분동 후인 1998년에는 박달1동이 21,776명, 박달2동(호현동)이 18,158명이었다. 2002년에는 박달2동(호현동) 인구가 25,809명으로 늘어났다.(안양시 통계연보 참조.)
7. 여, 금호타운아파트 거주.
8. 여, 금호타운아파트에서 한라비발디아파트로 이주.
9. 남, 한라비발디아파트 거주한 바 있음.
10. 안양시, 「2001 안양천살리기 종합계획, 2001, 431~432쪽.
11. 친수 공간이란 강변, 호수변, 해변 등 비교적 넓은 수 공간과 수변부 및 육지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도시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포함한 공공 공간으로 정의된다. 단순한 하천 정비의 개념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수역 및 수변 복합개발 지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활용된다. (박신자, 「도시 친수 공간 활성화를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 안양천을 중심으로 -,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12권 제6호, 2017, 166쪽; 이원철, 「수변 공간 활성화를 위한 친수 공간 정비 전략 및 계획 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7쪽.)
12.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우리 동네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안양시 폐기물 관리와 자원순환 연구보고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1.
13. 「안양시, 'AI 자원회수기기'(네프론) 50대 설치. 캔-페트 자동 선별 기능, 『경기신문』, 2021년 11월 24일.
14. 박창권, 「안양시 박달동 노후 공장부지의 효율적 개발 및 공공성 연구, 대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공공건설정책학과 석사학위연구보고서, 2024, 11~15쪽.

제3장

박달우성어울림공동체의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설명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수료



1. '우성어울림공동체'의 시작

자연과 생활환경이 어우러진 곳에 박달우성아파트(이하 '우성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 수리산 자락에 위치한 아파트 입구는 경사가 있지만, 그 경사 덕분에 오히려 아파트의 외관이 더 크고 웅장하게 보인다. 입구에는 '우성아파트'라는 안내판이 있으며, 그 옆에는 '살기 좋은 아파트 상 수상'이라는 안내석이 방문객을 반긴다.

경사진 입구를 따라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아파트가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 숲길은 아파트 공용주차장에서 연결된 계단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닿을 수 있어 산책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인터뷰에 응한 주민들은 아파트의 여러 장점 가운데 특히 산을 품은 입지로 인해 공기가 맑다고 입을 모았다. 어떤 주민은 우성아파트로 이사한 후 아토피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였다. '숲세권'을 누리는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을 일상에서 만난다. 홍영덕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내려다본 활짝 핀 봄의 벚꽃과, 흰 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의 벚꽃 장관을 사진으로 담았다. 비록 눈으로 보는 감각을 사진으로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는 계절마다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기록하고자 하였다.

홍영덕 : 여기가 진짜 아파트가 전원주택이에요. 저도 서울 살다가 여기로 이사 왔는데요. 공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이사 왔어요. 처음에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와 봤죠.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오자마자 계약을 했어요. 새소리 나고 풀냄새 나고 아침에 문만 열어도 좋아요. 처음 여기 입주했을 때 너무 경관이 좋고 철마다 피는 꽃들이 너무 예뻐요.





박달우성아파트 전경

우성아파트는 1990년에 준공되었다. 한 주민에 따르면, 당시 이 일대 최초의 고층아파트로 이름을 알렸다. 아파트는 101동부터 109동까지 총 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파트단지의 80%가 32평형이며, 108동과 109동은 27평형과 29평형이 혼합되어 있다. 공용시설로는 노인정, 현재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공간으로 사용 중인 과거의 도서관, 겨울에도 잘 얼지 않는 깨끗한 약수터, 그리고 깨끗하게 잘 관리된 어린이 놀이터 두 곳이 있다. 아이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작년에 바닥을 새로 교체하였다. 넓은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놀이 공간이다.

한편, 우성아파트에서 놀이터는 그 이상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아파트의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주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공유하는 광장처럼 활용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2015년에 아파트 벽면 도색작업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주민들은 이 놀이터에서 함께 의견을 나누며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다. 주민 한이덕에 따르면, 벽면 도색작업 주기는 보통 5~7년인데, 해당 시기의 도색은 작업한 지 1년도 안 되어 벗겨지기 시작하였다. 오래된 아파트이므로 벽면의 손상된 부분을 메우고 칠을 해야 했지만, 그러한 작업 없이 진행되어 부실시공이 되었다고 한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주민들은 놀이터에 모여 머리를 맞대었고, 이후 여러 번의 공청회가 이어졌다. 마침내 도색업체를 교체하고 외관 도색을 새로 진행함으로써, 아파트는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2015년 아파트 부실 도색은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한 공간에 모이게 한 일이었다. 아파트 생활환경과 직결된 이 문제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해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공공 공간과 공동체의 노력이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실감하였다.

2023년, 공식적인 공동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이미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함께하는 힘의 가치를 2015년에 경험한 바 있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주민들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었다. 2023년, 우성아파트 공동체학교와 다양한 활동들은 그렇게 활짝 꽃을 피우게 되었다.

2. 박달우성아파트 공동체학교 문을 열다

1) 한국의 아파트 공동체

현대 한국 사회에 아파트는 이제 낯선 생활환경이 아니다. 모두가 알듯이, 아파트는



박달우성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전통 주택의 형태와는 차이가 크다. 아파트단지는 개별공간과 공용공간으로 나뉜다. 각 세대가 생활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모든 입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많은 공간이 있다. 승강장,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각종 커뮤니티 활동 공간 등 다양한 공용공간이 있다.¹

이처럼 많은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같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가깝고 친밀하게 잘 지내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즉 ‘함께 살아가는 감각’인 공동체 의식이 충만한 아파트단지를 찾기 어렵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은 이제 흔한 광경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일어난 이웃 간 폭력, 주차장 사용을 두고 벌어지는 주민 간 갈등 그리고 아파트 경비 폭행 등을 어렵지 않게 접한다. ‘함께 살아가는 감각’을 다시 찾는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우성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 노력은 한국 사회의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성아파트는 2023년 ‘어울림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파트 주민 간의 소통과 소속감 그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아파트 입주민 스스로가 행복하고 따뜻한 아파트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우성아파트의 공동체

활동은 아파트 공동체학교 운영, 친환경 실천과 체험, 탄소 중립을 위한 지혜로운 소비 실천 등으로 실현되었다.

2) 박달우성아파트 공동체학교 프로그램

우성아파트 공동체학교는 2023년 안양시에서 추진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실현되었다.

한이덕 : 시장님이 연초에 각 동을 돌잖아요. 그때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마을공동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빵가게를 하면 야채도 대주고, 빵을 하면 (빵 만들기) 훈련도 시켜주고 이런다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도 그러면 마을공동체 이런 걸 하나 했으면 어떨겠냐고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때마침 (이 사업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한이덕은 평소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공동체 관련 교육이 있는 곳을 찾아가 배우고자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공동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공동체 활동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민들이 함께 활동하더라도, 공동체 프로그램의 성과는 ‘안내자’ 격인 공동체 활동가의 역할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다. 공동체와 활동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졌다.

그러던 중, 2023년 초에 안양시장이 박달동을 방문하여 마을공동체를 설명하고 활동을 독려하는 자리가 있었다. 한이덕은 그 자리에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 시에서 어떤 지원과 기회가 주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의 관심은 더 커졌고, 그 무렵 안양시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였다. 이는 우성아파트 공동체를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우성아파트에서는 평소 주민 소통이나 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보였던 주민들이 함께 사업지원을 논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다. 앞서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크고 작은 현안과 그 해결 과정에서 함께 행동한 경험이 있었다. ‘2023년 안양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는 공동체 활성화를 실천하고 뿌리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선정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한이덕은 주도적으로 나섰다. 그는 다른 주민들과 논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공동체 관련 분야 전문가에

게 자문을 부탁하였다. 주민들과 회의와 토론을 거친 끝에 마침내 사업신청서를 완성하였다.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사업내용을 호소력 있게 발표하는 일이었다. 대면 발표는 안양시청에서 진행되었고, 발표는 우성아파트 주민 윤점순이 맡았다. 윤점순은 2009년 우성아파트에 입주해 약 15년째 거주 중인 주민으로, 숲과 근접한 아파트의 자연환경과 맑은 공기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 그 역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동체 형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윤점순 : 저희 아파트에서 온 4명은 중간에 앉히려라고요. 제가 끝에서 두 번째 들어갔죠. 그게 발표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20~30분 정도 안에 하라고 하셨어요. 떨리죠. 저기 중앙에 딱 앉혀가지고 하는데, 이 넓은 데 가서 딱 앉았는데 떨리죠. 그래서 저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서 하래요. 했어요. 이게 원래 내 자리가 아닌데 갑자기 나한테 온 거야. 하루 만에 이거를 인지를 해야 되잖아. 이야기가 잘 연결되어야 하잖아요. 하여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옆에 계신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참 잘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고맙더라고요. 다섯 팀이 발표하고, 그중 네 팀이 선정됐어요. 선정 수와 상관없이 떨리잖아요. 내가 발표를 하고 왔는데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됐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 인터넷 들어가 보고.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발표를 했는데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잘했구나.’ 생각했죠.

전윤옥은 발표 당일 윤점순과 함께 안양시청에 동행하였다. 그날의 발표 분위기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전윤옥 : 다른 아파트는 1명, 2명 이렇게 왔는데, 우리처럼 4명이 간 팀은 없어요. 게다가 이제 서류 말고 또 다른 얘기할 것이 있으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나바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주민 소통을 하려면 아나바다 같은 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물건인데 내가 가지고 있어도 안 쓰는 물건들 많잖아요. 이거를 서로 내놓고 하다 보면 얼굴도 익히고, 그게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게 할 취지에서 이걸 했다고 덧붙였어요.

윤점순은 최선을 다해 발표를 마쳤고, 전윤옥은 공동체 세부사업인 ‘아나바다’의 의미와 가치를 한 번 더 강조하였다. 발표가 끝난 후 주민들은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결과를 기다렸다. 마침내 최종 사업에 선정되었다. 계획서의 높은 완성도,

100세 시대 공동체가 희망이다.

박달우성아파트 공동체학교



교육 기간	2023. 9. 7 (목) - 2023. 10. 19 (목) / 격주 목요일 진행			
교육 장소	안양시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수강 대상	박달동 입주인, 안아연합회원, 공동체 관심있는 안양시민			
강좌 내용				
구분	일시	강좌 내용	강사	
개강식	9.7(목) 오후7시 -7시 10분	<p>연사말 : 조영기 박달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목 도 한국어파트공동체포럼 이사장</p> <p>축사 : 최태호 안양시장 이영우 안양시마곡초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 강학구 국회의원 (과거불어민주당) 최준익 국민의힘 안양구당협의회장</p>		
1차 강좌	9.14(목) 오후7시 10분 -9시 10분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참여 사례	안난순	거물역대 교수,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권양기 위원
		어르신 공동체 활동거리 역할과 지혜	장영희	평신교육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차 강좌	9.21(목) 오후7-9시	어르신 공동체 유형별 사례 발표기	김영희	물신대 교수, 국토교통부 우수관리위원회 산정위원
		택스텔아파트 공동체 활동거리 경험 이야기 (2019년 국토교통부 선정 최우수단지)	신은영	택스텔 1단지아파트 커뮤니티 총괄이사
3차 강좌	10.5(목) 오후7-9시	남양주 LG차데 어르신공동체 사업 추진 사례 (2019년 국토교통부 선정 최우수단지)	김정희	전 남양주 LG차데단지 관리소장 현 타워팰리스2차 관리소장
		어르신 공동체가 미래의 희망이다	목 도	한국어파트공동체포럼 이사장
4차 강좌	10.19(목) 오전 9시 -오후 5시	어르신 공동체 우수 사례 현장 견학		
		(오전) 남양주 위스타트영재 아파트 (오후) 수원 모디캐슬리 (2020년 국토교통부 선정 최우수단지)	손병기 김내원	위스타트영재 이사장 관리소장

* 강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관 : 박달우성아파트공동체 후원 : 안양시 기획진행 : 한국어파트공동체포럼

박달우성아파트 공동체학교 프로그램 안내 팸플릿(2023년, 박달우성아파트공동체 제공)

발표의 진정성, 주민들의 협업이 빛을 발한 결과였다.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성어울림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주민들의 소통과 자원 나눔, 봉사를 통해 소속감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입주민 스스로가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세 가지 사업을 구상하였다. 공동체학교 운영, 친환경 실천 및 체험, 탄소 중립 지혜로운 소비 실천이 그것이다. 공동체학교 운영은 우성어울림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2023년 9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격주 목요일에 진행되었다. 교육 장소는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이었으며, 수강 대상은 박달동 입주민뿐 아니라 공동체에 관심 있는 안양 시민 전체로 확대되었다. 이는 우성아파트 이웃 아파트단지 주민을 포함한 안양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동체 의미를 고민하고 나누는 데 목적이 있었다.

공동체학교 강의는 개강식을 포함해 총 5강으로 구성되었으며, 강의마다 전문 강사들이 초청되었다.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사례, 활동가의 역할과 자세, 공동체 유형별 사례, 남양주 LG자이아파트 사례, 공동체 우수 사례 현장 견학 등 다양한 내용의 강의가 이어졌다. 4회 이상 출석한 수강자에게는 수료증도 발급되었다.

3) 공동체학교 수강 소감

공동체학교는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신청자가 40명을 넘어서며 높은 관심을 보였고, 그 가운데 우성아파트 주민만 29명에 달하였다.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참여율에는 변동이 있었지만, 수업 참여자들의 열의는 줄지 않았다. 아파트 공동체학교에 참여한 우성아파트 주민 홍용덕은 참여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홍용덕 : 어쨌든 간에 아파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워 층간 다툼도 있고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더 관심을 가졌어요. 층간소음에 아래위층 이웃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충분히 서로가 이해를 하면, 나도 손자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조금씩 감안을 해줘야 돼요. 그거 감안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이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고, 막 살인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을 얻어서, 우리 아파트도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강의를 받게 되었죠.



박달우성아파트 공동체학교 수업 현장(2023년, 박달우성어울림공동체 제공)

아파트는 구조상 이웃 간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이 온전히 독립되지 않고 ‘벽’과 ‘층’을 공유하는 구조에서는, 특히 소음 문제는 일상적인 갈등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함께 살아가는 감각’을 일깨우고 이웃의 생활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홍용덕에게 공동체학교는 이러한 면에서 큰 흥미와 필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였다. 그는 이 공동체학교를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 존중하며 어울려 살아가는 아파트를 희망하였다. 다른 참가자들 역시 대체로 유사한 바람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수업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과 실천 방식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수업에서는 주민 간 교류와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통보다 잡음이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 생활에서 어떠한 방식의 해결책이 가능한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수업에서는 공동체 프로그램의 유형, 주민 참여 사례, 공동체 활동가의 역할 등을 참여자들에게 자세히 안내하였다.

총 4회의 공동체학교 수업 가운데 주민들이 인상 깊게 여긴 활동은 우수 공동체 사례



2024년 위스데이 별내 공동체의 날 행사(위스데이별내 제공)

아파트 견학이었다. 견학은 10월 19일 오전 9시에 출발하여 남양주 위스데이별내아파트를 먼저 방문하고, 이어 오후에는 수원 광교오드카운티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두 아파트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남양주 위스데이별내아파트는 국내 최초의 ‘아파트형 마을공동체’를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착공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 전원이 조합원으로서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적 기업이 사업 주관사로 참여하여 경제적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였다. 최소 8년의 주거 보장을 통해 아파트를 투자 자산이 아닌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위스데이별내아파트는 법정 기준보다 2배 이상 넓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² 공유 부엌, 동네 카페, 동네 돌봄센터, 동네 체육관, 동네 창작소 등 커뮤니티 시설 이름에 ‘공유’ 혹은 ‘동네’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점은 마을공동체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위스데이별내아파트를 견학한 전윤옥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전하였다.



동네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백 개의 학교' 수업(위스테인내 제공)



위스테인내 아파트 전경(위스테인내 제공)

전윤옥 : 우리가 처음 시작하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는지 그랬더니, 우리는 오래된 아파트라서 큰 커뮤니티 공간이 없는데, 저런 데는 새 아파트니까 커뮤니티가 참 잘되어 있어서 모이기가 너무 좋잖아요. 진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주민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공동체 소통이 가능하지. 저기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예요. 임대아파트 개념처럼 주인은 없고 보증금으로 사시는 아파트인데 저기 아파트에 들어오면 매달 커뮤니티비로 5만 원씩을 내야 돼요. 관리비에 5만 원이 따라붙어요. 전세계약서를 쓸 때 커뮤니티비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안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돈이 아깝다거나 이랬는데 거기는 그 5만 원이 아깝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그리고 이사 오면은 거의 바뀌는 게 없대요. 안 나간대. 너무 살기 좋으니까.

오후에 방문한 수원 광교오드카운티는, 2019년 수원시 공동주택 모범·우수 관리단지로 선정된 곳으로, 협동조합 기반은 아니지만 단지 내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입주주민들은 여러 행사와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공동체의 감각을 익히고 있었다.

우수 사례로 손꼽히는 아파트들을 방문한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공동체 운영방식과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새로운 감각을 익혔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 아파트는 비교적 최근에 준공된 곳으로 물리적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30년 이상 된 우성아파트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괴리는 견학에 참여한 모든 주민이 언급한 사항이었다. 따라서 모범사례를 직접 경험하였으나, 우성아파트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이 컸다. 견학에 참여했던 우성아파트 관리소장 조정준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조정준 : 우리 아파트하곤 조금 동떨어진 게 있지. 예를 들면 우리는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될 수가 없어요. 공동체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죠. 저기 수원이랑 남양주 답사 갔었는데, 아주 우수 아파트예요. 거기는 공간 활용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새로 생긴 아파트는 이게(공동체 활동) 잘 될지 몰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꽃 심고 그러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를 위주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조정준은 최근 준공된 아파트와 물리적 환경 차이로 인해 우성아파트에 공동체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현재 우성아파트에는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다수 주민이 함께 모이기 어렵다. 관리사무소 회의실이나 아파트 도서관은 공간이 협소하거나 이미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공동체

에 대한 감각은 익혔으나, 실천하기에는 괴리감이 따랐다.

이러한 괴리 외에도 공동체학교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을 곤란하게 한 점은 관리규약 해석의 일관성 부족이었다.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점에 대해 주민들은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자에게도 언급을 요청하였다. 예를 들어 수업이 저녁 시간(오후 7시~9시)에 진행되어 간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관련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다과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우성어울림공동체 회원들은 회의 도중 먹는 것은 ‘간식’, 수업 중 제공하는 것은 ‘행사비’로 구분하여 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이덕은 다음과 같은 아쉬움을 전하였다.

한이덕 : 간식비, 다과비, 행사비에 대한 안내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전윤옥 역시 유사한 의견을 전하였다.

전윤옥 :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 사람이 이걸 할 때는 쉽게 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막 엉뚱하게 남용하지는 않거든요. 시비를 함부로 쓰면은 안 되지만 공동체를 하려다가 이런 게 어려워서 못한 사람도 많아요.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다행스럽게도 우성어울림공동체의 주민들은 그때그때 기지를 발휘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다. 특히 한이덕처럼 오랜 단체 운영 경험이 있는 활동가의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량을 갖춘 개인이 부재할 경우, 전윤옥의 말처럼 공동체 활동을 시도하려다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3. 친환경 실천·체험과 탄소 중립, 지혜로운 소비 실천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세 가지 사업을 계획하였다. 아파트 공동체학교 운영, 친환경 실천 및 체험, 탄소 중립 지혜로운 소비 실천이 그것이다. 앞 장에서 공동체학교의 경험과 주민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장에서는 친환경 실천 및 체험,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소비 실천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친환경 실천 및 경험은 아파트 내 화단 가꾸기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0년 이상 된 우성아파트의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실행 가능한 영역이었다. 이 행사는 2023년 9월 4일과 9월 22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참여는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 꽃은 우성 어울림 공동체에서 준비하였고, 서울 양재꽃시장에 가서 국화를 사 왔다.

약 2시간 동안 주민들은 아파트 구석구석 꽃을 심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삼으로 땅을 고르고 국화를 옮겨 심었다. 아파트 안내판이 있는 입구, 관리사무소, 각 동의 화단, 인도 등 무채색이었던 공간이 화사한 꽃밭으로 거듭났다.

아파트 주민들은 함께 꽃을 심고 물을 주며 변해가는 화단을 보면서 공동작업의 뿌듯함을 나누었다.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친환경 공동체 실천과 경험은, 공동체라는 것이 어렵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주민들과 함께하는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을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성어울림공동체 화단 가꾸기 행사에 사용한 국화 화분





2023년 '친환경 실천 및 경험' 행사의 하나로 진행된 '아파트 내 화단 가꾸기' 활동에 참여한 박달우성아파트 주민들

화단 가꾸기와 같은 친환경 실천 및 체험과 더불어, 탄소 중립을 위한 소비 실천도 사업의 핵심이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일상이 된 오늘날,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우성 어울림 공동체는 이와 관련하여 ‘한마음 행사’라는 이름으로 주민 나눔 장터를 열었다. 사용하지 않는 의류·가전제품·신발 등 다양한 물품을 서로 나누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 이른바 ‘아나바다’를 실천하였다. 이렇게 하여 개인이 쓰지 않는 물건들을 쓰레기장에 버리는 대신, 필요한 주민들과 나누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마음 행사’는 2023년 11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경까지 진행되었다.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행사 당일에는 야외에 천막·간이 탁자·의자가 설치되었으며, 천막 가까이 있는 펜스에는 옷걸이를 활용하여 미리 수거한 의류와 전자제품 등 다양한 물품이 진열되었다. 다소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시작되자 주민들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행사장에는 의류·전자제품·신발 등 다양한 품목들이 진열되었고,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였다.

행사에 진열된 물품은 사전에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것이며, 물품을 교환할 때 현금 대신 쿠폰을 나누어 주었다. 이 쿠폰은 행사장에서 준비한 음식과 교환할 수 있었고, 주민들은 가족 및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외에도 옷놀이 행사와 음식 제공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옷놀이는 많은 주민의 호응을 얻었다. 옷놀이에서 우승한 주민에게는 10kg의 쌀이 상품으로 제공되었으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팀이 되어 우승하는 등 훈훈하고 유쾌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음식으로는 쌀쌀한 날씨를 고려하여 따뜻한 어묵,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떡볶이, 김밥 등을 준비하였다.

비록 음식의 종류는 세 가지였으나 충분한 양을 준비하였고,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음식이 부족할 정도로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행사 준비에 참여한 전윤옥은 “김밥을 130개 준비했는데, 150명 정도 오는 바람에 김밥이 부족할 정도였다.”고 전하였다.

이처럼 행사 준비를 세심하게 한 만큼,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았다.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친환경 탄소 중립을 실천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교류하였다. 평소에는 마주치더라도 인사를 나누기 어려운 이웃들이 ‘한마음 행사’를 통해 함께 웃고 옷을 던지며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2023년 우성어울림공동체 한마음 행사 윷놀이



2023년 우성어울림공동체 한마음 행사

한마음 행사와 꽃 심기 활동을 주관한 우성어울림공동체 회원들은 공동체학교 운영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에 대해 아쉬워하였다. 예를 들어, 화단 가꾸기 행사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였으나, 참가 인원은 우성어울림공동체로 등록된 주민 수만 큼만 공식 문서에 기재할 수 있었다. 화단 가꾸기 행사를 주도한 한이덕은 실질적인 참여 인원을 적을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한이덕 : 뭐냐면은 예를 들어 꽃 심는 데 40명이 참여를 했어. 공동체 회원은 14명이잖아요. 참여한 공동체 회원만 적으라는 거예요. 참가 인원이 더 있으면 알파로 더 적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행사를 진행한 전윤옥도 같은 생각이었다.

전윤옥 : 우리가 공동체 한마당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탄소 중립이랑 아나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명수증을 다 첨부해야 되니까. 음식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또 쓸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회장님이 가서 계속 얘기하니까 그거를 이제는 행사비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행사비로 하고 김밥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 세 번 가서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민들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4. 박달우성아파트의 작은 변화, 큰 의미

아파트는 개인의 독립적인 주거공간인 동시에 ‘내 집’을 중심으로 위아래층과 옆집의 벽을 반드시 공유하는 구조이다. 게다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마주하는 모든 공용공간을 일상적으로 함께 나누며 살아간다. 역설적으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전혀 모르고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아파트 주거는 단독주택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공간과 구

조를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이다. 다른 주민들과의 교류와 협력은 곧 ‘나’의 공간과 생활을 보살피는 행위와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와 ‘남’을 함께 보살피며 살아가는 감각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아파트 공동체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박달우성아파트는 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아파트이다. 그 긴 시간만큼 아파트에는 다양한 주민 활동이 있었다. 앞서 언급한 부실한 도색작업 문제와 같이,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에 현안이 발생할 때 자발적으로 한곳에 모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확산시킬 기회를 열망하게 만드는 토양이 되었다.

2023년 안양시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우성아파트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기대를 충족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아파트 공동체학교 운영, 친환경 실천 및 체험, 탄소 중립을 위한 지혜로운 소비 실천이라는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다양한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다. 수업은 공동체의 개념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공동체의 우수 사례로 알려진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 공동체 우수 아파트들은 지향하는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잘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30년 이상 된 우성아파트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과의 괴리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공동체 행사 진행 과정에서 행정 처리와 관련한 불편함을 경험하는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이번 활동은 주민들이 공동체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감하는 소중한 기회였음은 분명하다.

끝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전윤옥의 짧지만 깊은 소감을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전윤옥 : 변화라는 게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게(공동체 활성화 노력)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변화는 한 번에 클 수가 없잖아요. (중략)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한 번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그 자체가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자료

정헌목, 「사회적 경제와 아파트의 결합: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인’의 등장과 입주과정」, 『한국문화인류학』 55(1), 2022.

하성규 외, 『아파트 공동체 - 상생을 생각하며』, 박영사, 2018.

註

1. 하성규 외, 『아파트 공동체 - 상생을 생각하며』, 서울: 박영사, 2018, 4~5쪽.
2. 정헌목, 「사회적 경제와 아파트의 결합: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인’의 등장과 입주과정」, 『한국문화인류학』 제55(1), 2022, 61~62쪽.

제4장

박달교회가 만든 지역공동체

최미경 자유기교가



1. '박달'에서 '안민'으로

1987년, 박달동 주택가의 작은 상가 건물 2층에 '박달교회'라는 현판이 걸렸다. 정상시 목사가 세운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교회였다. 교회가 들어선 지역의 명칭을 따라 이름 지어진 이 교회는, 1994년 교회를 이전하면서 '사람들이 편안한 교회'라는 뜻을 담아 '안민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회적 소외 계층인 노인과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방주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은 정상시 목사의 선교방식으로, 노인을 위한 '안민사랑동지'와 아이들을 위한 '안민희망동지'가 박달동에 만들어졌다. 온전히 소유하게 된 안민교회 건물 1층은 안민사랑동지 어른행복밥상, 2층은 안민희망동지 지역아동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아동을 위한 공부방으로 시작된 안민희망동지 지역아동센터는, 현재는 지역사회의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다. 휴식·보호·교육·문화 등을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열린 문화공간이자 희망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다.

창립부터 지역공동체로 자리매김한 현재까지 박달교회가 걸어온 길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 제1기 (1987년~1994년)

1987년 '박달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다. 당시 교회는 안양시 박달동 58-6에 소재하였으며, 예배와 성경공부를 기본으로 하는 교회사역 외에, '안양노동상담소', '지역

사회학교(기타반, 서예반, 사진방 등), ‘박달무료진료소’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박달 공부방’과 ‘사랑의 불씨 운동’이 시작되었다.

◎ 제2기 (1994년~2013년)

1994년 이후 교회의 활동은 노동 현장 중심에서 주민 생활 현장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교회는 안양2동 830-11번지로 이전하였고, 이와 함께 명칭도 ‘안민교회’로 변경되었다. 이 시기 ‘안민 공부방’은 아동복지시설로 다시 설립되었으며, 아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엔젤반’, 어르신 대상의 ‘은빛사랑방’이 개설되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함께 공동체 경제 모델인 ‘착한 가게’(빛과 책, 나눔등지 옷가게 등)가 설립되었고, ‘사랑의 바자회’도 더욱 활성화되었다. 2005년 12월에는 안민교회 당회가 조직되었다.

◎ 제3기 (2013년~ 현재)

2013년 11월, 교회는 박달동 소재 연건평 768㎡의 건물을 매입하였고, 2014년에는 입당예배를 진행하였다. 지역에서 더 깊이 뿌리내리기 위하여 기존의 아동센터, 어르신 사랑등지와 더불어 마을카페, 마을작은도서관, 마을학교 등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후 매월 ‘안민공동체 어울림예배’가 시작되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으로는 네이버 카페 ‘안민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박달교회 시절에 사용된 교회 현판. 현재 안민교회 1층 벽에 걸려 있다.

〈표 1〉 안민교회(전 박달교회) 연혁

1987년 5월	첫 예배 (주소: 박달동 58-6, 개척교역자: 정상시 전도사)
1987년 10월	창립예배
1987년 7월	안양노동상담소 개소(소장: 정금채)
1988년 1월	박달 무료진료소 개소
1988년 5월	박달 기타 교실 개설 (교사: 박찬호 전도사, 고선아, 정민혜, 이송자 등)
1988년 10월	정상시 전도사 목사 안수
1989년 5월	박달 지역사회학교 개교 (강사: 류순임/서예, 박관식/사진 등)
1990년 9월	위기 아동을 위한 공부방(박달공부방) 개설 (자원봉사 교사: 박정옥, 신태숙, 이영주, 김수성, 정희시 등)
1992년 12월	사랑의 불씨 운동 시작(회원 80여 명) (섬김이: 정상시, 신태남, 이영주, 황종국)
1993년 10월	제1회 사랑나눔 마을장터 개최 (이후 매년 열림)
1994년 6월	교회 이전(안양2동 830-11)
1999년 2월	지역선교지 『희망터』 창간호 발간
2001년 4월	부속 아동 정서치유 상담반 '엔젤반' 운영 시작(책임 교사: 신경량)
2005년 12월	안민교회 당회 조직(정희시 장로 임직)
2006년 3월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파견기관 선정
2010년 9월	안민사랑동지(노인돌봄) 안양시 경로식당 등록
2013년 11월	교회 건물 매입(현 주소: 박달동 85-30)
2014년 6월	새 성전 입당예배
2018년 10월	이정우 목사, 안민교회 부목사 청빙 허락(경기중부노회)
2024년 3월	안양시 공유냉장고 1호점 오픈

2. 민중의 교회로 출발한 박달교회

안양은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한국의 산업화 시기에 많은 공장이 들어선 지역이다. 특히 박달동에는 1964년 현대양행 안양공장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는 기계 공장, 알루미늄 공장, 선형 공장 등 다양한 중소규모의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었다. 이러한 산업 환경 속에서 1987년 5월, 정상시 목사는 '박달교회'라는 이름으로 박달동에 교회를 창립하였다.

같은 해 6월 항쟁 이후 전국적으로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며, 억눌렸던 노동자들의 권리 의식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정상시 목사는 정금채와 함께 교회 안에 노동상담소를 열었다. 군부독재 시절부터 억압받던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드나들며, 모이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다. 교회는 일요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었지만, 평일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권리 상담을 받고, 함께 토론하고 연대하는 공간이 되었다.

20평 남짓한 교회 공간 한편에 책상 하나 놓고 시작한 노동상담소에는 프레스 사고로 팔을 잃은 노동자 등 다양한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찾아왔다. 상담소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알려주고, 노동법 강의도 하였다. 정상시 목사는 직접 인근의 만도기계 노동자들을 찾아가 연설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인들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박달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산하 안양·군포·의왕·과천 지역 창립식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교회에서 열린 전교조 창립식은 경찰과 각 학교 교장들의 견제 속에서도 강행되었고, 이에 대해 정상시 목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정상시 : 정보를 듣고 경찰이 우리 교회 앞에 빙 둘러섰어. 그다음에 한쪽에 누가 수십 명이 몰려왔는데 교장 선생님이 온 거야. 전교조 창립을 막기 위해서. 전교조. 그때는 내가, 아주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랬지. “당신들이 이제 여기 한 발자국 들어서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 그건 아주 끝까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성전 파괴의 행위로, 세계적으로 문제 삼겠다. 교단은 물론이고.” 그래서 못 들어오더라고. 밖에만 쪽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창립을 했어.¹

이정우 : 그때는 아무래도 노동자분들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상담은 노동 활동하던 분들이 이제 같이 결합이 돼서. (중략) 당시는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그때 부당노동행위를 겪어도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²

박달교회는 단순히 예배당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공간이자 공동체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민요연구회와 함께 풍물을 치며 마을을 도는 정월 대보름 행사를 열었고, 이는 당시 교회로서는 매우 낮은 시도였다.

교회는 ‘박달 지역사회 학교’라는 이름으로 기타 교실, 서예 교실, 영화 상영회 등을 열었다. 특히 기타 교실은 인기가 많아 지역 주민도 참여하였다. 작은 교회 안에 빼곡하게 앉아서 찰리 채플린의 ‘모던타임즈’를 관람하기도 하였다. 또한 ‘박달진료소’를 운영하여



박달교회 창립 초기 세례식(1990년, 안민교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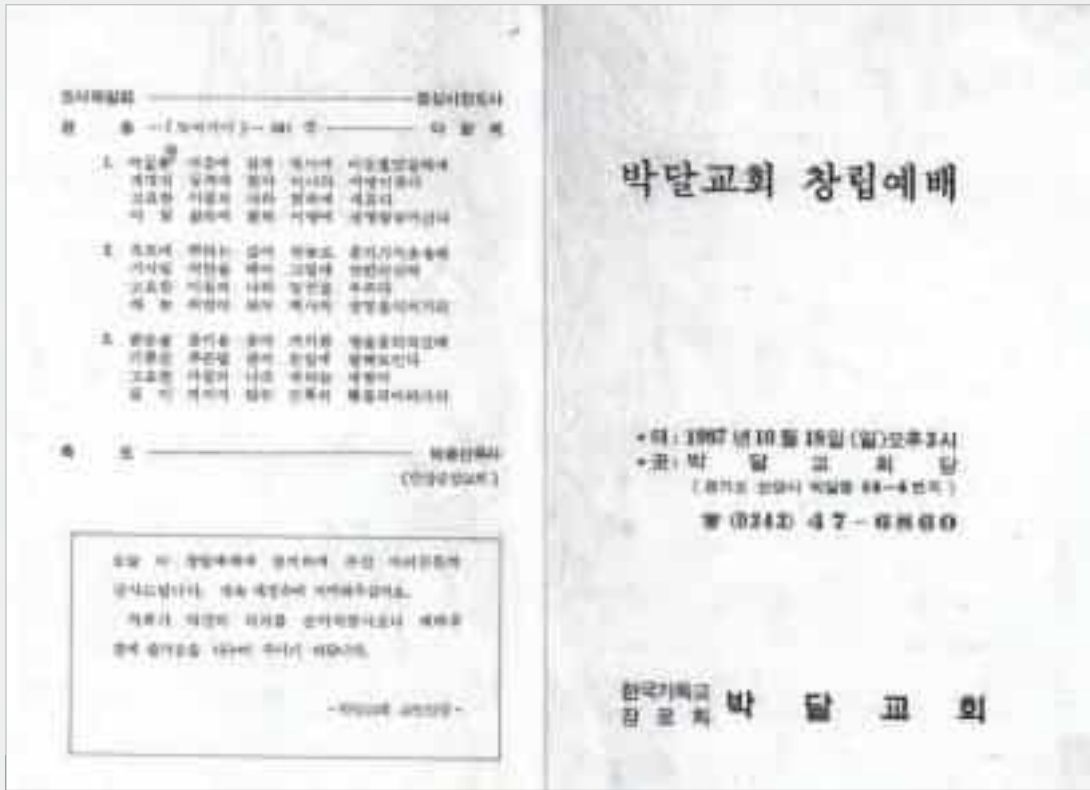


정상시 목사와 박달교회 교인들(1990년, 안민교회 제공)



박달교회 기타 교실(1990년, 안민교회 제공)





박달교회 창립예배 주보(안민교회 제공)



민중교회 성격을 보여주는 박달교회 주보(1987년 10월 18일, 안민교회 제공)



박달교회 주보에 실린 노동 시(1987년 10월 11일, 안민교회 제공)

안양지역 구속 노동자 명단

성명	소속	구형	비고
안중민	대영공업	2년	사문서 부정행사
이시정	유신중전기	2년	"
권용호	유신중전기	1년 6월	집회시위(이석규열사추도집회)
김영미	부전공업	2년	사문서 부정행사
허해홍	금성전기		3차 개입
김원실	"		"
남승완	"		"
이현숙	부전공업		국가보안법
박현옥	화성전자		사문서 부정행사
정만섭	풍강금속		"
조남응	"		국가보안법
임종철	"		"
조향호	원성기업		"
김향순	신우사		사문서 부정행사
이영숙	"		"
이육주	"		"
김종식	"		집회시위

한국기독교
합동회 박달교회 주보



발행처: 안양시 - 전화: 1234567890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1동 1-1번지 안양교회
 발행처: 안양시 동안구 안양1동 1-1번지 안양교회

안양 지역 구속 노동자 명단이 실린 1987년 11월 8일 박달교회 주보(안민교회 제공)

안양 지역 구속 노동자 명단

성명	소속	구형	비고
안중민	대영공업	2년	사문서 부정행사
이시정	유신중전기	2년	"
권용호	유신중전기	1년 6월	집회시위(이석규열사추도집회)
김영미	부전공업	2년	사문서 부정행사
허해홍	금성전기		3차 개입
김원실	"		"
남승완	"		"
이현숙	부전공업		국가보안법
박현옥	화성전자		사문서 부정행사
정만섭	풍강금속		"
조남응	"		국가보안법
임종철	"		"
조향호	원성기업		"
김향순	신우사		사문서 부정행사
이영숙	"		"
이육주	"		"
김종식	"		집회시위



1988년 2월 14일 박달교회 주부(안민교회 제공)

알림과 사견

- 운영위원회 화요일(16일) 오후 7:00에 있습니다.
- 신동섭 교우의 출소를 환영합니다. 그동안 구속중이던 신동섭 교우가 지난 12일(금) 집행유예로 출소했습니다. 아직도 구속 중인 오민상 교우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 18일은 "설날"입니다. 기쁜 "설"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라향살이 하다 고향에 가시는 분 잘 다녀오시길! 남은 분들은 다른 재미있는 대책 강구(?)합니다.
- 이번 주 수요성경공부는 7:00로 앞당기겠습니다.(창세기 4장 읽어 올 것)
- 의료진료는 일요일 3:00~6:00 계속되고 있습니다.
- 오늘 오후 7:00 상담소 주관으로 "씨발이"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 오늘 오전 10:00~오후 10:00 안양독서회에서는 각종 전시 발표 토론의 "독서한마당"을 시내 화진다방에서 갖습니다.(신영순 병원 맞은편)
- 오늘 오후 2:00 명동성당에서 민중생존권쟁취대회가 열립니다.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돌보는 일도 병행하였다.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의 수는 적었지만, 교회 공간은 늘 지역 주민들로 북적였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삶에 직접 닿았기에 박달교회는 자연스럽게 ‘지역민의 교회’, ‘공동체 교회’로 자리 잡았다.

박달교회의 경제 사정은 늘 빠듯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정상시 목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정상시 : 그 당시는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교회 개척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지원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 여신도 연합이나, 다른 큰 교회에서도 조금씩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와이프가 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밥은 굶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중략) 그 당시 어쨌든 여기저기서 그런 선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 같은 데서도 좀 이렇게 지원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랬죠.³

시간이 지나면서 박달교회는 지역의 다양한 계층, 특히 아동과 노인을 위한 활동으로 사역의 폭을 넓혀갔다. 노동운동으로 시작한 교회의 사명은 점차 지역 약자와 함께하는 교회로 자리를 잡으며, 어린이와 노인 등을 위한 활동을 넓혀갔다.

정상시 : 우리 교회는 한 50명의 도시민 공동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아동센터라든지, 또 노인들.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하고, 이 교회 아닌 교인들 이런 분들이 좀 있다고 봐야죠. 그게 이제 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중략) 우리 아동센터는 지역에 또 아시는 분도 알고 하는데, 한 사십 명 아이들이 잘 자라가고 있고, 노인들이 한 삼십 명이 있어요. (중략) 노인들은 뭐 그냥, 우리 모임으로만 했어요.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진 않았어요.⁴

정상시 목사 후임으로 교회를 이끄는 이정우 목사 역시 박달교회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였다.⁵

이정우 : (교회가) 지역사회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처음에 이제 1987년 당시니까 아직 군사정권 시절이고, 노동운동이 막 피어나고 이럴 때였기 때문에 노동상담소 같은 게 필요했어요. (중략) 그다음에 이제 전교조 경우도 불법 상태였는데, 이제 전교조 창립 같은 경우도 공간이 없으니까. (중략) 안양 지부 창립 자료를 보고서 ‘되게 중요한 공간을 제공해 주셨구나.’ 싶더라고요.

3. 지역과 함께 하는 안민교회

1) 지역아동센터 ‘안민희망동지’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안민희망동지’는 지역 아이들의 학습을 돕고, 급식을 제공하며, 상담소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 센터는 주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중학생을 포함하여 평균 50여 명 이상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교회 건물 2층의 센터 내부에는 책상·컴퓨터·도서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의 방과 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박달교회가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을 돌보기 시작한 활동은 점차 주변으로 확산되었다.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되기 이전, 박달교회는 ‘탁아방’이라는 명칭으로 가장 먼저 아동 돌봄 사업을 시작한 곳 중 하나였다.

이정우 : 박달동 지역 자체가 낙후된 곳이었고, 그래서 방치된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라고 정부의 아동복지 사업으로 이렇게 법제화 되기 전에, 그냥 교회에서 하는 탁아방 이런 거로 이제 안양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죠. 박달교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서 안양에 있는 몇몇 아동센터 초기 아동센터들이 이제 여기서 다 실습하고 훈련받고 이러면서 이제 공부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학생 수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고용되며, 각 과목을 담당하는 파트타임 교사들과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도 함께 일하고 있다. ‘안민희망동지’에서는 하교 후에 학생들이 숙제를 하거나 보충학습을 받는 등, 주로 학습 지도가 이루어진다. 특히 초등학생은 하교 후 가장 먼저 센터를 이용하며, 이후에는 중학생들이 이어서 활동에 참여한다. 센터에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습을 돕고, 정기적으로 상담 교사가 생활 상담을 진행하며 아이들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방학 기간에는 오전부터 센터를 찾는 학생이 많으며,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캠프와 소풍, 음악 교실, 태권도 교실 등의 특별활동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토요일 저녁에는 ‘엔젤반’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열 명 내외로 조를 짜 밤샘 집단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은 이 활동을 매우 기다렸다고 하며, 춤과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서적 치유와 자아 성장을 경험하였다. 다음은 한 초등학생이 엔젤반에서 성장해가는 경험에 대한 기록이다.

'안민공부방 후원회'에 참여해 주세요!

참여 하는 이유입니다. 33호를 후원합니다. 33호는, 후원하는 33호에 후원하는 공부방입니다. 후원하는 33호를 후원하는 33호는, 후원하는 33호를 후원하는 33호입니다. 후원하는 33호를 후원하는 33호는, 후원하는 33호를 후원하는 33호입니다.

☎ 전화 : 011-888-33-827434(후원회-전용선)
 ☎ 후원번호 : 338-41-0214-333 (44호부터 후원까지)

안민공부방 후원회 가입신청서

☐ 이름 : _____ ☐ 나이 : _____ ☐ 성 : _____
 ☐ 주소 : _____
 ☐ 후원회 : _____ ☐ 후원금액 : _____ 원/월
 ☐ 후원기간 : _____ ☐ 후원종류 : _____ ☐ 후원방법 : _____

유치반·초등반 학생모집

☐ 유치반 : 양양 33호 - 33호 ☐ 초등반 : 양양 33호 - 33호
 ☐ 대상 : 양 44 - 44호까지 ☐ 대상 : 양 33호 - 33호까지
 ☐ 시간 : 아침 9시 - 11시 ☐ 시간 : 낮 3시 - 4시
 ☐ 교사 : 양양 33호 ☐ 교사 : 양양 33호
 ☐ 수업료 : 양양 33호 ☐ 수업료 : 양양 33호
 ☐ 문의 : 양양 33호 ☐ 문의 : 양양 33호
 ☐ 후원 : 양양 33호 ☐ 후원 : 양양 33호

희망터

이것이희망터 희망의 터전입니다. 희망의 터전입니다. 희망의 터전입니다. 희망의 터전입니다. 희망의 터전입니다. 희망의 터전입니다. 희망의 터전입니다. 희망의 터전입니다.

☎ 후원회 : 양양 33호 ☎ 후원회 : 양양 33호 ☎ 후원회 : 양양 33호 ☎ 후원회 : 양양 33호

1999년 1호

(7월) 글쟁이 글쟁이

희망의 터전입니다. 희망의 터전입니다. 희망의 터전입니다. 희망의 터전입니다. 희망의 터전입니다. 희망의 터전입니다. 희망의 터전입니다. 희망의 터전입니다.

☎ 후원회 : 양양 33호 ☎ 후원회 : 양양 33호 ☎ 후원회 : 양양 33호 ☎ 후원회 : 양양 33호

공 부 방

공부방 후원회

☎ 후원회 : 양양 33호 ☎ 후원회 : 양양 33호 ☎ 후원회 : 양양 33호 ☎ 후원회 : 양양 33호

공부방

☎ 후원회 : 양양 33호 ☎ 후원회 : 양양 33호 ☎ 후원회 : 양양 33호 ☎ 후원회 : 양양 33호

공부방

☎ 후원회 : 양양 33호 ☎ 후원회 : 양양 33호 ☎ 후원회 : 양양 33호 ☎ 후원회 : 양양 33호

희망터

이것이희망터 희망의 터전입니다. 희망의 터전입니다. 희망의 터전입니다. 희망의 터전입니다. 희망의 터전입니다. 희망의 터전입니다. 희망의 터전입니다. 희망의 터전입니다.

☎ 후원회 : 양양 33호 ☎ 후원회 : 양양 33호 ☎ 후원회 : 양양 33호 ☎ 후원회 : 양양 33호

희망터

☎ 후원회 : 양양 33호 ☎ 후원회 : 양양 33호 ☎ 후원회 : 양양 33호 ☎ 후원회 : 양양 33호

안민교회 부설 안민공부방 소식지 「희망터」 1호(1999년, 안민교회 제공)



방학 중에 오전부터 안민희망동중지에 나와서 학습과 놀이를 하는 아이들

빠른 음악으로 춤을 출 때 내가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다. 나는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알았다고, 괜찮다고 했다. 나는 오자마자 컴퓨터를 했다. 사탕 받기 게임을 했는데 세 개를 받았다. 두 개만 먹은 것 같았는데 하나가 없어진 것 같았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먹었다. 제로 게임을 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랐지만, 여자애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팔뚝을 세계 때렸는데 여자애들은 약하게 때렸다. 나는 그런 여자애들이 참 착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자애가 모르고 밟았을 때는 기분이 나빴다. 나도 이제부터는 방해를 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춤도 괴팍하게 추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성육이는 몸 기도를 할 때 웃었다. 처음이라 그런가 보다. 다음에는 성육이도 잘할 수 있도록 빌어야겠다.⁶

지역아동센터는 선별적 복지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소정의 이용료를 부담하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꿈의 학교’ 활동도 센터와 연계해서 진행되었다. ‘꿈의 학교’는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방과 후 청소년 활동 사업으로,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마을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코로나 이후 다시 문을 연 안민사랑동지(2022년, 안민교회 제공)

이정우 :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정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 할 때 ‘꿈의 학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이죠. 이거를 이제 도 예산으로 해서 다양한, 이런 청소년 활동하는 거 그것도 한 몇 년 했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지역 사업으로 들어갔고, 마을만들기 이런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도 많이 있고. ‘꿈의 학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2) 안민사랑동지 어르신 행복밥상

‘은빛사랑방’으로 시작한 경로식당은 이후 ‘안민사랑동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0년 9월 안양시 경로식당으로 공식 등록되었다. 교회 1층 공간은 작은도서관과 경로식당으로 활용되고 있다. 식당 이용이 어려운 고령의 노인을 위해 밥과 반찬을 직접

준비하여 거주지로 직접 배달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노인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하며, 식사 이후에는 함께 담소 나누는 시간을 통해 상호 안부를 확인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 이 밖에도 인근 온천에 함께 다녀오거나, 봄철 나물 캐기 등 계절에 맞는 활동도 병행된다. 안민교회 담임목사 이정우는 경로식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정우 : 제가 느꼈던 것은, 여기 노인들이 식사를 하러 오시지만, 그냥 그게 이제 하나의 일상으로 정착이 된 거죠. (중략) 지역 주민들과고는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항상 노인 무료 급식을 하니깐 그것 때문에 이제 동네 주민들이 참 좋아했고, 해마다 바자회를 하고 그랬거든요. 바자회가 주로 현웃 이런 거가 아이템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국수, 같이 만든 거 먹고. 교회에 전혀 오지 않는 노인인데도 지나가면서 그냥 천 원, 이천 원 이렇게 후원금에다가 넣고 지나가고 그럴 정도로, 지역 주민들과 관계가 참 좋았어요.

3) 마을만들기와 민주시민교육

안민교회는 공동체 중심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교회 내 작은도서관 공간을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 강좌를 열었다. 이 활동은 지역 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마을 기반의 교육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정우 목사는 마을만들기와 민주시민교육의 배경과 전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정우 : 마을만들기라는 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붐이 일어났죠. 요새도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따복 공동체’라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는 것을 시도를 했었고, 그래서 ‘마을만들기’ 활동, ‘꿈의학교’ 활동, 그다음에 또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또 하나의 부흥을 이뤘어요. 제가 ‘경기도민주시민교육협의회’ 이런 단체를 만들고, 거기서 운영위원장 맡아서 지역마다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을 진행을 하는 걸로 했고, 여기서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에서 ‘민주시민교육 강좌’ 이런 것을 했었어요. 코로나 직전이죠.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4) 생활협동조합과 공정무역

안민교회는 지역아동센터 ‘안민희망동지’의 급식 재료를 전면 생활협동조합(이하 생



안민교회 1층에서 열린 2024 안양공정무역협의회 활동가 양성과정 교육(안민교회 제공)

협)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생협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아동 청소년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생협 활동과 더불어 공정무역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6년 동안 생협 일을 하면서 다른 거보다도 제일 제가 많이 배운 거는 이제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공정무역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 교회랑 연결이 되고, 또 지역사회랑 연결이 되고, 제 개인적으로도 공정무역 활동을 꾸준히 좀 뿌리가 내리게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바른두레생협', 안양 YMCA '등대생협'이라고 있어요. YMCA 회원들 중심으로. 그리고 '아이쿱'이라는 생협이 있고.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모여서 '안양공정무역협의회'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2019년, 2020년 그때 조례를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안양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을 받는 그런 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파트너 쪽 생협들이 협의회를 만들자.' 이렇게 돼서 이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안양시는 2021년 10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로 공식 인증

을 받은 후,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하며 2024년 현재에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안양시는 공정무역도시 인증 이후,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내 공정무역판매처 확보, 공정무역 실천기관(커뮤니티) 인증,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 등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며 공정무역 기반을 확산하고 있다.⁷

이정우 : 공정무역은 ‘원조’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 캐치프레이즈, 원조도 필요할 때가 물론 있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저개발 국가 농민들이 스스로 물건을 생산해내서 판매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 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하고. 공정무역 10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그거 읽어보면 정말 대단해요. 일단 커피 가격 같은 경우 뉴욕 선물시장 가격보다 항상 2배 정도는 높게 책정이 돼요. 예를 들어, 커피값이 폭락했을 때 콜롬비아 커피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개 마약 재배로 돌아서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공정무역이 들어간 마을은 마약 재배로 안 돌아갔거든요. 그냥 커피 재배하고도 생활이 되니까. 그리고 가격을 유지해 해주니까 폭락해도.

이정우 : 지역사회 개발 이거는 정부가 감당해 줘야 되는데, 정부가 아직 약하고 이런 속에서, 바나나·설탕·커피·올리브유 등등의 아주 소액이긴 하지만 기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 기금은 별도로 모아서 지역개발기금으로 100% 그냥 전달이 되거든요. 이 거래하는 파트너 협동조합에.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의논해서 우리 마을에 뭐가 필요하다, 관개시설을 좀 해야 된다, 탁아소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결정해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정우 : 공정무역 회사들은 이윤 창출이 목표가 아니라 가난 극복이 회사 목표고, 자기네들의 인건비만 가져가는 구조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그걸 따져볼 때 저는 교회들이 정말 앞장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방에서 사용하는 커피, 설탕, 후추, 이런 거 다 공정무역 제품으로 좀 바꿔주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안양시는 시민축제를 개최할 때마다 공정무역 부스를 설치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현장에서도 공정무역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정우 : 학교 수업은 20회 분량 수업을 예상했는데, 교육 신청이, 교육청 통해서 공고 나가고 바로 그 날부터 한 50회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 못하고 40회에서 잘라야 했습니다.

5) 회복적 공동체

안민교회는 사회에서 갈등과 분쟁을 줄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구체적 인 활동으로, 비폭력 대화와 회복적 공동체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2024년 8월부터는 연성대학교에서 공간을 지원받아, 회복적 서클 입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정우 : 제가 비폭력 대화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책을 읽고, 지역 주민들 모아서 그룹 디스커션 하면서 이제 그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오면서 다 중단이 됐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비폭력 대화, 회복적 서클 대화, 이거를 지역사회에서 좀 활성화하는 거, 보급하는 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민간협력기구가 있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안양은 잘 돼 있어요.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회복적 정의'라는 분과를 하나 만들었죠.

이정우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7가지 목표에도 '회복적 정의'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사실 이걸 굉장히, 유엔에서도 강조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채택이 돼서, 회원들이 한 15명 이렇게 신청을 해서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한 1~2년 해왔고, 연습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게 연습이 중요하거든요. 꾸준히 연습을 해서 몸에 배야 되는데, 그 연습 모임에 10여 명 참석을 하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자기 돌봄의 시간이니깐. 돌보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이러면서 경청하는 훈련하고 막

비폭력대화 회복적 서클 대화 워크숍(안민교회 제공)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회복적 서클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회복적 서클은 학교에 이미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이정우 :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도 이미 '회복적 경찰 활동'이라고 그래서, 고소 사건이 있어도 이게 이제 재판으로 가기 전에 경미한 사안의 경우, 아주 강력범죄 같으면 힘들지만, 그냥 주민 간의 다툼 이런 경우 재판으로 가기 전에 이 회복적 서클 대화 이런 것을 중재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적 경찰 활동 위촉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걸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정말 좋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틀이기 때문에, 교인 플러스 지역 주민 누구나, 종교에 상관없이 그냥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대화하고 경청하고 이런 시간인데, 우는 분들이 많아요.

6) 안양시 공유냉장고 1호점



안민교회는 안양시 공유냉장고 1호점을 위한 공간을 교회 앞에 마련하고, 그 관리를 맡아 2024년 3월 12일 개소식을 진행하였다. 공유냉장고 사업은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안양지속협)가 도시공동체 분과의 지속가능한 연중 사업으로 준비한 것이다. 1호점은 안양지속협과 안민교회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공유냉장고 1호점은 안민교회가 관리 책임을 맡고, 안양 공유냉장고 네트워크 위원으로 활동하는 비상근 관리자들이 공유냉장고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를 수행하고 있다. 안양지속협은 후원물품 조달과 홍보를 지원한다. 공유냉장고는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음식을 넣거나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며, 음식을 넣을 때는 반드시 제조일과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이 공유냉장고를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이 먹을거리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이웃과 나눔·돌봄·공유의 가치를 실천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⁸



안민교회 앞에 설치된 안양 공유냉장고 1호점(안양시청 제공)



안민교회 앞 안양시 1호 공유냉장고에 자원봉사자가 음식을 넣고 있다.

4. 교회를 세운 사람들

1) 정상시 목사

정상시 목사는 전도사로서 1987년에 박달교회를 창립하고, 이듬해인 198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사회격변기에 지역의 노동자와 민중을 위해 헌신하는 민중의 교회로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교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자 교회 명칭을 안민교회로 변경한 후, 2022년까지 본연에 충실한 교회로 이끌어왔다. 교회의 운영에는 동생인 정희시 장로의 도움도 컸다.

정상시 목사는 박달교회를 창립하기 이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감옥에 가는 고초를 겪은 바 있다.

정상시 : 감옥에서 지낸 기간은, 첫 번째로 1977년 한신대학교 '고난 선언' 사건으로 16개월, 그리고 다시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계엄군의 학살 만행에 대한 고발과 항의 시위, 일명 '한신대 피의 선언' 사건으로 인한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22개월, 총 3년이 넘는 기간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10년 만에, 늦깎이로 졸업했습니다. 목사 안수도 1988년에 받았지요. 학생운동과 투옥, 사회운동 등으로 동기생에 비해 조금은 늦어졌습니다.

정상시 : 1987년도에 저는 안양 박달동에 박달교회를 개척합니다. 저는 수도권·노동 선교를 생각하고 결국에는 안양 박달동 지역을 선교지로 택하고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개척 초기에는 당연히 교인이 없었고, 어떤 때는 아내와 단둘이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정상시 목사가 교회의 본질 회복을 강조하며 피력한 발언에서, 안민교회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종교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정상시 : 교회의 본래적인, 교회의 본질 회복. '교회의 정체성을 찾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이 복음적 민중교회 운동의 주장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해방 은총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근데 민중의 그런 역사성과 이걸 갖다가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민중성과 역사성과 이런 거 없이 그냥 복음이 구름 잡는 이야기로 간다든지, 또 이원론적인 그런 성령주의 그걸 좀 비판을 한편 하면서 또 운동은,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민중교회를 쓰지만, 교회란 말

속에 이미 민중이 들어있는 거다. (중략) 목회 활동 외에도 나는 교회 내에 노동상담소, 박달지역사회학 교, 마을 무료 진료소 등을 설치하고 운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회의 본연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와 성경공부 기도회 등 일명 영적 활동보다는 사회적 활동이 더 많았습니다.⁹

정상시 목사는 재임 시절 평화통일 운동에도 관심을 두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 서 평화통일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2021년 12월, 은퇴를 앞두고 회고록 성격의 저서 『어느 운동권 목사의 평화 순례: 평화동산 가는 길』을 출간하였다. 이후 2023년,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6·15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분부가 수여하는 ‘6·15평화통일상’을 수상하였다.¹⁰

2) 이정우 목사

2022년 정상시 목사가 은퇴함에 따라 이정우 목사가 새롭게 안민교회를 맡게 되었다. 이정우 목사는 10여 년 전, 정상시 목사의 권유로 안민교회에서 활동을 시작한 바 있어, 교회의 역사와 지역 활동 전반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하는 정상시 목사(2021년, 안민교회 제공)



안민교회 이정우 목사

그는 젊은 시절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에 소재한 캐나다 연합교회(UCC) 신학교로 유학을 떠나 약 14년간 캐나다 현지 목회를 하였으며,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안민교회에 정착하였다. 현재 이정우 목사는 안민교회를 기반으로 공정무역, 회복적 공동체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실천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이정우 : 제가 안민교회에 오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배웠죠. 연합측 민중교회가 그냥 코너에 몰려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이렇게 좀 숨통을 트고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새로운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앞으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동네에서 좀 더 연결이 되면 그런 분들과 같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큰 공정무역, 회복적 서클 대화, 비폭력 대화 이것으로 사람들의 평화 훈련, 그다음에 마음 근력 키우기, 이런 게 제 목표에서 굉장히 핵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민교회는 박달동 지역사 속에서 단순한 종교기관을 넘어선 공동체의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이 교회는 신앙공동체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과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생활공간으로서도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김민유, 「안양시, 공정무역도시 재인증. 저개발국과 동반자관계 형성」, 『연합뉴스』, 2023년 10월 31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1 경기중부민주화운동인사 구술채록 “민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정상시」.
- 박명철, 「목회현장을 찾아서-안민교회 정상시 목사/우리 시대의 歸鄉, ‘집으로 ……」」, 『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2003년 5월호.
- 송영배, 「“함께 채우고 나눠요” 안양시지속협 공유냉장고 1호점 개소」, 『KNS뉴스통신』 2024년 3월 15일.
-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 「안양 공유냉장고 1호점 3월 12일 오픈한다.」, 2024년 3월 5일.
- 홍인식, 「“복음적 민중교회” 목회자를 향한 발걸음-정상시 목사」, 『34년 만에 안민교회에서 은퇴하다(2)』, 2022년 2월 6일.
- 홍인식, 「운동권 목사, 겨울 공화국을 지나 교회로 돌아가다」, 『에큐메니안』 2022년 1월 30일.
- 홍인식, 「정상시 목사, ‘6.15평화통일상’ 수상」, 『에큐메니안』 2023년 1월 21일.
- 안민교회(<https://cafe.naver.com/anmin> 1987/).

註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경기중부민주화운동인사 구술채록- “민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정상시」, 2021.
2. 이정우(남, 現 안민교회 담임목사)의 제보, 2024년 8월 16일. 이하 이정우 목사의 구술내용은 동일 날짜인 2024년 8월 16일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별도 명시하지 않는다.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경기중부민주화운동인사 구술채록 “민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정상시」, 2021.
4. 위의 내용.
5. 2024년 8월 16일 인터뷰.
6. 박명철, 「목회현장을 찾아서-안민교회 정상시 목사/우리 시대의 歸鄉, ‘집으로」, 『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2003년 5월호.
7. 김민유, 「안양시, 공정무역도시 재인증. 저개발국과 동반자 관계 형성」, 『연합뉴스』, 2023년 10월 31일. (<https://www.yna.co.kr/>).
8. 송영배, 「“함께 채우고 나눠요” 안양시지속협 공유냉장고 1호점 개소」, 『KNS뉴스통신』, 2024년 3월 15일 (<https://www.kns.tv/>);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 「안양 공유냉장고 1호점 3월12일 오픈한다」, 2024년 3월 5일(<https://ngoanyang.or.kr/>).
9. 위의 기사에서 재인용.
10. 홍인식, 「정상시 목사 ‘6·15 평화통일상’ 수상」, 『에큐메니안』, 2023년 1월 21일. (<http://www.ecumenian.com>).

제5장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지킴이 활동

이하나 문화공동체 히음 대표



1. 행복마을관리소를 소개합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원도심과 주거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마을 주민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공동체 기반의 거점 공간이다. 이 사업은 성남시의 성남시민순찰대와 시흥시의 동네관리소 정책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여 도입되었다. 2019년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행복마을관리소는,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주거취약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주로 원도심 지역 내 유휴공간(주민센터, 경로당, 빈집 등)을 활용하여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 위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2019년 안산시 월피동, 군포시 산본1동, 시흥시 정왕본동, 의정부시 의정부1동, 포천시 신읍동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2022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총 11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였으나, 2023년 9월 기준 101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안양시에는 2024년 8월 기준, 관양동·박달1동(박달동)·안양2동·충훈동 등 4개 지역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관양동은 2020년 8월에, 박달1동과 안양2동은 2022년에, 충훈동은 2024년 4월에 개소하였다. 행복마을관리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표 1〉 안양시 행복마을관리소 현황

관리 지역	개소 연도(년)	주요 사업	면적(㎡)	현원 (명)
관양1동 (관양동)	2020	-주거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사랑나눔 반찬 배달 및 물품 배부 서비스 -대규모 개발사업 등하곳길 안전지킴이 -저소득층 종량제 봉투 배달 및 배부 서비스	49.28	5
박달1동 (박달동)	2022	-지역 순찰 -공구 대여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 등 주민생활 편의 제공 -행복나눔 도시텃밭 조성 -장미터널 환경개선 -도시재생 뉴딜을 위한 취약지 계절꽃 식재 -저장강박 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홀몸노인 돌봄 서비스 -찾아가는 지킴이 알림 서비스 -박달1동민과 하나 되는 마을축제 도우미 -방범용 CCTV·비상벨 점검 서비스 -취약계층 주거생활 안전지원 서비스 -집중호우 대비 배수구 정비 -‘ONE-STOP’ 선도적 수해예방 프로젝트 -‘쓰레기 없는 행복마을’ 무단투기 근절	33	5
안양2동	2022	-지역환경 개선 -생활불편 민원 해소 및 주민 편의 제공 -‘함께 만들어요! 우리 동네 가치 플러스 업!’ 사업 협력 추진 -안양천 및 주변길 환경정화사업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지원	23.4	5
안양3동	2023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 -생활공구 대여 서비스 -휠체어 대여 서비스 -생활방역 서비스 -학생 안심 등하교 서비스		5
석수3동 (중훈동)	2024	-주거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충훈벚꽃길 환경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하천변 및 공원 운동기구 유지보수 지원 -도시텃밭 운영 및 수확물 나눔 -태풍 등 대비 재해취약지역 순찰 및 배수로 정비 -홀로 사는 어르신 안부 전화	28.13	5

자료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2023년 9월 기준)

행복마을관리소는 이러한 지역에서 주민 일상과 직결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소규모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중 목표를 가진다. 대규모 개발이 아닌 지역 재생과 주민자치 중심의 운영 모델을 지향하며, 특히 비아파트 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유사한 역할을 함으로써 주거환경 관리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다. 안양시는 도시

재생지와 비아파트 밀집지를 중심으로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하여, 주민공동체 기반의 주거 관리와 취약계층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행복마을 지킴이와 사무원으로 구성된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지킴이 정원은 보통 4명으로, 안양시의 행복마을관리소는 행복마을 지킴이 4명과 사무원 1명을 두어 총 5명이 한 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정원 구성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마을 순찰, 환경정비, 취약계층 돌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화된 인력 배치 방식이다.

모든 인력은 단기계약직 형태로 채용된다. 참여자 모집은 매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1월에 공고를 내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빠르게 선발하여 2월에 신속하게 대민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 자격에는 여러 제한이 있으며, 동일 세대 2인이 함께 지원할 수 없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과 중복 참여도 불가하다. 또한, 참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2년 이상 행복마을관리소나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에 반복 참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참여 제한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업에 참여하려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범죄 경력자, 고소득(중위소득 70% 초과)·고재산(4억 원 초과) 가구 구성원, 공무원 가족(단, 생계가 완전히 분리된 경우 제외) 등도 지원이 제한되며, 이러한 조건은 저소득층을 우선 채용하고, 동일 인물이 장기간 고정적으로 일자리를 점유하지 않도록 해 지역 일자리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킴이 지원자의 경우, 건축·전기·설비·집수리 등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는다. 사무원 지원자는 평생교육·문화기획·사회복지·공동체 활동·도시재생 등의 분야 경력에 가산점이 주어진다. 자원봉사 실적도 점수 반영 대상이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중간의 1시간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실제 유급 근로시간은 5시간이며, 이에 상응하는 시급이 지급된다. 공고문에서는 ‘채용’이라는 용어 대신 ‘사업참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단순한 고용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활동에 동참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박달동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어르신(학생) 안심 학교 서비스 초·중·고학년 그룹 학교부차 귀가까지 동행 학교 주변 교통안전 확보(배달활동)

민간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방범, 치안, 소방, 화재 등 민간 단체와 협력 및 협조 동행(방범자선배, 치안단체들과 연계 협력하여 방문 및 전화 상담, 결과제출)

다양한 취약계층 사업 발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복지, 문화공존제,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색 사업 발굴

문의전화 031-8045-3811

박달동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주요내용 및 이점 지역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 대여

출몰노인 돌봄 서비스 도시차/방한복갑 서비스 무거운 물건 옮기기 복지혜택 전환(거점연계 등)

생활안전의사 재난취약계층 쓰레기통기차의 갑시 및 생활용품 생활안전의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진압 및 구난활동 참여 갑시 재난, 화재,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 및 유령급보류 등 시정 운영부서 홍보 지원

취약계층 생활지원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서비스 (거점의 수도꼭지 연구 교체, 방충망, 방화 등)

박달동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취약계층 생활지원 서비스

출몰노인 돌봄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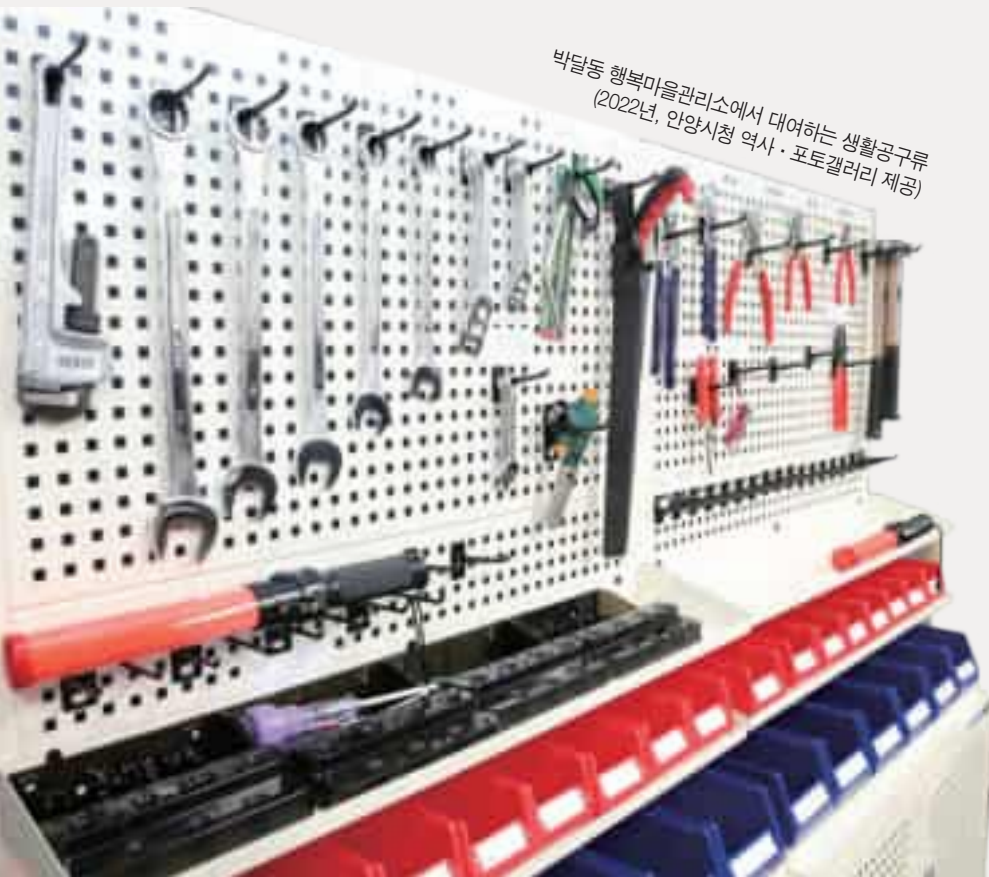
생활공구 대여 서비스

어르신(학생) 안심 학교 서비스

다양한 취약계층 특색 사업 발굴

문의전화 031-8045-3811

박달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개소 (2022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대여하는 생활공구류 (2022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의 행복한 마을 만들기

박달1동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재생사업이 추진되었고, 사업 종료 직후 행복마을관리소가 자리 잡았다. 박달1동은 2006년에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동의율 저하로 2014년 조합이 해산되었고, 정비계획 해제 절차를 거쳐 재개발이 무산된 지역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주택 비율을 60%에서 50%로 줄이고, 공원 및 녹지와 공공주차장을 확충하며, 청년 인구 비중을 2017년 19%에서 2020년까지 2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경기도 전역의 도시재생사업은 순차적으로 일몰되었으며, 재생사업이 마무리된 지역 중 일부는 행복마을관리소가 그 기능을 이어받아 현장지원센터 역할을 하였다. 안양의 박달동과 석수2동, 수원의 행궁동, 성남의 대평동과 수진1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전면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주민 거주 비율과 고령화 비중이 높고, 노후주택 관리와 주차난 같은 생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들이다.

1) 2022년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 활동

2022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들은 불법 광고물 제거, 길거리 쓰레기와 담배꽂초 수거,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및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락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제공하며, 단순 배달을 넘어 건강 상태를 살피는 돌봄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외에도 수도꼭지 고장, 전등 교체, 문고리 수리, 창문 보수, 변기 커버 교체, 세탁기 호스 누수 수리, 가스레인지 타이머 설치 등 소규모 생활 수리를 지원한다. 간혹 오래된 가구 정리, 1인 가구의 이사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지역 사회단체나 소상공인이 떡·김치·쌀 등 후원하는 경우, 이를 취약계층 가구에 직접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것도 지킴이 역할에 포함된다. 어버이날에는 직접 제작한 카네이션과 도시락을 전달하고, 명절에는 선물을 제공한다. 경로잔치를 열어 어르신을 초대하거나 '추억의 사진관'을 운영해 개인 사진을 찍어주는 등 문화·정서 지원도 병행한다. 더불어, 안양시가 추진하는 1인 가구 및 취약계층 화재 예방 경보시스템을 직접 전달하고 설치하는 업무도 맡는다.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 사무실(안양시청 제공)

〈표 2〉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 2022년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계획

연번	사업명	내용
1	이불 세탁 서비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결연하여 거동 불편으로 이불 빨래가 힘든 저소득 가구의 빨래를 수거, 세탁 및 건조하여 배달
2	주거취약계층 소독 및 방역 서비스	- 주거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주택 내외부 방역 및 여름철 해충 방제 서비스 제공
3	행복 나르미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여 이웃돕기 후원 물품 수령이 어려운 가구에 후원 물품을 직접 날라주는 배달 서비스 제공
4	홀몸 노인 돌봄 서비스	- 홀몸노인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서비스 - 홀몸노인 문안 인사드리기로 사회적 소외감 해소
5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효자손 서비스	- 취약계층이 하기 힘든 가사 도움 서비스(전구 교체, 못박기 등)를 제공하여 효자손 역할의 서비스 제공
6	도시텃밭 조성 지원	- 새마을부녀회와 연계하여 협신경로당 뒤 공터에 도시텃밭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
7	방범용 CCTV 비상벨 점검	- 방범용 CCTV 운영에 대한 비상벨 등 주기적 점검 - 카메라 촬영 방향의 방해요소 제거 및 정비
8	자전거 공기주입기 비치 및 대여 서비스	-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구입하여 비치하고 자전거 및 축구공 등 공기주입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대여
9	취약계층 주거생활 안전지원 서비스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지원 및 사용방법 안내 등을 통한 가스누출 사전 예방
10	저소득층 종량제 봉투 배달 및 배부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종량제 봉투 배달 또는 행복마을관리소 거점 배부를 통한 주민편의 제공

2022년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는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만큼 방역과 소독 서비스가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했으며, 고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행복마을지킴이들은 수시로 마을을 순찰하며 홀몸 어르신 안부를 살폈다. 또한 가정을 방문해 가스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 점검과 지원의 범위를 넓혔다.



수해를 입은 주민의 집을 정리하는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2022년)

이와 함께 이불 세탁, 못 박기, 전구·문고리·수도꼭지·전기 콘센트 교체, 막힌 하수구 뚫기, 무거운 물건 옮기기, 창문 방풍 비닐 설치, 방충망 수리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사회와 공동체가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는 쓰레기가 자주 쌓이던 공간을 도시텃밭으로 조성해 감자와 배추를 재배하고, 수확물을 반찬으로 조리해 지역공동체에 나누거나 저소득층 이웃돕기에 활용하였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마을 공터에 꽃을 심고 캐노피 텐트를 설치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마련하였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저지대 주택 237세대와 상가 29곳이 침수되었을 때는, 40여 곳의 가구를 방문하여 폐가구·가전 정리 작업을 지원하고, 침수 피해 주택 166곳을 대상으로 방역하였다.

관리가 안 되던 안양천 변 장미터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낡은 목재 화단을 철거하고 벽돌 화단으로 교체했으며, 그늘로 인해 장미 생육이 저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아파트 관리소와 협의해 수목을 전지하였다. 겨울철에는 이면도로와 응달 지역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눈이 오는 날 주요 보행로와 골목길에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제설작업을 실시하였다.

2022년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 자체평가에서,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목공 및 전기 등 숙련된 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는 예산상의 이유로 실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서비스 제공 대상이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비취약계층의 경우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있으니, 이 경우는 재료를 부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하였다.

2) 2023년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 활동

2022년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활동 계획이 마련되었다. 중점 추진 분야는 복지와 도시재생으로 나뉘며, 복지 분야에서는 특히 홀몸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노년층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안부 확인 및 도시락 배달 활동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와 박달지구대의 합동 순찰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순찰을 강화하였다. 또한, 도시텃밭 운영, 장미터널 환경 개선, 안양천 변 동물보호법 홍보 등 지역 특색사업을 발굴 및 운영하고자 하였다.

2023년에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홀몸 어르신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과 연계하여 저소득 홀몸 어르신 10세대에 단열 에어캡을 설치하였다. 또한, 마을지킴이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장소의 벽면 도색 작업을 직접 수행하여 생활 공간의 쾌적함을 높였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기존 활동에 더해 안양천 정화사업과 도심 환경정비사업이 새롭게 시행되었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와 저장강박 성향을 지닌 주민의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였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지역 내 협업체계가 점차 정착되었으며,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사업, 지역교육공동체 협업 사업,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마을 추진사업 등도 제안되었다.

〈표 3〉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 2023년 지역특색사업

지역특색사업명	세부내용
홀몸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홀몸 어르신 도시락 및 밀반찬 배달 서비스 제공,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을 통한 사회적 소외감 해소
홀몸 어르신 LED 전등 교체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후된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여 거주환경 개선
행복 나르미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여 이웃돕기 후원 물품 수령이 어려운 가구에 후원 물품을 직접 전달하는 배달 서비스 제공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효자손 서비스	취약계층이 혼자 해결하기 힘든 가사 문제(전구 교체, 방충망 교체 등)에 대해 효자손 역할의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및 점검 서비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를 지원하고, 사용방법 안내 등을 통한 가스누출 사전예방
이불 세탁 서비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거동 불편으로 이불 세탁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이불을 수거, 세탁 및 건조하여 배달
주거 취약계층 소독 및 방역 서비스	주거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주택 내·외부 방역 및 여름철 해충 방제 서비스 제공
도시텃밭 행복나눔	사회단체(새마을부녀회)와 연계하여 유휴 공터 내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수확한 작물로 이웃돕기사업 추진
장미터널을 걷고 싶은 거리로	장미터널 주변 환경 정비 및 시설물 점검, 장미 전지작업 등을 실시하여 걷고 싶은 장소로 조성
반려동물 사랑은 에티켓으로	잔디광장 내 반려인 등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물 및 배변 봉투 배부
방법용 CCTV 비상벨 점검	방법용 CCTV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관련 부서(스마트도시정보과)에 통보하여 우범지역 범죄 발생 최소화
자전거 공기주입기 대여 서비스	안양천변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대여 및 간단 수리 서비스 제공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배수로 정비	저지대 등 침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예찰 및 배수로(빗물받이) 주변 낙엽·오물 등을 제거하여 재해 예방

호현동에 위치한 박달초등학교·삼봉초등학교·박달중학교·안양고등학교는 안양시 제4권역 지역교육공동체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 권역의 지역교육축제에 참여하여, “안양천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환경 체험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교육 및 환경 활동을 연계하였다.

2022년에 추진한 도시텃밭사업은, 2023년에 파종 품종을 확대하여 고추·가지·고구마·땅콩·무·파·갓 등을 재배하였다. 특히 10월 땅콩 수확 때는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을 초청해 생태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어린이들이 고령의 마을지킴이들을 ‘할아버지’로 인식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세대 간 즐겁고 따뜻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또한 안양천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설치하고, 수동 공기주입기 사용법을 주민에게 안



2022년에 진행된 도시텃밭사업(땅공 수확 생태체험 교육)

내하면서 행복마을관리소의 활동을 홍보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활동의 인지도를 높였다.

2023년에는 박달동 행복마을 지킴이 활약상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¹ 11월 13일, 박달동 한신어린이공원 앞 사거리에서 폐지 수레를 끌던 여성 노인이 대형트럭을 미쳐 보지 못하고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지킴이들이 큰 소리로 트럭을 멈추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레 일부가 트럭 하부에 깔려 파손되었으나, 여성 노인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 이날 현장에서 여성 노인을 구조한 박달동 행복마을 지킴이 김청복과 현석재는 안전문화 유공으로 안양시장 표창을 공동 수상하였다.

김관수 지킴이는 집수리 전문가로서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시사 표창을 받았다. 천유미 사무원은 김유만 박달동주민자치위원장과 공동으로 참여한 2023년 안양시 주민자치대회에서 행복마을관리소의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사례발표를 하였다. ‘선도적 원스톱 수해 예방 프로젝트’, ‘도시텃밭 행복나눔사업’, ‘박달 어울림 한마당 지원 등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민의 문제 해결형 거점사업’ 사례를 발표하여 안양시 31개 동 중 1등을 차지하였다. 천유미 사무원의 발표 내용은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사업으로 소개되었다.

2023년에는 언론에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기사가 많이 실리기도 하였다. 박



사고위험에서 노인을 구조한 박달동 행복마을 지킴이(2023년)

달동 장미터널 환경개선사업, 도시텃밭 행복나눔사업, 마을관리소 지킴이들의 활동 내용, 추석 명절 어르신 후원 행사, 대형트럭에 치일 뻔한 여성 노인을 구조한 사건, 주민 자치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이 언론에 기사화되어, 총 7건의 기사가 20여 개 언론사에 배포되었다. 2023년 자체평가에서는 마을지킴이가 단기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우수한 지역특색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었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는 해를 거듭할수록 마을관리소의 역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역량,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킴이와 사무원이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3) 2024년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 활동

2024년에는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지역특색사업으로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리사이클 및 업사이클 사

업을 추진하고, EM 발효액을 활용한 방역·천연비누 만들기·하천 정화 활동을 전개하며, 한뼘 정원·마을 정원·옥상 정원 가꾸기 캠페인을 하고, 경진대회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천연 수세미를 심고 수확하는 활동도 포함되었다. 또한, 쓰레기 배출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분리배출 캠페인을 하고,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배출 방법에 대한 계도를 지속해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둘째, 마을지킴이들의 역할이 중요한 취약계층 주거생활 안전지원을 위한 특색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들 사업은 2024년 2분기까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2024년 2월에는 사업참여자가 확정되어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였다. 박달동행정복지센터 지하 1층에 있던 행복마을관리소는 같은 건물 4층으로 이전하였다. 건물 외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행복마을관리소 접근성이 좋아졌다. 연초에는 순찰 업무를 시작으로 지역 내 위험물 관리, 불법 광고물 수거 등을 먼저 실시하였다. 새마을부녀회 등 사회단체에서 진행한 바자회 수익 물품, 만안새마을금고에서 기부한 쌀 나눔 등 취약계층에 전달할 물품도 행복나르미사업을 통해 전달하였다. 1월에는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신청을 받고 간단한 집수리까지 진행하느라 분주하였다. 주민들은 방문한 지킴이들을 매우 반가워하며 일상 이야기도 나누는데, 특히, 홀몸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는 데 역할을 하였다.

2024년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는 4인의 지킴이와 1인의 사무원이 한 팀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음력 3월에는 박달동 소재의 동반텔레콤 후원으로 홀몸 어르신 가구 50세대에 건강떡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새로운 지역 후원가를 발굴하고 후원을 연계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목표를 강화한 사례가 되었다. 또한, 마을 경로잔치에서는 ‘순간을 기억하다, 추억의 사진관’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개인 사진을 촬영해드렸다. 어버이날에는 지킴이들이 직접 준비한 카네이션 꽃다발과 엽서를 어르신 가정에 일일이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꽃다발을 받은 주민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데 예쁜 꽃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고 한다.

안양천을 접하고 있는 박달동은 지대가 낮아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마을 차원에서 수해를 대비하고자, 주민·사회단체 회원·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양수기 사용 등 수해 방지 자재 사용법에 대해 교육하였다.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한 활동은 연중 지속되는데, 주기적으로 빗물받이를 점검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며,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박달동 경로잔치의 '순간을 기억하다, 추억의 사진관' 운영(2024년,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 제공)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화단 조성(2024년,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 제공)

연간 사업으로 계획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고 꽃을 심었다. 지킴이들이 직접 꽃시장에 방문하여 모종을 사다가 화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을 텃밭에서 여름철 감자를 수확하여 관내 경로당에 나누었다. 감자 수확 후에는 가을에 수확하는 무·배추·파·가지 등을 재배하여 반찬 재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중고 직거래로 수납장을 구매한 주민이 혼자서 계단으로 수납장을 들고 내올 수가 없다며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 마을지킴이들은 집 안의 수납장을 반출하고 구매한 수납장을 집으로 옮기고 설치까지 도왔다. 이 외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며, 화재 예방을 위해 홀몸 어르신 30여 가구에 화재경보기와 분사형 소화기를 설치하고 사용법을 안내하였다. 겨울철에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난방기구의 안전한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3.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의 목소리

행복마을관리소의 지킴이는 현장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파악하고 있어서, 생활 속의 위험 요소도 관찰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지킴이들이 스스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문제 인식을 공유하기도 한다.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의 지킴이는 2인 1조로 박달동 전역을 순찰하면서 지원 요청 전화가 오면 가까이 있는 조가 현장으로 달려간다. 시청에 민원으로 접수해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시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부서 협의, 예산 점검, 인력 확보 등 절차가 복잡해진다. 그래서 마을지킴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주민을 위해 바로 해결하는 편이다.

마을지킴이 : 박달동이 제일 힘들다고 소문났을걸요.

한 박달동 마을지킴이의 말이다. 노후 주택이 많고 홀몸 어르신이 많다 보니 세세한 점검과 물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2024년 현재 활동 중인 마을지킴이 중 박재섭(68세), 김관수(71세), 현석제(73세), 김청복(78세) 총 4인은, 모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마을을 순찰하며 도움을 줄 수 있음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마을지킴이 : 혼자 사는 어르신들 가보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따로 가서 도와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뵙고 싶죠. 생활환경이 경제적인 부분만 어렵다고들 생각하는데, 정서적인 부분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하시더라고요.



제4회 안양시 주민자치대회에서 수상한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들과 사무원

다른 지킴이가 말을 덧붙인다.

마을지킴이 :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냥 홀몸 어르신인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는 분도 있고, 장기·만성 질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마을지킴이들은 배회 중인 치매 노인을 귀가시키거나, 치매까지는 아니더라도 길을 잃고 당황하는 노인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도 한다.

마을지킴이 : 깜빡깜빡하잖아요. 나이 먹으면 다 그래요. 자기 집이 번호키인데 번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문 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죠. 그러면 일단 안심을 시켜드려야 하고, 잠깐 숨이라도 고르시라고 해야 돼요.

박달동장 : 현재 동직원도 15명이라 인원이 넉넉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급자 지급하는 문제, 행정 처리, 민원사무 처리하는 데도 빠듯하죠.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주민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중략)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장미러널 환경개선할 때 가지치기 같은 것도 행정에서는 그렇게 빨리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지킴이분들이

계시니까 빠르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분주하기 때문에 세세한 생활 서비스는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에 들어오는 지원 요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쓰레기 문제’인데, 2022년부터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 계도하고 있어 점차 개선되고 있다. 2024년 여름, 감자를 수확한 마을텃밭은 원래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던 곳이었다.

마을자킴이 : 아무리 쓰레기를 치우자고 해도 잘 안 돼요. 대신 거기 꽃을 심으면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한지라, 개선이 좀 되죠. (중략) 보통은 자전거·오토바이 방치된 거 신고도 들어오고, 블라드가 통행을 방해한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천유미 사무원은 고령층의 노인들이 많아 분리수거 배출이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천유미 : 이거는 플라스틱이고 이거는 플라스틱 아니고, 이런 거 사실 젊은 사람들도 헛갈릴 때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런 거 아무리 말씀드려도 완벽하게는 못 하세요. 저희가 그냥 다 가져와서 여기서 분리하는 게 빨라요. (중략) 우리 동네는 폐지 수거하는 노인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집을 하다 보면 처리를 못 하고 쌓이는 경우도 생겨요.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가서 치워드리기도 하고. (중략) 젊은이들은 검색을 통해서 마을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잔치를 하거나 마을행사를 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다고 홍보를 하죠.

5.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의 방향

2020년 관양동(당시 관양1동)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설치된 이후, 안양시는 관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지속해서 확대·편성하여 왔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도비 50%, 시·군·구비 50%로 운영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도비 30%, 시·군·구비 70%로 비율이 조정되었다.

매년 편성된 예산은 각 행복마을관리소에 균등하게 배분되었다. 2020년과 2021년



전등 교체



가스레인지 타이머 설치



소형가전 수리



도시락 배달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의 찾아가는 서비스(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 제공)

에는 관양동 행복마을관리소만 운영되었으므로, 해당 기간의 예산 대부분은 관양동 행복마을관리소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 그러나 2022년에는 박달동(당시 박달1동)·안양2동·관양동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설치되었고, 2023년에는 안양3동이 추가되었다. 매년 배정된 예산은 각 관리소에 공정하게 분배된다.

2024년에는 전체 예산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충훈동에 행복마을관리소가 개소함에 따라 다섯 곳이 예산을 나누었다. 보인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제한된 예산으로 관리소 운영을 감당하기 위해 마을지킴이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사업예산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실제로 2023년까지는 매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으나, 2024년에는 오후 3시에 지킴이 업무가 종료되었다. 근무시간은 줄어들었으나 행복마을관리소가 안착하면서 주민 수요는 늘어나고 업무 강도는 강화되었다. 지킴이들이 한시도 실패가 없다고 말할 정도이다.

2021년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사업성과 분석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이용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었다. 이용 경험이 있는 주민 중 82.5%는 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이들은 특히 ‘주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과 ‘내가 찾지 않아도 찾아오는 서비스’라는 것을 강점으로 평가하였다.

유경험자들은 ‘앞으로도 재방문 또는 재이용하겠다’가 73%를 넘었으며, ‘주변에 추

천하겠다'가 71.1%, '서비스 지역 확대에 동의한다'가 70.5%의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항목은 '매우 그렇다'가 60.3%, '대체로 그렇다'가 28.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일반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18%에 그쳤으며, '필요하다'는 응답은 46% 정도로 나타났다. 일반 도민 설문조사에서는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34.4%로 우려되는 부분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지방정부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답변이 28.4%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정책 인식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 도민은 '서비스 제공 자체에 대한 의미'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이용자는 '운영방식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더 큰 비중을 주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영역에서는 공동체의 위기 대응 능력 및 자연적·사회적 재난에 대한 회복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달동은 비(非)아파트 주거지가 많은 환경에서 도시재생을 경험해 본 고령층이 다수 거주하는 인구 구조를 보이는 지역이다. 이는 경기도의 마을공동체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를 박달동이 앞서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복지·도시재생·사회적경제·공동체·주민자치·주거복지·문화사업 등이 주요 특색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마을 내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그러나 일반 도민들이 응답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예산 문제와 이에 따른 일자리 지속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일부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가 '과도한 예산지출과 시민 서비스'라는 지적이 있다. 박달동의 행복마을관리소 관계자들 또한 예산 삭감이나 지원 중단 가능성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달동 행복마을관리소는 해를 거듭할수록 마을 관리에 대한 숙련도를 높여가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 핵심인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외로움을 해소하며, 지역 내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한 일처럼 보일 수 있으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생명줄이 되기도 한다. 뜨거운 햇볕 아래 땀을 흘리며 골목을 누비는 마을지킴이의 뒷모습이,

이러한 돌봄과 연결이 결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상기시켜준다. 고립된 누군가에게 ‘박달동은 살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은, 수치로만 모두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가치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최준규·박충훈·윤소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성과 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21.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 「안양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동별 현황」, 2024년 6월 발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https://www.ggmaeuldata.or.kr/>).

註

1. 「안양시 박달1동 행복마을관리소 직원 모두 각종 표창 및 수상 휩쓸어」, 『경일매일』, 2024년 1월 10일(<https://www.kmaeil.com/>).

제1장

박달동 군용지의 조성과 운영

오보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원



1. 일제강점기 박달동의 군용지 조성

박달동 군용지는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과 변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이다. 이 지역은 수리산의 북서쪽 자락에 자리하며, 삼봉천을 따라 들어가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지형에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능골·막상골·붓골·선녀골·용골·햇골·절골 등 12개의 마을이 있었으며, 기름진 땅과 마르지 않는 수자원을 바탕으로 농사를 짓고 살아온 지역이었다.¹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 지역은 일본군에 의해 군용지로 강제 수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박달동의 역사와 문화는 크게 훼손되었다. 특히 일본군의 군용지로 수용된 이후 박달동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잃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박달동 군용지의 영향으로 여러 아픔을 겪으며 살아왔다.

1)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군용지 수용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주요 열강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를 빌미로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 지배하려는 야욕을 노골화하였으며,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고자 한국 내 토지를 군용지 명목으로 수용하였다. 이는 러일전쟁 직후인 1904년 2월 23일 일본의 강요로 체결된 「한일의정서」 제4조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

1904년 5월 31일 일본 각료회의에서는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인 「대한방침」과 「대한시설강령」을 확정하였고, 한국 내에 일본군의 영구적인 주둔을 결정

하였다. 이에 따라 1904년 8월 초, 일본 육군대신은 군용지 확보를 위하여 육군성 군무국 군사과장을 한국에 파견하였고, 철도 정거장과 군대가 주둔할 만큼 큰 건축물이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을 군용지로 선정하도록 군용지 조사요령을 하달하였다.²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한반도 내에서 일본군의 다양한 군사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대규모 군용지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군용지로 수용한 주요 토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육·해군의 포대·전신소 등을 설치하기 위한 주요 연안 및 도서 지역의 토지이다. 둘째, 군수물자와 군사적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의선과 마산선 등 군용철도용지이다. 셋째, 서울·용산·평양·의주 지역의 한국주차군³ 병영부지이다. 넷째, 일본 해군의 군사적 거점 마련을 위한 진해만과 영흥만 등이다.⁴

한국주차군은 1905년부터 1910년 한국 병합 직전까지 군용지 명목으로만 약 2천만 평 이상의 토지를 수용하였다. 당시 서울 용산(1907.10~1908.3), 평양(1906.11~1909.3), 마산(1908.6~1908.9), 나남(1908.5~1910.4) 일대에서는 군용건축물 및 군용시설 등과 연계를 위해 군용도로 건설도 병행되었다.⁵ 이러한 군용지 수용은 일본이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지배를 강화하고, 식민지 통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일본은 군용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헐값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강탈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용산·평양·의주 지역으로, 이 지역들은 경의선이 통과하는 대도시였으며, 1천여만 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규모였다. 1905년 6월, 일본 육군성은 해당 지역의 한국인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으로 총 20만 원을 책정하였다. 이 가운데 서울 용산 지역만 보더라도 철도 정거장 인근 고가의 토지였음에도 보상금은 최저로 89만여 원이 산정되었으며, 이는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이었다. 이로 인해 군용지 수용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은 점차 격화되었다.⁶

결국, 1908년 4월, 한국주차군은 서울 용산·평양·의주 지역의 약 1천만 평 토지 가운데 철도용지와 겹치는 부분을 포함한 578만 평을 환부하고, 나머지 397만 평을 수용하기로 최종결정하였다. 또한, 추가로 1만 5천 원만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 역시 토지 소유자들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⁷

2) 일제 말기 박달동 군용지의 운영과 활용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편입한 후에도 대륙 침략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계속해서 군사적 기반을 확장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였고,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이른바 전시총동원체제를 구축하였다. 1941년 태평양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전선이 확대되자, 한반도에서 물적·인적 동원에 따른 수탈은 더욱 심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은 한국 내에서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대량 생산하여 보관한 후, 각지 전선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군사시설을 확장하고 군용지 규모를 확대하였다. 대표적인 곳이 부평의 인천육군조병창이다. 이곳은 1939년 건설 계획이 수립되었고, 1940년 12월 공식 편성되어 1941년 5월 개창되었다. 인천육군조병창이 위치한 부평 일대는 이미 군용지로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사유지를 수용할 필요는 없었다.⁸ 일본군이 부평을 육군조병창의 입지로 결정한 이유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중간지역으로 육·해상의 교통이 편리하여 국내외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수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은 계양산·철마산·원적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위에 유리한 지리적 특성을 갖추고 있었다.

박달동 군용지 수용은 인천육군조병창 건설 전후 시기와 맞물려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달동 군용지는 일반적으로 1941년 일본 육군성에 의해 ‘평양육군병기창 안양분창’⁹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강제로 수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본래 ‘평양병기제조소’는 1920년 겨울에 준공된 일본육군 직속의 무기 생산 공장이었다. 이 공장은 처음에 도쿄포병공창 소속으로 출발하였으나,¹⁰ 1930년에 일본 큐슈에 있는 코쿠라육군조병창 소속의 평양병기제조소로 개편되었다. 이후 1940년에는 다시 인천육군조병창 예하로 편입되었다.¹¹

인천육군조병창은 1941년 개창 이래 부평의 제1제조소와 평양병기제조소를 중심으로 병기 생산 및 수리를 담당하였다. 인천육군조병창에서 생산한 병기들은 크게 육상병기, 해상병기, 항공병기로 나눌 수 있었다. 이 중 소총과 탄약 등 육상병기는 주로 부평의 제1제조소에서 생산하였다. 잠수정을 비롯하여 주정 등의 운송정은 인천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었던 조선기계제작소 등이 맡았다. 마지막으로 항공병기는 평양병기제조소에서 주로 담당하였다.¹² 평양병기제조소는 관동대지진으로 도쿄포병공창이 소실되자, 1924년부터 비행기를 제조하도록 결정된 바 있었기 때문에 항공병기 생산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¹³

1944년, 인천육군조병창은 항공 탄약으로 37mm 포탄 14만 발을 생산하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후에는 신규 정비 품목인 30mm 포탄 생산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¹⁴ 이와 같은 항공 탄약들은 인천육군조병창의 지휘 아래 평양병기제조소에서 생산하



일제가 1930년에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삼봉천 박달교, 정초의 음각이 훼손되어 소화 3년 또는 소화 5년인지 불분명하나, 소화 5년으로 추정된다.



박달교(좌)와 '소화' 연호가 새겨진 박달교 정초 음각 부분(우)



박달교 설계도(아시아역사자료센터 공문서관 수록- 『경기학 광장』_vol18, 68쪽 인용)



1914년 조선총독부 지형도「시흥」도엽 박달리 부분. 지도에는 세 곳의 박달리가 보인다. 왼쪽 윗부분의 박달리는 호현마을이고, 중앙의 박달리(북)과 박달리(남)으로 표시된 지역이 군용지로 조성된 박달리 지역이다. 산골짜기마다 논밭이 있고, 지금의 시흥·안산·안양9등으로 향하는 세 갈래의 길이 나 있다. 마을은 길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여 공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양병기제조소의 분창이었던 박달동 군용지는 인천육군조병창의 지휘 아래 항공 탄약을 보관 및 보급하는 군사적 거점으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은 당시 전시 상황¹⁵을 고려하여 군수물자를 전선으로 신속히 보급하고, 미군의 공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반도 여러 지역에 분산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¹⁶ 즉, 일본군은 평양병기제조소에서 생산한 항공 탄약을 보관 및 보급하기 위해 박달동 군용지를

강제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인천육군조병창은 왜 박달동을 군용지로 수용하여 평양병기제조소의 분창을 설치하였을까? 그 이유는 당시 박달동이 군사시설 방호와 군수물자 보급 측면에서 지리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박달동 군용지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군사시설을 방호하는 데 유리하였다. 둘째, 당시 인천육군조병창이 있던 부평과 여의도비행장·김포비행장·수원비행장 등¹⁷이 박달동 군용지로부터 반경 20km 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났다. 셋째, 박달동 군용지는 부평과 위에서 언급한 비행장들이 철도와 도로로 잘 연결되어 있어 항공 탄약의 신속한 보급이 가능하였다. 특히 박달동 군용지 근처에는 경부선이 지나는 안양역이 있었기 때문에, 경부선과 경인선을 통해 부평을 비롯한 각 비행장으로 항공 탄약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었다.

또한, 박달동 인근에는 군용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안양비행장이 건설 중이었으며, 이는 평양병기제조소의 분창이 안양에 설치된 배경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44년 10월, 박흥식은 경성과 가까운 안양에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 공장을 설립하였다.¹⁸ 또한 현재 평촌신도시가 들어선 넓은 평야에 비행장을 건설하려 하였다. 일본 군부는 이 공장과 비행장 부지를 군용지로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강제 매입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지주와 소작인들은 농지 출입 제한 등 심각한 생활 피해를 입었다.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는 대동아전쟁 수행을 위한 일제의 군수산업 지원 정책의 하나로, 항공기 제조를 주요 목표로 하였다.¹⁹ 즉, 태평양전쟁기 일제는 박달동 군용지를 항공 탄약의 보관·보급지로 활용함과 동시에, 안양 지역을 항공기 제조 및 운용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군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해방 후 미군의 박달동 군용지 운용

1) 미군의 일본군 무장해제 및 박달동 군용지 탄약 폐기

1945년 8월 10일 일본이 연합국의 무조건 항복 요구를 받아들이자, 미군과 소련군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기로 하였다. 38도선 이남 지역의 점령 임무를 맡은 미 제24군단은 9월 8일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당시

미 제24군단에는 제7사단·제40사단·제6사단·제24군수지원사령부 등이 배속되었으며, 이 중 서울·인천·경기도 일대는 제7사단이 담당하였다. 일본군의 인천육군조병창은 제24군수지원사령부가 제7사단 예하 부대인 제17연대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게 되었다.²⁰

미군은 남한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기보다는 이미 갖추어진 기본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군은 보상 문제를 피하고자 조선총독부 건물·관공서·학교 등 공공재산을 징발하거나, 당시 ‘적산’이라 불린 일본인의 부동산을 주로 인수하여 사용하였다.²¹

이로 인해 일본군이 사용하던 수많은 군용지와 부속 건물들도 거의 그대로 활용되었다. 미군은 남한 점령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연합군최고사령부는 9월에 「점령 지령 제2호」를 통해 일본군의 장비와 시설을 처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투용 장비는 미군이 정보 분석 및 연구용, 기념품, 전리품으로 사용할 것을 제외하고 파괴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 소비재로 사용 가능한 보급품은 민간인에게 공급하도록 하였고, 군사시설은 추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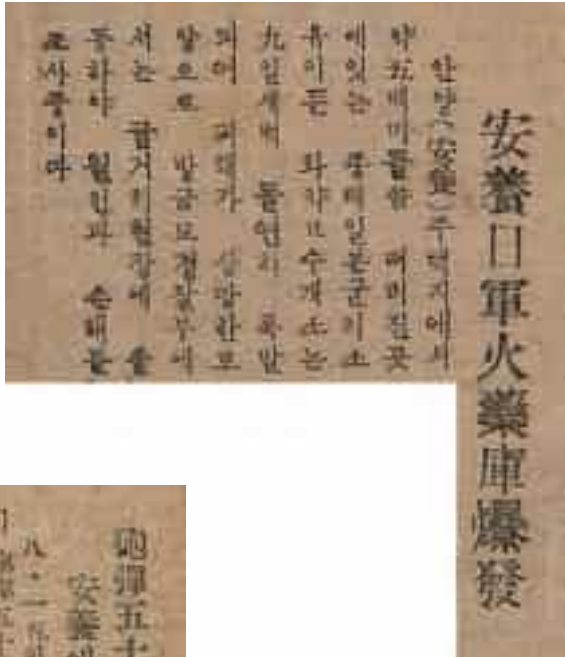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미 제24군단은 일본군의 무장을 존폐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1945년 10월 말까지 처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행정 명령 제19호」를 통해 일본군의 무장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첫째, 무기·탄약·폭발물·장비 및 보급품, 둘째, 해군 선박과 해군에 징발된 보조함선, 셋째, 항공기, 넷째, 시설·기지·요새 등이었다. 이 중 선박과 시설물은 보존 대상으로 지정하고, 군사 장비는 파괴할 계획이었다.²³

이 중에서 탄약의 경우, 일본군이 이를 최대한 분산하여 대량으로 보관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미군이 막대한 양의 탄약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발사고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1945년 11월 9일, 일본군의 탄약고가 있던 박달동 군용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이다.²⁴ 당시 미 제7사단 관할지역에서는 9월 하순부터 제707병기중대가 제7사단의 다른 소속 부대의 지원을 받아 일본군으로부터 압수한 무기류를 수거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제7사단 예하 부대 일부는 탄약을 폭발시켜 폐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제184보병연대의 폭발반이 일본군의 대규모 탄약고가 있던 박달리²⁵에서 탄약을 폭발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발생 3일 후인 11월 12일에야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었다.²⁶

이때 미군은 박달동에서 안산으로 넘어가는 곤두레미고개 아래에 굴을 판 후, 그 안

박달동 군용지의 일본군 화약고 폭발 사고에 관한 기사
 (『자유신문』, 1945년 11월 10일)



박달동 군용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일본군이 감춰둔 포탄 50만 톤이 발견되었다는 신문 기사
 (『자유신문』, 1946년 2월 18일)

에서 일본군의 탄약을 폭발시켜 폐기 처리하였다고 한다. 당시 주민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지축을 울리는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군용지 일대는 물론이고 안양역 일대 건물의 창문도 모두 떨어졌으며, 안양3동 양지말까지 파편이 날아왔다고 한다.²⁷

이러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탄약을 폭발하여 처리하는 작업은 계속되었으며, 12월 30일에는 또다시 미군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미군 지휘부는 작업 방식을 변경하고, 일본인 노무부대를 동원하여 탄약을 바다에 투기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1946년 2월 17일 미 제40사단 관할구역에 소속된 일본인 노무부대 280명이 안양리에 도착하여 탄약 폐기 작업에 투입되었다.²⁸ 그 이유는 미군이 안양비행장 부근에서 일본군이 숨겨둔 50만 톤의 포탄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미군은 이 포탄들을 서해에 버려 폐기할 계획이었으나, 매일 10대의 차량으로 운반하더라도 약 6개월이 걸릴 만큼 그 양이 워낙 많아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²⁹

이처럼 엄청난 양의 포탄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만으로는 폐기하기 어려웠으므로, 이처럼 보관 장소에서 폭발하는 방식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946년 4월 19일, 또다시 박달동 군용지에 보관된 화약을 폭발하여 폐기하는 과정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자, 주민들은 박달동 군용지에 남아 있는 폭발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³⁰

이후에도 안양에서는 박달동 군용지와 무관한 대규모 폭발사고가 두 차례나 더 발생하였다. 1951년 1·4후퇴 시기 대량의 폭발물을 수송하던 탄약 열차가 안양역에 정차하던 중 폭발하였다. 이 사고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고, 안양역 일대 도심 지역이 전소되었다고 한다.³¹ 1964년 3월 5일에는 모락산 자락에 있던 탄약 분해 작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다.³² 잇따른 폭발사고로 인해 안양 주민들은 불안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1969년, 경기도가 안양 시가지에서 불과 2km 떨어진 수리산 일대의 박달리 군용지로 수원에 있던 미 제8군 탄약처리장을 이전하려 하였다. 이미 여러 번의 폭발사고를 경험한 안양 주민들은 경기도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였다.³³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대표단을 구성하여 미 제83병기대대를 방문하여 과거의 탄약 폭발 사고와 안양 유원지 조성계획 등을 근거로 탄약처리장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였다.³⁴

2) 미군의 박달동 군용지 내 전술핵 보관

해방 후 1·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평화적인 한반도의 통일국가 수립이 무산되었다. 결국,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된 후, 소련과 북한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 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거부하자, 미국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본격화하였다. 미국은 남한의 정부 수립과 때를 맞추어 주한미군의 철수를 시작하였고, 500여 명의 미군사고문단만 남긴 채 1949년 6월 30일까지 한반도에서 철군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즉시 미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고 이들을 파견하였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군은 다시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면서 미군이 한국에 장기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였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심각해진 미국의 재정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군사비를 감축하고자 냉전 전략을 재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50년대 중후반,

미국의 대외정책으로 일명 ‘뉴룩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군사비 절감을 위해 핵무기 활용, 둘째, 동맹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적 능력에 맞는 군사력 보유, 셋째, 핵심 동맹국이 방위 책임을 분담하는 지역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아이젠하워의 뉴룩 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극동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소련의 수소폭탄 개발로 핵전쟁의 위험은 감소했지만, 국지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맹국의 군사기지과 지상 병력 의존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³⁵ 당시 소련은 스탈린 사망 이후 온건 노선을 바탕으로 평화 공세를 펼치며, 군사적 위협보다는 체제 경쟁에 집중하고 있었다.³⁶ 이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한국전쟁 직후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자제하며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동맹국의 안정과 강화를 추구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이 극동지역 안보체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미국의 군사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방안으로,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일본이 군사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군비를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³⁷ 그러나 극동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본 내외에서는 많은 반발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일부 대체할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한국에 핵무기를 도입함으로써 한국군의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비 절감을 목표로 한국군 감축을 추진하게 되었다.³⁸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58년 1월 말, 한국에 핵무기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 도입된 핵무기는 ‘어네스트 존(Honest John)’이라는 전술핵 로켓과 ‘아토믹 애니(Atomic Annie)’라는 280mm 원자포 등이었다.³⁹ 2월 8일에는 원자탄을 발사할 수 있는 미군의 유도탄 대대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였다.⁴⁰



박달동 군용지가 유엔군사령부 지원부대 후보지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경향신문』, 1957년 5월 5일)

이에 대해 북한은 2월 1일 군사정전위원회 제80차 회의에서 유엔 측이 핵무기를 도입하여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도발적인 핵 공격 훈련을 감행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반면 유엔 측은 이미 군사 장비의 반입을 금지하는 정전협정 제13조 d항을 폐기하기로 선언하였으며, 신무기 도입의 자유가 있다고 공산 측의 항의를 일축하였다.⁴¹

한편, 이보다 앞선 1956년 의정부와 안양은 이미 핵무기와 관련된 지역이었으며, 이는 미국의 기밀 해제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다.⁴² 이 문서는 극동군사령부가 핵무기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 운영 절차를 설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극동군사령관은 미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핵무기를 배정받아 해외의 보관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문서에는 주로 일본에 배치된 핵무기의 일련번호, 관리번호, 배치 장소 및 책임자 등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극동육군 소속 의정부의 제8병기파견대와 안양의 제24병기파견대는 핵무기 폐기 능력이 있는 폭발물 처리반(EOD)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에 핵무기 도입 사실이 확인된 이후인 1959년 9월 19일, 미 제8군 헌병감실은 안양에 있던 제83병기대대의 보안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이 부대는 탄약 병커



박달동군용지에 있었던 미군의 최고경비구역(1968년, 국가기록원 제공)

에 있던 전술 핵탄두와 로켓을 관리하고 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직 핵무기가 배치되지 않았으며, 핵무기 배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 보안 점검을 위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보안 시설에는 10개의 경비탑이 있었다. 보초들은 M1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핵무기가 배치되면 브라우닝 자동소총(BAR)으로도 무장할 예정이었다. 또한, 도로 건설과 경비견 순찰 계획을 수립하고, 182명의 병력을 배치하여 경비를 서게 할 예정이었다.⁴³

박달동 군용지에 전술핵무기가 보관되었다는 사실은 1968년 3월 10일, 미 제8군 제 83병기대대 소속 제7병기중대에 배속되었던 닐 미샬로프(Neil Mishalov)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그의 부대 본부는 석수동(당시 동면 안양리)에 있었으며, 핵무기 보관 시설은 본부에서 떨어진 산중 터널에 있었다. 이곳은 철저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최고경비구역(MSA)에는 제7보병사단 소속의 보병중대가 상주하며 보초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260헌병중대는 경비견을 동반하여 부대 내 경비를 담당하였고, 제7병기중대는 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⁴⁴ 박달동 군용지에 전술핵이 언제 철수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1991년 9월에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해외의 전술핵 철수 계획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한국 내 모든 전술핵이 철수되었다.

3. 박달동 군용지 내 농지소유권 분쟁

일본인 소유의 부동산과 기업 등은 해방 이후 적산으로 분류되어, 1945년 12월 6일 「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그 소유권이 미군정으로 귀속되었다. 이후 설립된 신한공사는 국유지, 군용지, 일본인 사유지 등 미군정의 귀속농지를 관리하며 소작료를 징수하였다. 1948년 3월 11일 「군정법령」 제173호가 제정됨에 따라, 귀속농지를 불하받은 소작인들은 상환금을 납부하고 귀속농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 또한, 1949년 6월 21일에 공포된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당시 경작자들에게 농지가 유상 분배되어 소작농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박달동 군용지는 1941년 일본 육군성에 의해 강제로 수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300여 농가가 강제로 철거되었다. 당시 군용지 내 일부 임야는 탄약 저장고로 사용되었고, 농지는 기존 경작자들이 계속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에

軍用地上限額調査結果表

管理区域	地	面積(坪)	耕作者数	備 考
管理区域	管理区域	12,331	17	農政省が耕作許可配付する耕作区域
	管理区域	1,495	1	管理区域に耕作許可配付する耕作区域
管理区域		497	212	
		217	11	
	管理区域	22	2	
計		14,153	244	

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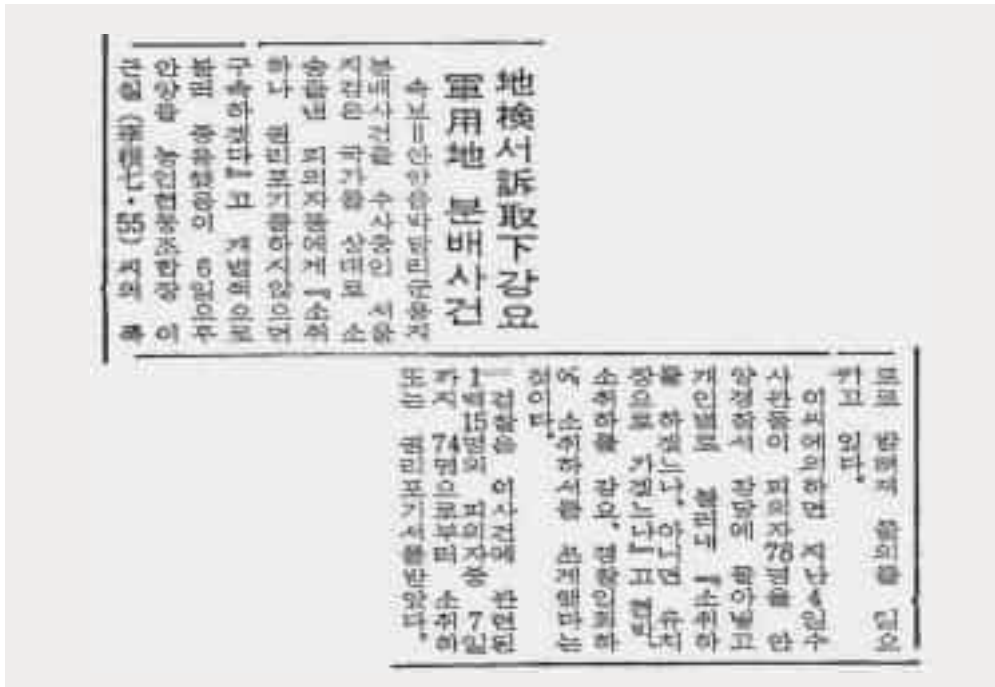
박달리와 안양리의 군용지 실태조사표(1954년, 안양시청 제공) 박달리 군용지의 육군공병단 7759부대 관리구역의 경우, 35필지 12,331평의 밭을 경작하는 17명과 2필지 1,495평의 논을 경작하는 1명에게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할 것을 전제로 가상환액을 징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조사 당시, 박달리의 군용지 전체에는 459필지의 밭 138,574평과 407필지의 논 192,910평이 있었고 경작자는 231명이었다.

따라 해방 이후 박달동 군용지 내 농지는 미군정의 귀속농지로 편입되었고, 경작자들은 신한공사에 소작료를 납부하였다.

농지개혁 시행 이후에는 박달동 군용지 내 농지도 경작자들에게 분배되었다.

경작자들은 중앙토지행정처의 귀속농지관리국에 농지 상환료를 납부하였고, 농림부장관 명의의 농지분배 예정 통지서를 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았다. 그런데 6·25전쟁이 발발하자, 육군본부는 군용지 내 농지가 국유재산이라며 경작료를 강제 징수하였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부담은 두 배로 가중되었다. 당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러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가 확정된 농지를 관련 농민에게 즉각 분배할 것을 촉구하였다.⁴⁵

박달동 군용지 내 농지 경작자들은 5년 상환 만기 중 4년간 80%의 농지 상환료를 납부하고, 읍·면장으로부터 분배 농지 상환 통지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1956년 5월, 만기 상환 완료 직전에 국방부는 “과거 일본 육군성 토지는 국방부의 재산”이라고 다시 주



군용지 분쟁 과정에서 검찰이 일부 농민들에게 권리 포기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여 소 취하를 강요하였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조선일보』, 1970년 8월 8일)

장하고, 관계 기관에 상환 중지 명령을 내려 농민들의 상환료 납부가 강제로 중단되었다.⁴⁶ 이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농민들에게 경작료를 징수하려 하였다. 이에 농민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분배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하였다.

결국, 1958년부터 시작된 박달동 군용지 내 농지 경작자들과 국방부 간에 길고 긴 토지 소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일부 농민들이 소유권 이전登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64년 10월에 시작된 정식 재판은 1967년 5월 16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박달동 및 안양동 일부 군용지 내 농지 23만 677평 가운데, 상환대장과 농지소표 등 소유 근거가 확인된 13만 707평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⁴⁷

대법원 판결 확정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일본 육군성이 소유했던 농지는 귀속농지이며, 「농지개혁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분배된 농지이다. 둘째, 국방부가 농지를 점유하고 관리했다고 해서 국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 셋째, 「농지개

혁법」에 따라 분배된 농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될 수 없다. 넷째, 귀속농지를 국유화하려면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를 밟지 않은 국방부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⁴⁸

이에 맞서 국방부는 승소 판결이 난 농지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농민들의 경작을 방해하거나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지속하였다. 1970년대에는 검찰과 국방부의 압박이 심했고, 검찰은 일부 농민들에게 권리 포기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여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농지 출입 통제, 경작자 강제 교체,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 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민들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연병장과 예비군 훈련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군인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식으로 농경지를 점차 잠식해 나갔다.⁴⁹

이처럼 국방부는 박달동 군용지 내 농지를 국유재산으로 간주하고, 농민들의 점유를 불법으로 판단하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농민들은 농경지를 군사 지역에서 해제하여 서민 생계를 보호하도록 촉구하였다. 해제가 어렵다면, 이미 납부한 농지 상환료에 대한 환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진행 중인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경작 방해나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농경지 침해 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주장하였다.⁵⁰ 이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고, 그로 인해 농민들과 갈등은 장기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끝내 해당 농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⁵¹

박달동 군용지(2000년대, 이정범 제공)





1. 안양문화원 만안구마을지편찬위원회, 『안양을 다시 읽다 : 만안의 기억』, 안양문화원, 2012, 408쪽.
2. 송지연, 「러일전쟁이후 일제의 군용지 수용과 한국민의 저항 -서울(용산), 평양, 의주를 중심으로」, 『이화사원』 제30집, 1997, 70~71쪽.
3. 1882년 공사관의 수행원으로 일본군이 조선에 온 이후 1945년 까지 이들에 대한 명칭은 다양했다. 공사관수비대, 한국주차군, 조선주차군, 조선군, 제17방면군과 조선군관구사령부 등이 있었으며, 조선주차군까지는 주차부대였고 조선군부터는 주둔부대였다. 주차부대는 지휘부 내지는 본부가 본토에 있고 특정기간 동안 파견부대 형식으로 조선에 주둔한 경우를 말하며, 주둔부대는 지휘부 내지는 본부가 조선에 있어 상주부대인 경우를 가리킨다. 강창일, 『조선 침략과 지배의 물리적 기반 조선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2005, 493쪽.
4. 송지연, 위의 글, 1997, 65~67쪽.
5. 조건, 「일제 '한국주차군' 경리부의 활동과 한국민의 대응 (1904~1910)」, 동국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33쪽.
6. 송지연, 위의 글, 1997, 75~77쪽.
7. 송지연, 위의 글, 1997, 93~97쪽.
8. 서울 용산 주둔 제20사단 경리부가 소관하고 있던 부평연습장 72만 8,000여 평을 바탕으로 인천육군조병창을 건설하였기 때문에 군용지 수용 과정에서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토지 수용에 따른 원주민의 저항도 무마할 수 있었다. 조건, 「일제 말기 인천육군조병창의 지하화와 강제동원 피해」, 『한국근현대사연구』 제98집, 2021, 174~176쪽.
9. '평양육군병기창 안양분창'이라는 명칭은 구적으로 내려오면서 잘못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평양육군병기창'이 아니라 '인천육군병기창 예하 평양병기제조소'가 정확한 표현이다. 또한 박달동의 연혁을 살펴보면, '박달리'는 1895년부터 1973년 6월까지 시흥군에 속해있었고, 1963년 1월부터 시흥군 안양읍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안양분창'도 고유명사가 아니라 편의적으로 불린 명칭으로 보인다.
10. 「평양의 병기제조소 정착장 앞의 군용지 40만평에 신설」, 『매일신보』, 1917년 8월 16일.
11. 최서국, 「일제하 평양지역에 건설된 군수산업의 실제(상) - 평양 포병공장 내부 구조 및 편제와 운영체계」, 『북한』 통권 제394호, 2004, 202~209쪽.
12. 조건, 위의 글, 2021, 179쪽.
13. 「항공기구제조, 평양병기제조소의 업무확장」, 『매일신보』, 1923년 11월 22일.
14. 조건, 위의 글, 2021, 180쪽.
15.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점차 전선이 확대되자, 한반도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전황에 따라 남방 전선을 보강하기 위해 뉴기니아-필리핀-버마 전선 등지로 각각 이동하였다. 하지만 일본군은 1944년 6월 마리아나를 상실한 이후, 태평양 일대에서의 제해권과 제공권 대부분을 잃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 열도에 대한 미군의 공습이 현실화되었고, 한반도 또한 미군과 소련군의 상륙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강창일, 위의 책, 2005, 510~511쪽.
16. 인천육군조병창의 경우, 조병창 및 주변 공장의 생산시설을 지하에 구축·은닉하여 전쟁 무기 생산을 지속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조건, 위의 글, 2021, 182~191쪽.
17. 박동찬, 「RG 342 한국전쟁기 미 제5공군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문서 해제」,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V』, 국사편찬위원회, 2004, 336~340쪽.
18. 이 과정에서 일본 군부는 안양비행장과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 공장 부지를 군용지로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강제 매입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의 지주와 소작인들은 농지 출입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생활상의 피해를 입었다. 『박흥식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자료 - 피의자신문조서(제9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19. 『박흥식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자료 - 피의자신문조서(1949.1.11)』,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피의자신문조서(제9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
20.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 1』, 2014, 184~192쪽.
21. 오보경, 『6·25전쟁 이후 미 제8군사령부 설치와 용산의 변화』, 『6·25전쟁과 1950년대 서울의 사회변동』, 서울역사편찬원, 2018, 328~329쪽.
22.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14, 405~406쪽.
23.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14, 406쪽.
24. 『안양 일본군 화약고 폭발』, 『자유신문』, 1945년 11월 10일.
25. 『주한미군사 1』에는 '안양리'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박달리'를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26.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14, 412쪽.
27. 『안양 일본군 화약고 폭발』, 『자유신문』, 1945년 11월 10일.
28.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14, 412쪽.
29. 『포탄 50만톤 안양에서 발견』, 『자유신문』, 1946년 2월 18일.
30. 『안양화약고 19일 폭발』, 『동아일보』, 1946년 4월 21일.
31. 『1951년 안양을 폐허로 만든 안양역 폭발사고 현장』,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https://ngoanyang.or.kr/>).
32. 『탄약분해공장폭발 여제 하오 안양부근』, 『조선일보』, 1964년 3월 6일.
33. 『미군탄약처리장 시가지 접근 반대 안양읍민들 대회』, 『동아일보』, 1969년 11월 18일; 『"폐탄처리장 설치말라"』, 『조선일보』, 1969년 11월 19일.
34. 『폐탄처리장 설치반대요지』, 사료철 DCB050_04_04C1972, 국사편찬위원회(<https://archive.history.go.kr/>).
35. NSC 162/2, "Basic National Security Policy", October 30, 1953, FRUS 1952-1954, Vol. 2, Part 1, pp. 581~591.
36. NSC 5501, "Basic National Security Policy", January 7, 1955, FRUS 1955-1957, Vol. 19, Part 1, pp. 29~30.
37. NSC 5416, "United States Strategy for Developing a Position of Strength in the Far East", April 10, 1954, FRUS 1952-1954, Vol. 12, Part 1, pp. 411~420.
38. 『한국에 원자무기도입』, 『경향신문』, 1958년 1월 30일; 『한국군 일부 감축』, 『경향신문』, 1958년 11월 28일.
39. 『한국에 원자포 도입』, 『동아일보』, 1958년 1월 30일; 『원자포 등 발사 순간』, 『조선일보』, 1958년 5월 2일.
40. 『유도탄 대대 한국으로 이동』, 『경향신문』, 1958년 2월 9일.
41. 『원자포도입 트집잡는 공산측 비난 일축』, 『조선일보』, 1958년 2월 2일.
42. "Far East Command Standing Operating Procedure No. 1 for Atomic Operations in the Far East Command", NAPSNet FOIA Document Special Reports, August 07, 2012(<https://nautilus.org/>).
43. "Visit to Anyang Ni Security Installation"(1959.9.21), RG 338, Staff Section Files, 1959; Provost Marshal, Security Inspection Case Files, 1959: 274/61.
44. 『전술핵 보관했던 안양 박달 공용지의 1968년 풍경』,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https://ngoanyang.or.kr/>).
45. 『안양시 박달동 공용지 분쟁 관련 안양시청 행정문서』, 안양시청, 79쪽.
46. 『안양시 박달동 공용지 분쟁 관련 안양시청 행정문서』, 안양시청, 80쪽.
47. 『안양시 박달동 공용지 분쟁 관련 안양시청 행정문서』, 안양시청, 160~161쪽.
48. 『안양시 박달동 공용지 분쟁 관련 안양시청 행정문서』, 안양시청, 81~83쪽.
49. 『안양시 박달동 공용지 분쟁 관련 안양시청 행정문서』, 안양시청, 84~89쪽.
50. 『안양시 박달동 공용지 분쟁 관련 안양시청 행정문서』, 안양시청, 89쪽.
51. 신성보(남, 삼봉마을 주민) 제보.

제2장

박달동 군용지 이주민이 만든 삼봉마을

송지영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강사



1. 삼봉마을이 조성된 사연

박달동 삼봉마을은 '삼봉산 아래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마을이다. 박달동에 속하는 수리산 북쪽 자락의 봉우리 세 개를 합쳐서 삼봉산이라고 부르는데, 삼봉마을은 그 아래쪽에 위치한다. 행정동으로는 호현동에 속하는 삼봉마을은 박달동의 자연마을 중에서 비교적 역사가 짧은 편이다. 박달동은 수리산과 삼봉천 덕분에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옷박달리·능골·동수암·막상골·미름물·붓골·셋터말·선녀골·양회다리·옷말·헛골 등 12개의 자연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수리산 골짜기 삼봉천 주변 농경지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이 많았다.

그러나 이 일대는 산악분지 지형으로, 군부대 주둔에 적합한 입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연 지형으로 인해, 일제강점기 말에 옷박달리와 동수암 등의 마을들은 군용지로 수용되었고 주민들은 골짜기 아래로 쫓겨나면서 터전을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해방 이후 군용지에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 살았던 듯하다. 삼봉마을은 해방 이후 수리산 골짜기의 군용지에 살던 사람들을 군사시설 확충 과정에서 이주시키면서 조성한 마을이라고 한다.

삼봉마을 주민 최성남과 신성보의 구술을 통해 이 마을의 조성 경위와 변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성남은 1943년 경상남도 남해에서 태어나 1967년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마친 후 부산과 서울 등을 거쳐, 동아유리 입사를 계기로 박달동에 정착하였다. 현재는 삼봉마을 노인회장을 맡고 있다. 신성보는 1944년 충청남도 당진 출생으로, 서울 영등포에서 현병으로 복무하였으며, 1966년 군복무 당시 안양 부대로 전출되었다. 이때 안양 지역의 포도농업에 관심을 갖고 1967년 전역 후 박달동에 정착하였다. 최성남은 삼봉마을의 토지를 매입해 집을 마련하였으며, 신성보는 군용지 이주 대상자로서





삼봉마을에 정착하였다.

최성남과 신성보가 삼봉마을로 이주해 온 과정을 살펴보면, 1960~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박달동이 매력적인 지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안양 등지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이 사용하던 농지가 반환되지 않은 채 군용지로 지정되어 소작제가 행해지고 있었다.¹ 특수한 토지 소유구조 덕분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 박달동 군용지 일대 논은 토양이 비옥하고 수자원이 풍부하여 안양 지역에서 상급지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1960년대부터 박달로와 안양천 사이 평지에 공장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호현동 일대에 공업지역이 형성되었다. 1970년대 일자리를 찾던 농촌 인구가 박달동으로 몰려들었다. 이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다시 증가하였다. 1970년대는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박달동 인구도 이에 따라 증가하였다. 특히 1970년에 삼애기업과 삼신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²

비록 이 지역은 근교농업 지역이자 군사보호구역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았지만, 도시 이주지로서는 매력적인 장소였다.

신성보 : 서면에서 박달리가 제일 컸었다. 서면 중에서도 리 단위로 볼 때는 박달리가 제일 컸다는 거야. 내가 살던 집, 군부대에 탄약고가 있었어요. 그 탄약고 안 동네가 68세대가 살았다. 한 골짜기에. 그러니까 열두 동네 중에서 제일 컸다는 거예요. 한 동네 열 명씩만 해도 얼마야. 옛날에 리 단위로 보면 100여 세대 살았으면 큰 거지.

신성보는 군에서 전역한 뒤 박달리에 정착하여, 군부대와 탄약고가 있던 마을에서 살았다. 그가 살던 헛골은 68세대가 거주하던 마을로, 수리산 산속 마을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었다. 일제강점기에 군부대가 설치되면서 마을은 사라졌지만, 농사는 지속할 수 있었다. 해방 이후에는 일부 주민들이 다시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농지분배 관련 서류가 유실되면서 정부로부터 토지를 불하받은 사람들과 무허가로 점유한 사람들이 함께 살았다고 한다.

1960년대 말, 박정희 정부는 박달리 일대 군용지를 대대적으로 점검하며 부정 불하된 토지를 환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68년 박달리에서는 34만 평의 토지에 대한 법적 소송 절차가 진행되었다.³ 일부 소유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2심 청구를 제기하였지만, 결국 1969년 정부가 승소하였다.⁴ 당시 서울지검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피의자들이

소취나 권리를 포기하도록 협박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⁵ 1970년에는 박달리 일대의 11만 평 무단 점유자 117명이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하였다.⁶

박정희 정부가 박달리 군용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은, 1970년대부터 국방부가 주요 군사시설을 박달리로 이전시키기 위한 준비였다. 정부는 군부대를 이전하면서 군용지에 거주하던 마을 주민들을 이주시켰으며, 삼봉마을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70년대에 조성되었다.

최성남 : 여기가요, 군용지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군데군데 열두 고을이거든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탄약고를 할려나, 뭘 할려나 몰라도 다 철수시켜 가지고, 요거를 딱 30평씩 잘랐어요. 그때 새끼줄로 딱 이렇게 해놨어요. 30평을 분할로 준 거지. 연차적으로 같으라고.

신성보 : 내가 살던 군용지에 열두 부락이 있었대. 열두 부락이 있어 가지고 골짜기마다 이제 뭘데, 내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때 내가 살던 곳이 '햇골'이라는 동네야. 큰 햇골, 작은 햇골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었는데 내가 삼봉동으로 가게 된 이유는 군부대가 거기에 입주하면서 거기에서 살던 우리 동네 사람들을 삼봉동으로 이주를 시킨 거야.

정부는 햇골 등지에 살던 이주 대상자들에게 세 곳의 이주지로 제안하였고, 주민들은 직접 후보지를 둘러보았다. 그중 두 곳은 산비탈이었고, 한 곳만 평지였다. 평지였던 이주지가 지금의 삼봉마을이다. 박달리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든 객지에서 올라와 정붙이고 살던 사람이든 모두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대부분이 정부가 하는 일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였다.

신성보 : 그때 마음이야 안 좋지. 내가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살았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라고 한 거지 뭐.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니까. 군부대가 오니까 나가야지. 할 수 없죠. 마음이야 좀 그랬지요.

신성보는 자신이 농사짓던 땅과 기르던 염소들에 애정이 깊었다. 매일 돌보던 밭농사는 그만둬야 했고, 산을 떠나 이주하면 더는 염소를 키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키우던 염소는 모두 팔아야만 했다. 군 제대 후 수리산에 정착하면서 염소 두 마리로 시작해서, 이주 당시 그는 염소 열댓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신성보 : 어쩔 수 없는 거죠. 군인 작전상 필요해서 수용한다는데. 그렇다고 내가 굳이 그걸 방해할 수는 없잖아.

당시 삼봉마을 지역은 논이었다. 신성보에 구술에 따르면, 처음에는 마을 이름으로 ‘달안마을’을 고려했지만, 이미 평촌동에 같은 이름의 마을이 있었기에 새로운 이름을 고민하게 되었다. 마을 뒷산에 봉우리가 세 개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삼봉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최성남 : 여기 원래 삼봉마을이, 요 뒤에 봉이 3개였지요. 봉이 하나, 둘, 세 개. 마을이 철거민들을 시켜놓고 이름을 지을 때, 봉이 세 개라고 해서 삼봉마을이라 이름 지은 거야.

원래 수리산 군용지에는 68세대가 살고 있었으나, 삼봉마을로 실제 이주한 사람은 그보다 적었다. 정부는 논에 흙을 메워 30평씩 나눠 새끼줄로 경계를 정해 이주민들에게 분양했으며, 사람들은 제비뽑기로 땅을 배정받아 흙벽돌로 집을 지었다. 이주지는 100호 정도의 규모였지만 실제로는 53세대만 입주하였다. 이는 건폐율의 제약으로, 불하받은 30평의 땅으로는 가족이 살 집을 짓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땅을 팔고 떠난 이들도 많았다.

최성남은 삼봉마을 이주지를 매입해 자택을 지었다. 그는 당시 회사 기숙사에서 나와 범고개에서 자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1971년 가족들 중매로 결혼하면서 신혼집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는 삼봉마을에서 120만 원을 주고 집을 마련하였다. 내 집 마련의 기쁨은 있었지만, 시세보다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고, 토지는 국방부 소유였다. 그는 훗날 토지 소유권 정리를 위해 몇 년 동안 부친과 용인 등을 오가며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삼봉마을 인근에는 산자락 아래로 이전부터 살던 세 가구가 있었다. 갑자기 53가구가 이주해오면서 이들도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신성보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신성보 : 거기 딱 이제 배정을 받고 나니까 세 가구가 있었어. 산 밑으로 세 집이 있었는데, 그리고 앞에는 다 논밭이니까. 그리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더라고.

신성보는 삼봉마을의 초대 통장을 맡았다. 새로 형성된 마을인 만큼 신경 쓸 일이 많



삼봉마을이 조성되기 전 박달교 일대(1969년)



1970년대 박달로 삼봉마을 입구(이정범 제공)



마을 조성 초기의 삼봉마을 일대(1974년,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원으로 표시한 곳이 삼봉마을이다.

았다. 하수 처리시설과 정화시설 등 기반시설부터 장만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이주민들의 화합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후 1988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주거 및 자연녹지지역이 해제되면서 건물 증·개축이 가능해졌고, 기반시설이 차츰 갖춰지기 시작하였다.⁷

박달동 주민들은 1970년대까지 음력 10월 2일에 산신제를 지냈다고 전해지지만,⁸ 오늘날 삼봉마을에는 마을 단위의 공식 모임이나 의례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새로 생긴 마을이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삼봉마을 주민 덕분이다.

2. 군사보호구역 마을의 한계

호현동에는 공병부대와 정보사령부 등 군부대 및 탄약고 외에도, 1972년에 문을 연 도축장과 1993년에 준공된 쓰레기 적환장이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삼봉마을 주민의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였다. 무엇보다도 군사시설은 박달동에 오랜 기간 영향을 끼쳤다.

한편, 주민들은 군부대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1964년 12월 27일 박달리 주민 박한규가 미군 유도탄부대에서 작업하던 중, 중지 명령을 어기고 계속 일했다는 이유로 미군이 쏜 엽총에 옆구리를 맞는 사건이 발생하였다.⁹

삼봉마을 주민들은 군용지 정비로 인해 삶의 터전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이전 후에도 삼봉마을 주민의 삶은 군부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주민들은 생활 전반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비행기 소리와 사격훈련 등으로 인한 소음 문제, 예비군 훈련 시 군용 트럭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날도 있었다. 2011년 8월에는 삼봉마을 주민들이 정보사령부 신축에 따른 소음 및 안전 문제로 항의하기도 했다.¹⁰

2013년 정보사령부 이전 과정에서는 마을 진입로가 확장되었고, 2017년에는 대로변에 있던 고압선이 은탑빌라 전신주로 이설되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3월과 4월,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세대를 대상으로 전자파 수치를 측정했으며, 일부 가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높은 수치가 나타나기도 하였다.¹¹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년 1~2회 정보사령부가 경로당에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교류는 중단되었다. 2016년에는 군 복지시설인 서조회관이 개관되어 운동, 노래 교실 등 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노년층이 많은 삼봉마을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삼봉마을 위쪽의 군용지(이정범 제공)





정보사령부 신설에 따른 진입로 건설공사(2015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삼봉마을 일원 410m 구간이 정보사령부 진입로로 편입되었다.

정보사령부의 이전 과정은 삼봉마을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2010년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던 정보사령부가 안양시 박달2동(호현동)으로 이전되는 것이 결정되자, 삼봉마을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하였다. 당시 박달2동 주민들로 구성된 ‘정보사 이전 주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0년 동안 군부대로 인한 보행권, 사격장 총성, 군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해 환경권과 재산권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개발이 낙후되었다고 호소하며, 정보사 이전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혔다.¹²

주민들이 분노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보사령부 이전 결정이 2008년 12월에 내려졌고, 2009년 6월에 공사 사업 설명회가 있었으며, 2009년 10월 안양시와 협의 후, 2010년 7월에서야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 요구 사항’조차 실제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¹³

결국 정보사령부가 이전하였고, 2012년 2월 삼봉마을 일원 410m 구간이 정보사령부 진입로로 편입되어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토지가 편입된 주민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큰 문제가 되었다.¹⁴ 급기야 한 60대 주민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분신을 시도하기도 하였다.¹⁵ 이후 일부 70대 주민들이 안양시청을 찾아



삼봉마을 주민 간담회(201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정보시령부 진입로 편입토지 보상 과정에서 삼봉마을 주민과 안양시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시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면담에는 형사가 배석해 주민들에게 위협감을 주었다고 한다.¹⁶ 이와 같은 상황은 안양시의회 회의록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교통사업도로과장 강병권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강병권(건설교통사업도로과장) :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거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해가지고 은탑빌라와 그 주변의 선진빌라, 동현빌라 주민 176인이 소음·진동·분진 대책이 미흡하다고 해가지고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요구와 철거공사 시에 인접한 건물 파손이 우려되므로 도로공사 구간에 편입 및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편입 빌라는 15개 동 중 14개 동이 철거되었고, 일봉빌라 1개 동이 미철거된 그런 사항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주민 요구를 수용해가지고 주변 건물 안전진단을 우선 시행하고,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건물 편입의 요구에 대해가지고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득 시까지 철거공사는 잠정 중단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1인 시위는 대책위원 중 1인인 송○○은 선진빌라 나동, B동, 지하 1층에 주거하는 구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똑같습니다. 선진빌라가 도로 확장 공사에 인접한 빌라이기 때문에 철거공사 시에 건물 파손이 우려되므로 편입을 보

상, 그런 요구입니다. 조치 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¹⁷

삼봉마을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및 재건축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그러나 2006년, 삼봉마을이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007년 5월 ‘삼봉지구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안양시는 2011년 3월 박달2동(호현동) 604번지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당시 안양시는 “삼봉지구 구역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등 정비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을 이유로 밝혔다. 이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삼봉지구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93.95% 이하(계획 175.85%)를 적용받아 평균 18층 이하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다. 삼봉마을 74가구가 철거 대상이었다.¹⁸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서정원은 2011년 6월 9일 『안양광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자 희망”이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다.¹⁹ 그러나 2016년 4월, 주민들의 반대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고, 결국 같은 해 9월 정비구역이 해제되었다. 소유주 94명 중 52%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사업은 무산되었다.²⁰

최성남 : 재개발 때문에 편이 갈라졌어. 한쪽은 하려고 하고, 한쪽은 안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100만 원인데, 다시 내가 집을 그 공사를 해서 들어올라면 아, 100만 원도 못 들어와요. 300만 원 있어야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 쫓겨나요.

처음에는 삼봉마을 주민 중에도 주택재개발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개발 현실을 인지한 후 근소한 차이로 사업은 무산되었다. 신성보는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 그는 당시 사기꾼이나 투기자들이 사업에 개입해 여론을 주도하려 했다고 생각한다.

신성보 : 보니까 완전히 사기야. 뭐가 사기냐면, 당신네들이 30평 가진 사람들은 아파트나 뭐 하면은 30평 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 한 거야. 모르니까. 이 자식들이 도대체가 애들 갖고 장난

한 거여. 그래 30평을 주는데 어떡할 거냐, 처음에는 30평 그대로 아파트 준다 이거야. 그 추진위원 하는 사람은. 너 미리와봐 너 30평을 주되 30평 그대로 줄 거냐, 여기에 공사비라든지 뭐 포함시킬 거냐 했더니, 30평을 주되 공사비는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 그때 막 목을 했어. 이 자식들이 애들 장난하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네 말이 맞지만 30평 주민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30평짜리, 30평 준다고 그랬잖아?



삼봉마을 골목(이정범 제공)

결국, 마을 사람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재개발이 무산되었다. 최성남은 오랜 기간 끌어 오던 삼봉지구 재개발사업이 무산되자, 살던 집터에 3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지금은 4~5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1층은 식당에 세를 줬는데, 10년 전과 비교해 임대료는 거의 변동이 없고, 집값도 공시지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2024년 현재 삼봉마을은 다시 개발 대상지로 지정되었다. 안양시는 2019년부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시청 조직에 스마트시티과를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삼성증권컨소시엄과 함께 추진하기 시작하였다.²¹

최성남 : 아니 2028년도가 되면 여기가 다시 어찌 될는지 몰라. 28년도 계획상으로는 그렇다는데, 이 안에 열두 골인데 엄청 넓거든요. 엄청 넓어가지고 그걸 탄약고를 지하화한다고 옛날부터 말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죠. 확실히.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게 쉽나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박달동 일원 328만㎡(군용지 299만㎡, 기타용지 29만㎡) 부지에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첨단산업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군 탄약 시설은 지하화시켜 군에 기부하고 탄약 시설을 국방부로 양여(讓與)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성남은 2028년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다고 하였다.²² 아마도 삼봉마을에 또 다른 역사가 쓰일 것이다.

3. 박달동 공업지역의 이웃 마을

삼봉지구 개발이 10년이나 지연되는 동안, 삼봉마을의 시작을 함께했던 마을 토박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사망하였다. 최성남은 현재 삼봉마을에 남아 있는 토박이는 10가구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재 삼봉마을 경로당에는 매일 25명 정도의 어르신이 모여 함께 점심을 먹는다. 7년 전부터 노인회장을 맡은 최성남은 “내가 봐도 전부 모르는 사람인데, 누구를 보고 대화할 수 없어요.”라고 하였지만, 도시에서는 보기 어려운 공동체 활동이 삼봉경로당에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아침에 군용지에 올라가 텃밭 농사를 짓고, 경로당에 나와 마을 노인들과 함께 하루를 보낸다.

고라니가 고구마를 다 먹어버려 농사가 어려워졌지만, 최근 밭에서 수확한 호박을 경로당 회원들과 나누어 먹었다. 현재 삼봉경로당 회원은 33명이며, 80대 중·후반이 다수이고, 90대 회원도 있다. 70대는 경로당에 오지 않는다고 한다. 회원 중 남성은 7명이나,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은 네댓 명에 불과하다. 여성 회원들이 인원도 많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편이다. 동네 청소를 하고, 1년에 한 번 단체 관광도 다녀온다. 2023년에는 동해를 다녀왔고, 2024년 가을에는 서해를 다녀올 예정이다. “연세가 많으니까 멀리 못 가서 그냥 차로 갔다가 점심만 잡숴주고 살살 오려고.” 최성남 회장이 여행을 준비한다. 회원들이 연로하여 버스를 타고 가서 점심 식사만 하고 돌아오는 짧은 여행이지만, 많은 회원이 매년 기다리는 행사이다.

삼봉마을은 토박이들이 떠나고 외지인들이 많아졌다는 점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지만, 삼봉마을에도 찬란한 시절이 있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안양



박달동 군용지 내 농경지(2011년, 안양시청 제공)
삼봉마을 주민 중에는 군용지 내 텃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에 인구가 많이 유입된 시기였다. 1985년 9월 이은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입자들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26.9%), 직장과의 교통 및 전근 때문에(24%), 자녀들의 교육문제(23.2%), 내 집 마련이 용이해서(20.4%) 등의 이유로 안양으로 이주하였다.²³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과 안양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삼봉마을의 인구도 증가하였다. 신성보는 서울 영등포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중 안양으로 전출되었다. 그는 넓은 군용지를 보고, 1967년 6월 전역 후 포도 농사를 짓고자 박달리에 정착하였다. 고향인 충청남도 당진에서 어머니가 함께 장사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는 안양에 새롭게 정착하였다. 염소 두 마리를 사서 키우고, 산비탈의 군용지를 부대로부터 임대받아 고추·고구마·옥수수 등을 재배하였다. 결국 그의 어머니도 당진에서 안양으로 이주하였다.

〈표 1〉 1970년대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을 고용한 안양시 기업체

동	업체명	기업체 수
관양동	부선산업, 일진물산, 대한전선, 대일전기, 삼신	5
박달동	이리제지, 유성물산, 제일피혁, 동국물산, 대한잉크, 동아유리, 동서유리, 삼아알미늄, 세룡실업, 현대양행, 한진제판, 서울광학	12
비산동	삼아정공, 부흥사 제2공장	2
석수1동	동국실업, 태양당인쇄소, 덕성화학, 유유산업, 삼흥유지, 해인종기, 일신섬유	7
석수2동	동아식품, 동명산업, 동아제약	3
안양1동	대농, 한국제지, 동화약품, 동아공업	4
안양2동	대영모방, 삼풍, 이원, 쌍용제지, 제일모직	5
안양7동	대양산업, 삼성정공, 세광산업, 태흥무력, 삼덕제지, 삼진알루미늄, 한국스레트, 삼영하드보드	8
평촌동	동광물산, 동양섬유, 동일방직, 삼화왕관, 국제전기, 오투기 식품	6
호계동	동양나일론, 성화섬유, 조일제지, 중앙제지, 삼아화학, 럭키, 금성전선, 금성통신, 삼성전기	9
합계		61

자료 : 안양시 상공회의소 발행 기업체 명단(1973·1975·1977·1979년). 이은호, 「안양시의 성장과 도시구조의 변화」, 200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2쪽에서 일부 수정 후 재인용.

안양 지역은 1960년대 이후 공업지대로서 공장이 증가하며 공업화하였다. 공장의 증가로 노동력이 필요해지자, 구직 인구가 안양으로 모여들었다.²⁴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70년대 안양시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총 61개였으며, 이중 박달동에 가장 많은 12개의 기업이 위치하였다.

박달동의 주거 패턴은, 기존 마을은 집촌의 형태를 이루었고, 서북지역 계곡에는 사람들이 흩어져 거주하였다. 전통적인 중부지방의 농가형 주택이 존재한 동시에, 외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던 연립주택이 있었으며, 도로 주변에는 상가형 주택도 공존하였다. 또한, 박달동은 공업지대이면서 동시에 농경지이기도 하였다. 안양-안산 간 간선도로 및 인접한 안양천 남서 지역은 공업지대로 이용되었고, 중앙지역은 논밭 및 비닐하우스를 활용한 농경지로 작물 재배가 이루어졌다.²⁵

농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박달동은 기회가 많은 매력적인 지역이었다. 땅이 없던 사람들에게는 경작 가능한 넓은 균용지가 있었고, 일자리를 찾던 사람들에게는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업체가 있었다. 경상남도 남해가 고향인 최성남도 일자리를 찾아 안양에 왔으며, 1968년 동아유리에 입사하여 1991년까지 근무하였다. 일자리를 찾아 안양에 온 최성남과 포도 농사를 위해 박달동에 정착한 신성보 모두 이제는 고향인 남해와 당진에서 산 시간보다 안양에서 산 시간이 더 길어졌다.

신성보 : 공장이 있을 때는 동네가 그래도 먹고 살고 그런 뭐가 있었는데, 떠나고 나니까 조금 그렇네요. 그때는 그 공장 하나 가지고 동네가 다 먹고 살았어. (중략) 그 앞에 식당도 있고 가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앞에 만도기계 사람들이 이제 돈 없어도 어디 가서 먹어도 믿어. 월급 나오면 주니까.

이 마을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는 제조업체들이 활발히 운영되던 때이다. 박달동은 교통이 편리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넓은 산업 용지를 확보할 수 있어 공장입지로서 매력적이었다. 1985년 박달동의 인구는 2만 7,312명으로, 안양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거주하였다.²⁶

당시 박달동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장 노동자들이었다. 이 시기 삼봉마을에도 약 300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 모두 외지에서 온 노동자들이었다. 교대 근무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마을 내에서 특별한 모임은 드물었으며, 공장 동료들과 소소하게 퇴근 후 술잔을 갖는 정도였다. 최성남은 동료들과 함께 가끔 호현마을 뒤 복숭아밭에 나들이를 가서 복숭아를 사 먹기도 하였다. 동아유리는 3교대 근무, 가장 규모가 큰 만도기계는 2교대 근무였으며, 공장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했기 때문에 낮에는 동네에 사람이 거의 없었다.

현재 한라비발디아파트 인근은 공장들이 있던 지역이다. 삼신아파트를 재건축한 한일유엔아이아파트는 자전거 부품을 제조하던 세룡산업이 있었고, 그 외에도 동국물산·만도기계·노루표페인트 등이 자리하였다. 최성남은 처음에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범고개에서 월세 500원을 내고 자취 생활을 하였다. 당시 공장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은 논밭이었다.

삼봉마을 주민들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농사도 지었다. 농번기에는 퇴근 후에도 논에 나가 모를 심었으며, 현재도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있다. 이들은 이웃들과 작물을 소소하게 나누어 먹는다.

박달동에 공장이 많았던 시절은 이 지역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공장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함에 따라, 슈퍼를 운영했던 주민이 상가 건물을 지을 정도로 장사가 잘되던 시절이었다. 만도기계 직원들의 봉급날은 곧 박달동의 ‘장삿날’이었다. 당시에는 회사 회식비를 미리 외상으로 끊어두는 일도 있었고, 월급날이 되면 외상값을 갚기도 하였다.

최성남 : 코카콜라 앞에 장거리 술집이 있었어요. 내가 반장이었는데, 우리 반원이 15명, 20명 되고.



박달동 만도기계(1987년, 안양시청 제공)

고달프면 “야, 한잔 가자.” 해서 먹고. (중략) 돼지고기. 삼거리에 6호집. 한 달에 우리 반만 먹는 게 돼지 한 마리를 먹는다고. 외상, 봉급 라면 같고. (중략) 만도기계가 있을 때는 박달리가 장날이 예요. 봉급날이 장날이예요. 외상값 같고. 만도기계가 가는 바람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바람에 상가가 다 죽어버렸잖아.

만도기계는 1964년 현대양행 안양기계제작소로 박달동에 설립되었으며, 1980년 2월부터는 현대양행 안양공장이 ‘만도기계’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91년에는 본사가 군포로 이전하였고, 1994년에는 안양에 있던 쇼크업소버 공장이 군포로 확정 이전되면서, 1996년까지 평택·경주·청주 등지로 공장 이전이 완료되었다. 이후 기존의 공장부지에는 한라비발디아파트단지가 조성되었다. 노동자들이 떠난 자리는 일반 주민들이 채우게 되었다.

과거 공장 시설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의 공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생활환경을



삼봉마을 공영주차장 주변(이정범 제공)

해치는 요소로 여겨지기도 한다. 현재 안양시는 노루페인트 공장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공장은 1996년 7월 화재 사고와 2014년 9월 에폭시 증기 유출 사고 등의 전례가 있었다. 안양도시공사는 2021년부터 박달동 일원 공업부지 개발 계획을 세웠으나, 2024년 6월 노루페인트는 오히려 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²⁷

박달동의 역사를 간직한 자연마을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없다. 있다가 없어진 것들을 대신하여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삼봉마을로 새롭게 이주해온 외지인들은 대부분 젊은 세대이며, 이로 인해 마을 단위의 공동체 모임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대신 오랜 기간, 이 지역에 거주해 온 주민들 사이에서는 마음이 맞는 이들끼리 소규모의 친목 모임이 유지되고 있다. 신성보는 여전히 농우회, 총우회 등의 삼봉마을 친목회를 이어가고 있다.

안양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박달2동의 명칭을 변경하는 주민 의견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2024년 6월 5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조사는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병행 진행되었고, 18세 이상 박달2동 주민등록자 909명의 참여하였다. 응답자 중 52.4%가 ‘호현동’을 선호하였으며, ‘삼봉동’은 32.2%

의 지지를 얻어 2위를 기록하였다. 그 외에 ‘친목동’(8.8%), ‘선녀동’(2.5%) 등의 후보가 있었다.²⁸

삼봉마을 주민들은 삼봉마을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동의 명칭을 ‘삼봉동’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박달2동의 이름은 ‘호현동’으로 변경되었다.

삼봉마을은 박달2동이 호현동이 되었어도 사라지지 않겠지만, 박달스마트밸리 개발은 삼봉마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봉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나갈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삶의 누적이 삼봉마을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각자의 고향에서 수리산 자락을 거쳐 삼봉마을에 정착한 이들의 삶은 앞으로도 안양에서 계속될 것이다.

1. 『동아일보』, 1958년 10월 22일.
2. 안양시지편찬위원회, 『안양시지』, 1992, 710쪽.
3. 『경향신문』, 1968년 8월 21일.
4. 『조선일보』, 1969년 4월 6일.
5. 『조선일보』, 1970년 8월 8일.
6. 『조선일보』, 1970년 5월 30일.
7. 『삼봉마을은 안양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 새로운 변화 필요해』, 『안양광역신문』, 2011년 6월 9일(<http://www.anyangnews.net>).
8. 『경인일보』, 2024년 8월 26일.
9. 『경향신문』, 1964년 12월 28일.
10. 「안양 정보사 신속현장 도로 주민 점거」, 『경인일보』, 2011년 8월 31일(<http://www.kyeongin.com>).
11. 「안양 주택가에 고압선 또 … 주민건강 아랑곳 없나」, 『경인일보』, 2017년 4월 20일(<http://www.kyeongin.com>).
12. 「안양 주민대책위, 정보사 이전 '결사반대' 표명」, 『오마이뉴스』, 2010년 8월 19일(<http://www.ohmynews.com>).
13. 당시 정보사령부가 제시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정보사령부 진입 도로 확장, 생활폐기물(재활용 및 폐기물 적환장)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관내 군부대 이전 및 활용, 정보사령부 체육시설 개방(체육관, 복지회관,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박달2동 주민센터·복지회관 복합시설 건립, 승리아파트 앞 도로 확장(폭 10m에서 20m로), 정보사 전면부 도로변 녹지축 조성 등이었다. 「정보사령부 안양 이전 방침에 주민 반발」, 『오마이뉴스』, 2010년 8월 16일(<http://bit.ly>).
14. 「안양시, 군군정보사 이전지 편입주민 피해 '나몰라라」, 『경인일보』, 2013년 4월 4일(<http://www.kyeongin.com>).
15. 「안양 삼봉마을 도로 공사현장서 주민 분신 기도」, 『뉴스시스』, 2015년 8월 18일(<https://www.newsis.com>).
16. 『제178회 안양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2011년 4월 18일.
17. 『제210회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2014년 11월 27일.
18. 안양시 고시 제2011-29호, 『삼봉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1년 5월 18일.
19. 「삼봉마을은 안양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 새로운 변화 필요해」, 『안양광역신문』, 2011년 6월 9일(<http://www.anyangnews.net>).
20. 「수년간 표류한 안양시 삼봉지구 재개발사업 무산」, 『뉴스시스』, 2016년 9월 30일(<https://mobile.newsis.com>).
21. 2021년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당시 대장동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업 참여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모가 취소되었다. 이후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재심사 결정에 반발하며 안양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안양공사가 승소하였다. 「안양박달스마트 벨리, 소송은 이겼지만 재공고 나서」, 『대한경제』, 2023년 5월 16일(<https://m.dnews.co.kr/>).
22. 「안양, 사업성 문제 '홍홍' 박달 스마트벨리 급물살」, 『경인일보』, 2024년 4월 11일(<https://www.kyeonggi.com>).
23. 김명희, 「안양시의 성장과 도시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39쪽.
24. 김영숙, 「안양읍 실태조사」, 『사회학연구』 7, 94, 1969, 96쪽.
25. 박찬용, 「지역생태체계 분석을 통한 주거적지선정에 관한 연구 : 안양시 박달동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연구』 창간호, 1980, 84-85쪽.
26. 이은호, 「안양시의 성장과 도시구조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6~37쪽.
27. 「노루페인트, 당시 약속은 면피용? 깨달게 잊은 그날의 사고」, 『경기일보』, 2024년 6월 11일(<https://www.kyeonggi.com>).
28. '박달2동 행정동 명칭 주민 선호도 조사'는 2024년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되었으며, 박달2동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주민 909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는 대면과 비대면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며, 중복 응답은 제외하였다. 행정동 명칭 변경안(옛 지명)에 대한 주민 선호도 및 기타 의견을 조사한 것이다. 호현동(54.2%), 삼봉동(32.2%), 친목동(8.8%), 선녀동(2.5%) 등이 후보에 있었다[안양시청 제공(<https://www.anyang.go.kr/>)].

제3장

안양천과 박달로를 따라 형성된 박달동의 공업지역

윤유석 (사)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객원연구원



1. 조용한 동네에 들리기 시작한 기계 소리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은 경기도 지역의 개발과 산업 입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제조업 기반이 강화되었고, 특히 서울·인천을 축으로 한 경인공업지대가 조성되면서 섬유·가죽·종이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출산업공단이 구로와 인천에 세워지고, 경부선 철도·경인고속도로·경수산업도로 등 교통·물류 인프라가 확충되며 안양·시흥·수원·부평·부천 등지에 공업지대가 형성되었다. 안양은 서울의 기능 분산, 공업용수 확보 용이성, 물류 접근성 등 유리한 입지 조건으로 주목받으며 공업지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박달동은 1963년 시흥군 서면에서 안양읍으로 편입된 지역으로 안양시의 서쪽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경부선 안양역에서 멀지 않은 거리였고, 안양역에서 영등포역이 가까웠으므로, 서울과 인천 사이에서 물류와 인구 이동이 용이하다는 지리적 요인과 함께 서울보다 낮은 토지 비용 때문에 박달동은 경인공업지대의 한 축이 될 수 있었다. 경부선 철도 외에도 경수대로(당시 명칭은 경수산업도로) 등이 연결되어 있어 서울·인천·수원 등 수도권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았다. 1980년대 이후에는 산업단지가 조성된 시흥, 안산과도 경계를 이루어 있어 산업시설을 조성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안양천 역시 공장 입지 조건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금속·화학·섬유 공업 등에서는 세척·냉각·제조 과정에서 많은 물이 필요하였고, 폐수 배출 경로로도 하천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하천 주변이 공장 입지로 적합하였다. 안양천이 인접한 박달동은 평지가 많고 비용이 저렴하여, 하천을 따라 공업지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

1960년대 초반 안양천과 삼봉천의 합류 지점과 가까운 포도밭에 현대양행 안양공장



현대양행 안양기계제작소(한라그룹, 『한라그룹오십년사』, 2012)



현대양행 안양기계제작소 직원들의 작업 광경(한라그룹, 『한라그룹오십년사』, 2012)



현대양행
안양기계제작소

삼진팔푸

1966년 박달동 공업지역(국토지리정보원 제공)
가운데 박달로 위쪽으로 왼쪽이 현대양행 안양기계제작소이고, 가운데는 삼진팔푸이다. 아래쪽 가지런하게 정리된 주택단지는 금성방직 사택이다.

이 들어왔다. 나중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만도기계로 변신하는 현대양행은 처음에는 무역업으로 출발하였다. 박달동에는 현대양행 안양기계제작소를 설립하고 수출용 양식기를 생산하였다. 조용하던 농촌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현대양행이 안양읍 박달리 120번지를 공장부지로 선정한 데는 안양천 옆이라는 입지조건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호계동에 들어선 금성전선(당시 한국케이블공업)도 처음에는 박달동을 공장부지로 정하였다가 더 넓은 부지를 찾아서 호계동으로 최종 선정하였다고 한다. 박달동에 크고 작은 공장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공장이 가동되는 소리는 갈수록 커졌고, 연기를 내뿜는 공장의 굴뚝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영래¹ : 기계 처음에 만도기계가 아니라 현대양행. 포도밭 자리인데 현대양행이라고 들어와가지고 기계 많았어요. 거기서 뭘 찍었냐면 스텐 식기. 스텐 밥그릇 있죠? 군대 식기 그걸 찍었다고. 프레스로. 그러니 소리가 얼마나 나. 밤음 장치도 안 하고, 소음이 심하죠. 프레스 찍어내는 소리. 탕탕탕 소리.

2. 안양천 물길 따라 조성되는 박달동 공업지역

1979년 「안양시 공장등록업체현황(기본실태조사대장)」을 보면, 당시 안양시에 총 15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 24개 업체의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박달동으로 되어 있다. 이 중 연도가 기입되지 않은 2개 업체를 제외하면, 1973년에 11개, 1974년 9개, 1976년 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었다.

당시 등록된 업체는 경공업 분야의 섬유·가죽·의복과 신발·식료품·종이 관련 업체가 8개소였고, 중화학공업 분야의 기계·화학제품·유리·고무·기타 플라스틱·비철금속·전자기기·정밀기기 관련 업체가 16개였다. 시설 규모 면에서 보면, 중화학공업 분야에서는 현대양행·대한잉크페인트·연합유리공업·삼아알미늄·동양물산기업·동서유리·세룡산업 등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공업 분야에서는 제일피혁과 삼진팔푸에 이어 이불솜을 생산하는 삼아제면공업사가 넓은 면적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표 1〉 1970년대 안양시 박달동 소재 기업체의 산업 분야별 현황

분야	구분	업체명	업체 수(개)	
경공업	섬유	삼아제면공업사, 유안산업사	2	
	가죽	제일피혁, 효성농장	2	
	의복/신발	대동봉제, 소영물산	2	
	식료품	보원식품	1	
	종이	삼진팔푸	1	
중화학 공업	기계	현대양행, 동양물산기업, 세룡산업, 삼양금속공업	4	
	화학제품	대한잉크페인트, 세원화학, 일산화학공업사, 삼애기업	4	
	유리	연합유리공업, 동서유리	2	
	고무	동국물산	1	
	기타 플라스틱	대일산업, 화신공업사	2	
	비철금속	삼아알미늄	1	
	전자기기	한국월	1	
	정밀기기	서울광학산업	1	
	합계			24

자료 : 1979년 「안양시 공장등록업체현황(기본실태조사대장)」

〈표 2〉 1970년대 안양시 박달동 소재 기업체

No.	분야	등록	기업체명	대표 자명	소재지		형태	주생산품	시설규모(평)	
					본사	공장			대지	공장
1	기계	1973	주식회사 현대양행	정인영	시흥군 남면 당정리 176	박달동 120	법인	중기자동차 부품	837,000	10,696
2	화학	1976	대한인크페인트(주)	한정대	-	박달동 615	법인	도료, 잉크	38,131	7,223
3	기타	1974	연합유리공업	민찬기	박달동 620-5	좌동	법인	제약 주류병	22,800	1,046
4	기타	1973	삼아알미늄	한상구	박달동111-2	좌동	법인	알미늄 호일	12,721	1,704
5	화학	1974	제일피혁	이용구	-	박달동 633	법인	피혁제품	8,738	-
6	제지	1973	삼진팔루	박태원	박달동 111-1	좌동	법인	팔프지류	7,300	1,892
7	기계	1973	동양물산기업	김희철	서울시 중구 저동1가 48	박달동 105	법인	분무기 디젤엔진	6,947	2,125
8	-	-	동서유리	박문수	박달동 688-1	좌동	법인	병유리	5,176	773
9	기계	1974	세룡산업	강영록	박달동 607-1	좌동	법인	자전거부품	3,134	567
10	섬유	1973	삼아제면 공업사	김오현	-	박달동 614-9	개인	이불솜	2,450	473
11	기타	1973	동국물산	김성수	박달동 158	좌동	법인	콘돔 지삭크	1,810	679
12	화학	1973	효성농장	안재호	-	박달동 36	개인	피혁 글로브	1,776	-
13	기계	1974	서울광학산업	장한	박달동 613-4	좌동	법인	망원렌즈기구	1,564	519
14	전기전자	1974	한국월	신동일	-	박달동 157-1	법인	전자제품	1,447	160
15	화학	1973	세원화학	박주선	박달동 753-9	좌동	법인	계면활성제	1,130	116
16	기타	1974	대일산업	김영목	박달동 693-1	좌동	법인	조화 및 마스크 테프	1,000	85
17	식품	1973	보원식품	이화영	-	박달동 773	개인	식초	660	-
18	기타	1973	화신공업사	박종규	박달동 681	좌동	법인	문구	600	400
19	-	1976	대동봉제(주)	신동일	-	박달동 157-1	법인	자켓트	590	472
20	섬유	1973	유안산업사	유제택	-	박달동 617	개인	연승	581	-
21	기계	1974	삼양금속공업	이상준	박달동 621-2	좌동	법인	검식공구	500	90
22	-	-	소영물산	노정남	-	박달동 618-1	법인	작업화	391	140
23	화학	1974	일산화학공업사	김영준	박달동 12-11	좌동	개인	화장품 용기	300	200
24	기타	1974	삼애기업	박창규	박달동 604-1	좌동	법인	타자기리본	272	156

출처 : 1979년 「안양시 공장등록업체현황(기본실태조사대장)」

25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는 수출기업이었다. 동국물산은 콘돔과 지삭크를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지삭크란 전자기기 생산 과정에서 정전기로 인한 제품의 불량을 막는 고무 골무를 말한다. 이 외에도 삼아알미늄(알루미늄 호일), 세룡산업(자동차 부품), 세원화학(계면활성제), (주)삼애기업(타자기·계산기 리본), 제일피혁(피혁), 효성농장(피혁과 글로브) 등이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였다.



연합유리공업을 배경으로 선 대왕지공 직원들(1970년대, 박성배 제공)

〈표 3〉 1970년대 안양시 박달동 소재 수출등록 업체

연번	기업체명	대표	품목
1	동국물산	김성수	콘돔, 지삭크
2	삼아일미농	한상구	알미농 호일
3	세룡산업	강영록	자전차 부품
4	세원화학	박주선	계면활성제
5	주식회사 삼애기업	박창규	타자기 리본, 계산기 리본
6	제일피혁	이용구	피혁제품
7	효성농장	안재호	피혁, 글로브

출처 : 1979년 「안양시 공장등록업체현황(기본실태조사대장)」

이들 수출업체의 입지는 안양을 비롯한 경인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1960년대 중반 정부가 추진한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에 따른 결과였다. 박달동에서는 콘돔·피혁·계면활성제와 같은 소비재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과 같은 기계공업 분야 제품이 수출용 상품으로 생산되었다.



박달로 변의 ㈜삼애기업 일대(1970년대, 이정범 제공)



대왕지공 생산품 운송 트럭과 여성 직원(1970년대, 박성배 제공)



1970년대 박달동 공업지역의 기업체(「안양036」, 1977년,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1976년 지적도를 통해 당시 박달동 공업지역 내 공장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안양시 공장등록업체현황」에 등록된 업체 가운데 지적도상에 표시된 업체는 서울광학산업·대한잉크페인트·연합유리·동서유리·제일피혁 등 5개 업체에 불과하였다. 반면, 삼천전자공업·성훈경금속·대성초자·형제면혁 등 4개 업체는 등록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기업이다.

1976년 지적도에는 다음과 같은 공장들이 표기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삼천전자공업(三千電子工業)(주), ② 서울광학산업(光學産業)(주), ③ 대한(大韓)잉크페인트(주), ④ 성훈경금속(成勳輕金屬)(주), ⑤ 대성초자(大成硝子), ⑥ 연합(聯合)유리, ⑦ 동서(東西)유리, ⑧ 제일피혁(第一皮革), ⑨ 형제면혁(兄弟綿革), ⑩안양도축장(安養屠畜場) 등이 그것이다.

이 중 등록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업체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업체들이 확인

된다. ② 서울광학산업은 1974년에 설립된 렌즈·프리즘·미러·필터·대형 곡면경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1987년 충북 음성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안양에 소재하였다.

③ 대한잉크페인트는 1976년에 준공된 안양공장으로, 우리나라 잉크 제조 분야의 선두 기업이다. 이 기업은 노루페인트의 전신으로, 1953년에 노루 마크를 기업 심벌로 도입하였으며, 1989년에는 대한페인트잉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94년에는 잉크사업부를 대한잉크로 독립 법인화하여 출범하였고, 이듬해에는 프린트용 잉크젯 잉크를 생산하였다. 이후 1998년에는 대한잉크화학, 2004년에는 대한잉크, 2020년에는 디어스아이(DEERS i)로 상호를 변경하였다.²

④ 성훈경금속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현재는 안산 반월공단으로 이전하였고, ⑤대성초자는 보온병에 들어가는 유리를 만드는 곳이었다. 1990년대 보온병 내부 재질이 유리에서 스테인리스로 변경되면서 쇠퇴하였다.

1970년 창립한 ⑥연합유리는 주사제 용기인 바이알병, 앰플병 등의 의약품기를 제조하며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기업이다. 서울 성북구에서 ‘연합앰플공업사’로 설립된 후, 박달동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였다. 1977년에는 상호를 주식회사 연합유리로 변경하였다.³

⑧ 제일피혁은 가죽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가죽 재킷의 대미 수출을 통해 한때 종업원이 200명에 달했다.⁴ 창립주 이용구 회장은 야구글러브용 가죽과 야구글러브를 수출하였다. 국내 피혁산업은 1917년 창업한 대전피혁을 시작으로 195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기업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제일피혁은 1917년 창업된 대전피혁과 함께 우리나라 피혁산업을 발전시켜 온 피혁업계의 3대 업체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박달동 범고개에서 출생한 임희택(1963년생)은 대성초자에 근무한 외사촌을 따라 공장 구경 간 일화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⁵

대성초자라는 마호병(보온병) 공장이 있었는데, 외사촌 형이 거길 다녔었다. 마호병 만들고 남은 유리물로 애들 놀이하는 다마 구슬도 만들었는데, 하루는 구슬을 준다가에 공장 구경 삼아 갔었다. 아저씨들은 난닝구 바람으로 기다란 파이프에 유리 녹은 물을 문혀 이리저리 몸을 비틀며 붙어서 마호병을 만들고 있는데, 날도 덥고, 유리 녹이는 용광로도 덥고, 얼굴이 별걸게 달아오르도록 온 힘을 다해 파이프를 부는 아저씨들도 덥고, 더운 열기 속에 애들 미끄럼틀을 작게 만든 것 같은 틀에 유리물을 조금씩 떨어뜨리면 그게 때구루루 굴러서 밑에 바쳐놓은 그릇으로 떨어지면 유리구슬이 되었다. 외사촌형은 중간중간 왕다마도 만들어 주며 의미있게 눈웃음을 웃어 주기도 하였다. 그 언덕 아래 한길을 건너면 내 큰집이

있었는데, 하루는 마당에서 놓고 있는데 외사촌 형이 후다닥 뛰어 내려와서 불이 났다고 외쳤다. 얼핏 듣기로 산소용접기가 잘못되어 터져서 한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어른들이 우루루 몰려갔고, 애들은 오지 말라 해서 먼발치에서 불이 올라오나 보다가 그나마 큰불이 아닌지 불길이 치솟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3. 1990년대 이후 산업 구조 전환과 박달동 공업지역의 변화

1980년대 후반에는 유일산업·성미전자·한진제관·동아유리·참피온탁구대 공장 등이 박달동에 입지하였는데, 이 중 주목할 만한 기업은 성미전자이다. 성미전자는 1980년에 설립된 광통신 전송 장비 전문업체로, 삼보컴퓨터와 휴맥스홀딩스 등 국내 벤처기업이 시작되던 1980년대 최고의 기술력으로 광통신 전송 장비·전자통신 장비를 생산하면서, 1991년 ‘벤처기업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성미전자의 성장은 한국 산업구조가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되고 반도체·CDMA 등 첨단 IT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었다. 그러나 WTO 출범과 IMF 외환위기 등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성미전자도 매출 감소를 겪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완영 전 LG정보통신 전무를 사장으로 영입하고 ‘해피텔레콤’을 설립해 무선호출기 사업에 진출하였다. 이후 인터넷 확산과 함께 광통신, 유무선 통합, IMT-2000, xDSL 등 네트워크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1995년 대주주가 동원그룹으로 교체된 뒤 2000년 이스텔시스템즈로 사명을 변경하고 2005년 동원EnC와 합병해 동원시스템즈로 재편되었다.

한진제관은 알루미늄캔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제관(製罐) 업체이다. 롯데칠성음료·동아오츠카 등의 음료업계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캔을 제조하였으며, 일본과 홍콩 등지로도 수출하였다. 2021년 3월 화재로 공장이 전소된 바 있지만 이후 복구하여 현재까지 박달동 620-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⁶

동아유리는 1972년 연합유리공업으로 출발하여, 1978년 동아제약의 계열사에 편입되면서 동아유리공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3년 (주)수석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박카스·판피린·모닝케어 등 각종 갈색 병을 생산하는 유리사업부와 각종 뚜껑(Cap)을 생산하는 플라텍 사업부, 박스류를 생산하는 칼라팩 사업부가 운영되고 있다.⁷

참피온탁구대는 미국에서 탁구대를 수입하던 시기에 국산 탁구대 생산을 목표로 1976년 설립한 탁구용품 생산 전문업체이다. 국제 표준 기준의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생산하면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코리아오픈 등 수많은 국제경기에서 공식 탁구대로 채택되었다.⁸ 참피온탁구대의 전신은 범양상사이며, 원일상사가 범양상사를 인수하여 생산해 왔다. 1970년대는 무거운 고정식 탁구대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참피온탁구대가 조립식 탁구대를 만들어 보편화하였다. 탁구대 1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보통 3일이 소요되며, 5~6회 호분 가루를 입히고 말린 뒤, 사포로 표면을 곱게 갈아내는 고된 작업이 필요하였다.⁹ 현재는 (주)XIOM(엑시움)으로 사명을 바꾸어 탁구대를 생산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기아자동차안양정비사업소, 티피아이, 유창, 신일, 수석농산, 안양지점하이트맥주, 프레스텍코, EASTEL SYSTEMS, 매화 C.M.B, 효성식품, 영진콘크리트, 보원식품, 제일정밀, 성산강업, 현대산업기계, 태웅교통, 조광산업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수석농산은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계열회사로, 1969년 중앙유리공업으로 출발하였으며, 1978년 동아제약의 계열사로 편입되어 동아유리공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1932년 경성부에서 창업주 이름을 딴 ‘강중희 상점’으로 시작하여, 1949년 8월 동아제약을 설립하였다. 이후 1957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본사 및 공장을 준공하였고, 1959년 ‘가나마이신’, 1961년 ‘박카스’, 1964년 종합강장제 ‘박카스-디’를 생산하였다. 1979년에는 동아제약 식품사업부에서 분리하여 동아식품으로 출범하면서 안양에 GMP 공장이 설립되었다.¹⁰ 이후 1992년 동아오츠카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수석농산은 동아유리가 2000년 3월에 흡수 합병한 뒤, 2003년 수석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동아제약에서 사용하는 각종 드링크제 용기와 마개를 제작하는 기업이다.¹¹ 2022년에 당진으로 이전하였다.¹²

태하메카트로닉스는 전자제어장치를 연구·개발·생산하는 업체로, 1995년에 설립되었다.¹³ 회사를 창업한 임상희 대표는 일본에서 수입해 사용하던 굴삭기용 자동제어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로 내시경 수술용 가스 주입기 등의 제어장치, 건설장비와 산업용 임베디드 전자제어 시스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등을 개발·보급하고 있다.¹⁴

이 회사는 전자유압 및 전기동력장치, 센서 네트워크 및 원격관리 시스템, 의료기술 및 시뮬레이터, 로봇시스템, 진동충격 저감 시스템, 인체공학 기반 구동 시스템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1999년 본점 및 공장을 안양시로 이전하고 그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2001년 로봇용 TP 개발을 시작으로, 2013년 의료용 중재시술 로봇, 2015년 보행보조 재활로봇 개발 및 보급 등에 참여하면서 로봇산업 분야로도 진출하였다.¹⁵



공장이 밀집한 박달동 공업지역. 노루페인트, 모트라스 등의 기업 간판이 보인다.

전자제어장치인 MCU(Machin Control Unit)는 기계의 엔진 및 유압 펌프를 효율적으로 제어하여 최적의 엔진 출력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연비를 개선하고 장비를 제어하는 핵심 장치이다. 태하메카트로닉스는 2002년 대한민국 CEO 브랜드파워 대상, 2006년 500만 불 수출의 탑, 2010년 안양시민의 상(산업경제 부문), 2011년 정밀산업 기술대회 대통령상과 기술표준원상, 2014년 국가품질경영대회 서비스 부문 장관상 등을 수상하였다.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37-53의 모트라스 안양공장은 콕핏 모듈(Cockpit Module), FEM 등을 생산하는 모트라스 산하의 공장 중 하나이다. 모트라스는 2022년 11월 14일 설립된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체로,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모비스가 출자하여 설립한 자동차 모듈 전문 제조기업이다. 안양공장 외에도 울산 1공장, 울산 2공장, 화성공장, 서산공장, 아산 1공장, 아산 2공장, 평택 1공장, 평택 2공장, 광주공장이 있다.¹⁶

〈표 4〉 2021년 기준 박달동 소재 업체 및 공장

연번	회사명	생산품	업종명	대표주소	종업원수(명)
1	(주)노루페인트	도료, 페인트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외 3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외 4필지	570
2	모트라스 주식회사	자동차 부품 조립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외 1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37-53	262
3	(주)협신식품	돈, 우육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외 1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298, 외 20필지	180
4	(주)수석	유리병, 병마개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13	147
5	농업회사법인 (주)협신미트	포장육(돈육)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298, 가동 4층	120
6	태하메카트로닉스(주)	런닝머신 외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외 1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21	85
7	에스티씨(주)	busbar, busplate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외 5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37-52	64
8	(주)금천축산 유통	육류가공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 (가금류 제외) 외 1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오리로 15	39
9	(주)창성	몰드베이스	주형 및 금형 제조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285	31
10	웍스탑주식회사	전자통신부품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외 3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95, 3·4·5·6층	29
11	(주)보원식품	와사비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외 1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275번길 19	25
1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협신유통	포장육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298, 가동 3층	22
13	(주)금천에스엠	우육(포장육)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298, 가동 3층 일부	20
1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옥스팜	포장육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298 나동 2, 3층	20
15	농업회사법인 (주)농우육가공	소 부분육 (포장육)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298, 가동 4층 일부	17
16	(주)이지시스	카메라모듈 시스템(홍채인증 카메라 시스템, 실물화상기 외)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95, 2층	15
17	성산강업(주)	몰드베이스 외	주형 및 금형 제조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283, 외1필지	12
18	현대산업기계(주)	카프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275번길 40	11
19	보성주철(주)	상수도 부속품 (이형관)	주철관 제조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204번길 21	9
20	유한회사에스에이알	프린터리본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외 1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30	9
21	(주)사이니 코리아	학생생활복, 근무복, 정복, 교복	남자용 겹옷 제조업 외 3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48번길 28, 1층	8

연번	회사명	생산품	업종명	대표주소	종업원수(명)
22	(주)엘오엘	범퍼 침대, 침구류, 놀이매트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38, 1층 일부	7
23	부광모터스(주)	장애인차량, 탑차류, 특수운송차량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338번길 18, 외 2필지 중 일부	7
24	대림포장	비닐 포장지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275번길 32, 1층(B동)	6
25	기정산업개발(주)	고무제품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460번길 8	4
26	(주)디오티큐	친환경탈취제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외 1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48번길 15, 지하1층	3
27	경산공업	롯데, 케이싱, 비트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204번길 27	3
28	더블유워터(주)	액체 여과기	액체 여과기 제조업 외 1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40, 경민프라자 3층	3
29	디와이에스(주)	휴대폰, 충전기, 전자부품 등	이동전화기 제조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71, 3층	3
30	부곡전자	전력변환장치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외 3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48-1	3
31	주식회사 시니케어	의류, 침구류, 배낭, 가방, 벨트, 침낭 등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외 17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36번길 55, 2층	3

1990년대 이후에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이 급격히 부상하면서, 업계의 선도적인 벤처기업 및 IT기업이 성장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첨단산업과 지식기반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혁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환을 모색하는 등, 박달동 공업지대는 우리나라 산업의 시대적 변화상을 한 공간에서 축적하였다.

4. 50년 동안 박달동에서 제품을 생산하다¹⁷

1970년대 이후 박달동 공업지역에는 크고 작은 기업이나 공장이 새로 들어서거나 이전 및 폐업 등을 하면서 제품을 생산하였다. 그중 노루페인트는 1977년 본사와 생산공장을 박달동으로 이전한 후, 약 50년 동안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박달동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노루페인트의 시작은 국내 최초로 국산 잉크를 만든 대한오브세트잉크에서 비롯된다. 1945년 창립자인 한정대가 서울 회현동에 회사를 설립하고 ‘대한오브세트잉크’라는 간판을 걸었다. 당시 일본 잉크 재고품이 유통되던 상황에서 국산 잉크는 신뢰가 낮



1976년 노루펜인트 안양공장 일대(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았으나, 조선은행권 인쇄에 사용되면서 공인을 얻었다. 1945년 12월부터는 을5원권·을10원권 발행에 사용되었고, 이후 국정교과서와 관공서 인쇄물에도 공급되었다.

초기에는 수요가 많은 검정색 잉크를 주로 생산하다가, 차츰 황색·적색·청색·녹색 등의 잉크도 개발하였다. 그러나 1949년 공장 화재에 이어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여, 원료와 기계를 피난지인 부산으로 이송하였다. 부산에서도 새로 발행되는 한국은행권 인쇄에 참여하여 재무부 직할 인쇄공장에 잉크를 납품하였다. 이 시기부터 상표를 '대한 잉크'로 바꾸었고, 전쟁 중에도 일반 인쇄소 주문이 늘면서 사업이 성장하였다. 1952년 주식회사로 전환한 뒤, 휴전 이후 경제부흥 계획에 맞춰 도료사업 진출을 모색하며 유럽과 미국의 도료업체에서 원료·기술을 확보하였다.

한정대는 독일에서 구입한 노루 그림에 착안해, 남을 해치지 않고 사랑받는 존재처럼 회사도 만인의 사랑을 받으며 발전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아 '노루'를 상표로 채택하였다. 이후, 인쇄잉크 및 도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1955년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공장을 신축하였다. 사세가 확장되면서 문래동 공장의 생산능력이 한계에 달하자, 1973년 새로운 공장부지를 안양시 박달동의 안양천 변에 조성하기로 하고 3만 9,492.5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같은 해 착공에 들어갔다.



2001년 노루표 페인트 안양공장(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박달동의 노루페인트 공장 신축은, 장마에도 침수되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안양천의 제방과 같은 높이로 용지를 조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앞산 하나가 완전히 사라졌다. 공사 중 약 2,000㎡의 옥모래가 채취되었으며, 모두 이를 길조로 여겼다고 전해진다. 이 모래로는 11만 개의 블록과 하수도 토관 등이 생산되었다.

연건평 7,220평에 규모의 박달동 공장은 건물 17개 동에 8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27m 높이의 물탱크, 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식당,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등의 시설을 갖추었는데, 당시 업계에서는 최초였다. 이듬해인 1976년 4월 1일 공장이 준공되면서, 문래동 공장의 잉크페인트사업부와 생산설비가 안양공장으로 이전 설치되었다. 을지로에 있던 본사도 1977년 1월 판매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를 안양공장으로 이전하였다. 본사가 안양으로 이전하면서 같은 해 3월 4일 본사와 잉크페인트사업부를 통합하였다. 안양공장의 준공으로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고용 증대, 신속한 신제품 개발 등 시장 변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준공 이듬해인 1977년 7월에 일어난 소위 '안양 대홍수'로 인해 안양천 제방이 붕괴하여 노루페인트 공장 일부와 창고가 침수되었다. 이 물난리로 인해 기계·원료·제품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거나 유실되었고, 도료 제품 수주에도 큰 차질을 빚었다.

2014년 9월 2일, 노루페인트 공장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에폭시 도료 생산기가 과열되어, 이를 냉각시키기 위해 생산기 내부에 물을 분사하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이 사고로 인해 안양·광명 일대 주민들이 심한 악취와 함께 두통·메스꺼움·눈 따가움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다. 이 사건 이후 안양시와 노루페인트는 공장 이전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안양공장 이전에 대한 기본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안양시는 2031년까지 만안구 박달동 623번지 일원에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¹⁸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예정지의 50%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노루페인트가 이전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2014년 에폭시 증기 유출 사고 당시 공장 이전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노루페인트가 공장 이전이 아닌 연구단지 건립 계획을 발표하여 안양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5. 공장 노동자에서 박달동 주민으로

공업지대 형성에 따른 지역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1970년대 경인공업지역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었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인구나 공업시설이 경인지역으로 분산되면서, 농촌 소읍에 불과했던 안양과 부천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별로 인구 증감의 시기와 패턴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안양과 부천의 인구 성장률은 주목할 만하다. 안양은 1966년부터 1970년 사이에 17.2%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으나, 1970년부터 1975년 사이에는 9.4%로 감소하였다. 이후 1975년부터 1980년 사이에는 다시 17.6%로 증가하였다.¹⁹

1960년대 이후 경기지역의 인구 증가는 경인공업지대를 중심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데, 이는 교통망의 발달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안양에도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영업을 시작한 안양역이 있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박달동과 석수동 일대에 공장지대가 형성되고 전국 각지에서 근로자들이 몰려들었다.

1973년 안양시에 등록된 박달동 소재 24개 업체에는 총 4,79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 이 중 직원 수가 1,000명을 넘는 기업은 현대양행 1개소로, 직원수가 총 1,470명이었다. 직원 수가 200~400명대인 업체는 제일피혁(430명), 동국물산(402명), 대한잉크페인트(314명), 연합유리공업(293명), 동양물산기업(284명), 일산화학공업사(214명) 등 6개소이다. 직원 수가 100명대인 업체는 삼진팔푸(181명), 대동봉제(178명),

동서유리(176명), 삼아알미늄(131명), 서울광학산업(100명) 등 5개소이며, 직원 수가 50~90명대인 업체는 삼아제면공업사(98명), 소영물산(92명), 세릉산업(81명), 화신공업사(68명), 효성농장(68명) 등 5개소이다. 직원 수가 10~40명대인 소규모 업체는 삼애기업(45명), 유안산업사(41명), 대일산업(32명), 세원화학(31명), 삼양금속공업(20명), 한국월(20명), 보원식품(14명) 등 총 7개소였다.

〈표 5〉 1970년대 박달동 공장 근로자

(단위: 명)

연번	기업체명	전체인원	사무원	공장 근로자
1	주식회사 현대양행	1,470	248	1,222
2	제일피혁	430	64	366
3	동국물산	402	32	270
4	대한잉크페인트	314	108	206
5	연합유리공업	293	55	238
6	동양물산기업	284	50	234
7	일산화학공업사	214	6	208
8	삼진팔루	181	33	148
9	대동봉제	178	10	168
10	동서유리	176	12	164
11	삼아알미늄	131	24	107
12	서울광학산업	100	12	88
13	삼아제면 공업사	98	10	88
14	소영물산	92	9	83
15	화신공업사	68	8	60
16	세릉산업	81	22	59
17	유안산업사	41	2	39
18	삼애기업	45	19	26
19	세원화학	31	6	25
20	대일산업	32	11	21
21	효성농장	68	2	16
22	삼양금속공업	20	6	14
23	한국월	20	6	14
24	보원식품	14	2	12
합계		4,783	757	3,876

출처 : 1979년 「안양시 공장등록업체현황(기본실태조사대상)」

공장이 들어서면서 공장 직원들이 박달동 주민으로 유입되었다. 노루페인트에서 25년간 근무한 김세호²⁰도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문래동에서 안양으로 회사가 이전하면서 안양에 들어와 살게 된 사례이다. 김세호는 1950년 5월 10일(음) 충청북도 옥천에서 태어나 한밭중학교와 대전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포천 제6군단에서 군 복무를 마친 후 1973년 노루페인트에 입사하여 1999년 12월 31일 퇴사하였다. 관리직으로 입사한 김세호의 첫 월급은 3만 원이었고, 퇴직 당시의 급여는 380만 원이었다.

관리직은 공개 채용으로 입사하였으나, 현장직은 안양공업고등학교, 안동공업고등학교 등 전국 공업고등학교의 화공과 졸업생 가운데 교장 추천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추천받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 때부터 인턴 형식으로 근무하다가 2월 졸업식 이후 정식 직원으로 발령받았다. 지방에서 올라온 근로자들은 기숙사에서 주로 지냈는데, 당시 200명이 거주하던 기숙사는 시설도 양호하였고, 매점에서 코끼리 밥솥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복지가 좋았다. 남자 직원 같은 경우는 입사 후 입대하게 되면 휴직계를 제출한 후 군 복무를 할 수 있었고, 제대 후에는 하루를 쉬 다음 바로 복직하였다. 군 복무 기간도 근무 경력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30세가 되면 이미 10년 차 경력을 인정받았다.



도시새마을사업으로 간판이 정비된 1977년 박달로 풍경(경기도청 제공)

공장이 문래동에서 박달동으로 이전한 후에는 문래동에서 통근하거나 통근버스를 타고 다녔다. 노량진역에서 안양역까지 30분, 안양역에서 회사까지는 걸어서 20분이 걸렸기 때문에 통근하는 근로자들도 많았다고 한다. 김세호도 1975년 가을, 전세방을 얻어 박달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전철을 타고 통근하였다. 당시 주변에는 노루페인트 외에도 만도기계·동국물산·정우제과·동서유리·동아유리 등이 입주해 있었는데, 안양천이 있어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부지가 국토관리청 소유의 국유지였기에 더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1975년 이사 올 당시만 하더라도 주변은 대부분 논밭이었다. 1980년대까지는 공장이 주를 이루었으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금호타운아파트·신안아파트 등 아파트단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김세호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통장을 맡았고, 퇴사 이후에는 주민자치위원장·안양시통장연합회장·충청향우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의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을 해결하며 박달동 주민이자 주민 대표로 활동하였다.

김세호와 같이 박달동에는 공장 근로자로 일하기 위해 충청도·경상도·전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이주민들이 많았다. 박달동 주민 이영래의 구술에 따르면 박달동 원주민 중에 안방이나 외양간을 방으로 꾸며 월세로 임대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셋방을 놓거나 슈퍼를 운영하여 큰돈을 벌며 빌딩을 올리기도 하였다고 마을 사람들은 기억한다.²¹





박달동 공업지역 일대 통근버스(1987년, 안양시청 제공)



만도기계 통근버스(1987년, 안양시청 제공)



노루페인트 임대 박달동 공업지역 전경



이영래 : (공장들이) 생기는 바람에 동네에 인구가 많이 늘었어. 충청도 경상도에서 올라와가지고 방 얻으러 댕겼어. (중략) 자기네 집 안방이나 외양간을 방으로 꾸며. 어차피 농사를 못 지니까 그래서 거 세주고 그랬지.

만복순대 사장²² : 방세를 받고 장사하고 그랬지. 고도상회는 슈퍼 해서 저 큰 집 지었다니까. 요 지금 빨간 건물 있잖아. 요 앞에 24시점 건물. 그 양반은 여기서 슈퍼 해서 그거 집 지었다.

최성남²³ : 여기가 옛날에 만도기계가 있었잖아요. 만도가 있을 때 그때 만도기계 인원이 참 많았어 요. 많아가지고 그 직장 따라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이영래 : 스텐 철판 갖다가 군대 식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 찍어내고 그러는데. 저 뭐야 포크 스텐 같 그런 거 찍어내는데 얼마나 소리가 나겠어요. 그래도 여기 사람들이 박달리 사람들이 그거를, 여기서 댕기면서 벌어먹는 맛에 그거를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놔둔 거지. 직장 댕길라고, 벌어먹으려고. 농사짓는 것보다 낫거든요. 한 달만 댕기면 그래도 그때 당시 몇십만 원씩 봉급을 탔으니까. 그래서 방새 소리가 나도 그냥 참고 이 사람들이 살은 거예요.

제조업 중심의 공장지대였던 박달동에 최근 변화의 기운이 돌고 있다. 2021년 ‘박달동 공업지역 정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이 일대를 지식·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빅테크 안양(Big Tech Anyang)’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박달동 공업지역과 호현마을 일대가 장기간 도시 정비가 추진되지 않아 도시 환경의 열악화, 환경유해물질 발생, 산업 지원 기능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도시 슬럼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 효율화, 고용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과 시민이 상생하는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빅테크 안양) 조성사업’이 기획되었다. 박달2동(호현동) 623번지 일원 약 39만㎡ 규모의 부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31년까지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이다.²⁴

안양시는 해당 지역에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여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2024년 10월에는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가 입주 기업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 입주 기업의 근로자들은 ‘노동자연대’를 결성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하는 등, 개발 계획을 둘러싼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 지역 발전과 기존 기업, 근로자 간의 이해



2001년 박달동 공업지역(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향후 개발 추진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 방안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인다.²⁵

박달동 공업지대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산업구조의 변화, 지역 경제의 발전,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산업화 초기 단계였던 1970년대는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기로, 박달동은 경공업 및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지역으로 개발되었다.

이 시기 박달동에는 자동차 부품·잉크 및 페인트·유리병·가죽·고무 제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 중심의 공장이 다수 입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이 지역으로 유입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박달동은 전자 기기 및 기계 산업 등으로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장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산업 시설의 노후화와 환경 문제 등으로 일부 공장들은 폐쇄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감도(안양도시공사 제공)

2000년대 이후에는 기존 공업지대 일부가 상업적 주거지로 개발이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공업지대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산업과 관련한 시설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최근에는 박달동 구도심의 재개발과 함께 지역 경제의 다변화를 목표로 하는 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등, 한국의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註

1. 남, 70대, 충훈동 출신, 2022년 11월 16일 제보.
2. ㈜디어스아이 홈페이지(<http://www.daihanink.com>).
3. ㈜연합유리 홈페이지(<http://www.yeonhap.co.kr/>).
4. 「가족자켓 수출 추진 제일피혁 만불 상당」, 『매일경제』, 1975년 02월 01일(<https://www.mk.co.kr/>).
5.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https://ngoanyang.or.kr/>).
6. 「한진제관 대형캐 대일수출 추진」, 『매일경제』, 1988년 5월 6일 (<https://www.mk.co.kr/news/economy/818875>).
7. 동아수석 홈페이지(<http://www.isooseok.com>).
8. ㈜엑시움 홈페이지(<https://xiom.store/add/champion>).
9. 「한국 탁구대 회사 역사」, 제맥스 탁구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ttnara777/221020178738>).
10. GMP공장은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을 준수하여 운영되는 공장을 의미한다.
11. 「㈜수석 영업관리 사원모집」, 『경기일보』, 2011년 8월 31일 (<https://www.kyeonggi.com/>).
12. 「수석, 800억원 투자 안양공장 이전... 합덕산단에 '동지' 추진」, 『이코노미리뷰』, 2022년 3월 8일(<https://www.econovill.com>).
13. 태하메카트로닉스(<http://www.taeha.co.kr/>).
14. 「임상희 태하 대표, 운동기구로 180억 매출」, 『매일경제』, 2005년 12월 16일(<https://n.news.naver.com>).
15. 태하메카트로닉스(<http://www.taeha.co.kr/>).
16. 모트라스(<https://motras.com/>).
17. 이 장은 『노루 70년사』 75~150쪽의 내용을 주로 인용하였다.
18. 안양시는 2031년까지 만안구 박달동 623번지 일원에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면적은 31만㎡로, 사업비는 약 1조 3,800억 원이다.
19. 김보현, 「사회변동과 경기도민의 생활」, 『제3장 경기도의 사회변화』, 281~283쪽.
20. 남, 1950년생, 노루페인트 근무, 박달동 거주, 2025년 2월 15일 제보.
21. 안양도시공사, 「2022년 11월 16일 충훈부 이영래, 최성남 구술조사」 자료, 2022년 11월 16일.
22. 여, 호현동 만복순대 운영, 2024년 2월 6일 삼봉경로당 집담회 제보.
23. 남, 삼봉마을 노인회장, 2024년 2월 6일 삼봉경로당 집담회 제보.
24. 안양도시공사(<https://www.auc.or.kr/>).
25. 「안양 박달 노동자연대 "일터 빼앗는 개발계획 철회하라"」, 『조선비즈』, 2024년 12월 11일(<https://biz.chosun.com>).

제4장

필수산업이 된 박달동의 도축장 ‘협신식품’

유현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1. 안양의 도축장

박달동에는 1972년 설립된 안양시 유일의 도축 시설인 협신식품이 자리하고 있다. 도축장은 악취·폐수·도살 과정으로 인해 도심 내 입지가 어려운 시설이므로 주거지역과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양의 도축장이 박달동 현재 위치에 입지한 이유도 설립 당시에 이 지역이 인근 마을과 떨어진 곳이었고,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입지 조건 탓에 도축장 일대는 쓰레기 매립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¹

박달동은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과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도심 외곽 지역이므로, 냉각 유통망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도 도축 후 신속한 운송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박달동은 수도권 축산물 유통을 위한 입지로 적합한 지역이 되었다.

안양에 도축장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912년에 조선총독부가 전국의 도축장을 1·2·3등지로 구분하여 지정하였는데, 안양 도축장은 3등지로 분류되었다는 기록²으로 보아, 1912년에는 안양 지역에 도축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천·개성·수원의 도축장이 1등지, 영등포·안성·평택 등의 도축장이 2등지였다. 당시 안양의 도축장은 장내동 현재 안양5동 경로당 자리에 있었다. 도축장 주변으로 밤나무숲이 있어 인적이 드문 지역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주거지가 확대되고, 도축장 시설이 낡게 되어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943년에는 안양 도축장 이전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었다.³

장내동에 있던 안양 도축장이 언제 이전 또는 폐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1945년 8월 8일 『조선총독부 관보』의 “시흥군



1920년 지형도에 보이는 안양 도축장(현재 안양5동 경로당 근처)

도수장 이전·신축” 기록으로 보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의 시흥군 도수장이 안양 도수장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시흥군청이 있는 영등포가 1936년에 서울로 편입되었으므로 당시 시흥군의 중심이었던 안양의 도축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948년 1월 30일 『경향신문』에 영등포 도축장이 낡고 비위생적이라 폐쇄되었다는 기사가 있어, 1945년 신축 이전한 도축장은 안양 도축장으로 짐작된다.

안양 도축장이 장내동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전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1964년 「시흥군도축장조례개정조례」⁴에는 도축장의 지번이 안양읍 박달리 865-1번지로 되어 있어, 적어도 1960년대 중반에는 박달리에 안양 도축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달리 도축장의 위치는 호현천과 안양천 합류 지점 근처로 추정된다. 현재의 도축장인 협신식품이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였다는 관계자의 증언으로 보아, 박달리 865-1번지의 도축장이 현재 자리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58년 주한미군과 외국인에게 한국산 육류를 공급하고 수출하기 위해 냉동시설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도축장이 11월 26일 안양에서 준공식을 거행했다고



동양축산공업주식회사 안양도수장 준공식 기사(『동아일보』, 1958년 11월 27일)

한다. 동양축산공업주식회사가 서독에서 시설을 도입하여 48,000달러의 공사비를 들여 완공하였다고 하며, 1일 도축량이 소 200마리, 닭 3,000마리였다. 그러나 도축장의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다.

2. 도축산업의 성장과 협신식품의 등장

협신식품은 1972년에 현재 위치에 설립된 도축장을 김익환 대표의 부친 김병두가 1974년 혹은 1975년에 인수하면서 이름을 협신식품으로 붙인 것이다.⁵ 김병두는 황해도 출신으로 수원축협(당시 축산기업조합중앙회)에서 오래 근무하였다. 상무로 재직하면서 수원 평동의 도축장을 민영으로 전환시켰다고 한다. 집안 사정으로 인해 수원축협을 그만둔 김병두는 용인 신갈에 있던 작은 도축장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청축산과에 근무하던 정진홍이 김병두에게 안양 도축장을 인수하도록 요청하였다고 한다. 당시 안양 도축장은 운영난을 겪고 있었던 듯하다. 그래서 정진홍이 수원축협 근무



1960년대 박달동 도축장 일대(1966년,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도축장이 들어서기 전의 모습으로, 도로변 건물은 근명중학교이다.



1970년대 박달동 도축장 일대(1974년,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원으로 표시한 것이 도축장 협신식품이다.



협신식품 창업자 김병두

경력도 있고 이미 신갈에서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던 김병두에게 안양 도축장을 맡아서 운영해달라고 청한 것으로 보인다. 신갈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던 김병두는 안양 도축장을 인수하는 대신, 정진홍이 안양 도축장 대표를 맡아주기를 원했다. 이런 사정으로 김병두가 안양 도축장을 인수하면서 협신식품으로 출발하였다고 하는데, 정확한 인수 시점은 알지 못한다.⁶ 도축장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여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였지만, 두 사람은 일찍부터 축산업에 종사하였으므로 도축업 진입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본격화되면서 육류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육류 요리의 다양화와 인기 확산에 힘입어 1980년대에 들어서는 육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⁷

그러나 이러한 소비 증가에 비해 육류 공급은 원활하지 않아 '소고기 파동'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농번기인 4월~5월에는 소고기 출하가 감소하여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반복되었다.⁸ 이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식생활에서 쇠고기가 돼지고기나 닭고기보다 선호되었기 때문이며,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증가와 함께 육류, 특히 소고기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한 영향이 컸다. 기존의 불고기와 갈비찜 중심이었던 조리법이 로스구이, 징기스칸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소고기 소비량은 더욱 증가하였다.

정부는 소고기의 소비 억제를 위해 도살량을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소의 도살 허가량은 1964년에는 32만 마리였는데, 1969년에는 21만 마리로 줄었다. 1971년경 연간 소고기 소비량이 50만 마리 내외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밀도살되는 소가 매우 많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⁹

김병두와 정진홍이 1970년대 중반에 안양 도축장을 인수하여 도축업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은, 이러한 육류 소비 증가에 발을 맞추는 것이었다. 김병두는 신갈 도축장을, 정진홍은 협신식품을 맡아 운영하였다. 당시 안양에는 일반 도축장인 협신식품 외에 대화식품이라는 간이도축장이 존재하였다.¹⁰ 일반 도축장과 간이도축장은 운영 허가, 시설 규모, 도축 처리 능력, 유통 방식, 위생 관리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

1980년 당시 협신식품은 약 400평(1,322㎡) 규모의 단층 건물이었다. 공간이 협소



축산기업조합 행사에 참여한 정진흥(1980년대, 박성배 제공) 오른쪽이 정진흥이다.

해지자, 조금씩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 자리잡은 탓에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워서, 계류장을 무허가로 늘려서 사용하기도 하였다.¹¹ 도축장 내부에는 도축작업장·검사실·냉동 및 냉장 창고·사무실 및 직원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야외에는 가축 대기 공간인 계류사와 오물 유치소, 오·폐수 처리 시설 등 정화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생체검사실은 계류사 내에 간이 칸막이를 설치하고 일부를 사용하였으며, 도축작업장에는 고기 걸이 시설인 도체현수기 등이 설치되었다.¹² 20여 명 규모의 직원은 대부분 도축작업을 하는 도부(屠夫)였고, 그 외에 운송기사와 사무직원이 몇 명 있었다. 검사관이나 수의사는 관리 기관에서 파견하였다.¹³

도축장은 국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졌다. 특히 1970~1980년대는 위생 기준이 낮고 시설이 낙후된 탓에, 대부분의 도축장이 검사 때마다 시설 미비와 위생 관리에 대해 시정을 요구받았다.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약하던 1970~1980년대는 오·폐수 관리가 철저하지 않았다. 물론 정화시설을 거쳐 내보내긴 하더라도 요즘처럼 깨끗하진 않았다. 협신식품

쪽에서 호현마을 인근 논으로 흐르는 개울이 있었는데, 이 개울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도축장에서 나오는 핏물이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어 비료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한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믿은 것이다. 그래서 호현마을 주민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협신식품 직원 중에는 회사와 가까운 호현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협신식품에서는 명절에 돼지를 한 마리 마을에 제공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호현마을 주민 중에는 도축장 근처를 지날 때마다 나는 냄새와 도로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이 싫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¹⁴

1981년, 협신식품은 일반 도축장에서 특별지 도축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허가를 요청하였다.¹⁵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이던 도축장 현대화 계획에 부응함과 동시에, 안양·시흥 반월공단 지역 등 광범위한 육류 공급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¹⁶ 또한,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와 육류 수요 확대를 감안할 때, 보다 현대적이고 대규모의 위생적인 도축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협신식품은 도축장 시설을 보완하고,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육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를 취하하였다.

3. 도축 환경 변화와 협신식품의 대응

현재 협신식품은 창업자 김병두의 아들 김익환이 대표를 맡고 있다. 김익환은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협신식품에 들어왔다. 그때까지 협신식품은 정진흥이 대표로 있었다. 김익환이 협신식품 경영에 참여하게 된 것은 수입육 지육을 할당받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매일 소 4마리 분량의 수입육 지육이 협신식품으로 들어왔다. 당시 수입 지육은 대부분 축협이 우선권을 가지고 도축하였는데, 일부는 개인에게 불하되어 상당한 이권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김익환 : 매일 네 마리예요. 그때는 축협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어. 축협이. 그러면서 이제 개인한테 조금씩 불하해 주기 시작해서 축협에서 다 하질 못하니까. 많이 하는 데는 한 7~8두 되고, 저희 같은 좀 저기한 데는 4두 했었는데, 그때 뭐 그러니까 갑자기 뭐 돈도 매일 결제해야 되고. 또 인원도 육가공 인원이 한 20명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회사가 팽창이 된 거지 뭐. 그 돈 관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처음 여기 들어온 게 경리, 경리과장으로 들어왔어.

김익환 : 지육 전체가 들어와서 냉동을 하면 우리가 또 그거를 또 녹여서 가공해서 포장해서 팔고 그랬지. (중략) 그러니까 그때는 수입육이라는 자체가 싼 거고. (중략) 소 한 마리 사면 반 가까이 남을 정도였었어.

수입육은 부산물 없이 냉동 상태로 입고되어 해동 후 바로 가공할 수 있었다. 수입육은 도축 공정에서 여러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한우 도축보다 작업이 간결하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컸다. 예를 들면 계류, 방혈, 머리·족발·껍질제거·부산물 제거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었다. 협신식품으로 들어오는 수입육 물량은 하루 4마리에서 최대 7~8마리까지 확대되었다.

김익환 : 그때는 이제 이게 돈 되는 사업이니까 쪽 하면서 하다가 자네들은 이제 안 되는 거야. 너무 많으니까 그때 왜냐면 이 수입육이라는 게 이런 사업이라 하잖아요. 이익금이 굉장히 좋았어. 그때만 해도 우리는 도축 수수료라는 걸 먹어. 요만큼 먹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조업체와 비슷하게 정부에서 수입한 걸 내가 받아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이득금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가.

수입육을 받기 전까지는 협신식품은 도축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였으므로 직원의 월급을 주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도축 수수료는 1993년 10월에 승인제에서 자율화 요금제로 변경되었다. 도축보다 유통에서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도축한 소를 가져가는 정육업자들이 도부에게 팁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¹⁷

수입육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것은 1978년부터 시행된 수입 완전 자유화 정책과 이에 따른 농림축산 수입 확대 정책의 영향이 컸다.¹⁸ 정부는 육류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소와 돼지 사육 농가를 확대하기 위해 양돈업과 축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외국산 송아지를 도입하여 사육 농가를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한우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르렀고, 1983년에는 소고기 가격이 50% 이상 폭락하면서 축산 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 소고기 파동이 일어났다.

한우 가격이 폭락하면서 한우 사육 농가들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 도축을 미루거나 조절하였다. 이에 따라 도축장들도 도축 물량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협신식품도 도축 물량 감소에 따라 주 수입원인 도축세와 도축 수수료 감소로 타격을 입었으나, 수입육 배분을 통해 손실을 상쇄하면서 점차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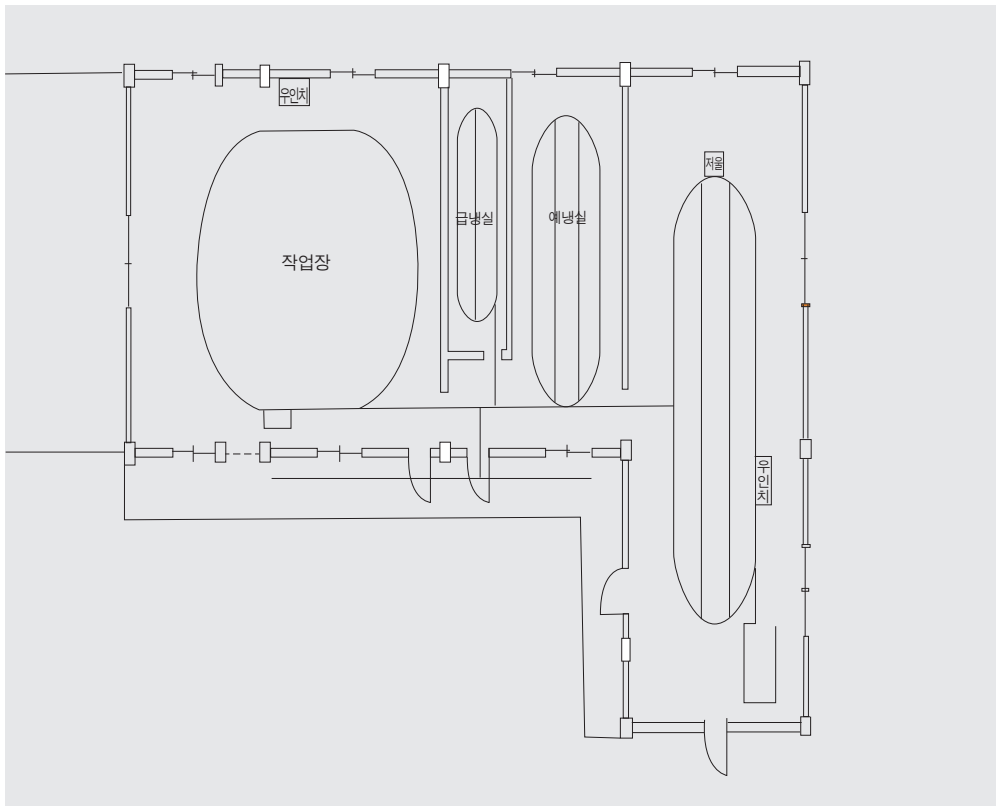
이뿐만 아니라 도축산업과 축산물 유통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1969년부터 시작

된 지방육 반입 정책은 도축산업과 축산물 유통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서울시는 당시 부족한 육류 보충을 위해 경기도 내 4개 특별지 도축장에서 생산된 지방육만 반입하도록 제한하였으나, 이후 정책이 점진적으로 완화되었다.

1976년에는 지방 특별지 도축장의 지육을 서울 도매 시장에서 상장하는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하였고, 이어서 지방 농·축협 도축장에서 생산된 지방육 반입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농·축협 이외의 지방 특별지 도축장에서 생산된 지방육의 서울 반입은 다시 금지되면서, 반입 허용과 금지의 반복으로 육류 공급의 변동 폭이 확대되었다.



협신식품 김익환 대표



협신식품의 현대식 도축장 시설 평면도(1981년, 안양시청 제공)



2020년대 협신식품 도축시설 내부(협신식품 제공)

정부의 규제 완화와 강화가 반복되면서 육류 공급의 불안정과 가격 변동이 심화되었으며, 축산물 유통 시장은 지속적인 혼란이 초래되었다.¹⁹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육 반입제도를 폐지하고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설립된 축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의 활성화와 함께 지방 특별지 도축장의 재정비 강화, 지방육 반입금지로 축산물 유통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²⁰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도축 시설과 유통과정의 위생 개선 및 환경개선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작업장 위생 기준 강화와 검역 절차 의무화를 포함한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부터는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액과 동물성 유기물이 포함된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 및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환경오염 방지 노력이 시작되었다. 일부 도축장에서 폐수 정화가 미흡해 인근 하천이 심하게 오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협신식품도 오·폐수 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협신식품이나 도축장들은 매년 시설 위생과 환경 문제로 감독기관의 관리를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는 1982년부터 86아시아게임 88올림픽이라는 메가 이벤트를 대비하여 도시 미관과 인프라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 공원화, 하천 정비, 쓰레기 처리 등 환경개선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각되었다.²¹ 특히, 안양천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으로, 1970~198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 확장으로 인해 오염도가 높은 하천 중에 하나로 꼽혔다. 1982년 5월, 안양천이 폐수가 넘쳐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²² 이에 따라 오염된 하천을 정화하기 위해 안양시는 1987년 당시 박달동에 1단계 하수처리장을 착공하여 1992년 완공하였고, 정화사업 시행과 분뇨처리장의 준공 등을 통해 안양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일부 구간에

서는 물고기가 찾아오는 등의 환경 회복 조짐을 보이기도 하였다.²³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양천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도축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하천 오염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협신식품은 시설보완 명령과 함께 환경보전법에 따른 강력한 조치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협신식품은 연차별 도축장 정비 계획 수립과 용수 검사 등을 통해 환경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였다. 이후 도축장 환경개선과 시설 현대화에 노력하면서 1987년, 주식회사 협신식품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4. 협신식품의 성장과 축산물도매시장 개설

협신식품은 축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여 국내 축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단순 도축업을 넘어 도축·유통·판매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업계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²⁴ 1980년대 후반, 소고기 파동 이후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설립된 축산물도매시장의 기능 활성화와 유통의 일원화가 추진되었다.²⁵ 당시 지방육 반입 제한 등의 조처나 복잡한 유통 구조로 인해 가격 불안정성과 높은 유통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도축된 고기가 ‘수집상-중간도매상-정육점 및 소매상’을 거치면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복잡한 중간 유통과정을 축소하고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도축장과 도매시장이 결합한 시장 구성을 논의하였다.²⁶

1980년대 중반까지 도축 시설이 미비한 상황에서 소규모 도축장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비교적 위생적이고 현대적 시설을 갖춘 특급 도축장이 증가하였다. 농촌 지역에 산재한 소규모 도축장이 쇠퇴하고, 소비지 지향과 대규모화의 입지 변동 추세에 따라 도시 근교에 대규모 도축장이 입지하면서, 도로 및 수송 수단의 발달과 도축장 난립에 기인한 경영 악화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축장의 수는 줄었지만, 도축장 시설의 대형화로 도축량은 확대되었다.²⁷

이에 전국 대도시에서 유통과 도축을 병행하는 도매시장을 개설하기 시작하였다.²⁸ 기존 도축장은 낙후된 시설과 낮은 효율성으로 경쟁력을 잃었고, 이에 따라 대형 도매시장이 직접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도축-유통-판매’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박달동 협심 식품

1989년에는 전국 대도시에 9개 소, 1991년에는 안양·안산·충주 등 중소도시까지 확대되었다. 1996년에는 전국 주요 도시 15곳으로 늘려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였다.²⁹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는 소규모 도축장을 줄이고 대형 도매시장과 연계된 대규모 도축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가격 마진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이외에도, 경제적·운영적 효율성을 개선하는 장점도 컸기 때문이었다. 도축과 유통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신속한 유통이 가능해졌고, 도매시장이 직접 도축량을 조절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어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20년대 새롭게 구축한 협신식품 경매장·중매인식(상) 및 현대식 도축장(하)(협신식품 제공)

협신식품은 1987년 법인을 설립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94년에는 도축 시설 근대화 시책에 따라 현대식 도축장으로 시설을 증설하였다. 협신식품 창립 이후 첫 대규모 공사였다고 한다. 1997년 9월, 안양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내려졌으며,³⁰ 협신식품은 이에 발맞추어 1998년 8월 도축장 시설을 증설하고, 11월에 안양시 축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하였다.³¹ 안양시 축산물도매시장은 소·돼지 도축뿐만 아니라 수입육 경매까지 함께하는 통합 유통 플랫폼으로 설립되었다. 최신 시설과 현대식 전자경매 시스템과 경매장을 갖추었고, 식육가공업 및 축산물 보관업까지 병행하여 판로 개척에 성공하였다.³² 협신식품은 경기도 서남부의 광명시·안산시·시흥시·의왕시·군포시·과천시·안양시를 아우르는 도축 권역을 가지고 있으며, 부천공판장과 함께 가장 성공한 축산물도매시장으로 꼽힌다.³³

예전에는 관내 7개 시와 경기권에서 도축 물량이 들어오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그 비중이 10%도 채 되지 않으며, 대부분 충청도·전라도·경상도에서 들어오고 있다. 경기도는 대부분이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나 돼지를 기르는 축산 농가를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협신식품에서는 대부분이 경매 도축 형태로 이루어진다. 축주가 도축 의뢰를 하면, 도축장이 그 도축 물량을 맡아 도축부터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경매방식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이때 도축장은 경매세·도축 수수료 등의 수입을 얻고, 축주는 도축세를 내게 된다. 도축이 완료되면, 축주에게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경매 금액을 바로 전달하게 된다.

2002년에는 안양시 축산물도매시장이 민영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안양시장이 개설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이 투입된 시장이었기 때문에 민영 전환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후 안양시 축산물도매시장은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민영으로 전환하면서 소 부분육 경매를 개시하였고, 돼지 HACCP(해썹) 인증을 받았다.³⁴ 2006년에는 돼지 부분육의 경매 개시, 2007년에는 육가공 공장 개설, 2008년에는 부분육 전국 영업을 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섰다. 결국, 협신식품은 안양시 축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함으로써 도축·유통·판매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축산물 유통 혁신을 주도하면서 안정적인 유통망을 형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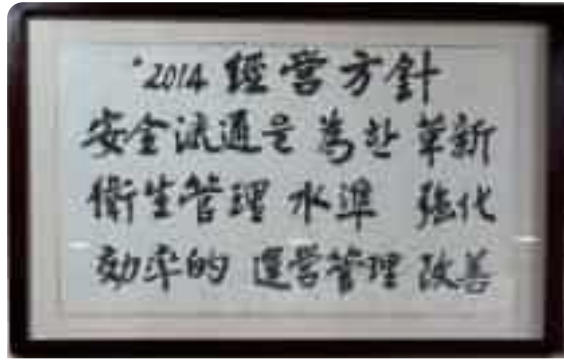
5. 협신식품, 도축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다

협신식품은 경기도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도축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50여 년 동안 박달동의 터줏대감으로서 혐오시설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안양과 인근 지역에 질 좋은 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2012년 도축장의 현대화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65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대대적인 시설 개선으로 이어졌다.

2012년의 시설 개선의 핵심은 덴마크 SFK 시스템(현재 SFK LEBLANC 또는 Frontmatec)을 도입하여 도축 공정 전체를 자동화하고, 동시에 위생과 안전을 극대화하는 최신 설비를 갖추는 데 있었다. 이 시스템은 가축의 계류부터 도살·방혈·부산물 처리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자동으로 진행하며, 인체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HACCP 기반의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신식품의 도축장 개편은 단순한 시설 현대화

를 넘어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지역 주민의 민원은 크게 줄었고, 도축장이 단순한 도축 시설을 넘어 산업단지나 축산물도매시장으로 재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³⁵

김익환 대표는 아버지를 이어 도축업에 몸담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



협신식품 2014 경영방침

다. 건전한 도축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예를 들면, 탕박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축 공정을 단순화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축산업 생태계가 사료업계와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함으로써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의 역할도 하고 있다.

최근 사료업계는 배합사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 판매를 넘어 양돈업에 직접 진출하고, 자체 농장을 운영하여 고객 농가를 내부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사료 판매처 확보와 함께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한다. 축산업계 역시 도축, 육가공 등 전체 가치 사슬을 내부화하는 수직 계열화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외부에 의존하던 기존의 도축 공정을 자사 계열 농가 및 자체 운영 시설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독립 도축장의 역할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양돈업의 수직 계열화는 대형 사료 회사가 농가를 자사 계열로 편입시켜 도축과 가공까지 직접 관리하게 만들으로써 기존 도축장의 생존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양계·양돈·한우 사육 농가의 종속으로 이어져 기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김익환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도 기존 도축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협신식품은 도축장의 위생 기준을 높이고, 신선한 축산물을 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도축장 내에 정육점을 운영하고, 이곳을 이용하는 중개인, 협신식품 직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직영 정육식당(고미정)을 개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신식품은 도계장, 안양생활쓰레기적환장, 정선골재 등의 시설이 인근에 들어서면서 지속적인 민원 발생 시설로 인식되었다. 최신 시설을 갖춘 협신식품의 도축장은 악취나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음에도 인근의 도계장과



협신식품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익환 대표(2015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함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항의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협신식품에서는 부녀회와 통·반장,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도축장 내부를 공개하고 악취 발생 시설이 아님을 입증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협신식품의 이전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안양시 및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2025년까지 이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전 비용과 재투자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이전을 간단하지 않다. 안양시에서도 이전 관련 비용을 보상하거나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전 논의는 현재 공전하는 중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이전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축장이 현대식 축산업의 중심 시설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도축업은 축산과 함께 식생활의 필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산업 육성 지원이 부족한 점 또한 아쉬운 부분이다. 대부분의 도축장은 냉장 및 냉동창고를 전기로 가동하는 관계로 운영비용이 매우 높으며, 특히 2023년 최근 전기요금이 약 50% 상승하면서 큰 비용 부담을 겪고 있다. 도축장은 물과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산업적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협신식품 김익환 대표는 도축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지만, 박달동에서 50년을 이어온 역사 깊은 기업이라고 말한다. 현재 230여 명의 직원을 둔 큰 기업으로 성장

하였으며, 2012년 650억 원을 투자해 시설 현대화를 단행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한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한다. 그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육류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임을 자부하며, 현대 사회에서 육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깨끗하고 위생적인 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앞으로도 아들이 대를 이어 안양의 향토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註

1. 김익환 협신식품 대표의 2025년 1월 11일 제보에 따르면 도축장 신축공사 당시 매립된 연탄재 처리에 약 2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2. 『조선총독부 경기도경무부 고시 제1호』, 1912년 9월 10일.
3. 『조선총독부 관보』, 1943년 7월 27일.
4. 『시흥군도축장조례개정조례』 제77호, 1964년.
5. 김익환은 정확한 인수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6. 김익환 제보.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육류 소비구조의 변화와 전망』, 1999.
8. 「도축선은 정책 빈곤-말썽 빚는 소고기 공급, 소비자만 큰 골탕. 부작용 막을 적절한 대책 세워야」, 『매일경제』, 1969년 3월 10일.
9. 「수요는 늘고 공급은 딸리고, 쇠고기」, 『조선일보』, 1971년 3월 31일.
10. 안양시청 조례, 1979년 7월 24일.
11. 김익환 제보.
12. 1979년 7월 13일 축산물작업장(도축장)시설검사결과조치, 1979년 11월 20일 축산물작업장시설검사결과(시설보완 및 시정조치), 1980년 3월 26일 축산물작업장(도축장)시설변경허가 및 계류재조절, 1980년 5월 7일 축산물작업장시설검사결과통보, 1980년 12월 5일 도축질서확립에 따른 행정지시, 1980년 12월 11일 준공검사완료, 1980년 12월 8일 축산물작업장시설검사결과조회(시설개수), 1980년 12월 24일 축산물작업장(도축장)시설변경준공검사, 1981년 1월 20일 도축질서확립, 1981년 4월 29일 축산물작업장(도축장)폐수처리절차, 1981년 6월 24일 축산물작업장(도축장)시설검사결과조치통보, 안양시청 조례.
13. 김익환 제보.
14. 비그라운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박달동 호현마을 마을기록화 사업」; 김익환은 주유소가 들어올 때 마을에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면서 관계가 많이 틀어졌다고 한다.
15. 안양시청 조례, 「특별지 도축장 허가 신청 전달」, 1981년 4월 22일.
16. 국가기록원 조례, 「특별지 도축장 신청서류」, 1981년 4월.
17. 김익환 제보.
18. 다음 자료를 참조하였다. 「수입자유화와 농림축산」, 『조선일보』, 1978년 2월 1일; 「소고기 수입 완전 자유화가 유리할 듯」, 『조선일보』, 1978년 3월 14일; 「來年(내년)중 經濟企劃院(경제기획원) 77개品目輸入自由化(품목수입자유화)키로」, 『매일경제』, 1979년 11월 16일; 「企劃院(기획원) 原糖(원당)·原麥(원맥)등 輸入自由化(수입자유화)」, 『매일경제』, 1979년 5월 8일; 「商工部(상공부) 輸出入(수출입) 절차 대폭 간소화 輸入自由化(수입자유화) 점진적 확대」, 『매일경제』, 1980년 4월 2일.
19. 「냉장 냉동시설을 갖춘 1급 도축장에 한하여 소재지 이외 시군 반출 허용(지육 반입규정 : 고시 85-38호)」; 「黃(황)농수산, 下落(하락)하는 소값 安定對策(안정대책) 발표」, 『조선일보』, 1985년 7월 12일; 「地方(지방)쇠고기 서울搬入(반입) 전면許容(허용)」, 『매일경제』, 1985년 7월 11일.
20. 「축산물 유통 일원화 시급」, 『매일경제』, 1982년 9월 4일.
21. 「88서울올림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80년대 서울이야기」, 서울역사박물관, 2018년 7월 29일 게시물(<https://museum.seoul.go.kr/>).
22. 「안양천 사경 폐수 홍수 생태계 파괴, 하천변 풀도 말라 죽어」, 『동아일보』, 1982년 4월 16일.
23. 다음 자료를 참조하였다. 「안양천 2단계 하수처리장 5년 5개월 만에 준공」, 『동아일보』, 1986년 7월 18일; 「안양, 군포, 의왕 하수 60만톤 정화, 안양천 생태복원 계기」, 『오마이뉴스』, 2003년 05월 22일(<https://www.ohmynews.com>).
24. 김익환 제보.
25. 「박농수산 농어민과의 대화 요지」, 『경향신문』, 1984년 12월 21일.
26. 김명환·김진석, 『축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의 적정임지와 운영 개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27. 위의 글.
28. 위의 글.
29. 「농, 수, 축협 유통 기능 강화」, 『매일경제』, 1991년 6월 10일.
30. 「안양시 고시 72호 도시계획시설결정」, 협신식품 팜플렛, 1997년 9월.
31. 「축산물시장 7일 문 열어」, 『매일경제』, 1998년 11월 4일.
32. 김기현, 「도축장 운영실태와 경영 효율성 분석」,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33. 위의 논문.
34. 위의 논문.
35. 「안전·위생은 기본, 동물 복지 세심히 살피는 '첨단' 도축장」, 『축산신문』, 2014년 10월 13일.

04

호현마을을 기록하다

제1장 호현마을의 삶과 공간

제2장 지도와 항공사진으로 보는 호현마을의 변화

제3장 호현마을의 의례 생활

제4장 호현마을 사람들

제1장

호현마을의 삶과 공간

정연학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선도문화학과 특임교수



1. 호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농경 마을

호현마을은 안양시의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다. ‘호현(虎峴)’은 ‘범고개’라는 순우리말을 한자화하여 부르는 이름으로, 지역 토박이들은 ‘범고개’라는 지명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산세가 험하고 나무가 우거져 호랑이가 많이 살았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지명이다.

범고개는 박달동과 시흥시 목감동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로, 예전에는 고갯길이 험하고 으스스하여 강도와 도둑 등이 득실거리 ‘도둑놈고개’라 불리기도 하였다. 이곳은 안양에서 곤두레미고개를 넘어 안산 지역으로 통행하던 시기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나, 안양역에서 안산으로 가는 신작로가 범고개를 통과하게 되면서 통행이 많아졌다. 1933년 12월에는 안양-군자 간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3등도로가 완공되었다.¹ 현재는 차량 통행의 편의를 위해 고개의 높이가 낮아졌다. 1976년 안양-수인산업도로 간 포장 공사 때 아스팔트로 포장되었으며, 1991년에는 박달로 확장공사로 4차선으로 넓혀졌다.

범고개는 소금고개로 불리기도 하였다. 안양의 토박이 중에는, 염전에 가서 소금을 몰래 사다가 소매상인에게 팔아 그 돈으로 보리쌀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었다는 옛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략 1950~1960년대의 경험으로 보이는데, 당시 소금은 전매품이었으므로 개인이 염전에서 소금을 사다가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그러나 먹고사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소금을 몰래 파는 염전의 염부도, 한밤중에 소금을 사러 염전까지 걸어서 다녀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알음알음 소금을 밀거래하기도 하였다. 어두운 밤길을 무거운 소금을 지고 걸어오다가 범고개에 이르면 잠시 쉬어가기도 하였다. 소금을 가지고 범고개를 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는 소매상인들은 범고개에서 기다렸다가 이들에게 팔기도 하고, 직접 안양 구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호현마을 표지석

1940년대 들어서 일제가 당시 박달리의 수리산 골짜기를 군용지로 수용하면서 이 일대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이로써 삼봉천을 끼고 발달한 농경지 주변의 자연마을들이 폐동되었다고 한다. 이주한 사람들은 인근의 마을로 흩어져 새로운 터전을 일구었다. 군용지 조성으로 폐동된 마을 외에 남은 박달리 자연마을은 호현마을과 필동이었다.

호현동 8통 1~3반에 속하는 호현마을은 응달말·간땃말·양달말로 구성되어 있었다. 응달말은 보원식품 일대, 간땃말은 호현경로당 일대, 양달말은 현대건설사 일대를 가리킨다. 이 중 간땃말이 가구 수가 가장 많았고, 응달말, 양달말 순으로 가구 수가 많았다고 한다. 토박이들이 농경지를 팔고 나가면서 그 자리에 공장이 들어와 옛 모습을 살필 수 없게 되었지만, 세 곳의 마을 입구에는 ‘호현마을’이라 적힌 표지석이 서 있다.

호현마을은 마을 서쪽의 산지에서 흘러내리는 호현천이 동북 방향으로 흐르며 일대의 논에 물을 공급하였다. 간혹 논에 물 대는 것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고 한다. 호현천은 안양천에서 물고기가 올라왔고 게와 가재가 사는 하천이었다. 장마철에는 하천이 범람하여 주변이 침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이후로 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현재는 물고기나 게가 살지 못한다. 서해안고속도로 교각이 눈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호현천의 물도 농업용수로서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호현마을에 언제부터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는지 아는 사람을 현재는 찾기 어렵다. 박성배의 구술에 의하면, 나주임씨가 비교적 다수 살았다고 하는데, 집성촌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그는 1970년대 중반에 몇 년 동안 호현마을에서 정육점을 운영하였는데, 당시는 100여 가구가 거주했다고 한다. 2024년 현재 호현마을에 남은 토박이는 10가구가 되지 않는다.

호현마을 북쪽으로는 1960년대에 ‘친목마을’이 조성되었다. 친목마을이 들어선 곳은 무덤이 많은 야트막한 야산이었다고 한다. 본래 호현마을 출신 임종대의 소유였는데, 안양보육원에서 매입하였다가 다시 안양읍이 매입하여 이주민 주거단지를 조성하였다. 1966년에 비산사거리에서 인덕원 사거리에 이르는 관악로를 개설할 때 발생한 철거민과 안양역 주변의 철거민을 이곳으로 집단 이주시켰다고 한다. 마을 이름은 두 이주 집



1972년 호현마을 일대(국토정보플랫폼 제공)

단이 서로 친하게 지내며 화목하게 잘살자는 뜻을 담고 있다.²

박성배³ : 그 칠십몇 가구는 똑같았어요. 그거 이북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쳤었어요. 여덟 평. 부엌 하나 방 하나, 화장실 그렇게 했었어요. (중략) 그 사람들 모인 동네가 따로 있었고, 일반 주택으로 또 몇 개를 또 지었어요. (중략) 그 남의 동네는 제가 잘 몰랐으니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비당도 있었어요.

김은일⁴ : 옛날에 저 관양동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12평 13평 14평 15평자리 최고 크면 15평. 오막오막하게. 그냥 뭐 브로크 싸아서 진 집이에요. 사람 하나 정도 다닐 정도로 이렇게 집을 지어준 거예요. 그걸 자기네들이 불하를 받은 거예요.



1980년대의 친목마을(이정범 제공)

도시형 마을로 개발된 친목마을



호현마을과 친목마을은 거리가 가까웠음에도 마을 간 왕래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호현마을 사람들은 친목마을이 생기면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고 한다.

김금자⁵ : 왕래 잘 없었어요. 여기는 본토백인들이 살고 거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이라 거의 이렇게 왕래를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박성배 : 그 사람들이 빨래를 하면, 물이 나가는 걸 다 배수구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빨래하면 이게 다 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미끄덩 미끄덩거리는 거야. 논도 안 돼 밭도 안 돼. 우리 아버지 산소 우리 할머니 산소가 거기 있었는데, 눈이 오면 거기가 미끄럼을 타는 거야. 비료 푸대 갖다가 이렇게 그냥 산소를.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이 그거 다 정리하셨나 봐.

친목마을은 광명역세권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2008년에 철거되었는데, 당시 100여 세대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의 친목마을은 재개발을 통해 도시형 마을로 변화한 모습이다.

호현마을 주변은 대부분 논이었다. 그런데 벼농사보다 밭농사가 경제성이 있게 되자 논을 메워 밭으로 만들었다. 밭은 나중에 외지인에게 팔려서 공장, 주유소, 자동차정비소 등이 들어섰다. 호현마을 근처에 공장이 들어서고 나서 호현마을 주민 가운데 농사 규모가 적은 집에서는 가까운 공장에 취직하기도 하였다.

현재 호현마을 안쪽에는 벽화가 그려진 곳이 있는데, 그곳이 호현마을의 중심상가였다고 할 수 있다. 국수·라면·술·조미료·과자·비누 같은 생활용품과 식료품을 파는 동네 잡화점이 하나 있었고, 막걸리를 파는 동네 술집이 있었고, 담배를 파는 가게도 있었다고 한다. 소소하게 급하게 필요한 물건들은 마을의 가게에서 샀지만, 장을 보러 갈 때는 안양중앙시장을 이용하였다. 도보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다.

호현마을은 원래 시흥군 서면 박달리에 속해 있어서, 이곳 아이들은 현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서면초등학교에 진학하였다. 현재의 도로 조건으로 호현마을에서 도보로 4km 정도 떨어져 있어 1시간 남짓 걸리지만, 1960년대의 도로 조건을 감안하면 초등학교의 걸음으로 거의 2시간은 걸렸다는 주민의 증언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일직저수지를 지나가야 하므로 저수지 둑 아래로 다니면서 추위와 바람을 피했다고 하며, 저수지에서 놀다가 익사한 사고도 있었다고 한다.

1963년 4월 서면초등학교 호현분교장(현 광명 안서초등학교)이 호현마을에서 좀 더



담을 도색한 호현마을 옛 중심가의 가게. 오른쪽 작은 창문에서 담배를 판매하였다.

가까운 가학동에 개교하자 호현마을 아이들은 안서초등학교로 통학하였다. 학교 가는 길은 박달로가 아닌, 마을 뒷산을 넘어가는 통학길이 있었다고 한다. 1963년 7월 박달리가 안양읍으로 편입한 후에도 1972년에 안양서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 호현마을에서는 안서초등학교로 통학하였다.

2. 개발이 비껴간 마을

호현마을은 수십 년간 군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에 규제를 받아온 지역이다. 최근 들어 개발규제가 완화되긴 하였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마을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다. 친목마을이 광명역세권지구에 포함되어 개발될 때 호현마을도 사업지구에 포함되기를 요청하였다. 그것이 어려우면 호현마을의 입지가 버스터미널 부지로 적합하니, 안양 시민의 숙원사업인 안양시 버스터미널로 개발해달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호현마을이 개발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주민들의 바람이었다.

박성배 : 친목마을 그거 만들 때 아주 여기 호현마을까지 같이 해라. 여기가 안산에서 나오는 곳도 길목이고, 인천에서 나오는 길목이고, 광명에서도 나오는 길목이고, 안양에서 나가려면 전부 여기를 거쳐서 나가는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게 옛날 집으로 이게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 저는 진짜 통장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여기다가 안양에 지금 버스 터미널이 없었으니까 버스 터미널로 해주시오. 상행선 이쪽에다가 하행선 저쪽에다가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양쪽으로 2만 평이 넘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지금 전부 묶어놔서 진짜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시의 외곽에 위치하고 주거지역과도 떨어진 입지 탓에, 1970년대 들어서면서 호현마을 주변에는 도심지 비선호시설이 여럿 들어왔다. 이때 연합유리, 대성초자 등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공업단지가 형성되었다. 1972년에는 박달로 건너논에 도축장이 들어왔다. 마을 앞 논은 개토를 통해 밭으로 변하였다. 그곳에 안양시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었고, 매립장이 차면서 범고개 적환장으로 장소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웬만한 쓰레기를 땅에 매립하였지만, 현재는 기계화를 통해 재활용을 선별하고, 소각 대상은 평촌소각장으로 이동한다.

서해안고속도로가 조성되면서 마을은 둘로 나뉘었다. 논이었던 고속도로 고가 하부는 주차장,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바뀌었다. 안양시 견인차량보관소 자리도 주차장이었지만, 호계2동 북개주차장에 있던 시설이 이전하여 용도가 변경되었다. 주차장에는 장기 주차되어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광명역이 가까이 있어서, 광명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해두고 가기도 한다. 그래서 농사와 공장을 운영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시설로 조성되었지만, 정작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한다.



호현마을에서 볼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뜻말

호현마을은 광명과 안산으로 지나는 길목에 있다 보니 마을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한쪽은 예전부터 생긴 공장단지, 다른 한쪽은 주거지역, 나머지는 군사보호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다. 공장단지는 과거 논을 메워 만든 밭이었다. 군사보호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규제는 최근 일부 완화되었다.

호현마을은 2013년에 경기도 생활환경복지 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경기도 생활환경복지 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이나 구도심 등 생활환경 취약지역의 마을 단위 환경개선 및 공동체 복원사업이다. 호현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구도심 소외지역에 해당하여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고, 1억 5천

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도시가스 인입공사, 석면슬레이트 지붕 개량, 문패 달기, 담장 도색 및 벽화 그리기, 마을회관 위생 싱크대 설치, 간이쉼터 설치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2014년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 사업으로 호현마을은 파스텔로 채색된 벽화마을로 바뀌었다. 마을 곳곳 담벼락에 그림 벽화와 문구로 장식하였고, 폐가와 유휴공간에는 가림막을 세웠다. 마을은 사회건강길, 신체건강길, 정신건강길 테마로 나누어 벽화를 그렸다. 그러나 2025년 현재 호현마을 벽화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벽화의 모습도 빛이 바랬다. 과거 마을 내 구멍가게는 마을 입구의 이발소 앞과 옆, 경로당 옆에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사라졌다.



호현경로당 옆 간이쉼터

경로당 옆 간이쉼터에는 호현마을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생각과 초상화를 함께 그려 두었다. 그런데 40명의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 벽면을 꾸며두었는데, 16명의 어르신만 참여하였고, 토박이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현재 경로당에는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놀러 오며, 월·수·금에는 점심을 같이한다. 주말에는 문을 닫아둔다.

지금의 호현마을은 공장지대와 고속도로,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사이에서 조용히 존재하고 있다. 주민 수는 줄고, 벽화는 바래졌지만, 마을을 지켜 온 이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달라진 마을 앞 풍경 속에서 이들은 호현마을에서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하루빨리 마을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다.



방앗간 자리에 새로 지은 호현마을 경로당



서해안고속도로 고가도로 아래 주차장



수량이 줄어든 호현천



서해안고속도로 고가도로 아래 놀이터와 체육시설



호현마을 공간 구성(비그라운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제작)

3. 호현마을의 주거

호현마을은 주거 공간과 공장 및 부속 사무실, 상업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주거 공간은 자연마을 주거지역으로, 기존 마을 위치에 밀집되어 있다. 주거지역 주변에는 공장과 부속 사무실, 택시회사, 현대자동차 검사장, 일신목재, 창호회사, 식품회사 등이 자리잡고 있다. 주택은 전통 가옥과 새로 지은 다세대 주택이 혼재되어 있다. 다세대 주택의 거주자들은 대부분 인근 공장의 직원들로 월세나 전세로 생활하며, 호현마을 토박이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는다. 그들은 외지인으로, 아침에 출근하였다가 저녁에 퇴근하다 보니 주민들과 접촉하지 않고, 호현마을 주민으로서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도시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셈이다.

마을의 오래된 가옥은 대부분 개량 한옥이다. ‘ㄱ, ㄷ, ㄴ’자 형상으로 준공 후에 지붕을 개량하거나 축사를 창고나 방으로 개조한 경우가 많이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남쪽에는 기존 주거가 많이 남아 있고, 북쪽에는 양옥으로 신축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개



호현마을 빈집 상황(비그라운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제작)

량 한옥에 거주하던 주민들 상당수가 마을을 떠나서 빈집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때 동산을 끼고 있어 좋은 공기를 자랑하던 동네였으나, 점차 주변에 공장들이 생기고 서해안고속도로가 마을을 지나면서 시끄럽고 공기가 안 좋은 마을로 바뀌었다. 일주일만 지나도 지붕에 까만 때가 껴 불편할 정도이다.

현재 호현마을에는 방치되는 빈집이 생겨나고 있다. 고령의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손들이 그 집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다. 재개발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자손들이 고향인 호현마을로 돌아오지 않고 빈집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마을 곳곳에서는 박달파출소에서 붙인 ‘순찰강화구역’이라는 경고 문구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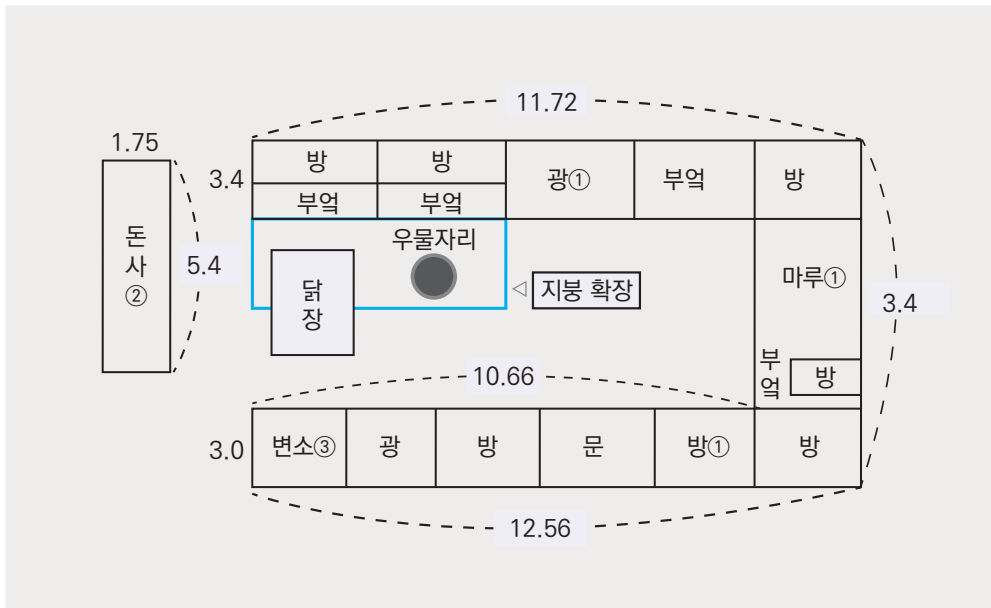
호현마을 토박이들은 가옥 형태는 유지한 채 집 내부를 현대식으로 개조한 경우가 많다. 기존 재래식 부엌과 안방을 트고 솔 대신에 LPG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도 있다. 1980년대에는 헛 집에 세를 놓기 위해 내부 공간을 변형시켰는데, 그 비용을 합치면 새로 집을 장만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1) 박성호의 가옥

6대째 호현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박성호의 가옥은 ‘ㄱ’자형 안채와 ‘ㅡ’자형 행랑채로 이루어져 있다. 호현마을의 부잣집이었던 과거의 모습을 규모가 큰 가옥에서 느낄 수 있다. 이 집은 1947년 박성호의 할아버지께서 직접 짓고, 현재까지 대대로 이어져 살고 있다.

1979년 작성된 안양시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된 집의 형태와 비교하면, 집의 원형과 가장 가까이 보존된 곳은 대문이며, 그 밖의 가옥 모습과 용도 변화는 심하다. 1970년대까지 집 안에 돈사와 닭장이 있어 가축을 키웠다. 그때는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는데, 박성호의 집에도 마당 가운데에 우물이 있어 생활용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우물 위에 지붕이 없어 빗물이 계속 우물로 들어가고, 부엌에서 사용하기 불편해서 우물 자리까지 부엌을 확장하였다. 현재는 지하에 고속철도가 지나가면서 물길이 막혀 우물을 철거하였고, 부엌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바꾸고, 광과 방으로 나누어졌던 공간을 하나로 합쳐 큰 방을 만들었다. 처마도 현재 모습의 반만 있었으나, 이층문을 설치하기 위해 깊이를 늘렸다.



박성호 가옥의 예전 형태(1979년, 안양시청 제공)



박성호의 현재 가옥 평면도(비그라운드아키텍츠 제작)

사랑채를 인근 공장 근로자들에게 세를 주던 시절도 있었다. 이때는 집의 중심에 있는 부엌을 공용으로 사용하며 북적북적하게 지냈었다. 이후 아이들이 자라면서 식당을 개업하기 위해 셋방 운영은 접게 되었다. 1994년도부터 시작된 보리밥집 식당은 박성호의 아내와 어머니, 누나들이 운영하였다. 문을 현대식으로 다 바꾸고, 옛 돈사 자리(현 창고 자리)에 아궁이를 두고 부엌일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예전부터 살았



박성호 가옥의 사랑채

박성호 가옥



대문



박성호 가옥의 안채 내부



연탄 창고



돈사를 개조해 만든 창고

우물터까지 확장한 부엌

던 집인데, 식당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건물 등기를 내려 했으나 절차가 쉽지 않아, 결국 1~2년 후에 식당 운영을 접었다.

박성호의 가옥은 외관상 규모가 크며, 행랑채는 6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칸의 길이는 230cm이며, 대문의 너비는 160cm이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호현마을 가옥들의 지붕은 초가였으나, 박성호의 집은 1965년 초가에서 기와로 일찍 교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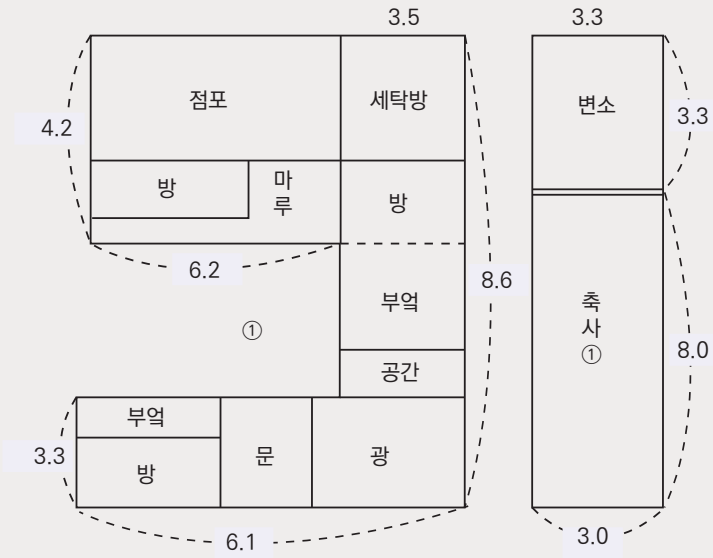
박성호의 주거 공간 이용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조부가 작고 전인 47년 전에는 안방에서 조모와 고모, 건넌방에서 부모님과 박성호 형제자매(2남 2녀), 큰 사랑방에서 삼촌, 작은 사랑방에서 조부가 사용하였다. 조부모는 슬하에 7남 1녀를 두었기에 대식구를 이루었다. 40년 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삼촌과 고모가 분가를 하면서 방의 사용에 변화를 가져왔다. 안방은 부모님이, 건넌방은 형제가 사용하였다. 이때 누이는 결혼한 상태였다. 안방은 조모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사용하였기에, 호현마을에서는 결혼한 며느리에게 안방을 물려주는 풍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현마을에서는 시어머니가 장수하여 회갑이 지난 후 늙어서 안방을 물려받았다.

위 시기에 집의 공간 구조 변화가 확연하게 달라진다. 1982년에는 마을 도축장 직원에게 셋방을 내주었다. 이때 큰 사랑방과 안채 광을 두 개의 방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였고, 작은 사랑방과 광은 서로 터서 방을 넓게 만들어 박성호 형제가 사용하였다. 다만 집담장에 설치한 변소는 공동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당시의 변소는 재래식이였다.

박성호는 20년 전 임대를 중단하였다. 그리고 현재 안방은 결혼한 아들 부부와 손자, 큰 사랑방은 박성호 부부, 작은 사랑방은 딸이 사용하고 있다. 부엌과 마루는 현대식 거실로 개조하였고, 주방은 LPG 가스레인지를 설치해두었다.

2) 김은일·김금자의 가옥

호현마을 노인회장인 김은일은 타지에서 거주하다가 호현마을로 이사 온 지 어느덧 34년째가 되었다. 김은일 부부가 이곳으로 이주한 당시에는 광명역은 물론이고, 도시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던 한적한 마을이었다. 이 집은 두 면이 도로에 접해 있어 이전 건물 주인이었던 할머니가 집의 한 귀퉁이를 막걸리집으로 운영하였었다.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점포로 나와 있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축사'는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창고로 사용하였다. 건축물관리대장의 예전 가옥은 'ㄷ'자형 안채와 '一'자형 축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당시에도 가옥의 변형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사랑채에 부엌을



김은일 · 김금자 가옥 형태(1979년, 안양시청 제공)



김은일 · 김금자 가옥 평면도(비그라운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제작)



소방도로에서 본
김은일·김금자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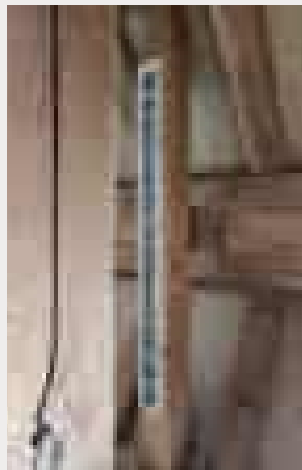
김은일·김금자
가옥 외형



대문 앞 안마당



뒷마루를 개조한 실내 복도



대청 상량문



타일 바닥 마감 후
지붕을 씌운 안마당

김은일·김금자 가옥

별도로 설치한 것은 외지인에게 임대를 준 것으로 보인다. 마당 한쪽에 축사와 뒷간이 일렬로 정렬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는 호현마을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현재 소방도로의 일부는 집의 일부였는데, 도로에 편입되면서 건물이 도로에 바짝 붙게 되었다. 집의 맞은편에는 마을에 처음 들어선 공장인 보원식품이 현재도 운영 중이다.

김은일은 전 주인의 초가집을 매입하고, 이사 오자마자 대대적인 수리를 진행하였다. 먼저, 전 주인 할머니가 막걸리 장사를 하던 곳에 부엌을 만들었고, 집 안에 원래 부엌이 있던 곳을 화장실로 개조하였다.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이는 작업을 한 것이다. 대청마루와 트락도 실내화하여, 현재의 거실과 복도로 만들어 추운 겨울에도 집을 따뜻하게 만들고 내부를 확장하였다. 현재 김치냉장고가 있는 자리는 아궁이가 있어서 방의 불을 때는 자리였고, 마당 건너 세를 주고 있는 두 방은 예전에는 사랑채의 역할을 한 공간이었다. 이후 2015년에 예전에 있던 서까래 밑에 다시 서까래를 설치하는 목조 공사를 진행하였다. 지금 대들보에 붙어 있는 상량문이 목조 공사를 진행할 때 작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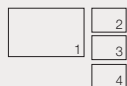
3) 임효순·정국영의 가옥

임효순·정국영의 집은 마을 입구에서 완만한 경사를 따라 올라가면, 넓은 마당과 주차장이 있는 집이다. 호현마을에서 나고 자란 임효순은 결혼하고 대전에서 줄곧 살다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간병을 위해 17년 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임효순의 결혼식도 이 집에서 하였다.

임효순의 아버지는 집 바로 옆에서 화장품 브러쉬 공장을 운영하였다. 임효순의 가족이 살던 집과 마당을 사이로 두고 공장 근로자들의 기숙사가 있어 복잡복잡하게 지냈던 때가 있었다. 현재는 기숙사 건물이 철거되고 옆집 담벼락으로 막혀 있어,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집 뒤쪽에도 원래 공장이 있었으나, 소방도로가 생기면서 건물은 철거되었다. ‘ㄱ’자 형태의 이 집은 임효순의 아버지가 직접 지었다. 오르막 위, 마당에 우물이 있었던 이 집은 현재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 예전 우물이 있던 자리는 철거하고 메워, 마당을 넓게 쓰고 있다. 예전 대청마루는 실내화하여 거실로 만들고, 마루의 바깥으로 문을 설치하여 내부를 확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남아 있는 재미있는 특징은 아직 기둥의 초석이 집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 초석을 따라 경계를 그려보면, 처음 이 집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임효순 · 정국영 가옥 평면도(비그라운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제작)



1. 임효순·정국영 가옥 전경
2. 실내로 들어온 기둥과 초석
3. 예전 대청마루
4. 앞마당 텃밭

〈임효순·정국영 가옥〉

4) 송해숙의 가옥

송해숙의 집은 1978년에 새로 지은 ‘ㄱ’자 형태의 가옥이다. 처음부터 초가가 아닌 석면슬레이트로 지은 집이라서, 당시에는 잘 지은 집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현재는 안채 내부 구조가 바뀌고 벽면도 새로 만들어져 집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지만, 전형적인 경기도 가옥이다.

송해숙의 가옥은, 안방을 시부모와 시누이 두 명이 사용하였으며, 건넌방을 송해숙 부부가 사용하였다. 사랑방은 시동생 두 명이 사용하다가 분가하였다. 송해숙은 시어머니가 90세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안방을 늦은 시기에 차지하였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뜬 이후에 식구들은 각각 본인들의 개별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는 송해숙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방 두 개는 비어 있다. 간혹 딸들이 명절에 찾아오는 경우 그 방을 사용한다. 송해숙은 딸들이 맡긴 강아지 네 마리를 보살피며 생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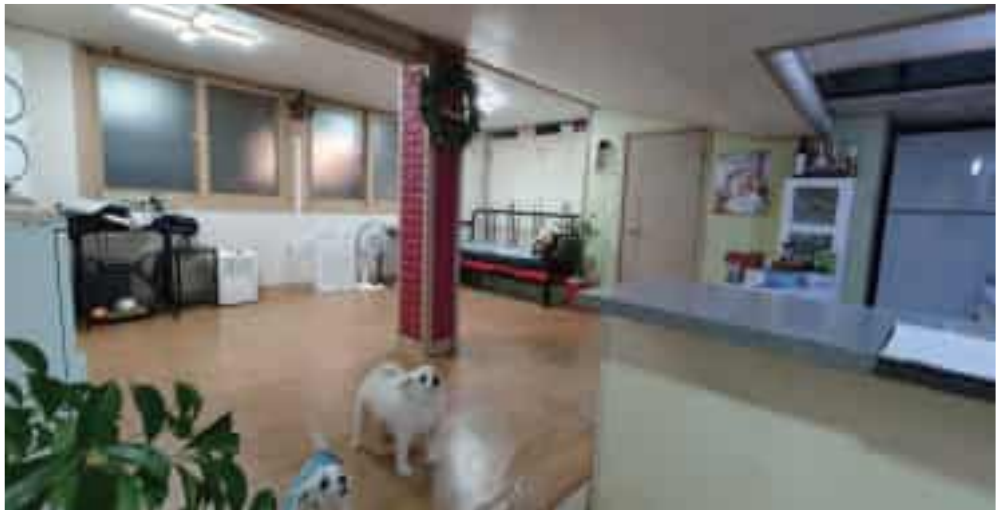
부엌에는 아궁이에 솔 세 개를 걸었다. 가장자리의 큰 무쇠솔은 물을 끓이는 용도로 쓰였으며, 주로 가족들이 세수할 때 그 물을 이용하였다. 나머지 두 개의 솔은 양은솔으로, 하나는 밥, 다른 하나는 국을 조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당시 부엌 연료는 40년 넘게 연탄을 이용하였으나, LPG가 보급되면서 가스레인지 사용을 사용하고 있다. 방은 연탄 보일러를 이용하여 난방되고 있다.



안마당 한쪽에는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며 차를 마실 수 있는 작은 쉼터를 만들어 놓았다. 마당에는 보도블록을 설치하여, 우천 시 질척이지 않도록 하였다. 석면슬레이트 지붕은 2013년에 함석지붕으로 바뀌었다. 당시 호현마을 전체가 지붕을 개량하였는데, 이때 교체 비용은 일부 지원을 받았다. 송해숙도 당시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비에 새서 함석지붕으로 교체하였다.



송해숙 가옥의 안마당 쉼터



입식으로 개조한 송해숙 가옥의 거실과 주방

5) 박성배의 가옥

웃마을에 위치한 박성배의 가옥은 옛 집터에 2층 양옥을 신축한 것이다. 집을 신축하던 당시, 옛집에 있던 대들보와 서까래를 2층 거실로 옮겨 설치하였다. 옛집 추억을 간직하려는 노력이었다. 대들보 상량에는 '1988년 10월'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박성배에 따르면, 조부 때 지은 초가집을 1963년에 아버지가 세 칸짜리 벽돌집으로 새로 지은 것이다. 당시 서까래는 충청도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아버지는 39세에 세상을 일찍 떠났다. 어머니는 홀로 3남 2녀의 자식을 키웠고, 할아버지는 축사에서 돼지 두 마리와 소를 키웠다. 당시 안방은 어머니와 두 딸이, 건넌방은 3형제가, 사랑방은 할아버지가 사용하였다. 사랑방은 동네 손님들이 저녁이면 마실 와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던 공간이었다.

1988년, 박성배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53평의 이층집을 새로 지었다. 1층과 2층에는 각각 방이 4개씩 있다. 1층의 4개 방은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2층 방은 박성배 부부와 처남이 사용하고 있다. 2층에는 큰 거실도 있다. 바깥마당 한쪽에는 건축자재 관련 공장을 지었다. 현재는 처남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2층 거실에서 호현천과 물가에서 놀던 아이들의 풍경이 보였지만, 지금은 소음과 공해를 유발하는 서해안고속도로 고가도로가 밤잠을 설치게 한다. 이제 집에서 보이는 풍경은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와 그 아래 주차장에 늘어선 자동차들뿐이다.

6) 기타

송해숙의 집과 마주한 김정남의 집도 'ㄱ'자 형태의 집이다. 다른 집들에 비해 증축이나 마당에 지붕을 덧대는 공사를 하지 않아 개방감이 좋다. 마당에는 장독대와 살림살이, 농기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다. 마당에는 수돗가가 있으며, 바닥은 미장으로 마감하였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빨랫줄도 있다.

손춘열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 남편과 함께 지었다는 집은 많이 퇴락한 상태이지만,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 'ㄱ'자 형태에 마당과 축사가 있던 부분에는 지붕을 씌웠다. 대문 밖에는 색색의 꽃들이 만발한 화단과 작고 소박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손춘열은 텃밭 농사를 하며 이곳에서 정원을 가꾸는 휴식을 취한



박성배 가옥 2층의 거실



박성배 가옥의 2층 거실 천장에 설치한 옛 상량문



김정남의 가옥



김정남 가옥의 안마당



호현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지은 손춘열의 가옥과 아랫집



입식으로 개조한 손춘열 가옥의 거실

다고 한다. 집 앞으로는 시흥시와 연결되는 옛길이 있다.

호현마을의 주거 문화는 단순한 생활공간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족 구조, 공동체적 가치관이 반영된 문화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행랑채로 구성된 전통 가옥 구조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생활양식을 담아내었고, 아궁이와 장독대, 우물과 축사 등은 자급자족의 생활 기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 계절에 따른 주거의 변용, 마당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의 배치는 물질적 조건을 넘어서는 정서적 공간으로서 역할도 하였다.



오늘날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이러한 주거 양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나, 호현마을이 간직한 주거 문화의 기억은 마을의 역사와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 주거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호현마을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을 넘어, 미래 세대에 지역의 문화적 뿌리를 전하는 살아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註

1 「안양 군자 간 자동차 개통」, 『동아일보』, 1933년 12월 16일.

2 이승연, 『안양시 지명유래집』, 1992, 새안양회, 202쪽.

3 남, 1947년생, 호현마을 토박이.

4 남, 1948년생, 호현마을 노인회장, 1994년 서울에서 이주.

5 여, 1952년생, 김은일의 부인.

제2장

지도와 항공사진으로 보는 호현마을의 변화

우승하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법정동 박달동, 행정동 호현동에 속하는 호현마을은 호현동 북부에 위치한다. 현재는 부분적으로 복개되었지만, 호현천과 박달천이 마을을 관통하여 동북방향으로 흐르다 합류한 후 안양천으로 이어진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고가 구간으로 마을을 남과 북으로 나누고 있으며, 광명역IC가 서쪽에 있다.

이 장에서는 근현대 실측 지도와 항공사진을 통해 호현마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다. 첫째, 마을의 원형을 비롯한 내외부 변화를 실측 지도와 항공사진을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둘째, 세부 목차 구분은 항목별로 20년 내외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시간적 범위는 근현대 실측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로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기적 확장과 축소가 있었다. 넷째, 공간적 범위는 자연마을인 호현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의 주산인 수리산 자락과 호현천·박달천이 합류하여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한정하였다. 단, 호현마을에 영향을 준 요소에 따라 공간 범위는 부분적으로 확장되었다. 다섯째, 내부 요소는 가옥 구조 및 방향, 공용시설과 상업시설, 도로(다리)와 수로로 한정하였으며, 외부 요소는 서해안고속도로, 경부선, 고속철도(KTX) 등으로 확장하여 마을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이 글은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지도와 항공사진 분석에 기반한 자료로 한정된다. 1950년대 이전 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호현마을의 변화를 이해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일제강점기 전후 호현마을

호현마을은 전통 지도에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는 전통 지도의 한계이기도 하며, 지도상에 자연마을과 같은 소규모 지역을 표기한 예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동여지도』에 따르면, 호현마을은 시흥(始興)의 한 자연마을로, 현재 수리산(修理山) 북쪽에서 안양천(安養川) 좌측의 어느 지점이라는 정도로만 추정할 수 있다.

호현마을의 실제적인 형태는 조선총독부가 1932년에 발행한 『조선오만분의일지도』의 「군포장(軍浦場)」을 통해 확인된다. 이 지도는 근현대적인 실측 장비를 사용하여 우리나라를 측정하고, 축척 1:50,000으로 기록한 최초의 지도이다. 「군포장」은 1917년(대정 6년)과 1926년(대정 15년)에 각각 측정하고 수정한 자료이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호현마을의 원형을 이해할 수 있다. 1940년대 초반에 박달리 일원에서 군용지 건설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동을 해체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 지도는 동을 해체하기 이전의 실측 자료로서, 호현마을의 원형을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 마을의 기본 형태

일제강점기 호현마을은 시흥에 속하며, 수리산의 북서쪽 자락에 있는 ‘호현(虎峴)’으로 확인된다. 마을의 동쪽으로는 ‘붓골(筆洞)’과 안양천을 건너 ‘충훈부(忠勳府)’가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장기촌(場基村)’과 ‘울포(栗浦)’, 북쪽으로는 ‘일직리(日直里)’, 남쪽으로는 ‘동수암(東秀庵)’이 위치한다.

호현마을의 주거지는 수리산 자락을 중심으로 두 곳으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마을을 관통하는 시흥과 안산을 연결하는 도로 중 ‘호현고개’를 중심으로 주변에 20여 채 미만의 가옥이 형성된 곳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북쪽, 현재의 호현천 상류 인접 지역에 10여 채 미만의 가옥이 형성된 곳이다.

지명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술의 편의를 위해 호현고개를 중심으로 한 마을을 ‘아랫마을’, 호현천 상류 부근에 위치한 마을을 ‘윗마을’로 지칭하였다. 호현이라는 명칭에 이미 고개(현)가 포함되어 있으나, 아랫마을의 가옥들은 약 30m 내외의 낮은 구릉에 위치해 있고, 윗마을 가옥들도 40m 내외의 낮은 구릉에 있다. 가옥 형태는 대부분 ‘一’자 형태이며, 좌향은 수리산 자락을 등지고 남동향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일제강점기 호현마을과 그 주변(1932년)

만, 아랫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 남쪽에 위치한 가옥은 도로를 기준으로 서북향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호현마을은 30여 채 내외의 가구로 구성된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주거지 주변이나 뒤편 수리산 자락에 일부 논(밭, 답)이 있었으나 대부분 황지(荒地)로 표기되어 있으며, 본격적인 논은 주거지에서 동북쪽, 안양천까지 이어지는 넓은 들에 형성되어 있다. 지도상에서 이 들의 소유자는 확인되지 않지만, 마을의 규모로 보아 넓은 경작지를 지닌 마을임을 알 수 있다.

마을과 관련된 주요 도로는 안산과 시흥을 연결하는 대로와 주거지를 관통하고 있다. 이 도로는 아랫마을 주거지 상단에서 남쪽으로 갈라져 박달리로 연결되고, 하단에서는 당시 갈라져 넓은 들을 지나 시흥 자경리(自京里)로 이어진다. 또 다른 길은 필동(筆洞)을 지나 능선을 따라 안양리로 이어진다. 그 외에도 마을 내에는 여러 개의 소로가 있으며, 윗마을에서는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일직리, 서쪽으로는 수리산 자락을 따라 후곡(後谷)으로 연결된다.

이 시기의 호현마을은 넓은 들을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가

옥은 비교적 낮은 구릉지대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밭농사보다는 논농사를 중심으로 생업을 유지하였다. 다만, 안양천이 자주 범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양천 주변이 황지로 표기되어 있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안양천의 퇴적층이 들에 쌓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토지가 비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범람은 마을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2) 마을의 변화와 변화 요인

경부선은 1905년에 개통되었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수송에만 그치지 않았다. 특히 1930년대부터는 경부선을 따라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다만, 호현마을을 가로지르는 대로가 안양역(1905년 개통)과 연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경부선의 개통이 마을에 직접적으로 인구 증가나 구조 변화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제강점기 마을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은 1940년대 들어서 박달리에 건설된 군용지이다. 군용지가 들어서면서 박달리 주변의 많은 자연마을이 폐쇄되었다. 폐쇄된 마을의 주민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일부는 호현마을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940년대 초반에 군용지가 조성된 이후, 호현마을을 포함한 주변 자연마을은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조선오만분의일지형도』의 「군포장」 지도와 1957년 구지도를 비교해 보면 마을의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다. 「군포장」 지도는 1930년대 이전에 실측된 것으로, 군용지가 조성되기 이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군용지가 마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3. 1950~1960년대 호현마을의 변화

1950년대와 1960년대 호현마을의 변화상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구지도 2건(1957년·1964년)과 항공사진 1건(1966년)이다. 이 시기 호현마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의 형태와 변화

1950년대 호현마을은 ‘범고개(虎峴)’로 확인된다. 아랫마을과 윗마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일제강점기와 비교할 때 마을의 형태와 규모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가옥의 위치와 방향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일제강점기 당시 마을을 관통하던 도로는 아랫마을 상단(서편)에서 분기하여 시흥 자경리로 향하는 길과 안양리로 향하는 길로 나뉘었다. 당시에는 안양리로 향하던 길을 중심으로 가옥이 구성되었으나, 이 시기부터는 시흥 자경리로 향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재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을 하단에서 일직리로 향하는 도로가 자경리로 향하는 도로와 유사한 규모로 확장되었다.

가옥의 정확한 방향은 지도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산을 등지고 도로를 바라보는 동남향 또는 서북향으로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도로 변화는 가옥의 배치 및 방향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마을은 여전히 동북쪽 안양천까지 이어지는 넓은 들을 논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농촌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마을 내 다양한 소로도 이전 시기와 비교해 큰 변화는 없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호현마을은 ‘호현’으로 표기되며, 여전히 30여 호 내외의 가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지는 세 지역으로 나뉘어 형성되며, 기존의 윗마을 외에도 아랫마을에서 일직리로 이어지는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측 지역에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50년대까지 존재하던 시흥 자경리 방면 도로가 사라지고, 아랫마을 하단에서 일직리로 이어지는 도로의 영향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안산과 안양을 연결하는 도로는 대로임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호현마을은 시흥 일직리와의 밀접한 생활권을 유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64년 지도와 1966년 항공사진에 따르면 가옥의 구조와 방향이 명확히 확인되며, 항공사진에서는 가옥이 ‘ㄱ’자 또는 ‘ㄷ’자 형태를 띠고 있고, 도로를 접하고 있음에도 도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남동향을 취하고 있다.

마을 내 다양한 소로는 1950년대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마을과 들을 가로지르는 호현천과 박달천이 합류해 안양천으로 흘러드는 모습이 지도와 항공사진에서 명확하게 확인된다.



1957년 지형도에 표기된 호현마을



1964년 지형도에 표기된 호현마을



1966년 호현마을 항공사진(국토정보플랫폼 제공)

2) 마을의 변화 요인

1950년대와 1960년대 호현마을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는 도로의 변화이다.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조성된 도로망이 이 시기에 크게 변화되었고, 특히 마을 내에 주거지는 이러한 도로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즉, 일제강점기에는 안산과 안양을 연결하는 대로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었으나, 1950년대에는 시흥 자경리로 향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재편되었다. 이어서 1960년대에는 다시 시흥 일직리로 향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마을의 구조가 변화하였다. 1960년대 이후부터는 호현천을 기준으로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구분되었으며, 시흥 일직리 방면 도로를 따라 남쪽에 새로 조성된 주거지는 ‘새마을’로 구분되었다.

이 시기 호현마을은 여전히 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전까지 논으로 활용되었던 안양천 인접 지역의 일부는 황무지로 변한 모습이 확인된다. 마을 외부에서 영향을 준 특기할 만한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966년 호현마을 북쪽에 친목마을이 조성되었다고 하는데,² 1966년 항공사진에서는 친목마을이나 해당 공간의 조성 흔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4. 1970~1980년대 호현마을의 변화

1970년대와 1980년대 호현마을의 변화상을 살펴보기 위해 활용한 자료는 구지도 11건(1970년·1972년·1973년·1974년·1975년·1976년·1977년·1978년·1980년·1986년·1987년)이고, 항공사진은 4건(1974년·1981년·1985년·1989년)이다. 이 가운데 항공사진과의 비교를 고려하여 구지도는 1970년·1974년·1975년·1976년·1980년·1986년 지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인한 당시 호현마을의 변화상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의 형태와 변화

1970년대 호현마을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마을 주변에 설립된 공장들이다. 안양시는 1960년대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73년에 시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호현마을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외형상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1970년대 중반부터 마

을과 안양천 사이의 넓은 들판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주거지의 외형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박달천과 호현들 일대에는 점차 규모를 갖춘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을 지나면서 마을 안쪽의 주거지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1974년 항공사진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명확하게 확인된다.

특히 197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마을에는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가옥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호현마을 내에 설립된 공장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호현들의 일부 구간에는 공장단지가 조성되어 주거지와 명확한 경계를 이루어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호현마을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논농사 중심의 농촌에서 도농복합 지역으로 그 정체성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장이 주거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들어선 측면도 있었으나, 마을 내부까지 공장이 들어서며 도농복합 지역으로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980년대에는 설립된 대형 공장들이 호현마을의 외형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 시기의 대형 공장들은 박달천을 따라 안양천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으며, 지도에서 확인되는 주요 공장으로는 성훈경금속·동서유리·연합유리·제일피혁·삼천전자공업·서울광학산업·대한잉크페인트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공장은 주로 박달천에서 안양천 사이에 분포하였다. 반면, 호현천 주변의 동북방향 지역은 여전히 농촌 지역의 면모를 유지하였다.

1986년 지도에는 시흥·안산 간 고속도로가 호현마을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 고속도로는 이후 서해안고속도로로 확장 및 발전하였다.

2) 마을의 변화 요인

1970년대와 1980년대 호현마을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는 공장 설립이다. 처음에는 외형상 마을에 큰 변화를 불러오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규모와 항공사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 중반부터 마을 내부에 작은 규모의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박달천을 따라 점차 대형 공장들이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업도시를 지향한 안양시보다 다소 늦게 공장들이 들어섰지만, 이후 이들 공장은 주거지역까지 확대되며 난립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지형도에 표기된 호현마을



1974년 지형도에 표시된 호현마을



1974년 호현마을 항공사진(국토정보플랫폼 제공)



지형도에 표기된 호현마을(1980년)



지형도에 표기된 호현마을(1986년)





1985년 호현마을 항공사진(국토정보플랫폼 제공)

1970년대 호현마을 내에 설치된 공장들은 보원식품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안양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현천 위쪽 지역은 여전히 논이 자리하고 있어, 논농사는 여전히 마을의 중요한 생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 과정을 통해, 호현마을은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1980년대까지 도농복합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뚜렷하게 갖추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1990~2000년대 호현마을의 변화

1990년대와 2000년대 호현마을의 변화상을 살펴보는 데 활용한 자료는 구지도 1건(2001년)과, 항공사진 4건(1997년·2001년·2002년·2009년)이다. 구지도 자료가 부족하지만,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 시기 호현마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의 형태와 변화

1990년대 호현마을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고가도로가 마을을 관통하면서 아랫마을과 윗마을로 분리되었다. 외형상 큰 변화는 없지만, 고가도로로 인해 마을의 공간 구조가 나뉘며 도로 하부 토지 이용과 마을 간 경계가 명확해졌다. 이로 인해 마을 내부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에도 마을에는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공장들이 난립하고 있었으며, 박달천을 따라 조성된 공장들의 존재도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는 호현천 북쪽에서 여전히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마을이 도농복합 지역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호현마을의 농촌적 특성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지도 상으로도 주거지와 공장지대가 명확히 구분되며, 서해안고속도로의 영향으로 호현천 북쪽의 주거지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항공사진을 보면 윗마을에는 여전히 일부 주거지가 남아 있고, 마을 내 소규모 공장들도 확인된다. 또한, 마을 외형의 변화는 고가도로 외에도 나들목의 설치, KTX 운행을 위한 일직터널의 건설 등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직터널은 마을 북서쪽에서 서남쪽으로 마을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KTX 개통 이후 호현마을은 광명역의 배후지로서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 호현마을 항공사진(국토정보플랫폼 제공)

2) 마을의 변화 요인

1990년대와 2000년대 호현마을의 변화에 가장 결정적인 외부 요인은 서해안고속도로, 특히 그 중 호현 고가도로였다. 이 고가도로는 아랫마을과 윗마을을 분리시켰고, 일부 주민들의 일조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고가도로 하부 토지의 이용 문제로 인해 다양한 갈등 요소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001년 지형도에 표기된 호현마을

6. 2010년 이후 호현마을 변화

2013년, 박달동 783번지 일원의 호현마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그동안 호현마을 주민들은 인근의 쓰레기 집하장과 골재처리장 등으로 인해 심각한 생활 불편을 겪어왔으며, 이에 집단 이주를 요구해 왔다. 안양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 중이다.

1) 2010년 이후 현재까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호현마을의 변화상을 살펴보는 데 활용한 자료는 구지도 4건 (2011년·2014년·2015년·2016년)과 현재의 디지털 지도이다. 이 시기 호현마을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2009년 호현마을 항공사진(국토정보플랫폼 제공)

2010년대 이후에도 호현마을은 2000년대와 마찬가지로 주거지와 공장지대가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서해안고속도로의 호현고가도로가 마을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이러한 외형은 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다만, 2014년 이후 윗마을 주거지 내에서 가옥 간의 간격이 점차 넓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2016년까지 이어졌다. 호현마을 내 공장들은 주로 박달천 남부에 집중되어 있어 공장지대와 주거지대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다.

과거 호현마을은 호현천을 기준으로 아랫마을과 윗마을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호현천과 고가도로에 의해 구분된다. 공장을 제외한 가옥 구조를 보면, 호현마을의 가옥은

‘ㄱ’자·‘ㄷ’자·‘ㄴ’자 형태가 주를 이루며, 가옥 방향은 일률적이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남동 방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호현마을의 초기 부터 확인되는 방향이며, ‘ㄴ’자 형태의 가옥이 추가 된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 주거지가 형성된 지역은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2) 변화에 따른 갈등

호현마을 고가도로 하부에는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견인차량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 주차장에는 장기 주차된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부족하고 유료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

현재 호현마을의 주요 문제는 공장과 빈집의 증가이다. 다행히도 공장 대부분은 여전히 가동 중이어서,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지역 경제 면에서는 문제가 크지 않다. 그러나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현재 마을 인구가 노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마을 공동체의 지속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과 고가도로, 공장 등으로 인해 마을 경관은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1년



2014년



2016년

2010년대 지형도에 표기된 호현마을

7. 호현마을 변화의 의미

안양시 만안구 호현동에 위치한 호현마을은 근·현대사를 거치며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이 장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 실측 지도와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호현마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호현마을의 주거 형태, 도로망, 공간 구조, 마을의 정체성 등 변화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호현마을은 수리산 자락과 안양천 인근의 비옥한 들판을 기반으로 논농사를 짓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 당시 호현마을은 30여 가구 규모로, 주거지는 수리산을 등지고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1940년대 초반에는 인근 박달리 일원에 군용지가 조성되면서 일부 주민이 호현마을로 이주해 왔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도로망의 변화가 호현마을의 주거지 배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시흥과 안양을 연결하는 도로가 새롭게 정비되었으며, 이는 마을 주거지의 배치와 방향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호현마을은 여전히 농촌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호현마을이 도농복합 지역으로 변모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수도권과 인접한 입지로 인해 점차 공업화가 진행되었고, 마을 주변에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전통 농촌의 모습은 점차 희미해졌다. 주거지 내부에도 공장들이 들어서는 등 마을은 도농이 혼재된 구조로 변화하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서해안고속도로 호현마을의 고가도로 건설로 인해 마을의 공간 구조에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고가도로는 마을을 아랫마을과 윗마을로 분리하며, 토지 이용의 경계와 마을 간 관계를 더욱 명확히 구분지었다. 이 시기에도 공장 설립은 이어졌지만, 호현천 북쪽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농업이 유지되어 도농복합 지역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었다.

호현마을의 변화는 한국 도시화와 산업화가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전통적인 농촌 마을이 도농복합 지역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은 주민들의 생활 방식, 경제 구조, 환경 변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주었다. 이 장에서 서술한 내용은 호현마을 변화의 기초 양상을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되며, 향후 심층적인 현장 조사와 추가 연구를 통해 지역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호현마을 전경(2024년)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 안양시, 『안양시지』, 안양시사편찬위원회, 1992.
-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 조선총독부, 「군포장」, 『조선오만분의일지형도』, 1932.



註

- 1 '호현고개'는 표준어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호현'의 '현(峴)'이 고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현' 혹은 '범고개'가 더 정확한 표기이다. 그러나 '평촌'에도 '촌(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촌마을'로 불리는 것처럼, 자연마을의 명칭은 지역에서 부르는 방식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글에서도 그 원칙을 따른다.
- 2 이승연, 『안양시 지명유래집』, 새안양회, 1996.

제3장

호현마을의 의례 생활

정연학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선도문화학과 특임교수



호현마을의 의례는 통과의례·가신의례·세시의례·주거의례(상랑의례와 이사)·마을제의 등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호현마을은 전형적인 농촌으로 공동체 의식이 강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 토박이의 고령으로 인한 사망과 이주로 인한 인구 감소, 외지인의 유입 등으로 공동체 의식은 계속 약화되었다. 여기에도 다수의 공장과 부속 사무실이 마을에 들어오고, 서해안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마을이 분리되면서, 현재 이루어지는 의례는 안양시의 여타 동(洞)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례의 내용과 변화 양상을 담고자 하였다.

1. 호현마을의 통과의례

사람은 자신의 일생 중 중요한 시기가 되면, 특별한 의식을 통해 소망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통과의례는 ‘일생의례’라고도 불린다. 현재 호현마을에서는 기자(祈子) 풍속이나 출산 의례 등은 사라졌지만, 백일·돌·혼례·상례·제례 등은 여전히 중요한 통과의례로 남아 있다. 물론 그 형식은 간소화되고 변형되었다. 다만 제례를 제외한 의례의 행위 공간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외부 공공장소로 변화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함을 지는 풍속도 완전히 사라지는 등 의례의 일부분이 생략된 채 유지되고 있다.



백일잔치 상차림(1975년, 박성배 제공) 백일을 맞은 아이의 목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실타래가 둘러 있고, 백일상에는 수수떡과 백설기, 지폐 등이 놓여 있다.

1) 백일

아이의 백일에는 배냇저고리를 입혔고,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목에 실타래를 걸어 주었다. 백일상에는 흰밥과 미역국 외에도 백설기, 수수팥떡, 인절미, 송편 등 다양한 떡을 올렸다. 백설기는 백 살까지 장수하라는 의미, 수수팥떡은 부정을 막으라는 의미, 인절미는 속이 단단하여 건강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백설기는 백 사람이 먹어야 아이가 건강해진다’는 속신에 따라, 동네 이웃들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아이의 출생 100일을 축하해 주었고, 가정에 돈 봉투를 건네주기도 하였다. 돌아갈 때는 백설기를 포장해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호현마을의 토박이 송해숙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송해숙 : 백설기는 백 사람이 먹어야 아이가 좋대.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들 대접하고 그러지. 미역국 끓이고 밥도 먹고 떡도 먹고, 조금 더 싸줘서 가져가고. 싸줘. 동네 사람들은 돈 조금씩이라도 다 주고 가지.

생활 여건이 되는 가정에서는 백일잔치를 사진으로 남기기도 하였다. 백일사진은 1950년대부터 서서히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사진관을 방문하여 기념사진을 찍거나, 사진사를 집으로 불러 촬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풍습은 모든 자녀에게 해당하지는 않았으며, 주로 첫아들이나 귀한 외동일 경우에만 가능한 특권이었다.

현재 백일잔치도 대부분 뷔페나 고급 식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백일상 또한 별도로 주문하여 차리는 경우가 많다. 백일잔치의 선물은 1980년대 이후부터 반지, 옷, 현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돌

돌에는 아이에게 오색이 들어간 돌복을 입히고, 돌잡이를 행하였다. 돌상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구성에 차이가 있었는데, 부유한 가정에서는 회갑상처럼 사탕·과일·과자·수수팥떡·송편 등을 높게 쌓아 올렸으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흰무리떡·수수팥떡·송편 등을 차리는 정도였다. 흰무리떡은 멧쌀가루를 쪄 없이 안쳐서 시루에 찐 떡을 의미한다. 수수팥떡은 10살 생일까지 먹이면 몸 안의 귀신을 내쫓고 건강해진다고 여겼다.

송해숙 : 수수팥떡은 10살까지 해주면 좋다고 그랬어. 그건 뭐 귀신을 내쫓는 거래. 그래가지고 건강해진다고.

또한, 돌상 앞에는 돈·실·연필·마이크 등의 돌잡이 용품을 올려두었다. 아이가 돈을 먼저 잡으면 부자가 되고, 실은 잡으면 장수하며, 연필은 공부를 잘하고, 마이크는 노래를 잘하게 된다고 여겼다. 돌잔치는 과거에는 가정에서 행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뷔페나 고급 식당을 대여하여 친인척을 초대하여 가족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돌상에 차려지는 돌잡이 용품도 청진기·판사봉·마우스·야구공·축구공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이는 아이가 성장하여 안정적이고 수입이 많은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다.



돌상 차림(박성호 제공) 돌상 위에 삼색 과일과 떡, 그리고 여러 장의 500원 지폐가 놓여 있다. 당시 부유한 가정의 전형적인 돌상을 보여준다. 500원 지폐는 1966년에 발행된 지폐로, 한국 경제의 중요한 전환기를 상징한다.



돌상 차림(박성호 제공) 상 위에 사탕, 떡, 과일 등을 높게 괴어 놓았다. 상 앞쪽으로 500원 지폐가 펼쳐져 있다. 돌상 앞에 지폐를 펼쳐 놓는 것은 박성호 집안의 전통인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 거행된 전통 혼례의 모습(박성호 제공) 신랑은 양복을 착용하고, 신부는 한복에 족두리를 쓴 모습이다. 혼례상에는 회갑상과 유사하게 사탕·과자·과일 등이 높게 쌓여 있으며, 상 뒤편에는 화조도 병풍이 세워져 있다.

3) 혼례

혼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일제강점기 및 해방 공간에서의 혼례는 전통의 지속과 변용이라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인다. 80세 이상의 호현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의혼(議婚)-사주(四柱)와 함 보내기-혼례-신랑 다루기’의 절차를 거친 후, 신부는 시댁으로 들어가 시집살이를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약혼 풍속이 일반화되었고, 이 시기부터 당사자들은 사진관에서 약혼 사진을 찍어 각자 보관하는 방식으로 증표를 남기게 되었다. 약혼 이후 혼례 전에 잠자리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호현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결혼 이후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혼례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통 혼례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대부분 증매로



예식장 폐백 사진(박성호 제공) 폐백상에는 자손을 빨리 낳으라는 의미로 시부모가 신부에게 던져 줄 밤과 대추 등이 차려져 있으며, 폐백상 앞에는 집안 어른께 절을 올릴 때 사용할 술과 술잔이 작은 상 위에 놓여 있다.

이루어졌으며, 혼례 후 같은 마을 또는 인근 마을 간에 인척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매는 친인척이나 친한 지인이 맡았으며, 이들을 ‘중매쟁이’라고 불렀다.

양가에서 혼인을 결정하면, 신랑 집에서는 혼인의 징표로 신부 집에 신랑의 사주를 보냈다. 본래는 중매인이나 동네 사람 중 첫아들을 낳고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 사주만 전달하였으나, 점차 신부 예물과 함께 함에 넣어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것이 ‘납폐(納幣)’ 절차이며, 이때 함에는 혼서지(婚書紙)·채단(采緞) 등이 담겼다.

함을 지고 가는 사람은 ‘함진아비’라 불리며, 사주를 전달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혼례를 치르고 아들을 낳은, 부정을 타지 않은 신랑의 친구가 선정되었다. 전통적으로는 신랑이 동행하지 않고 친구 여러 명이 함께 갔으나, 후에는 신랑이 직접 함을 지고 가는 풍속도 생겨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같은 함 풍속도 사라지게 되었다.

예전의 함진아비는 얼굴에 술 검뎁을 발랐는데, 이는 불을 상징하여 재앙이나 액운 등 부정을 막는 의미를 지녔다. 이후에는 검뎁을 바르는 풍속이 사라지고, 마른 오징어에 눈과 입 모양으로 구멍을 뚫어서 만든 형태의 가면(가면)을 얼굴에 쓰는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호현마을의 혼례는 전통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결혼



1970년대 예식장 혼례(박성배 제공) 신랑은 양복을,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착용하고 있으며, 주례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신랑 신부의 이름과 예식장 이름이 보인다.

시기는 주로 농사철 이전이거나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바쁜 농번기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호현마을 토박이 송해숙은, 호현마을 출신으로 서울 청량리에 거주하던 신랑과 22세에 혼인하였다. 부부는 노량진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1년 후 시아버지의 뜻에 따라 호현마을로 돌아왔다.

송해숙 : 시아버지가 고향이 여기요. 시아버지가 내 고향으로 간다고. 죽어도 내 고향 가 죽는다고 일로 내려오셔서 여기서 이렇게 집 짓고 사는 거지.

송해숙은 전통 혼례 절차에 따라 친정집에서 혼례를 올린 후, 즉시 청량리에 있는 시댁으로 이동하여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다. 다음 날에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 하룻밤을 보낸 뒤, 다시 청량리로 돌아갔다.

호현마을에서 혼례를 올릴 때는 동네 공용 가마를 이용하였으며, 청량리로 갈 때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신랑 집에 도착한 후 신부는 안방의 방석 위에서 하루 종일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하였고, 이때 동네 부녀자들이 방문을 열고 신부를 구경하는 풍습이 있었다. 시댁에서는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 ‘국수 잔치’를 베풀었다.

송해숙 : 혼례 치르고 바로 가. 그러면 이제 신랑 집에서 색시는 뭐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거고.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이 들여다보고 “이쁘네, 미우네.” 뭐 이런 소리 들어.

첫날밤을 치른 후, 신부는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집안일을 보고 배우기 시작하였다. 이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하여 익히는 방식이었다. 혼례를 치른 지 삼일째 되는 날에는 신부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며, 이때 시댁에서는 소고기 다섯 근과 정종 한 병을 선물로 보냈다. 저녁에는 동네 신부 친구들이 모여, 말린 명태로 신랑의 발바닥을 때리며 한턱을 요구하는 ‘신랑 다루기’ 풍속이 행해졌다.

신부가 친정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시댁으로 돌아갈 때 ‘이바지 음식’을 장만해서 가지고 갔다. 이바지 음식은 신부 집에서 술·떡·고기 등 다양한 음식을 정성껏 차려 시댁에 보내는 것으로, 송해숙은 이를 ‘내 딸 잘 봐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이바지 음식은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음식보다 더 풍성하게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신부는 본격적으로 집안 살림을 시작하며 시집살이를 하였다.

송해숙 : 떡 하고, 술 하고, 고기 하고, 뭐 다 해주지. 그 집보다 더 해 가지고. 오직 내 딸 잘 봐주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지. 남자네 집보다는 여자네 집에서 더 많이 해가.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혼례복의 변화도 관찰된다. 신랑의 양복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신부의 웨딩드레스는 시대에 따라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1960년대에는 허리선이 강조되고 목선이 넓게 퍼진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었고, 1970년대부터는 목선이 높아지고 비치는 소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컬러사진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웨딩드레스는 더욱 화려해졌으며,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착용한 웨딩드레스의 영향으로 어깨를 부풀린 퍼프소매가 유행하였다. 결혼식장의 구성이나 신랑 신부의 이름을 적은 풋말의 양식도 1960년대, 1970년대와는 많이 달라졌다.

4) 회갑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절에 한 갑자(甲子), 즉 나이 60세를 넘긴다는 것은 크게 복 받은 일이었다. 회갑 또는 환갑은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 자손들이 비용을 마련하고 정성을 모아, 최대한 성대하게 치르는 잔치이다. 회갑 잔치는 과거에는 집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회갑상은 대청마루나 마당에 차려졌고, 상 앞에는 밤·대추·잣·호두·꽃감 등의 음식을 원통형으로 높이 쌓아 올려 진설하였는데, 이는 자손의 효심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진설은 동네의 특별한 재주꾼에게 청하여 부탁하였다.

잔칫상 앞에는 술과 술잔이 놓인 현주상이 차려졌으며, 직계 자손부터 시작하여 연령별·항렬별로 상 앞에 나와 술잔을 올리고 절을 올렸다. 회갑상은 관습적으로 배우자, 생존 부모, 혹은 집안의 최고 연장자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력이 있는 집에서는 소리꾼을 부르기도 하였고, 2~3일간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길게 잔치를 벌이기도 하였다.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친인척만 초대하여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웃에게는 국수로 조촐하게 대접하였다. 이때 손님들은 국수 1관, 달걀 한 꾸러미(10개), 콩나물 등을 선물하였는데, 선물은 대개 품앗이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웃이 회갑 잔치를 열면, 예전에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방식이었다.

송해숙 : 국수나 삶고, 동네 사람 몇 사람 오라 그래서 한 그릇 먹고 가는 거지, 뭐. 누구 말대로 기생도 못 불러. 국수나 삶아서 조촐하게 하는 것이지. 식구들끼리, 이웃 간에.

최근에는 호텔이나 고급 식당에서 회갑 잔치를 여는 경우가 많아졌다. 잔치에 초대받아도 잔치 장소가 음식값이 비싼 곳이면, 축의금만 보내고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잔치를 여는 집의 금전적 손해를 염려하는 배려이기도 하다.

송해숙 : 저번에 박씨네 딸 시집가는데, 뭐 한 끼에 그게 5만 원짜리래. 그래서 5만 원만 내고 가지는 않았어. 지금은 그렇다니까, 세월이.

호현마을 박성배 어머니의 회갑연(1984)



상 위에는 사탕·과자·떡 등이 높게 올려져 있으며, '축회갑'·'수연'이라는 문구를 만들었다. 축하 케이크는 전통적 회갑상에 현대적 요소가 가미된 것이다.



박성배 부부가 어머니께 절을 올리는 장면으로, 부인은 전통 예법에 따라 얼굴을 가리는 천을 덮고 있다. 여성이 절할 때 도와주는 사람은 '수모(手母)'라고 불렀다.



집에서 하는 회갑 잔치는 바깥마당에 자리를 깔고 차양을 치고 상을 차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회갑 잔치는 축하 행사이므로 잔치의 여흥을 돋우기 위해 밴드를 부르기도 한다.

과거에는 60세에 회갑연(回甲宴), 회갑 다음 해 생일잔치인 진갑연(進甲宴), 70세의 고희연(古稀宴), 88세의 생일잔치인 미수연(米壽宴), 90세의 구순연(九旬宴), 100세를 한 해 앞두고 장수를 비는 망백연(望百宴) 등 연령에 따라 다양한 잔치 풍속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고령화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회갑연과 진갑연은 사라지고, 고희연이 회갑을 대신하는 경향을 보인다. 회갑잔치는 가족끼리만 하거나 여행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마을 경로당에도 80세를 넘긴 노인들이 대부분이라, 70세는 오히려 동네의 막내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

5) 상장례

상례는 3일장 또는 5일장으로 진행한다. 보통 3일장을 지내지만, 고인이 늦은 시간에 세상을 떠나거나 자식들이 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5일장을 치르기도 한다. 상례 절차는 먼저 망자의 죽음을 확인한 후 장례를 준비하는 초종의(初終儀)로 시작하여, 시신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힌다(습, 襲). 2일째 되는 날에는 시신을 삼베로 싸고 묶는 소렴(小殮)을 하며, 3일째에는 입관(入棺)을 진행하는 대렴(大殮)을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목욕과 습, 소렴과 대렴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염습(殮襲)이라 한다.

4일째에는 상주가 상복(喪服)으로 갈아입는 성복(成服)을 하고, 조문객을 맞이한다. 이후 장사(葬事)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치장(治葬)을 한 다음, 발인 전날에는 영구를 옮기는 천구(遷柩)를 거쳐, 고인을 영면으로 보내는 제사인 견전(遣奠)을 지낸다. 견전이 끝나면 상여가 장지로 출발하는 발인(發靱)을 하고, 장지에 도착하여 하관하고 봉분을 만드는 급묘(及墓) 절차를 따른다. 이후에는 새로 만든 신주와 혼백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반곡(反哭)을 한다.

시신을 보낸 후 조상의 영혼을 맞이하는 제사인 우제(虞祭)를 지낸 후, 삼우제(三虞祭)에는 혼백을 산소에 묻고 성묘한다. 운명 후 1주기에는 소상(小祥), 2주기에는 대상(大祥) 제사를 지내며, 이를 끝으로 상주들은 일상으로 복귀한다.

사람이 사망하면 과거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고(訃告)를 돌렸다. 부고장을 집안으로 들이지 않는 풍습은 오늘날에도 이어지며, 이는 부정확한 죽음 관련 소식을 가정 내에 들이지 않으려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연말이 되면 그러한 부고장을 불에 태우기도 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인해 전화나 문자로 부고를 알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상가(喪家)에 조문하러 갈 때는 보편적으로 현금으로 부조를 한다. 예전에는 술·국수 등

현물을 들고 갔으나, 장례식장 장례가 보편화되면서 현금 부조가 일반화되었다. 최근에는 인터넷 모바일 알림을 통해 상주의 통장을 안내받고, 조문을 못하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부조를 대신하는 문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조 내역을 기록해두었다가, 이후 상호 간에 예를 갖추는 품앗이 문화가 형성되는데, 이는 상호 호혜적 평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호현마을에서는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례를 집에서 치렀으며, 상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40여 전에 고인이 된 송해숙의 남편도 상여를 이용하였다. 당시 마을에서 상여를 메고, 의왕시 청계동에 위치한 안양시립청계공설묘지까지 가는 경우, 상여는 트럭에 실어 운반하였고, 상여꾼 및 마을 사람들은 경운기를 이용하여 함께 이동하였다. 상주는 매장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고기·술·찌개·밥·김치·나물 등을 준비하여 가져갔다. 그릇·쟁반·들통 등은 마을에서 빌려 사용하였다. 마을 부녀회가 조직된 이후에는 부녀회가 보유한 식기류와 물품을 장례에 사용하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그러나 약 30년 전부터 성남·수원·안성 등지의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이러한 풍습은 점차 사라졌다.

한편, 상여를 보관하던 곳집은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는 친목마을 인근 외딴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슬레이트 지붕에 시멘트 벽돌로 지어진 구조였다. 그러나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이 상여와 곳집은 자취를 감추었다.

시신 처리 방식은 매장(토장)과 화장으로 나뉘었는데, 과거에는 매장이 선호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례 정책으로 화장이 권장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대 60년까지만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 매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문화 전환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중반에는 전문 장례식장과 병원 장례식장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상여나 우마차를 통해 시신을 운구하던 전통 방식 대신 자동차(영구차)를 이용한 운구가 일반화되었는데, 이 영구차는 일제강점기의 신문화로 도입된 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에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 후 납골 혹은 산골(散骨)하는 방식도 증가하고 있다. 호현마을에서도 기존에 공동묘지에 매장하였던 조상을 화장하여 납골함에 모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상장례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현마을의 경우 주로 성남이나 수원에 위치한 장례식장을 이용한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로 인해 장례 기간이 단축되고, 상복의 형태 또한 변화하는 등 전반적인 의례 방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오늘날에는 장례식장과 상조회사(相助會社)의 장례지도사가 상례를 대행함에 따라 의례의 전문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6) 제례

제례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 절차와 제물은 집안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돌아가신 조상을 마치 살아 계신 듯이 모신다(事亡如事存)’는 개념에 따라, 사당에 서쪽부터 고조부모·증조부모·조부모·부모 순으로 4대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신다. 또한 ‘고서비동(考西妣東)’이라 하여, 아버지의 신위는 서쪽, 어머니의 신위는 동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러한 예는 사당을 갖춘 집안의 경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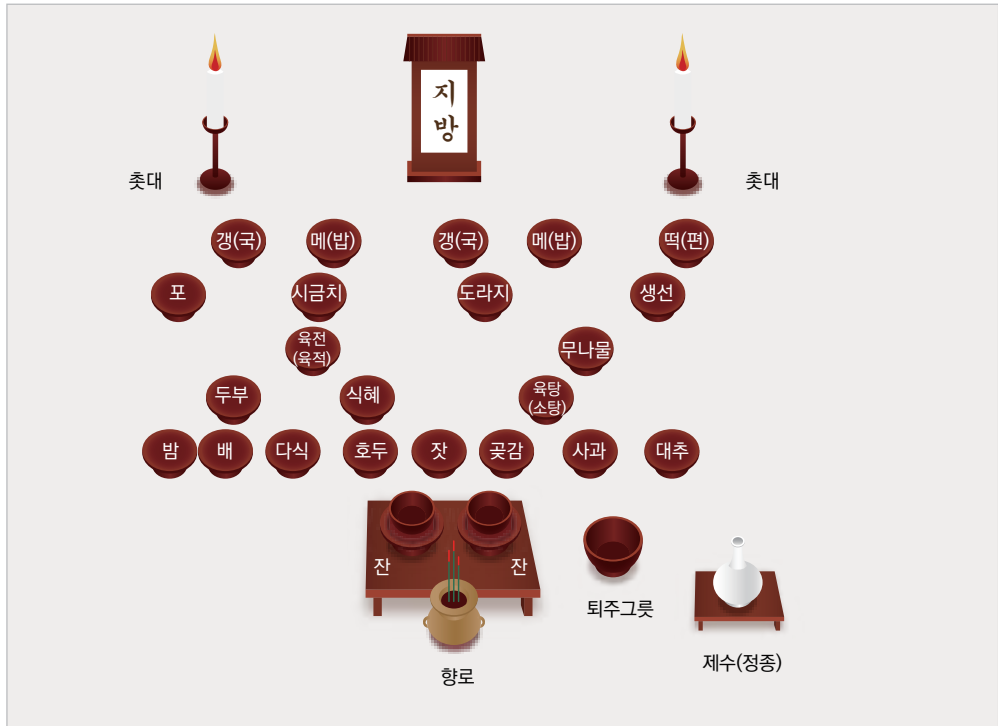
호현마을에는 현재 사당이 있는 집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제사 때마다 ‘지방’이라 하여 한지에 신위를 적어 모시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통상적으로 2대 조상까지만 모신다.

호현마을 토박이 박성배²⁾는 홍동백서(紅東白西)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물을 올린다. 기본 제물로는 사과·배·곶감 등을 사용하며, 설 차례에는 딸기, 추석 차례에는 수박을 올리기도 한다. 제물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조기와 산적으로, 비싸더라도 좋은 조기를 준비하고, 1등급 한우로 산적을 만든다.

제물은 형편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송해숙은 예전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을 때는, 생선은 중간 크기의 조기를 사용하였으며,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로 산적을 만들고, 닭 대신에 삶은 계란을 반으로 쪼개어 올렸다. 전은 집에서 재배한 녹두로 녹두전을 부쳤다. 탕은 무와 두부를 기본으로 하되, 그 위에 돼지고기와 다시마를 얹어 만들었다. 모든 제물은 짝수가 아닌 홀수로 차리는 것이 원칙이다.

송해숙 : 옛날에는 살기 어려우니까, 조기도 중간치기로 하고,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로 적을 만들고, 닭도 올릴 수가 없어서 삶은 계란을 반으로 쪼개 올렸어. 홀수로 제물을 올려. (중략) 무 넣고, 두부 넣고, 다시마 넣고, 그리고 국 끓여서 돼지고기 접고 나면, 거기 이만큼 떼어서 이제 저기다 다시마 위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지냈어. 우리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제사는 2대 봉사를 하며, 송해숙은 시부모와 남편 등 세 명의 제사를 모셨다. 송해숙은 남편이 장남이었기에 집안 제사를 맡아 왔으나, 남편이 45세에 일찍 사망하고, 아들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올해부터는 막내 시동생의 아들이 제사 권한을 가져갈 예정이다.



박성배 집안 제사상 진설도

송해숙 : 막내 시동생의 아들, 개가 이제 제사를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개네들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사는 끝난 거지. 큰아들이 안 지내면 막내아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막내아들이 두 명 있으니.

설과 추석에 지내는 제사는 ‘차례’라고 하며, 정초에 지내는 제사는 ‘밤중제사’라고 불린다. 정초에 지내는 밤중제사는 선달그믐날 밤 종가에서 제물과 떡국을 차려 놓고, ‘재배(再拜)-헌작(獻酌)-재배’를 한 다음, 초하룻날 아침에 차남 이하 자손들이 모두 모여 메를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고조부모·증조부모·조부모·부모 등 4대를 모셨으나, 오늘날에는 조부모와 부모 등 2대만을 모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부모만 모시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4대 봉사의 개념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지내는 10월 시제(時祭)에는 각지의 후손들이 모여 선조의 묘 앞에서 제사를 올린다. 제물을 진설하고, 제의를 진행하면 하루가 모두 소요될 정도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 시제가 끝난 뒤에는 종친회를 열어 한 해의 결산을 하기도 한다.

2. 호현마을의 종교의례

1) 가신

현재 호현마을에서 가신을 모시는 집은 없다. 다만 주민들이 널리 알고 있는 것은 마루에 모시는 성주와 부엌의 주저리가 있다. 송해숙에 따르면, 성주는 마루 한쪽에 성주독을 모시고 그 안에 쌀을 넣어두었으며, 어떤 가정에서는 쌀 대신 돈을 넣기도 하였다. 가을에 벼농사의 첫 수확이 이루어지면, 햅쌀로 교체하고, 묵은쌀은 10월 상달 고사 때 떡을 만들어 이웃과 나눠 먹었다.

송해숙의 증언은 경기도 지역의 일반적인 성주 신앙과는 달리 경상도 지역의 풍속과 유사하다. 성주에게 바친 쌀은 복을 가져다주는 쌀이라고 여겨 가족끼리만 먹는 것이 일반적인데, 호현마을에서는 이웃과 나누어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현마을 주민이 경상도 등 외지에서 혼인 또는 이주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부엌에서는 조왕신을 모셨다. 경기도 일반 지역에서는 부뚜막 한쪽에 청수를 두고, 매일 아침 우물에서 길어 온 물로 이를 갈아주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호현마을의 조왕신 신앙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호현마을에서는 부엌 아궁이 한쪽에 쌀을 담은 단지를 주저리로 감싸 신체로 삼았으며, 이를 조왕신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송해숙은 이 신체에 대해 ‘공들인다’고 표현하였다. 조왕 단지의 쌀은 가을에 첫 수확이 이루어지면 햅쌀로 교체하였다. 이러한 신체는 호현마을의 모든 가정에서 모신 것이 아니라, 일부 가정에서 선별적으로 섬겼던 것으로 보인다.

송해숙 : 그때는 어리니까 조왕인지 뭔지 모르고, 이제 그런 거 부엌에 그렇게 해놓는 것만 봤지. 그러가 지고 이제 한 해 농사를 지으면 그 쌀을 쏟아내고 다시 붓고, 그러니까 가을에 첫 수확 한 거.

10월 상달에는 가정마다 고사를 지낸다. 개인적으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가정마다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주독 앞에 시루떡과 마른 포, 청주 등을 진설하고, 한 해 가정의 무탈함을 기원하며 성주에게 고사를 지낸다. 고사 후에는 고사떡을 떼어 부엌이나 대문 근처에 두어 집안의 여러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미의 행위를 행한다. 고사 날짜는 가정마다 다르며, 고사 떡은 이웃과 나누어 먹기 때문에, 10월 상달은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송해숙 : 10월 상달에는 고사 지내지. 이 집 하면, 저 집도 하고, 10월달에는 많이들 해. 고사 지내는 날이 다르니까. 고사 날은 떡을 다 돌려 먹잖아.

가족 중 누군가 군대에 가거나 먼 거리를 떠날 때는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올려두고 무사안전을 빌었다. 이는 수명장수를 관장하는 복두칠성에 기원하는 행위이다.

또한, 새로 집을 짓거나 이사를 온 경우에는 대문에 코뚜레를 걸었다. 오늘날에는 대문에 코뚜레를 건 집을 볼 수 없지만, 송해숙은 집을 개조하기 전 걸어두었던 코뚜레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코뚜레를 거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정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는 풀이 달린 무서운 소도 코뚜레 하나로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시에 부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코뚜레를



송해숙이 대문에 걸었던 코뚜레

걸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소가 농가의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소를 판매할 때 코뚜레와 고삐줄은 주지 않았다. 코뚜레와 고삐줄을 타인에게 넘기면, 이후 소를 길러도 건강하지 못하다고 여겼다. 즉, 집안의 경제를 코뚜레처럼 단단히 잡아, 부자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깃든 행위였던 것이다.

2) 기록에는 있으나 기억에는 존재하지 않는 범고개교회

경기도 시흥 범고개(현 안양시 박달동)에 교회가 설립된 바 있다고 한다.³ 1897년 3월 24일자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는 스크랜톤 선교사가 시흥 지방을 순회 전도하였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 음력 정월 이십구일부터 이월 십오일까지 스크랜톤 선교사 모자가 시흥·수원·용인 지방을 다니며 전도하였고, 이때 시흥 범고개 주민 여덟 명에게 세례를 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896년에 범고개에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같은 해 7월 28일자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도 시흥 범고개에 새로 교회당을 건축하였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작년에 11월의 비용으로 교회를 건립하였고, 범고개 교우들이 15량을, 달성회당(현 기독교감리교 상동교회)에서 수백량을 보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교

회는 9칸 규모로 신축하였으며, 달성회당의 정태인이 이를 주관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한편, 『상동교회 구십년사』 및 『상동교회 백년사』에는 교회 건립과 관련하여 스크랜톤 대부인이 언급되지만, 범고개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호현마을의 토박이들 역시 과거에 마을에 교회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기억이나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3. 호현마을의 세시의례

설날을 비롯하여 각 세시명절에 행해지는 세시풍속은 사실상 대부분 일정한 의례를 수반하였으며, 전통적인 의미로는 ‘세시의례’라고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다. 과거에는 명절과 절기마다 그에 걸맞은 의례 행위를 실천하였으나, 현재는 설과 추석의 차례만이 전승되고 있다. 설날은 한 해의 시작을 맞이하는 것으로 여겼으며, 추석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며,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날로 인식하였다. 차례상은 집안마다 상차림에 차이를 보이지만, 제물에 담긴 정성은 모두 같다. 그리고 차례가 끝난 후에는 조상의 무덤을 찾는 성묘를 하였다.

호현마을에서는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정월 대보름 지신밟기와 척사대회를 열었다. 마을 두레패는 농기를 앞세우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축원을 올렸다. 가정에서는 그릇에 쌀을 담고 그 위에 촛불을 밝혀 두었다. 초를 켜는 것은 밝음으로 신을 맞이하는 의례 행위로, 불빛은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집안의 복을 불러들인다는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쌀은 두레패에게 시주하여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시주하는 쌀의 양은 가정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정월 대보름 낮에는 척사대회를 즐겼다. 마을 이장이 주관하기도 하였으나, 1984년과 1989년에는 박달동 부녀회와 체육회가 대보름맞이 척사대회를 개최하였다.⁴ 척사대회는 보통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최 측 천막(차일)에는 찬조금을 기부한 지방 유지들의 이름과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다. 과거 척사대회의 우승 상품은 대개 술이나 생활용품들이었다.

봄을 알리는 입춘에는 춘첩을 써서 대문에 붙이는 풍속도 있었다. 동네에서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춘첩을 받아 붙였으나, 이러한 풍속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호현마을의 어느 식당에서는 춘첩 문구를 반대로 붙이기도 하였다.



호현마을의 정월 대보름 지신밟기(1983년, 박성배 제공)



호현마을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시주 쌀(1983년, 박성배 제공)



호현마을 두레패(1983년, 박성배 제공) 피리는 연창수, 장구는 조충훈 부친, 징은 임채호 등이다.



박달동 정월 대보름 척사대회(1984년, 안양시청 제공)



박달동 정월 대보름 척사대회(1984년, 안양시청 제공)

4. 주거의례

1) 이사의례

이사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손’ 없는 방위와 일진(日辰)이다. 여기서 ‘손’이란 날수에 따라 사방위를 떠돌며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귀신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손 없는 날은 날짜에 0과 9가 들어가는 날로 여겨진다. 이사할 때는 기존 집에 있던 못 쓰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오는 것이 관례였다. 오랫동안 함께 생활한 물건이기에 이를 쓸어내면 보이지 않던 복까지 쓸려나갈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새집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들이는 살림살이는 불과 관련된 것이었다. 과거에는 불씨를 보관하는 화로를, 이후에는 연탄불이나 가스레인지의 가장 먼저 들여놓았다. 이는 모두 불처럼 집안이 융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또한, 솥 안에 요강을 넣어 가지고 가기도 하였다. 이는 가족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다. 솥은 밥을 짓는 기구이고, 요강은 배설물을 담는 그릇이므로 잘 먹고 배설을 잘하는 것이 곧 건강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대문 앞에 소금을 뿌려 집의 부정을 가시기도 하였다.

이사를 온 이후에는 집 안의 으뜸신인 성주에게 고사를 지내 새 식구가 자리 잡았음을 고하였다. 집들이 때는 성냥·양초·비누·세제 등 생활용품을 선물하였는데, 이는 불이나 거품처럼 집안이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이삿짐센터가 이삿짐 운반은 물론 정리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이사 풍속은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다만 ‘손 없는 날’ 이사를 선호하고 집들이 선물을 챙기는 관행은 여전히 이어오고 있다.

2) 상량의례

호현마을 몇 가구에는 아직도 상량문(上樑文)이 존재하고 있다. 반면 양옥으로 집이 변화하면서 상량의례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상량문은 대들보에 적는다고 하지만, 목조 건축물 최상부 부재인 종도리(마룻도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상량문 좌우에는 용(龍)자와 귀(龜)자를 새겨 집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용과 거북은 수신(水神)적 존재이다. 그리고 상량시(연월일시), 거주(家主) 생년, 건물 좌향, 기원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량문은 마을에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에게 맡기고, 상량의례는 목수가 집례한다. 집주인은 그간 집을 짓느라고 고생한 목수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기에 이날을 ‘목수 생일날’이라고도 한다. 상량 앞에는 일정한 제물을 차리고 집주인과 가족들이 절을 하며 집이 튼튼하기를 염원한다.

5. 호현마을 산고사

호현마을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설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음력 10월 초 하루 자정에 범고개 요골 초입에 있는 소나무 앞에서 산고사를 지냈다. 고사에 앞서 마을에서는 가정마다 쌀 3되 정도를 추렴하였고,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돈을 더 보태기도 하였다. 매년 고사 때에는 깨끗하고 부정이 없는 사람을 선별하여 당주로 삼았으며, 당주는 통돼지를 비롯하여 산고사에 필요한 떡과 술 등의 제물을 마련하였다. 통돼지는 외부 마을에서 구입하기도 하였으나, 동네에서 기르던 돼지 중 제물감이 되는 것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제의에는 당주만 참여하였다. 여자들은 부정이 탄다고 하여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다음 날에는 통돼지를 마을 가가호호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어느 부위가 가더라도 주민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송해숙 : 부위별이 아니라 양만 똑같이 해서, 누구네가 맛있는 거 가는지 다 똑같이 남자들이 해서 이제 집집마다 돌려주지.

산고사는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중단되었다. 도로 개설로 호현마을이 둘로 나뉘게 되었고, 신목으로 삼았던 세 그루의 소나무가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산고사를 중단한 이후, 마을 주민이 다치거나 죽으면 산고사를 지내지 않아서 그렇다고 믿기도 하였다.

송해숙 : 나무가 죽어서 없어. 동네 누구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자리도 없어. 지금 어느 자리인지도 몰라. 도로 나는 바람에 (중략) 인제 웬만한 사람 다 죽고 뭐. 동네가 엉망이지 뭐.

호현마을의 의례와 생활은 일상에서 형성되고 세대 간 전승되어 온 민속문화의 중요한 단면이다. 이사·상량·상고사 등은 단순한 생활 관습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

을 기원하며 구성원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사회문화적 장치였다. 비록 산업화와 환경 변화로 많은 의례가 소멸하였으나, 그 속에 담긴 상징체계와 신앙, 그리고 의례 수행 방식은 마을 사람들의 생활 체계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민속자료이다. 나아가 이러한 의례는 한국 농촌사회의 전통적인 주거 문화, 신앙체계, 공동체 구조를 복원·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화사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호현마을의 생활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지역 정체성과 민속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註

- 1 여, 1945년생, 호현마을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고 있다.
- 2 남, 1947년생. 현재 호현마을 거주.
- 3 이진호, 「안양지방의 개신교 전래」, 『안양문화』 제10호, 안양문화원, 1983년, 181~183쪽.
- 4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8, 2008, 149쪽.

제4장

호현마을 사람들

조아현 서울대학교박물관 연구원



1. 열심히 살았던 열두 식구의 가장 임용택과 김영숙

1) 들에서 채운 곱은 배

임용택은 1938년 여름, 음력으로 7월 7일에 태어나 줄곧 호현마을에서 살아왔다. 태어나고서 반년이 지난 후에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상으로는 1939년 2월생이다. 경기도 용인이 친정인 임용택의 할머니는, 딸과 두 아들을 남겨둔 채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남의 집 살림을 해주면서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빠듯한 생활이었지만, 월급으로 받은 돈을 착실하게 불려서 살림을 늘렸다. 그렇게 해서 호현마을에 땅을 사고 집도 지어 두 아들을 장가 보냈다. 임용택의 부친도 그렇게 터를 잡아 슬하에 6남매를 두었다.

서너 살 터울의 6남매는 자주 배를 주렸고, 임용택의 어린 시절 기억엔 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던 음식들이 여럿 등장한다. 봄이면 소나무 껍질(송기)을 벗겨 속을 씹어 먹었고, 들에서 냉이를 캐어 삶아 먹거나 각종 산나물을 뜯어다가 죽을 쑤어 먹었다. 내용물은 없어도 잔뜩 양을 늘려 배를 채우기 위해 주로 죽으로 먹었는데, 곡식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 씹어 먹기보다는 마시는 수준이었다.

임용택 : 자라면서 기억나는 게 뭐, 그때 뭐 먹지 못하고, 그냥 맨날 봄이면 저 산에 올라가서 송기 꺾어서 깎아 먹고. '송기'라고 있어요. 소나무. 그거 이렇게 꺾듯이 이렇게 까고 속을 이제 씹어서 먹고 그랬지. 지금은 뭐 아주 잘 사는 거지. 봄이면 그냥 들에 나가서 이제 냉이 같은 거 캐다가 그냥 삶아서 밥 한 숟가락 넣고서 그냥 잔뜩 양만 늘려서 비벼 먹고 (중략) 산에 가서 보면 그냥 그 산나물 뜯어

다가 잔뜩 집어넣고선 죽이나 뭘 그렇게 쉼서 마시고 그랬지, 뭐. 무슨 밥을 해 먹어. 이제 밭에다가 수수 같은 거 심으면 먼저 가을에 꺾어서 털어가지고서 옴팡떡이라고 있어. 수수. 그런 거나 해 먹고. 쌀밥이 어딴어요? 하도 못 살아서 그냥 들판에 덩기다 여음이면 뽕기나 뽕아먹고. 콩 뽕아다가 콩튀기나 해 먹고.

여름에는 들판을 다니며 뽕기를 뽕아 먹고, 콩을 뽕아다가 콩튀기를 해 먹었다. 뽕기는 ‘뽕비’라고도 부르는 여러해살이풀인 띠의 어린 꽃이삭을 말한다. 뽕기를 뽕아서 씹으면 껌처럼 질경질경하게 씹히며 달착지근한 물이 나와 아이들이 즐겨 먹었고, 어른들도 이것을 씹으면서 허기를 달랬다. 가을에는 봄에 심은 수수를 털어 수수옴팡떡을 해 먹었다. 수수는 곡식 중에서 가장 먼저 여물기 때문에 자주 먹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아직 푸른 기가 가지지 않은 보리나 수수라도 익기 전에 훑어다가 술에 찼다. 찌면 조금이라도 빨리 마르기 때문이었다. 찌서 말린 곡식은 맷돌에 갈아 먹었다. 다른 집의 소나 돼지 여물을 썰어주고 아침을 얻어먹기도 하였다.

2) 열두 식구의 가장이라는 삶의 무게

임용택의 아내 김영숙은 1939년생으로 말죽거리 근처인 신동면에 살았다. 신동면



김영숙 · 임용택 부부



10대 시절 김영숙(김영숙 제공)



신혼 시절 임용택 · 김영숙 부부(김영숙 제공)

은 과거 경기도 시흥군에 속했는데 지금은 서울시 서초구 지역에 해당한다. 김영숙은 1966년 12월에 한 살 연상의 임용택과 혼례를 올렸다. 27세의 신부는 당시로서는 결혼이 매우 늦은 편이었다. 작은아버지, 사촌오빠, 친오빠까지 결혼한 후 혼례를 올렸기 때문이다. 결혼 전에 할머니 상을 치르고 난 이후 서면 박달리 호현마을로 시집을 왔다.

김영숙 : 이 동네에 벌판에 다 저거 포도, 포도밭이 있어. 노루표가 얼마나 넓어. 그거. 노루표 그쪽 공장 다 그냥 그계 포도밭. 그냥 이런 식으로 다 밭, 그냥 다 그랬었어.

김영숙이 결혼하던 당시에는 말죽거리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았고, 호현마을도 상황은 비슷하였다. 결혼을 했다고 따로 방을 얻어서 나가 사는 것도 다 돈이었으니, 세간을 나지 못하고 대가족이 모두 같이 살았다. 시할머니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형수와 시누이와 그 아이들까지. 식구들을 건사하기 위해 임용택과 김영숙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다. 임용택의 할머니 덕분에 마련한 작은 밭에서 수수나 보리를 수확해 먹었지만, 일찍 거둘 수 있는 수수와 보리마저도 다 떨어졌을 때는 눈앞이 아득했다. 겨우 마련한 수암면 물왕리의 작은 밭에서 수확한 열무를 싣고 안양 구시장까지 팔러 나왔다. 열무를 판 돈으로 보리쌀 한 가마를 겨우 사도 열두 식구가 나눠 먹으면 금방 동이 났다.



김영숙이 호현마을로 시집오던 무렵의 호현마을 일대(1966년,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김영숙 : 스물아홉에 첫애를 낳았어. 첫애를 배가지고 여기서 물왕리 저수지¹, 쪽 들어가야 돼. 거기에 열무밭을 이만한 거 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뽑아서 단을 지어서, 거기서 안양 구시장까지. 지금 남부 시장 쪽이지, 그쪽이야. 거기서 거기 걸어왔어. 아기 배가지고. 그렇게 살기 힘들었었어. 진짜. 마차 뒤에 콩무니 따라서 거길 갔어, 같이. 그래야 먹고 살았는데 어떡해. 지금 얘기를 하면 진짜 눈물 날 지경이지. 근데 너무도 힘들었으니까. 열두 식구가 같이 사는데, 어떻게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거 해 갖고 장사해서, 보리쌀 한 가마니 사서, 그러면 열두 식구가 먹으면 얼마나 먹어, 그 열무 장사 해서. 열무밭 요만한 거 사가지고 뽑아다 팔아서 열두 식구 먹을 보리쌀 한 가마니 사서. 보리도 떨어 지니까 벼 나기 직전에. 그렇게 살았어.

조그만 열무 농사 외에도 임용택은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서 달걀·포도·생선·소금 등을 받아다가 장사를 하였다. 자전거에 생선을 실은 채 고개를 넘나들면서 서울로 팔러 다녔다. 배가 고파도 빵 사 먹을 돈조차 없어 고개에 드러누워 허기가 가시기를 기다렸

다가 참고 돌아오기도 하였다. 또 현재 시흥시 포동의 새우개마을²에서 소금을 두 말, 서 말씩 갖다가 팔기도 하였다.

임용택 : 저 새우개라고 있어, 새우개. 거기 가서 소금을 두 말, 서 말씩 걸머지고서 갖다가 팔아서, 이제 무슨 수수나 팔아가지고 와서 먹고살고. 도적질도 많이 하지. 소금 팔아가지고 살아가려면. 이 소금 터머지가 이렇게 있으면 짙 터머지 같아. 소금 터머지가. 그러면 거기 지키는 경비가 저쪽으로 돌아가면 이쪽에서 그냥 떠 담아가지고 넘어오고. 그래, 몇 번 떠가지고 왔는데. 그런 날은 그래도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고 훔쳐오니까 좀 낫지(웃음).

소래염전에 가서 소금을 사가지고 와서 팔아서 그 돈으로 생활했다는 이야기는 임용택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너나없이 가난하던 시절, 많은 사람이 한밤중에 안양에서 소래염전까지 왕래하였다. 소금을 짚어지고 오다가 쉬는 곳이 범고개였다고도 하고, 범고개에는 이 소금을 사 가는 장사꾼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였지만, 임용택은 아이들에게 건빵도 못 시줄 만큼 가난한 아버지가였다. 겨울은 유독 혹독했다. 개울에서 몸을 씻을 수 있는 다른 계절과 달리, 겨울에는 목욕을 할 수 없어서 온몸에 때가 끼다 못해 터지기 일췌였다.

임용택 : 때가 그냥 여기에 새카맣게 끼지. 겨우내 목욕을 한 번 못 해. 이제 따뜻해져서 목욕하고 그러려면 개울에서 목욕할 때. 그냥 때가 발뒤꿈치에 그냥, 이런 데에. 손이 때가 켜가지고 그냥 툭툭 터져서 피가 나.

김영숙 : 목도 새카맣는데, 옛날에는. 손도 그러니까 러지잖아. 옛날에 다 러졌어, 이제. 때가 하도 하도 켜서 때가 러지는 거야. 짹짹 갈라지지. 손등도 그냥 막 피가 나고 갈라지고.

겨우 하나 있는 솜바지를 빨 때면, 말리는 동안 이불 안에 들어가 있어야 했고, 바지를 벗어 말리기 위해 화롯불에 가까이 대면 이가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임용택 : 그전에 솜바지라고 있어. 솜바지. 솜바지를 입고서는 그걸 빨으려면은 종일 그냥 이불 속에다 파묻어 놓고 그걸 하루에 저기 해가지고선 또 바지를 만들어가지고서 입히고 그랬어.

김영숙 : 하나 갖고 입은 거야. 바지 하나. 그러니까 이불 속에 가서 있었지. 말리고 뭐 할려면.

임용택은 서면국민학교와 안양중학교에 다녔는데, 당시만 해도 중학교까지 다니는 사람이 드물었다. 김영숙 역시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하였다. 그래서였을까. 이들은 아이들 만이라도 더 배우게 하고자, 먹을 것을 아껴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데 뜻을 함께 하였다.

임용택 : 그때 난 영선반이라고, 집 짓고 그러는, 이제 그걸 했어. 지금 여기 동아유리 자리 있잖아. 그 옆에 큰 건물, 경비실. 그거 다 내가 지어서 쓰는 건데 뭐. (중략) 처음엔 연합유리였어. 연합유리 했을 적에, 중앙유리로 있다가 동아제약에서 그 건물을 산 거야, 전부. 그러가지고 동아유리보다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수석이라고 그러지. 수석. 근데 이제 그제 이사 가고, 지금 그거 헐어내고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느라 그냥 싹 비어 있어요. 제일 먼저 내가 들어간 지가 중앙유리인지, 그랬을 거야.

30세에 첫 아이를 낳은 이후 임용택은 31세에 현재 (주)수석으로 사명이 바뀐 중앙유리에 기계공으로 입사하였다. 31세부터 55세 정년퇴직까지 영선반에서 근무하며, 중앙유리가 연합유리로, 다시 동아유리로 이름을 바꾸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회사에서는 중학교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큰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댈 수 있었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평촌 등지의 아파트와 빌딩에서 70세까지 경비 일을 지속하였다. 특히 아파트 경비는 밤에 잠을 자기 어려워서 힘들었지만, 일을 그만둔 것은 건강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평생 일을 해오며 몸이 상할 수도 있었지만, 몸은 고맙게도 90세에 가까운 지금도 또래보다 건강한 편이다. 그러나 건강이 받쳐주어도 나이가 많아지자 임금을 자꾸만 깎아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3) 호현마을의 변화와 함께한 이사

임용택은 조부모 대부터 호현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지만, 살던 곳에 군부대·도로·공장이 들어오면서 여러 차례 이사해야 했다. 현재 임용택과 김영숙의 집은 호현마을 입구에서 조금 더 밖으로 나와, 12번·2번·3번·50번 버스가 정차하는 친목마을 정류장 가까운 곳에 있다. 지금의 집터에 자리 잡기까지 세 번 이사하였다. 군부대가 입지하고, 도로가 생기고 또 그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이동한 것이다.

김영숙 : 우리 아버님이 육군 쪽대기 거기 사는데, 정부에서 군부대가 들어와갔고 그냥 저거 한 거야. 그냥 뭐 없지. 뭐야, 논이 어딴어. 그리고 저쪽에 또 군인 저쪽에 또 저 길 건너, 거기도 밭도 군용지로 군인들이 점령해 또 못 쓰게 하고. (중략)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들어가서 보상받아갔고 저기다 집을 지었는데, 지금 저기 택배 회사 있는 데 있잖아. 거기가 우리 집이야, 원래는. 원래는 안쪽이 집인데 그 리 또 도로가 나는 바람에 보상받아갔고, 여기 버스 정류장 있는데 거기다가 지었는데, 또 그게 (도로가)늘어나니까 미리 온 거야, 우리가. 세 번째 이사를 온 거야. 도로 때문에.

원하지 않았음에도 개발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집터를 옮겨야 했지만, 그럼에도 임용택은 여전히 호현마을을 주민으로서, 호현마을 토박이로서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고, 호현경로당에도 자주 나간다. 김영숙이 50대 중반에 척추와 고관절을 다친 이후로는 바깥 활동이 어려워져 매주 경로당에 나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호현경로당 회원으로서 마을을 청소하는 등 일손이 필요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참석하고 있다.



2. 호현마을을 바꿔놓은 마을 일꾼 김금자·김은일 부부

1) 1994년 봄, 개발의 기대를 안고 호현마을로

김금자는 1952년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에서 태어났다. 3남 2녀 중 맏딸로 태어나 장녀로서 남동생 셋과 막내 여동생을 엄마처럼 돌보았다. 특히, 늦둥이 막내 여동생과는 스무 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금자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와 나이가 비슷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결혼식을 올린 여동생이기 때문에 더 애뜻하다고 한다.

남편 김은일도 같은 충청북도 출신이다. 그는 1948년생으로, 현재는 청주시로 통합된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에서 살았다. 두 사람은 1973년에 결혼하여 청원군 북이면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서 처음 살았던 곳은 관악구 봉천동 국사봉 아래의 '국회단지'³였다. 관악구에서 살다가 이곳 박달동 호현마을로 이사한 지는 30년 정도 되었다.

김은일이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을 무렵, 김금자는 부동산업자로부터 박달동 집을 소개받았다. 대청마루가 있는 운치 있는 흙벽돌집이었다. 인근에 광명역이 신설될 예정이며, 현재는 군사보호지역이지만 금방 풀린다는 말에 이 집을 선택하였다. 처음에는 아예 들어와 살 생각은 없었다. 대신 박달동 집에 세를 주었는데, 매년 수백만 원을 들여 수리해야 하였다. 그럴 바에야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였다.

김은일 : 금방 풀린다. 군사지역도 금방 풀린다 한 것이 몇 년이 지나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지금 묻혀 살게 된 이유가, 역세권 생긴다는 것도 알고 이사는 왔어요. 우리가 처음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서울에서 있다가 집만 사봤었는데, 이제 집 관리가 안 되고 맨날 세를 주니까 일 년에 몇백만 원씩 들여서 수리를 해. 뭐가 고장 났니, 문짝이 고장 났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돈을 좀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니까 좀 깨끗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여기 공기 맑고 편찮으니까 우리가 들어와서 살자 해가지고 우리 딸아이 중학교 3학년 때, 여기 와서 서울 학교를 계속 다니고, 서울에 대학교도 그쪽으로 여기서 다녔어요.

결국, 딸이 중학교 3학년이던 1994년 봄에 호현마을로 이사를 와서, 줄곧 호현마을에서 살아왔다. 1994년인데도 당시의 호현마을은 안양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낙후된 곳이었다. 상수도과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았었다. 이사 온 마을에는 변변한 가게 하나 없어서 음식을 쟁여 놓기 위해 냉장고를 여러 개 들여놓았다.

김은일 : 처음에 여기는 소방도로가 없었어요. 수도도 안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도시가스도 안 들어와. (중략) 저희 집 앞에도 소방도로가 나갔는데 저희 집 앞에도 겨우 리어카 하나 정도밖에 못 달리던 길이었어요. 앞애가 개울이랑 바로 붙어있어.

김금자 : 와서 보니 시장도 그냥 버스 타고 나가면은 박달시장 가는데 1시간도 넘게 걸렸어. 길이 좁으니까. 옛날에는 안양여고 사거리서부터 안산 시흥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다 평균 2차선. 그래갖고 그렇게 힘들어. 거짓말 조금 보태서 여기서부터 안양여고까지 나가려면 1시간 걸려. 박달사거리부터 안양여고까지 얼마나 돼. (중략) 처음에는 시장도 좀 그렇고 참 살기 힘들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사다가 쟁여 놓고 그냥, 그래서 냉장고도 엄청 샀어. 냉장고가 하나, 둘, 셋, 4대나 돼. 4대나 돼 우리. 지금 김치냉장고 2대, 냉동고 하나, 냉동고 큰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사서 쟁여 놓고 먹는 습관이 있어서. 여기 시장 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김금자 김은일 부부의 집은, 예전에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막걸리 식당을 운영하던 집이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술 한 잔씩 하면서 화투도 치던 공간이었다. 김금자는 그 공간을 부엌으로 만들었다. 대신 원래 부엌이었던 공간은 화장실로 개조하였다. 기존의 구조는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이용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대청마루와 안마당을 각각 거실과 복도로 만들어 실내 공간을 확장하였다. 이후 2015년에 예전에 있던 서까래 밑에 다시 서까래를 설치하는 목조 공사를 진행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김은일 · 김금자 부부



호현마을 소방도로 변에 있는 김금자·김은일 부부의 집

2) 골치 아픈 동네, 호현마을

IMF 외환 위기가 닥쳤던 1997년, 지천명을 맞이한 김은일이 명예퇴직을 하였다. 명예 퇴직한 직장인이 퇴직금으로 장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은일과 김금자 부부도 퇴직금으로 치킨집·PC방·맥주 전문점 등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성공적이지 못해서 매번 자본금이 줄어들었다. 덕천마을이 재개발되기 전에 큰 맥주 전문점을 열기도 하였다.

김금자 : 치킨집도 해보고 하이트 광장인가 뭔가 해서 그건 돈 수억 까먹고 여기 이제 퇴직금 탄 것까지. 다 까먹고 (웃음) 그랬어. 저기서 덕천마을에서 크게 75평짜리 하나 얻어가지고 그거 하다가 아휴...

직장을 일찌감치 그만둔 김은일은 2012년부터 호현마을 추진위원장, 그리고 노인회장 일을 맡아 해왔고, 김금자 또한 호현마을 부녀회 총무로 마을일을 맡아 보았다.

김은일 : 내가 2012년도 3월 10일서부터 동네일을 시작을 해서 상수도, 도시가스, 소방도로 다 한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여기 경로당의 회원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일을 좀 봐라 이래서 추천을 해가지고, 정말 여기 엄청 골치 아픈 동네였었어요.



옛 막걸리집을 개조해서 만든 김금자·김은일 부부 집의 주방

호현마을이 낙후된 것은,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도축장이나 쓰레기 적환장 같은 비선호시설이 마을 주변에 자리 잡은 것도 이런 입지 조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김은일 : 저 길 건너도 옛날에 전부 다 논이었었어. 안양시 쓰레기 매립을 다 거기에다 했어요. 옛날에 여기가 쓰레기 매립장. 근데 여기가 다 찼어. 다 찼으면 어떻게 해야 해. 다 옮겨야 할 거 아니에요. 옮긴 게 바로 여기 범고개 적환장이예요.

호현마을 인근의 도축장과 쓰레기 적환장에서 나는 악취와 골재업체에서 날아오는 분진은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주민들을 힘들게 하였다.

김은일 : 옛날에는 여기 도축장 때문에 냄새가 나가지고,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사람들이 삼복더위에도 차 유리창 열면 냄새 나니까 창문을 못 열어. 버스 기사 아저씨는 버스 문 닫으라고 하고 그랬어요.

김금자 : 우리가 그전에 여기 와서 이제 동네 일을 보면서 싸우기를, 안양시한테 우리를 이주를 시켜라 했어요. 이렇게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살 곳은 못 된다. 저 적환장의 냄새가 엄청 났었어요.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썩은 냄새가.

김은일 : 가정집에서 세탁을 해가지고 빨래를 줄에다 널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선 골재 이런 데서 분진이 날아와가지고 아주 빨래를 널지를 못하고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비 온대. 비 오면은 지금 나가시다가 물 한 번 쳐다보고 이따 비 올 때 한 번 일부러도 지나가고 물을 한번 쳐다보라고. 색깔이 달라요.

김은일 김금자 부부를 비롯한 호현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를 통해 지금은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 협신식품 도축장은 2015년에 현대화된 시설을 새로 갖추었고, 생활폐기물 적환장은 안양시는 2018년 11월에 악취 발생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였다.

김은일 : 지금 개선된 것이 협신 도살장에도 기계화를 지하에다 해가지고서는 약간 변화시켜서 거의 옛



날에 보면 한 80~90% 잡혔다고 할까. 정선골재도 야간에 작업 안 하고 낮에만 하고. 그 앞에 보면 옛날에 박달동 주유소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주유소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벽을 다 막았어요. (중략) 정선골재가 들어오기 전에는 집 같은 거 뿌시고 나면 나오는 거 들어오는 정도였는데, 정선골재라는 데가 들어와가지고 많이 개선됐어. 지금 거기서부터 저쪽 뒤로 해가지고 산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음벽으로 막아놨어요.

호현천은 호현마을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가재도 계도 사는 깨끗한 하천이었다. 1995년 고속도로가 생기고, 2차·3차 확장 공사를 거치면서 비가 올 때마다 고속도로의 먼지가 씻겨 내려서 호현천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마을의 하천은 오염되어 갔고, 수량도 줄어서 현재는 건천화되었다.

김은일 : 고속도로 위에서 비가 오면은 타이어 가루 먼지가 다 씻겨가지고 우수관을 타고서는 내려온다고요. 그 관이 이렇게 내려오게끔 돼 있어요. 하천으로. 그러가지고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못 살죠. 심지어는 저 위에도 지금 없어요. 가재 같은 거 없어요. 저 여기 올 때만 해도 가재가 무척 많았어요. 가재도 살고 계도 살고 안양천에서 올라와가지고 게 같은 게 살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오염이 돼서. (중략) 처음에 왔을 때 여기에 물이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범람을 해던 텐데. 그래서 앞에다 이 위에 턱을 높인 거예요. 물이 범람을 해서. 그런데 지금은 물이 없어.

3) 살기 좋은 호현마을이 되었음 좋겠어

2013년에 호현마을이 경기도 생활환경복지마을로 지정되며,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생활환경복지마을은 농촌과 구도심 지역을 선정하여 경기도가 주거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호현마을은 이를 통해 도시가스 인입공사,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문패 달기, 담장 도색 및 벽화 그리기, 마을회관 위생 싱크대 설치, 간이 쉼터 설치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김은일 : 어떻게 하면 동네를 조금이라도 좀 변화시켜볼까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시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2014년도에 여기가 개발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개발이라면, 집 전체를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스레트 사업. 스레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2차에서 선정이 됐는데, 1차에서는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2차를, 시에서 2차 추천을 했는데 그때는 돼가지고 정부에서 보조를 80%를 해주고 나머지 20%는 이제 본인 부담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스레트를 했어요.

슬레이트 지붕은 평판 형태의 지붕재를 맞물려서 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로 석면 시멘트, 금속,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진 판재를 사용하며 경사가 있는 지붕에 덮는데, 슬레이트가 서로 맞물려 설치되어 빗물이 침투하지 못한다. 슬레이트는 타일 지붕이나 아스팔트 지붕보다 시공비가 저렴하고, 무게가 가벼워서 설치가 쉬운 편이다. 가격과 설치상의 이점 때문에 새마을사업 당시 지붕 개량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주재료인 석면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여, 전국적으로 석면 제거가 진행되고 있다.

호현마을도 생활환경복지마을에 선정된 후 지붕 슬레이트 제거 및 개량 공사를 하였지만, 마을 전체가 다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기와를 새로 얹은 집들도 있지만, 슬레이트 위에 기와를 올린 집들도 있다.

경기도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호현마을 동동길’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2014년 8월에 노루페인트 안양공장, 공공미술 프리즘, 그리고 안양대학교 학생들이 마을 곳곳에 벽화를 그렸다. 지금은 색이 다 바랜 호현경로당 옆 너나들이 쉼터 가림막도 이 당시 그려진 것이다. 경로당 옆 벽화에는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음 좋겠어. 화목하고 화사한 마을이 되기를 바라요.”라는 김금자의 소망이 적혀 있다. 벽화에 그려진 이들은 지금은 안 계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다. 돌아가시거나 멀리 이사를

호현마을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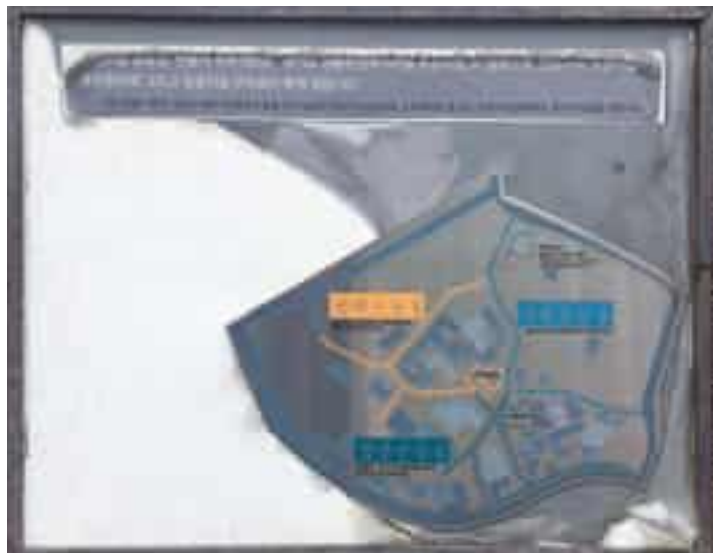




호현마을 주민들의 소망을 적어 놓은 벽화

떠났다.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바라는 것은 그때와 같다. 살기 좋은 호현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1999년 박달로275번길에 지금의 2층짜리 호현경로당 건물이 신축되었다. 매주 월·수·금, 김금자의 아침은 호현경로당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경로당에 가서 문을 열고, 함께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둔다. 회원은 33명이지만, 함께 점심을 먹는 사람은 15~20명 정도이다.



호현마을 동동길 안내관

이전에 비해 살기 좋아졌지만, 여전히 이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럽지만은 않다. 나가고 떠나는 사람은 있어도, 살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호현마을의 현실이다. 김은일·김금자 부부는 서울 봉천동에 마련한 아파트를 세놓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 살지를 고민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덧 삼십 년 넘게 살아왔고, 호현마을을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싸워 온 십 년 이상의 시간이 마음의 발목을 잡는다. 평촌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늦게까지 일하는 딸 대신 손녀를 돌봐주고, 시흥과 부천에서 사는 형제간을 만나기에도 호현마을이 더 편하다.

계다가 호현마을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채소를 사러 나갈 필요가 없다. 김금자는 이전 주인이 남기고 간 텃밭을 가꾸고 있다. 어느새 10년 이상 돌본 텃밭을 통해 김금자는 나눔을 실천한다. 경제적으로 나누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텃밭에 심은 작물은 나누어 먹는 데 아낌이 없다. 김장철이 다가오는 즈음에 김금자의 텃밭에는 김장용 무와 배추가 가득하다.

호현마을의 개발을 제한하던 규제들이 최근에 모두 해제되었다. 소위 '박달스마트벨



리'라고 개발사업을 안양시에서 추진하는데 이 사업지구 안에 호현마을이 포함된다. 호현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개발에 대해 기대하였지만,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24년 현재 진행이 멈춘 상태이다.

김은일 : 근래 와가지고 ODH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콘테이너박스 이거 36, 39짜리 두 개 갖다 놓은 것이 한 5년 돼요. 근데 지금 아직도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를 개발해보려고 동서남북으로 지금 뛰어 보고 있어요. 뭐 국토부 아니면 경기도 아니면 안양시 다 지금 뛰어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3.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바르게 걸어온, 호현마을 토박이 박성배

1) 호현마을 토박이 집안

박성배는 1947년 7월에 호현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호현마을에 적을 두고 있다. 박성배의 집안이 언제부터 호현마을에서 살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의 아버지, 조부, 증조부와 고조부는 호현마을에서 살았다.

박성배 : 난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이 집터에서만 지금 78년 이 집터에서 살고.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님까지 여기 다 사셨어. 증조할아버지하고 고조할아버지는 내가 몰라도 우리 할아버지 때서부터 알고 있었어. 여기서 살으셨다는 걸 알고, 그래서 8·15해방, 6·25사변 이런 거 다 여기서 겪었어. 나는 6·25사변을 여기서 겪었으니까.

그는 위에 누나 하나를 두고 5남매의 둘째로 태어났다. 5남매는 모두 3~4살 터울인데, 그와 2살 차이가 나는 동생 하나는 홍역을 앓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버스도 차도 없어 우마차로 학교에 등교하기도 했던 그는, 10리 가까이 떨어진 서면국민학교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서 등교해 6년 개근상을 받았다. 마을 친구들과 손잡고 같이 등교하기도 했고, 또 따뜻한 봄바람에 공부하기 싫은 날이면 산에 올라가 칩부리를 캐 먹고, 개복숭아를 따 먹고, 돼지감자를 캐 먹으며 보냈다. 장난삼아 먹기도 했지만,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한 주식이기도 하였다.

누구도 배불리 먹기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박성배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박성배의 부모님과 자녀(1978년, 박성배 제공)



호현마을 박성배의 옛집(박성배 제공)

편이었다고 한다. 집도 크고 논도 많았으며, 집안일을 돕는 사람이 둘 이상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었다. 안양읍사무소에 근무였고, 서면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장남인 박성배도 뒤를 이어 공무원이 되길 바랐다.

공부에 뜻이 없었던 박성배는 21세에 입대하려고 했다. 그런데 1968년 1·21사태로 인해 30개월이던 군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연장되며 기존 군인들의 전역이 지연됨에 따라 신병 입대가 늦어졌다. 그래서 박성배는 계획보다 늦은 23세에 입대하였다. 제대할 무렵 강원도 정선 출신의 아내를 ‘중매 반, 연애 반’으로 만났다. 2년 정도 연애를 지속하다가 스물아홉에 결혼식을 올렸다.

2) 정육점 운영과 축산기업 조합 활동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였다. 도축한 소와 돼지를 받아 판매와 유통을 하는 정육점이었다. 호현마을의 한글명을 따서 ‘범고개 정육점’이라고 상호를 지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집은 돼지를 길러서 팔았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도 동료들에게 돼지고기 주문을 받아 팔았는데, 수익이 괜찮았던 경험이 있어서 정육점이 장사가 될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성배 : 내가 장사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 이 집에서 살 때, 돼지를 내가 여기서 길렀거든. 그때 돼지 같은 거를 기르면은 이렇게 남들한테 파는 거야. 그런 돼지 장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돼지를 만약에 150근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가면 130근밖에 안 사가. 이상하지. 그래서 내가 회사에다가 전기실에 있으면서 회람을 돌렸어. 돼지고기 사설 분들 있으면 한번 주문을 받아보니까, 돼지 두세 마리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이제 잡아가지고, 도축장 가서 잡아가지고. 우리 저기는 못하니까. (중략) 보니까 집에서 만약에 팔면, 100원밖에 안 되는데, 그 장사꾼한테 팔면 100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팔아보니까 230원이야. ‘아, 그러면은 이거는 장사를 하면 괜찮겠다.’ 그러가지고 이거 장사 시작하려면 얼마나. 그때 돈 500만 원이야. 그냥 집에 있는 돈 갖고, 그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내 반지, 마누라 반지, 결혼할 때 뭐 받은 거, 이런 거 다 팔았어.

정육점은 1975년부터 1996년까지 자리를 옮겨가며 20년 3개월 동안 지속하였다. 처음에는 호현마을에서 시작하였다. 당시만 해도 호현마을에 100여 가구 남짓이 살고 있어 장사가 되긴 했으나, 다 팔리지 않아서 받은 가족들이 먹다시피 하였다. 그래서 호



박성배가 운영한 범고개 정육점(1970년대, 박성배 제공)

현마을 장사를 접고 비산동 주공아파트 상가에다 정육점을 열었다. 거기서 3년 정도 운영하다가 1980년 10월 3일에 중앙시장으로 옮겼다. 옛날 서울병원 바로 뒤편 건물에 있던 정육점을 인수하였다. 상호가 ‘용인 정육점’이었다.

박성배 : 서울 하얏트 호텔 같은 데도 납품했었고, 식당 같은 곳도 한 번 내 물건을 쓰면 진짜 많이, 한 10년 이상들 그렇게 거래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사식당 같은 데도 많이 대줬고. 납품도 좀 많이 했었고 그렇게 했어요. 소매도 하고.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그는 농협 대의원, 축산기업조합 부조합장, 그리고 축산기업 조합장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였다. 그가 안양시 축산기업조합장이던 당시 동안구와 만안구를 합쳐 안양시에는 580여 개의 정육점이 있었다. 6년간 부조합장 업무를 하며 축산기업의 생태를 파악하였다. 부조합장은 조합장이 선출하지만, 조합장은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데, 당시 그와 조합장 자리를 두고 겨루는 이는 이미 당선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여겨지는 유력한 후보였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내세운 공약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다. 관용차 유지비를 조합원들의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그는 농협

박성배 : 공약은 딱 한 가지 있었어. 남들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차량 유지비를 썼지. 나는 거 안 받았어요. 공약이 그거예요. 조합원님들 학생들, 중학교서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들어가면 신청서 가져오시면은 내 보급하고, 저기 차량 유지비하고, 수당하고, 이거를 해서 학생들, 중학교는 5만 원, 대학교는 만약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15만 원이면 15만 원, 이렇게 다 장학금으로. 그러니까 입학금 해주는 거 그걸 해주는 거야. 파격적인 공약이지. 참 힘든 거지. 그러니까 거기 먼저 조합장이 참 대



박성배의 축산기업 조합장 공로패 2022년까지 운영한 박성배의 택시와 그의 자택(박성배 제공)

단했던 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안 된다고 그랬어. 계란으로 돌 깨기라고
그랬어. (중략) 차량 유지비 이런 거 일단은 받아. 받아갖고 총무한테 “이거는 모아봐라. 나는 주지 말
고.” 그래갖고 2월달에 전체 해가지고 공문을 주는 거예요. 전부 입학원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럼 홍길동
이 만약에 자제가 있잖아. 자제 있으면 입학원서 가지고 와. 그럼 그거 5만 원 주는 거야. 중학교면.

1984년, 환갑을 맞은 어머니를 위해 박성배는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만큼 성대
한 환갑잔치를 열었다. 6인조 밴드까지 불러서, 마을 사람들의 입에 여러 번 오르내린
큰 잔치였다. 안양시 축산기업조합장 임기를 마치고 얼마 후에 정육점 운영도 그만두었
다. 이후 개인택시 영업을 시작했는데, 아내와 함께 전국 팔도를 관광하기에 좋을 것이
라는 판단이었다. 그는 1997년부터 2022년도까지 25년 정도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면
서, 교통 약자들에게 무료로 택시를 이용하게 하거나 교외 나들이에 동행하는 교통봉사
대 봉사활동도 이어갔다.

3) 고향 호현마을을 위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호현마을 통장 업무를 보았다. 그와 가족들이 평생을 살
아온 호현마을을 위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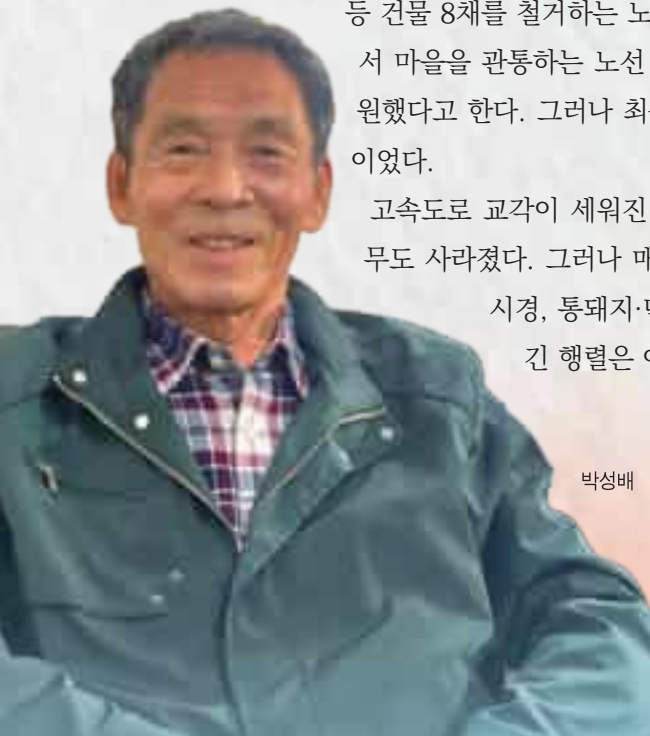
박성배 : 냄새는 도축장도 그렇지만 그 옆에 폐기물장도 있었어요. 정선기업이라든가, 또 음식 찌꺼기 같은 폐기물 같은 거 하는 데. 그런 것 때문에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대표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통장 하면서 동네에서도 목 많이 먹었지만. 적환장이라든가 또 정선골재, 도축장 거기서 이제 냄새가 많이 나고, 소리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서로 많이 얘기하고. 소리가 많이 나고 먼지 같은 게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자제 좀 해달라고 하고. 그때 당시에 많이 그랬고. 그래서 통장 보면서도 참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박성배가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호현마을에 머물던 사람들이 이주하거나 세상을 떠나고, 포도밭이 사라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마을을 둘로 나눠버린 서해안고속도로 고가도로의 건설이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전라남도 무안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1990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11년에 걸쳐 건설되었다. 이 가운데 호현마을을 지나는 고가도로의 구간은 1995년에 개통한 안산분기점과 일직분기점 구간에 속한다.

박성배 고속도로 같은 거 생길 때 나는 그랬어요, 아예. 이런 거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할 필요가 없는 거다. 좋은 일은 반대를 해도 안 되는 거고. 도로가 생겨야만 모든 물자 같은 게 공급이 빨리빨리 되고 이 회전이 빨리빨리 되는 거네. 이 고속도로 하나 생기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 동네에 가운데 길을 이렇게 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쁜 게 돼버렸지.

당시 호현마을 주민들은 서해안고속도로가 들어올 때, 마을을 우회하여 주택과 공장 등 건물 8채를 철거하는 노선, 가옥 3채만 철거되지만 도로가 휘어지면 서 마을을 관통하는 노선 중에서 마을을 우회하는 노선이 채택되기를 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마을을 관통하는 노선이었다.

고속도로 교각이 세워진 뒤, 호현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던 소나무도 사라졌다. 그러나 매년 10월 초하루, 날이 바뀌기 전인 오후 11시경, 통돼지·떡시루·과일을 나르던 사람들과 그 뒤를 잇던 긴 행렬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다.



박성배

박성배 : 이거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96년도 97년도까지만 해도 102가구가 살았어요, 이 마을이. 많이 이제 부서졌죠. 공장 들어가고 고속도로 생기면서 마을이 많이 훼손이 되어갔고. 지금은 거주하고 있는 것이 개인 집으로, 가옥 수가 한 34가구나, 36가구 정도 있고. 이 공장들 저 아래 그건 준공업지역이니까 거기에 이제 그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좀 그랬지. (중략) 그게 큰 잔치예요. 이게 부락의 잔치니까. 돼지 통돼지야, 통돼지. 그래갖고 이제 그걸 또 다 가서 제사 지내고, 동네 이장님이. 이장님이 그 사고지에다가 이제 쪽 이음을 다, 집집마다. 다 아무 사고 없게 도와주시고 그 집에 사시는 분 누구 있다는 거. 이런 거 다, 지금도 기억이 나. 이 집에는 누구 자손이 있는데, 아니면 회사 다니고 있는데 잘 다니게 해달라고 산신령님한테 비는 거야. 산제사니까. 그렇게 했어요. 동네 이장님이. 그 기억이 나요.



마을을 관통하는 서해안고속도로는 호현마을의 전통적 경관과 생활양식을 변화시켰다.

1990년대 후반만 해도 100여 가구가 두런두런 살던 호현마을에 이제는 30여 가구 남짓 남아있다. 박성배와 함께 등교하던 서면초등학교 31회 동창 6명도 모두 이사하거나 세상을 떠났다. 호현마을 토박이 박성배는 여전히 고향을 지키고 있다.

註

- 1 물왕저수지는 1944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호조벌에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한 저수지이다. 물왕골과 산현동 사이에 위치한다.
- 2 시흥시 포동 새우개마을은 소래염전 근처 마을이다.
- 3 국회단지라는 명칭에는 여러 설이 있으나, 그중 하나는 1975년에 완공된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설 과정에서 해당 부지에 거주하던 이들이 철거민이 되어 모여 살게 된 곳이라는 설이다.

집필(가나다순)

강신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수료
고제경 수원도시재단 차장
백민정 전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설명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수료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송지영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강사
오보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원
우승하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유현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윤유석 (사)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객원연구원
이하나 문화공동체 히응 대표
임근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조아현 서울대학교박물관 연구원
정아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석사수료
정연학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선도문화학과 특임교수
최미경 자유기고가

기획총괄

김현미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자료정리

설혜영, 김정서

편집·교정

백민정

어반스케치

서은주, 서향숙, 이강은, 하미경(안양어반스케치회)

안양시사 12 **박달동**

발행일 | 2025년 12월 15일

발행처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TEL. 031-8045-2064

디자인&인쇄 | 흥익기획
TEL. 02-2274-8110

발간등록번호


ISBN 979-11-94861-21-8

ISBN 979-11-94861-09-6 (세트)




THE HISTORY OF ANYANG CITY

中国地图出版社
048670



9 773111 948670 >



ISBN 978-7-5048-4096-8
ISBN 978-7-113-94867-0 (平装)